

통일과 평화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15, No.1 2023

15집 1호 · 202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차례

특집: 북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 류인태 · 허수 · 홍종욱 |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와 디지털 인문학 교육
: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교과목 개발을 중심으로11
- 고일홍 |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시대의 북한 고고학 비교
: 『조선고고연구』 ‘멀리서 읽기’ 55
- 장문석 · 최경희 |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과 『세계문학선집』 출판95
- 최윤영 | 북한의 독일 문학 번역
: 실러의 「빌헬름 텔」을 중심으로179

일반 논문

- 김규리 |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
: 조선예술영화 ‘보중’에 삽입된 김일성 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중심으로219
- 오은경 | 북관대첩비반환과 남북관계251
- 이문영 |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
: 국내 언론 보도의 사실 정합성 검토를 중심으로289

현장 보고

- 김재한 | 분단선 현장 속의 전쟁평화와 생태321
김대일 |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도와 DMZ 평화지도333

서평

- 유임하 | 숙고와 통찰, 북한 여성서사의 읽기와 다시 쓰기349

특집 북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우리 사회와 학계는 북한과 통일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다만 북한을 다룬 뉴스는 물론 학계의 관심도 핵과 안보, 식량 부족 등 현안을 다루는 정책 연구가 중심이다. 북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이고 북한 인식은 그저 혐오와 동정을 오가는 실정이다. 북한의 현실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위해서도 북한 사회의 상식과 교양을 구성하는 문학, 역사학, 철학 등 북한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절실하다.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2020년에서 2022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공동연구진은 ‘역사학과 고고학’, ‘한국문학과 외국문학’, ‘동양고전과 서양고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학술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로 편찬하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의식하였다. 첫째, 개별 연구에 대한 분석을 넘어 북한 학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세우고자 하였다. 북한 학계는 고립되어 있다는 선입견이 있다. 그러

나 북한의 학문 역시 유럽에서 발원한 근대 학문의 네트워크 속에 있었고, 통시적 측면에서 식민지 시기 학문과 연속성을 띠며, 공시적 측면에서 세계 학계 특히 사회주의적 지식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동시에 국가 주도로 위계화되어 정치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점 역시 북한 학계가 지닌 특징이다. 북한의 학술 논쟁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제기되어 토론을 거친 뒤 정해진 형식에 따라 결론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런 풍토에서 문학, 사학, 철학, 언어학 등 인문학 연구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수용에서 민족 주체성 강조로 변해 가는 북한 사회 변화를 충실히 반영했다.

둘째,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먼저 단행본, 저널,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한 뒤, 자료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정리하여 북한 인문학에 적합한 온톨로지를 설계했다. 다음으로 데이터 입력기를 통해 온톨로지에 맞는 Triple(S-P-O) Data를 생성하여 RDB에 적재했다. 끝으로 RDB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시각적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인 네트워크 그래프를 구현했다.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가 이용자와 만나는 주된 통로는 북한 인문학 위키다. 북한 인문학 위키는 하이퍼 링크가 내장된 서술형 텍스트를 기본으로 한다. 아울러 타임라인, 전자지도 등의 멀티미디어를 구사하여 이용자의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위키 페이지 내에 의미적 맥락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자료 아카이브 기능을 갖추었다.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가 채택한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통시적, 공시적으로 세계 학계와 연결되고 또 국가 주도로 위계화된 북한 인문학의 실태를 포착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이번 특집에서는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과정에서 작성한 네 편의 논문

을 모아 “북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류인태 · 홍종욱은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와 디지털 인문학 교육: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마이크로 디그리 교과 개발을 중심으로」를 통해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한 경험을 정리하였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교육부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역사정보’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에 포함된 과목인 ‘시맨틱 데이터 편찬’은 강의 플랫폼으로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사용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디지털 웹 환경에서 북한 인문학을 배움으로써 지식의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지식의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한다는 주체성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 인문학이 지식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고일홍,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시대 북한 고고학 비교: 『조선고고연구』 ‘멀리서 읽기’는 1986년부터 계간으로 발행된 『조선고고연구』의 전체 기사를 분석하여 북한 고고학 활용 전략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하였다. ‘멀리서 읽기’란 전체 기사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려는 시도다. 기사 제목으로 구성된 말뭉치 분석을 통해 김일성 ·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평양’의 중요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정일 · 김정은 시대 교시의 주요어가 ‘력사’에서 ‘민족’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혔다. 김정일 시대 주창된 ‘조선 민족 제일주의’가 역사학과 고고학 연구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장문석 · 최경희는 「『세계문학선집』 출판을 통해 본 북한의 ‘세계문학’」을 통해 북한의 ‘세계문학’ 번역 및 인식을 검토하였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 및 1980~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세계문학선집』을 기획 간행하였다. 두 사람은 한국, 중국, 일본의 도서관 등을 조사하여 북한이 발행한 『세계문학선집』 실물 자료를 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북한의 '세계문학' 구성이 1960년대 서구문학, 고전, 남성 작가 중심에서 1980년대 이후 서구문학, 사회주의문학, 아시아·아프리카 문학이라는 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여성 작가를 포함하고 번역자의 주체성도 드러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됨을 밝혔다. 아울러 1990년대 간행된 작품과 해설을 분석하여 '세계'와 '주체' 두 개념이 동시에 구성되는 양상도 드러냈다.

최윤영, 「북한의 독일문학 번역: 쉴러의 〈빌헬름 텔〉을 중심으로」는 프리드리히 쉴러의 드라마 〈빌헬름 텔〉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독일 문학 수용을 살폈다. 〈빌헬름 텔〉은 북한뿐 아니라 식민지기와 남한에서도 여러 차례 번역된 점에서 독일 문학 수용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북한의 문학 이론을 반영하는 번역본의 서문과 후기는 정치적 색채를 짙게 띠지만 실제 고전 번역에서는 이념적 색채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문학 및 번역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적 특수성과 인문학적 보편성이 공존하는 북한의 독일 문학 수용 양태를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이 '세계문학'이라는 공통의 독서 경험을 매개로 체제를 넘어 소통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홍종욱(서울대)

특집 논문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와 디지털 인문학 교육

: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교과목 개발을 중심으로*

류인태 (고려대학교)**

허수 (서울대학교)***

홍종욱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설계·구축한 논리와 이를 매개로 진행된 디지털 인문학 교육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는 학술 정보가 내포한 입체적 성격과 그것들 사이의 복잡한 지식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Semantic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1.202306.11>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이 논문의 게재료는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에서 지원 받았음.

** 제1저자

*** 제2저자

**** 교신저자(hongtsky@snu.ac.kr)

Data Processing) 방법론에 근거하여 설계·구축하였다.

둘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교육부의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문학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빅데이터 역사정보’ 과정의 하나로 ‘시맨틱 데이터 편찬’ 교과를 도입·개설하였다.

셋째, ‘시맨틱 데이터 편찬’ 교과 강의는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북한 인문학 및 한국 근대사에 관한 도메인 지식과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인 시맨틱 데이터 처리를 동시에 익히는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넷째, ‘시맨틱 데이터 편찬’ 교과의 수강생은 웹 환경에서 북한 인문학과 한국 근대사에 관한 지식을 다룸으로써, 아날로그 환경에서 지식을 소비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을 생산·유통하는 능동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북한 학계가 통시적·공시적으로 지식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 존재함을 확인하고 냉전과 분단 상황에서 전개된 북한 인문학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제어: 북한인문학, 북한인문학 데이터아카이브,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디지털 인문학

I. 들어가며: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

1.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과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2020년도부터 2022년도에 걸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¹⁾의 일환으로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하 본 연구)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기 ‘역사학과 고고학’, ‘한국문학과 외

1)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 참조(<https://ipus.snu.ac.kr/sun>).

국문학', '동양고전과 서양고전' 등 개별 인문학 분야에 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문학술 자료를 수집한 뒤, 그에 관한 내용을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로 편찬하고 큐레이션하는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해당 연구의 결과물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웹사이트로 구현되어 있다.²⁾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는 북한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온 인문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여러 학술지와 그에 실린 논문들 그리고 여타 단행본 등의 학술정보를 정리해서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유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추어 놓았다. 특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술 리포지터리가 단순 문자열(n-gram) 검색을 통해 문헌 자료의 메타데이터 정도만 출력해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학술지와 논문 간 수록 관계 및 연구자 간 학연과 직연으로 복잡하게 얽힌 북한 학술 정보의 지식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 기반의 아카이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학술 결과물을 웹상에 구현하는 연구 과업은, 북한에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역사, 문학, 고전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전통적 성격의 인문학 연구 활동이자,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서 유관 지식을 데이터로 변환·활용함으로써 기존 인문학 연구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실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꾸준히 확충하고 그것을 매개로 북한 인문학을 다루는 전 세계 연구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허브로서, 본 연구가 기능할 수 있을

2)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http://dh.aks.ac.kr/~nkh/index.html>).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학계에 보고한 바가 있다. 홍종욱·강수연·홍수현·김도민,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인문논총』 제78권 1호 (2021).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2. 인문학 교육에서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활용 가능성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로서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연구는 2023년 1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한편으로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추후 유관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축적해 나감으로써,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장기적으로 확장·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다.

예컨대 본 연구의 장기적 방향 가운데 하나는 아카이브에 기 구축된 데이터와 향후 구축할 데이터를 CSV, JSON, RDF 등의 웹 표준 형식에 맞추어 공공데이터로 가공해서 연구자 및 대중에게 공유하는 것이다.³⁾ 해당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 인문학에 관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데이터로 변환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북한 인문학과 관련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data model)을 먼저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그에 근거한 데이터를 일정 이상 규모로 가공·편찬한 다음 개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석 및 시각화 결과물 형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소위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의 맥락에서 인문 데이터 처리(humanities data processing)에 관한 폭넓은 접근이,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과정은 연구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문학 교육의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다. 북한 인문학에 관한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 학생

3) 공공데이터로서 인문학 데이터의 구축 및 가공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김바로, 「〈공공데이터법〉과 인문데이터: 공공기관 보유 인문데이터 공개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57호 (2022) 참조.

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①북한 인문학 자료를 수집하는 경험을 통해 북한의 학술문화·풍토에 관한 기초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②북한 인문학 데이터 모델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인문학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기본적 문제의식을 익힐 수 있으며, ③북한 인문학 데이터를 편찬하는 본격적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에 관한 지식을 능동적으로 접하는 가운데, ④북한 인문학 데이터를 분석·시각화하는 과제를 통해서 인문적 성격의 데이터 시각화에 관한 이해와 경험을 확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북한 인문학’이라는 도메인 지식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디지털 방법론을 익힐 수 있는 소위 ‘융합적’ 성격의 교육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인문학 교육(digital humanities education)의 일환으로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한 정규 교육 및 세미나와 워크숍 그리고 콜로키엄 형식의 학술행사가 전 세계의 대학(원)에서 꾸준히 개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⁴⁾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한 방법론 및 절차를 교육적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적 프로세스가 갖는 순기능을 고려할 때,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디지털 환경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접목한 인문학 교육의 방향 및 내용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최근의 시류를 생각할 때도, 북한 인문학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필연적 흐름이며, 현 시점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4) 미국 학계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에 관해서는, 이지수·이혜은, 「미국 대학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36권 4호 (20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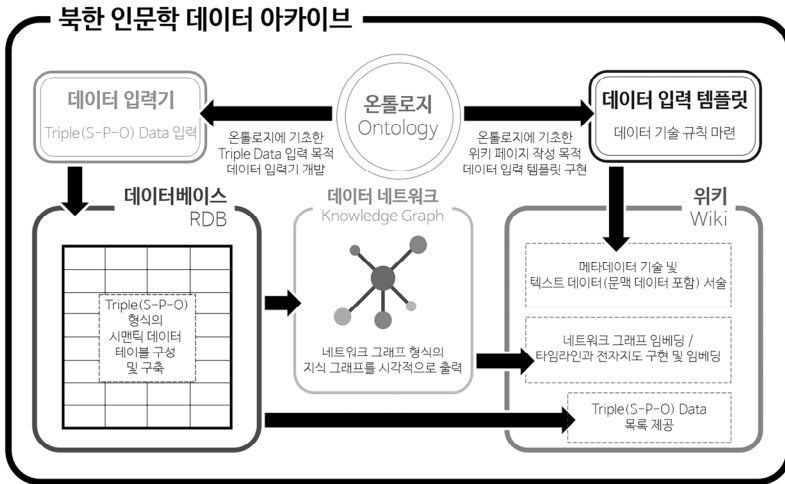
II.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의 설계와 구축

1.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 인문 데이터 처리 방법론

복잡한 지식을 입체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계형데이터베이스(RDB)와 문자열(n-gram) 검색에 기초한 데이터 처리 기술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인문학 연구는 각종 문헌을 통해 발견되는 다양한 지식이 입체적으로 결합되는 양상이 보편적이고, 그러한 여러 지식 사이의 의미적 연결 고리를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중심에 자리하기 때문에, 인문학 연구에서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할 때는, 그러한 맥락에서 유효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문학 연구에서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근본적 의도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여러 질적(qualitative) 논의의 줄기를 압축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표준적 성격의 데이터 스키마(schema)를 개발하여, 해당 스키마를 기준으로 준용 가능한 형식의 학술 데이터를 디지털 환경에서 편찬·공유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인문학 연구자들은 전통적으로 개인에 의한 ‘논문(academic paper) 작성’과 ‘학회지(academic journal) 게재’라는 학술적 인준 형식에 의존해 연구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writing)’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해 편찬한 ‘협업 기반의 데이터셋(dataset)’을 폭넓게 개방·공유함으로써, 유관 지식을 자유롭게 유통하고 그로부터 다채로운 맥락의 학술적 담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지식이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정교한 데이터셋이 디지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면, 소위 ‘공공데이터’로서 해당 학술 데이터가 유관 분야에서 활용될 여지는 무궁무진한 것이다.

〈그림 1〉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개념도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편찬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맥락의 정보가 복잡하게 연결되는 북한 인문학의 세계를 정밀한 체계의 데이터로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웹에서 통용되는 표준적 성격의 포맷을 준용해 학술 데이터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표현’과 ‘공유’는 디지털 인문학의 중심 철학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는 그러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큰 줄기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⁵⁾ 그에 따라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Semantic Data Processing)⁶⁾ 방법론에 입각한 온톨로지(ontology) 디자인과 지식그

5) ‘표현’과 ‘공유’로 대표되는 디지털 인문학의 줄기와 그 구체적 사례에 관해서는 ‘김지선·유인태, 『지식의 공유와 표현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해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례 검토』 『인문논총』 제79권 2호 (2022), 391~427쪽.’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6)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개별 데이터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전제로 하나의 커다란 지식그래프로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론을 말함

래프(knowledge graph) 구현 그리고 위키(wiki)를 활용한 데이터 편찬 환경 마련 등을 데이터 아카이브 구현 과정에서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았다. <그림 1>은 그러한 여러 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표현한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의 구축 개념도이다.

인문학 연구에서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을 활용해 종합적인 성격의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 유형의 문헌에 담긴 다채로운 층위의 정보를 균질한 형식으로 정리하되, 그 사이의 복잡한 의미적 관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최대한 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로 표방되는 인문학 연구 본연의 맥락을 데이터 처리 기술과 연계한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론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북한 인문학 자료의 외연이,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채로운 영역의 지식 세계를 포괄하는 만큼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선형적 읽기로는, 그와 같은 다양한 맥락으로 얽힌 정보들 사이의 유의미한 지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편찬한 데이터를 매개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선형적 읽기를 전개함으로써, 북한 인문학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다. 그래프를 구성하는 각각의 노드(node)로서 식별자(id)를 포함해 대상자원의 고유한 속성(DataProperties)을 정의하고, 개별 노드와 노드 데이터 사이의 의미적 관계(ObjectProperties) 또한 엣지(edge) 데이터로 정의함으로써, 여러 정보와 그것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Triple(S-P-O, Subject-Predicate-Object) 형식의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Triple(S-P-O)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활용될 수 있는데, 데이터를 RDF나 OWL 형식으로 가공할 경우 SPARQL 기반의 의미 추론 검색이 가능하고, Graph DB로 구축할 경우 그래프 질의어(Cypher Query)를 활용해 데이터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네트워크 그래프 형식으로 출력해 살펴볼 수 있다.

2. 온톨로지 디자인과 지식그래프 구현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Triple(S-P-O) 형식의 데이터를 편찬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RDF와 OWL 포맷의 데이터 구축 또는 GraphDB 구현을 전제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온톨로지(Ontology)⁷⁾ 디자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경우 데이터 모델(Data Model) 디자인을 전제로 한다면, 시맨틱 데이터 구축은 시맨틱 웹(Semantic Web) 기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욱 확장된 개념의 데이터 모델로서 도메인 온톨로지 설계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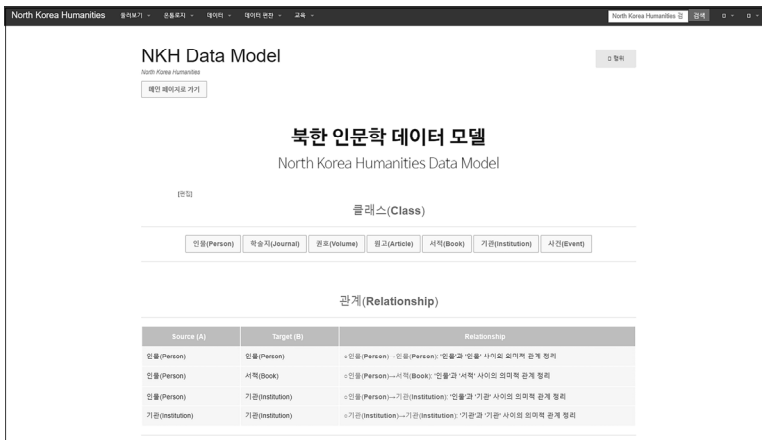
북한 인문학 자료는 기본적으로 학술지(Journal)와 해당 학술지의 구체적 권호(Volume) 그리고 특정 권호에 게재된 논문(Article)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논문은 아니지만 주요한 연구 서적(Book)과 논문 및 서적을 저술한 인물(Person) 그리고 유관 단체(Group) 및 기관(Institution) 또한 중요한 정보다. 더 나아가 연구자로 활동한 인물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Event)과 인물의 활동지나 기관의 소재지로서의 공간(Place) 또한 학술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온톨

7) 온톨로지는 특정한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복잡한 정보 요소들의 세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체재를 의미한다. 관련해서 그루버(Thomas A. Gruber)의 'an explicit formal specification of a shared conceptualization'이라는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언급되는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가독(Machine-readable) 형식으로 데이터를 조직하는 것이 핵심이다. Triple(S-P-O) 형식의 데이터 구조는 기계가독형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뼈대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온톨로지는 대체로 클래스(Class), 인스턴스(Instance), 속성(Property, DataProperties), 관계(Relation, ObjectProperties)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클래스는 대상 세계의 범주(classification)를 의미하며, 인스턴스는 범주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로서의 실체(entity)를 가리키며, 속성은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특성(feature)을 나타내며, 관계는 클래스 및 인스턴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정의한다.

로지 체계 내에서 각각의 클래스(Class)로 구성된다.

클래스에 소속된 개체들은 서로 간에 의미적 관계(Relationship, Object-Properties)를 구성하는데, 해당 관계 정의는 Triple(Subject-Predicate-Object) 형식 즉 개별 클래스에 속하는 주어(S)와 목적어(O)로서의 개체들 사이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예컨대 어떤 인물(Person)이 특정 논문(Article)의 저자(writer)라거나, 특정 논문(Article)이 어떠한 학술지 권호(Volume)에 일부분으로 수록되어 있다거나(isPartOf) 하는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클래스(Class)와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설정을 바탕으로 개별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들에 공통으로 부여되는 속성(Attribute, DataProperties)을 정의하면, 기본적인 온톨로지 디자인의 일개가 갖추어진다. <그림 2>는 그와 같은 클래스와 관계 그리고 속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한 북한 인문학 데이터 모델을 소개하는 페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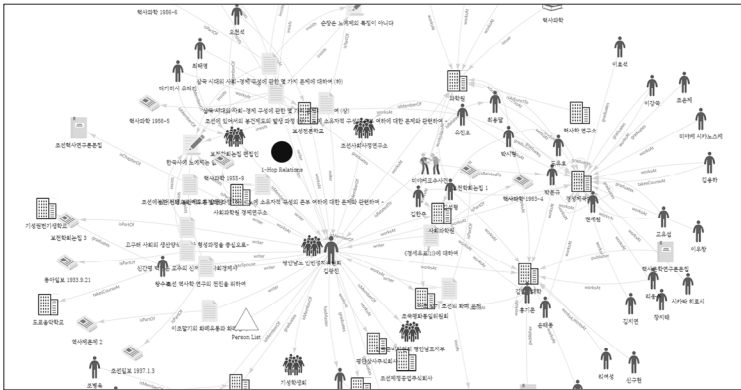
<그림 2> 북한 인문학 데이터 모델(NKH Data Model) 페이지⁸⁾



8) <북한 인문학 데이터 모델> 페이지, <<http://dh.aks.ac.kr/~nkh/wiki/index.php>>

데이터 모델(온톨로지)을 바탕으로 Triple(S-P-O) 형식으로 입력된 데이터셋을 활용해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3>은 북한 인문학 데이터 네트워크 시각화 페이지(<http://dh.aks.ac.kr/~nkh/search/nkhSearch.html>)에서 특정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지식그래프 형태로 출력되는 결과물의 예시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개발한 RDB(SQL) 연동 vis.js 기반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⁹⁾을 활용해 구현한 것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문 데이터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림 3> 북한 인문학 데이터 네트워크 검색을 통한 출력 예시



3. 미디어위키와 데이터 편찬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기초한 데이터 아카이브의 특징은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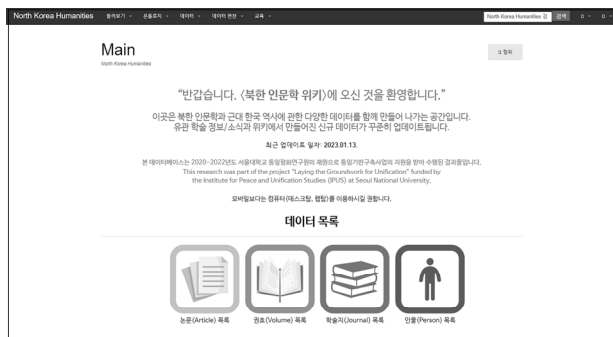
NKH_Data_Model}

9) 본 연구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데 활용한 소프트웨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만든 <Semantic Database Visualization> (http://dh.aks.ac.kr/Edu/wiki/index.php/Semantic_Database_Visualization)이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다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 유관 분야의 데이터를 다각도로 기술(description)하고 지속적으로 편찬해 나가기 위한 웹 기반의 데이터 구축 플랫폼이 필요하다. 위키(Wiki)는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위키는 간단한 마크업 언어로 정보를 편찬할 수 있게끔 한 소프트웨어 엔진이자, 편찬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누적될 있게끔 한 데이터베이스이자, 그 모든 것들이 웹 환경에서 다수의 인원에 의해 구동될 수 있게끔 한 웹사이트이다.¹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위키피디아(Wikipedia)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를 편찬해 나가는 협업 기반의 연구를 디지털 환경에서 전개할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플랫폼 가운데 하나가 위키이다. 참여자 각자가 정리한 정보와 지식을 온라인상의 공동 공간에 수집·관리·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능 및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림 4〉 북한 인문학 위키 메인 페이지¹¹⁾



10) 김지선·장문석·유인태,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제60집 (2021), 376쪽.

11) 〈북한 인문학 위키〉 〈<http://dh.aks.ac.kr/~nkh/wiki/index.php/>〉

위키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된 여러 위키 소프트웨어가 상용화·운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미디어위키(MediaWiki)를 활용했다. 미디어위키는 위키 마크업(Wiki Markup)이라 불리는 언어를 사용하며 위키에서 생성된 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에 저장해 관리한다.¹²⁾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으로 개별 문서 데이터를 출력(내보내기 기능)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통일된 형식의 스키마를 지정하고, 그것을 준용한 형식의 데이터 편찬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Ⅲ.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역사정보 마이크로 디그리

1. 혁신융합대학 개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교육부 주관 하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및 전문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 시작하여 2026년까지 6년간, 8개 분야 1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으며, 이를 위해 참여 대학이 교육 및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¹³⁾

서울대학교는 빅데이터와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이하 ‘사업’)에는 서울대

12) 김지선·장문석·유인태,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376쪽.

13) 혁신융합대학에 관한 개괄적 내용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웹사이트의 〈사업단 소개〉 페이지(https://bigdatahub.ac.kr/?page_id=217)를 참고하였다.

를 비롯하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한동대학교의 7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이하 ‘사업단’, 단장 김흥기) 본부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빅데이터 인재양성에서 인문학의 성찰성과 인문 콘텐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인문대학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그동안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 즉 ‘코어’ 사업에서 인문데이터과학연계전공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또한 인문대학 산하에 ‘디지털 위원회’를 창설해서 디지털 기술을 매개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제반 사안을 심의해 왔다. 이런 바탕 위에서 사업단의 요청이 있자, 인문대학 학장단은 인문학과 디지털 신기술의 접목이 인문학 연구 및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여 참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문대학은 사업 신청 단계에 이미, 다수 교원의 참여 속에 31개의 관련 교과목 개발안을 수합하여 신청서에 반영한 바 있다.¹⁴⁾

본격적인 사업 출범 후 사업단은 ‘빅데이터 분야의 다양성을 함양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 분산·융합대학 모델 구축’을 비전으로 삼았다. 또한 구체적 목표로 ‘빅데이터의 본질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전공·지역·젠더·전문성 면에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등을 표방하였다.

2. ‘빅데이터역사정보’ 교과

사업단은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2021년 9월, ‘연계전공 및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이하 ‘기획연구’) 과제와 ‘교과목 모듈화 기획 및 개발’(이하 ‘교과목 개발’) 과제를 발주하

¹⁴⁾ 허수, 「교수논단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 『서울대 인문대학 소식지』 제53권 (2021년 가을), 7쪽.

였다. 인문대학에서도 사업에 관심을 가진 교수들이 이 과제에 참여하였다. 후자의 교과목 개발은 개인 차원에서 참여하였으며, 전자의 기획연구에는 기획팀을 구성하여 팀 차원에서 참여하였다. 특히 인문대학은 기획연구와 관련해 ‘언어인지’·‘역사정보’·‘디지털 스토리텔링’·‘빅데이터 문화연구’(이상 가칭)의 4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목표를 세웠다. 각 기획팀은 개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여 2022년 1월, 개별 과정에 관한 설계안을 담은 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였다.¹⁵⁾

인문대학이 기획한 4개의 교과과정 가운데 승인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역사정보’ 교과였다. ‘역사정보’는 2023년 1월, ‘빅데이터역사정보’(Big Data in Historical Informatics)라는 이름으로 ‘서울대 교과인증과정’이 되었다. 당시 승인된 교과인증과정은 학부 25개, 대학원 4개였다. 서울대 교무처가 작성한 “「서울대학교 교과인증과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과인증과정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화된 지식을 유연하게 학습하고 인증 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교과과정”이다.¹⁶⁾ 참여 학생이 9학점 이상 15학점 이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이수내역을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인증 받게 된다.¹⁷⁾

‘빅데이터역사정보’(이하 ‘역사정보’)는 국사학과가 주관기관이며, 한국사학 전공, 동양사학 전공, 서양사학 전공 등에서 5명의 전임교원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 목표로는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역사교육 모델 창안”과 “역사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사적 사고력 함양’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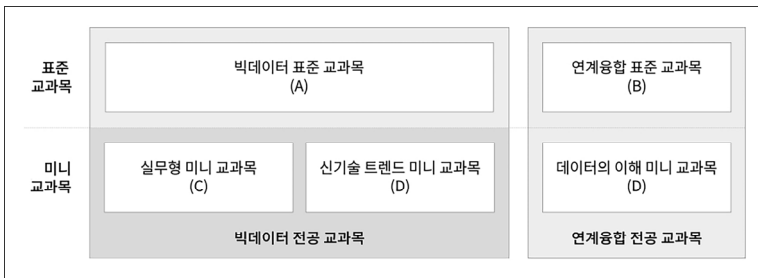
15) ‘역사정보’는 ‘언어인지’와 함께 기획팀을 구성하여 『언어인지 및 역사정보 연계 융합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개발 결과보고서 (2022년 1월 14일)』를 제출하였다.

16)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서울대학교 교과인증과정」 운영 가이드라인”(2023.1.30.)

17) 서울대학교 학칙 제77조의2(교과인증과정 이수) <<https://www.law.go.kr/LSW//schlPubRulInfoP.do?schlPubRulSeq=2200000101435>> 등을 참조.

색” 등을 앞세웠다. 소속 학생들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역사정보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방안과 분석력을 갖추고, 이를 졸업 후 자신의 연구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교과목 구성도



‘역사정보’ 과정의 교과목은 총 23학점이며, 3학점 과목 4개, 1학점 과목 11개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2023년 1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7개, 15학점이다. ‘빅데이터 개론 I’, ‘프로그래밍 기초’, ‘기초통계학’(이상 3학점)은 〈그림 5〉의 ‘(A) 빅데이터 표준 교과목’에 해당하며,¹⁸⁾ ‘언어데이터과학’(3학점)은 인문대학 언어학과 전공 과목으로 ‘(B) 연계융합 표준 교과목’에 해당한다. 주로 1학점으로 된 미니교과목 ‘빅데이터로 읽는 한국근대사 1’, ‘미디어위키를 활용한 역사 데이터 편찬’, ‘디지털 역사학과 동양사의 이해’ 등은 ‘(D) 연계융합 전공 교과목’에 해당한다. 이외에 ‘역사GIS입문’, ‘한국사 디지털 원문자료의 이해’, ‘서양사 디지털사료의 이해’ 등 8개의 미니교과목들도 개발되고 있거나 조만간 개발될 예정이다.

한편, 본 과정에서는 빅데이터의 형태와 취급 방식에 따라 ‘역사정보

18) 교과목 구성도는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웹사이트의 〈표준교과목〉 페이지 (https://bigdatahub.ac.kr/?page_id=483) 를 참고하였다.

텍스트마이닝’, ‘역사지리정보’, ‘시맨틱데이터 편찬’ 세 가지 갈래로 세부 분야를 구분하고 있다. ‘역사정보 텍스트마이닝’ 분야는 텍스트 중심 데이터의 이해와 취급을, ‘역사지리정보’ 분야는 지리정보 중심 데이터의 이해와 취급을 지향하며, ‘시맨틱데이터 편찬’ 분야는 데이터의 연계와 자기표현 및 공유 등 데이터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소통을 지향한다.¹⁹⁾

교과목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될 경우, 당초의 구상대로 세 개 분야에 대응한 세 개의 이수체계를 완비해서 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수강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이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특정 분야에 집중된 이수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세 분야에 두루 걸쳐 초급 단계의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빅데이터역사정보에 관한 개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추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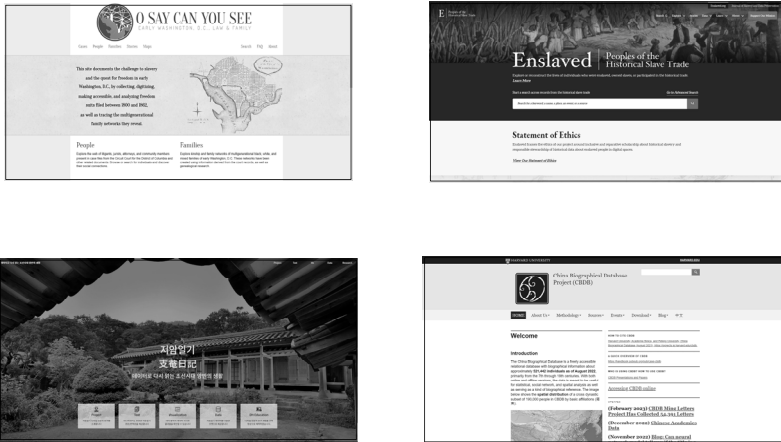
3.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과 역사 데이터 편찬 교육

‘빅데이터역사정보’ 과정의 세 분야인 ‘역사정보 텍스트마이닝’, ‘역사지리정보’, ‘시맨틱데이터 편찬’ 가운데서도 ‘시맨틱데이터 편찬’ 유관 교과는 디지털 인문학의 다양한 지류 가운데서도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을 접목한 인문학 연구 방법론과 관련이 있다. 앞서 II 장에서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지만, 인문학 연구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질적(qualitative) 연구의 시각을 데이터 처리의 차원에서 연장하려고 하는 목적이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 방법론에 내포되어 있다.

19) 세 분야에 관한 내용은 『언어인지 및 역사정보 연계융합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개발 결과보고서 (2022년 1월 14일)』의 ‘III. 역사정보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부분을 참조하였다.

20)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O Say Can You See> (<<https://earlywashingtondc.org/>>), <Enslaved> (<<https://enslaved.org/>>), <CBDB> (<<https://projects.iq.harvard.edu/cbdb>>),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생활> (<<http://jiamdiary.info/>>).

〈그림 6〉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을 접목한
국내외 디지털 역사학 연구 사례²⁰⁾



이와 관련해 역사학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질적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역사 데이터를 편찬하는 경험은, 데이터 기반의 역사학 연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소양에 해당한다. 데이터를 잘 다룬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구축해놓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잘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직접 데이터를 편찬하고 잘 가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아날로그 환경에서 이루어져 온 인문학 연구의 질적 차원을 디지털 환경의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연장한다는 측면에서 여타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며, 그렇기 때문에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디지털 인문학 유관 교과를 개설·운영할 경우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초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그림 6〉에 제시한 여러 디지털 역사학 연구 프로젝트는 그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도 유관 방법론을 접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V. <미디어위키를 활용한 역사 데이터 편찬> 교과 소개

1. 교과 개요

역사 데이터 편찬 교육은,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일환으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역사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자유롭게 유통하는 실재로서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정리하는 과정과 축적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익히게 되면, 계량적 방법론에 입각해 대규모 역사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창의적 관점에 입각한 역사 데이터 시각화 및 큐레이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좀처럼 시도하기 어려운 방식의 학술적 접근을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사 데이터 편찬 과정의 구체적 도구로서 위키(wiki)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위키가 텍스트를 포함해 여러 미디어 형식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이퍼링크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조직·표현할 수 있는 손쉬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위키의 마크업(markup) 언어는 하이퍼링크의 무궁한 연결성과 다채로운 확장 기능(extension) 지원을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지식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여러 형식의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그것들이 입체

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수의 참여자가 각기 작성한 정보가 실제 링크로 연결되는 결과는, 각자의 몫이지만 동시에 함께 하는 과업으로서 역사 데이터 편찬 과정을 경험하게끔 한다. 역사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유관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유관 내용을 위키 환경에서 기록하는 전반적 과정은 ‘데이터’를 매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마크업 기반의 위키 문법을 익히고, 위키를 활용한 역사학 연구 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위키 환경에서 역사 데이터를 다각도로 다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이 이루어짐과 함께 실제 역사문화 자원을 대상으로 위키 기반의 데이터 편찬 실습을 진행할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역사 데이터를 편찬하기 위한 기본적 이해를 습득할 수 있다. 단순히 미디어위키 문법과 확장기능 사용법을 터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위키를 통해 역사학 데이터를 직접 편찬하는 경험을 하고, 그로부터 데이터 기반 역사학 연구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역사 데이터 편찬 교육의 핵심적인 목적이라 할 것이다.

〈미디어위키를 활용한 역사 데이터 편찬(Creating History Data Based on MediaWiki)〉 강의는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의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교과과정의 일환으로서 미니교과목(1학점, 5주강의)으로 개설되었다. 강의의 절반은 사전 녹화가 이루어졌으며,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형식으로 사전 녹화한 영상을 학생들이 시청하고 현장강의에 참여하면, 현장에서는 토론과 함께 데이터 처리를 실습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2. 5주간 교육 과정과 내용

15주 이상 이루어지는 3학점 단위의 일반적인 학부 강의와 달리 본 교과와 경우 5주간 진행되는 1학점 단위 마이크로디그리 강의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강의 내용을 기능적으로 압축해서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15주 강의 내용 가운데 1/3 분량을 잘라낸다고보다도, 완결된 형식의 15주 강의 내용을 미리 디자인하고 그것을 1/3로 압축하는 형태에 더 가깝다.

그리고 본 교과와 경우 ‘미디어위키(MediaWiki)’라는 소프트웨어 활용 실습이 중심이 되지만, 그에 앞서 인문학 자원을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화하고 처리하는 맥락이 전제되기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에 관한 기초적 이해가 우선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미디어위키를 다루기 위한 기초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그로부터 실제 미디어위키를 활용해 역사 데이터를 편찬하는 실습을 진행하는 데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되는데,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개론적 내용을 함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 구성에 있어서 더욱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1주차는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개론적 내용에 관한 전달을, 2~3주차는 미디어위키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법에 관한 전달을, 4~5주차는 미디어위키를 활용해 역사 데이터를 편찬하는 실습을 각기 진행하는 것으로 총 5주 강의를 디자인하였다. 미디어위키라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되 역사 데이터 편찬의 맥락에서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문제의식을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라 하겠다. 하단의 표는 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미디어위키를 활용한 역사 데이터 편찬〉 주차별 교과 내용

주차	주제	소주제	내용	강의형식
1주차	디지털 인문학과 역사 데이터	디지털 인문학의 기초 (1H)	○디지털 인문학 개괄 -디지털 인문학의 형성과 전개 -디지털 인문학의 특징과 의미	동영상 (30M) 이론
			○디지털 환경의 진화와 인문학 연구 -디지털 환경과 인문학 연구의 변화 -디지털 환경과 인문학의 연결 양상	현장강의 (30M) 이론
		해외의 디지털 역사학 연구 사례 (1H)	○해외의 디지털 역사학 연구 사례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 -데이터 시각화/큐레이션 구현 사례	동영상 (30M) 이론
			○해외 디지털 역사학 사례 분석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 사례 -데이터 시각화와 큐레이션 사례	현장강의 (30M) 이론
		데이터 기반 역사학 연구 (1H)	○국내의 디지털 역사학 연구 사례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 -지암일기 데이터아카이브 구현 사례	동영상 (30M) 이론
			○국내 역사학 데이터 살펴보기 -삼일운동 데이터의 구조와 특징 -지암일기 데이터의 구조와 특징	현장강의 (30M) 이론
2주차	위키와 역사데이터 편찬 연구	위키와 글쓰기 그리고 하이퍼 텍스트 (1H)	○위키(Wiki) 개괄 -위키의 탄생과 역사 -위키의 기능과 활용 사례	동영상 (30M) 이론
			○위키, 전자글쓰기, 데이터 -하이퍼텍스트와 위키 문서 -위키의 '내보내기'와 XML 데이터	현장강의 (30M) 이론
		위키와 데이터 그리고 집단지성 (1H)	○위키데이터와 집단지성 -위키데이터의 현황과 특징 -위키데이터의 구성과 활용	동영상 (30M) 이론
			○위키데이터 다루기 -위키데이터 쿼리(SPARQL) 기초 -위키데이터 쿼리(SPARQL) 응용	현장강의 (30M) 이론
		위키 기반 역사학 연구사례 (1H)	○위키 기반 디지털 역사학 연구 사례 -역사문화 기초 아카이브 구축 사례 -역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	동영상 (30M) 이론
			○위키 기반 역사 데이터 구축과 가공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위키와 XML데이터 가공	현장강의 (30M) 이론
3주차	미디어	미디어	○미디어위키 문법의 기초1	동영상

주차	주제	소주제	내용	강의형식
	위키의 문법과 활용	위키 문법의 기초 이해1 (1H)	-새 문서 생성 및 문단과 문장 구성 -글자 입력 및 하이퍼링크 활용	(30M) 이론
			○나의 위키 페이지 작성 실습1 -새 문서 생성 및 문단과 문장 구성 -글자 입력 및 하이퍼링크 활용	현장강의 (30M) 이론
		미디어 위키 문법의 기초 이해2 (1H)	○미디어위키 문법의 기초2 -표 만들기, 주석 달기와 출처 표기 -문서 분류와 위키 문법 적용 취소	동영상 (30M) 이론
			○ 나의 위키 페이지 작성 실습2 -표 만들기, 주석 달기와 출처 표기 -문서 분류와 위키 문법 적용 취소	현장강의 (30M) 이론
미디어 위키와 멀티미디어 리소스 (1H)	○멀티미디어 자료의 삽입과 활용 -이미지, 동영상, 문서 삽입 -외부 웹 리소스 임베딩	동영상 (30M) 이론		
	○나의 위키 페이지 작성 실습3 -이미지, 동영상, 문서 삽입 -외부 웹 리소스 임베딩	현장강의 (30M) 이론		
4주차	역사위키 문서 편찬실습 (응용)	북한인문학 위키와 역사자료 수집 (1H)	○북한인문학 위키와 역사 정보 -북한인문학 데이터 편찬 프로젝트 -북한인문학 데이터 위키와 역사정보	동영상 (30M) 이론
			○근대 역사자료 수집과 정리 -사료의 개념 및 이해 -역사자료 찾기와 인용	현장강의 (30M) 이론
		역사위키 문서편찬 실습 (1H)	○역사정보 위키 문서 작성 맥락 -인물 정보 페이지 작성 규칙/맥락 -기타 정보 페이지 작성 규칙/맥락	동영상 (30M) 이론
			○역사정보 위키 문서 작성 실습 -인물 정보 페이지 작성 실습 -기타 정보 페이지 작성 실습	현장강의 (30M) 이론
		역사위키 문서 편찬과 Triple Data (1H)	○위키 문서 작성과 데이터 기술 -위키 문서 작성과 데이터 모데 -Markup과 Triple 데이터 기술	동영상 (30M) 이론
○위키에서 Triple 데이터 구축 실습 -위키 문서 서술정보 마크업 실습 -위키 문서 Triple 데이터 구축 실습	현장강의 (30M) 이론			
5주차	역사위키 문서 편찬실습	역사정보 활용 타임라인	○Timeline 구현 및 임베딩 -Timeline.js 활용 spread sheet 작성 -web 게시와 Timeline 임베딩	동영상 (30M) 이론

주차	주제	소주제	내용	강의형식
	(심화)	구현실습 (1H)	○Timeline 구현 및 임베딩(실습) -Timeline.js 활용 spread sheet 작성 -web 게시와 Timeline 임베딩	현장강의 (30M) 이론
5주차	역사위키 문서 편찬실습 (심화)	역사정보 활용 네트워크 그래프 구현실습 (1H)	○Network Graph 시각화 -Network Graph의 개념과 이해 -Network Graph 시각화 구현	동영상 (30M) 이론
		위키와 데이터 그리고 역사학 (1H)	○실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토론 ○데이터 편찬 작업과 역사학 연구의 관계 에 관한 논의 진행	현장강의 (1H) 이론

3. 평가 기준과 그 의미

디지털 인문학 교과는 여타 인문학 교과와 비교할 시 실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고려하되 실습을 통해 이론에 관한 숙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 방안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강의를 통해 전달받은 특정한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강의에서 배운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지식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 강의의 경우 5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시험(test)을 안배하지 않고, 3가지 맥락 총 4개의 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 내용을 마련하였다. 아래는 개별 과제 항목과 각각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 과제1: Wiki Document 작성

-4주차 2번째 소주제 ‘역사위키 문서 편찬 실습’ 강의를 통해 개인별로 부여한 위키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역사 인물, 사건, 공간, 문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정리해서 약속된 형식에 따라 위키 문서를 작성한다.

○ 과제2: Triple(S-P-O) Data 기술

-4주차 3번째 소주제 ‘역사 위키문서 편찬과 Triple Data’ 강의를 통해 개인별로 부여한 위키 표제어의 유관 Triple Data를 기술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표제어와 관련된 역사 인물, 사건, 공간, 문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정리해서 약속된 형식에 따라 데이터를 구축한다.

○ 과제3: Timeline 시각화 구현

-5주차 1번째 소주제 ‘역사 정보 활용 타임라인 구현 실습’ 강의를 통해 개인별로 작성한 위키 문서와 Triple Data를 바탕으로 Timeline 시각화 구현 과제를 수행한다.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표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맥락의 역사적 사실과 유관 정보를 정리해서 Timeline 형식으로 시각화한다.

○ 과제4: Network Graph 시각화 구현

-5주차 2번째 소주제 ‘역사 정보 활용 네트워크 그래프 구현 실습’ 강의를 통해 개인별로 작성한 위키 문서와 Triple Data를 바탕으로 Network Graph 시각화 구현 과제를 수행한다. 표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맥락의 유관 정보를 정리해서 Network Graph 형식으로 시각화한다.

과제1(위키 문서 작성)은 역사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raw data를 수집·정리하는 과업과 관련이 있다. 사료 또는 2차 자료를 읽고, 그로부터

찾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기초적 내용을 발췌해서 기술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라 하겠다. 과제2(트리플 데이터 기술)는 질적 관점에 입각해 raw data를 가공하는 과업이다.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선형적(linear) 텍스트로부터 비선형적(non-linear) 데이터를 추출하는 훈련이라 하겠다. 과제3, 4(시각화 구현)는 편찬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결과물을 표현하는 작업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통상적으로 시각화(visualization)는 창의적 표현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데이터 스키마에 기초한 데이터 표현 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이 있다.

4. 수업 진행 내용과 결과

〈미디어위키를 활용한 역사 데이터 편찬〉 강의는 2023년 1학기 3월 한 달 간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은 앞서 소개한 교육 과정에 참여해 4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집중하였다.

수강생들은 대체로 북한 학자가 쓴 글을 이전에 접한 경험이 없었으며, 유튜브나 위키피디아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접해 본 경험 또한 없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기에, 과제를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는 웹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웹에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내 특수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기에, 학부생으로서 수강생이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겪었을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 수강생이 북한에 관한 전문적 이해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별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찾은 정보를 수집·검토·정리하게끔 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래는 위키 페이지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 관해 한 수강생이 남긴 소감이다.

“여러 북한의 웹사이트가 한국에서 막혀있어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맡은 ‘도상록’은 그나마 한국에 관련 논문이 있고,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에 관련 문서가 있었지만, 중국의 바이두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도상록’에 관한 문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북한 사이트는 접근하기 어렵고, 일본 웹사이트의 경우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찾아볼 수 없었기에 자료조사를 깊게 하진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20일자 <조선의 오늘>에서 ‘도상록’과 관련된 자료를 게재하기 전에, 나무위키나 여러 기사에 사용된 ‘도상록’ 사진의 첫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사진 첨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대백과사전>의 ‘도상록’ 사진을 올려야 하나 고민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큰 어려움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 학교 특수자료실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여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요청한 자료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웹의 참고자료 부분에서 확인한 자료 이외에 또 다른 ‘도상록’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상록’이 북한에서 한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문을 직접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하면 좋았을 텐데, 제 물리학 지식이 이러한 논문을 쉽게 읽어 나갈 정도는 아니었고, 논문 원문도 찾기가 어려워서 연구 관련 부분은 자세히 작성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수강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 아쉬움을 위주로 소감을 풀어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을 거쳐 나온 정보와 지식을 위키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역사 정보를 다루는 훈련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은 그러한 사유의 결과물로서 수강 학생이 작성한 위키 페이지 예시이다.

21) <북한 인문학 위키>의 ‘도상록’ 페이지 <<http://dh.aks.ac.kr/~nkh/wiki/index.php/도상록>>

〈그림 7〉 수강 학생이 작성한 위키 페이지 예시²¹⁾



과제물로서 위키 문서를 작성하는 경험은 여타 인문학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보고서(레포트) 작성 및 제출과는 사뭇 다른 교육적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여러 정보를 기술한 위키 페이지는 평가가 끝나고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웹상에 그 내용이 계속 남는다. 나의 지식 활동이 ‘완결된’ 것으로서 평가를 끝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완결’된 것으로서 온라인에 계속 유지·보존된다고 생각하면, 과제로 주어진 정보와 지식을 기술하는 동인과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래는 그에 관한 수강 학생의 소감이다.

“보고서(레포트)는 교수님과 수강생만 읽고 묻혀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와 위키 문서를 작성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과제로서 대충하고 끝내자는 느낌이 큰데, 위키 문서는 앞으로 여러 연구자분과 수강생분들, 또는 대중들이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키 페이지 작성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닌, 표, 그림, 타임라인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작성

해볼 수 있으므로, 작성할 때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위키 문서 작성은 수강 학생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의 지식 활동이 ‘종료’없이 늘 ‘시작’과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온라인상에서 내가 수집·검토·정리·서술하는 정보와 지식이 ‘개인’인 나의 지식 활동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의 관심과 이해 가운데서 비판적으로 검증·확인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아날로그 환경과는 다른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지식 유통 체제를 갖춘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위키 문서 작성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은 <그림 8>, <그림 9>과 같이 Triple Data를 기술(description)하고, 소규모지만 Timeline 형식의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구현하는 작업도 과제로 수행하였다. 짧은 기간이라 수강생들이 그에 관한 전문 지식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편으로 선형적 텍스트로부터 비선형적 데이터를 추출하고, 유관 맥락에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역사 정보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이 된다.

<그림 8> 수강 학생이 과제로 기술한 Triple Data 예시²²⁾

TripleData [편집]		
Source (A)	Target (B)	Relationship
Person: 도상록	Institution: 영성고등보통학교	A graduates B
Person: 도상록	Institution: 계교중학교	A graduates B
Person: 도상록	Institution: 도곡제국대학	A graduates B
Person: 도상록	Institution: 송도고등보통학교	A worksAt B
Person: 도상록	Institution: 신경공업대학	A worksAt B
Person: 도상록	Institution: 경성대학	A worksAt B
Person: 도상록	Institution: 김일성대학	A worksAt B
Person: 도상록	group: 일본수학클리학회	A isMemberOf B

〈그림 9〉 수강 학생이 과제로 구현한 Timeline 시각화 예시²³⁾



아래는 한국의 근대 역사(북한 유관 자료) 자료를 대상으로 위키 문서 작성 및 여러 데이터 처리 과제를 수행한 결과 학생들이 남긴 소감이다.

“저는 중국의 로컬학교에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근대사와 관련해서는 박물관에서 본 내용과 유튜브에서 본 내용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수업 초반에는 한국 근대사에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인문학 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수업 중반에는 북한에 대한 자료조사가 왜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수업 후반에 ‘도상록’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며, 한국 근대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참여했던 삼일운동, 식민지 시절의 한국, 경성대학의 역사, 다양한 이유로 인한 학자들의 대규모 탈북 등 여러 가지 사건을 접

22) <북한 인문학 위키>의 ‘도상록’ 페이지 내 TripleData 섹션 <<http://dh.aks.ac.kr/~nkh/wiki/index.php/도상록#TripleData>>

23) <북한 인문학 위키>의 ‘도상록’ 페이지 내 Timeline 섹션 <<http://dh.aks.ac.kr/~nkh/wiki/index.php/도상록#Timeline>>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근대사 파악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들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남북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근대사는 반쪽짜리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직접 위키 페이지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지만 해외의 자료들을 파악해야만 한다는 점이 쓸쓸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잊고 살았는데, 다시 한 번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V. 디지털 환경에서의 북한 인문학 교육의 의미

1.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교육 플랫폼으로서 활용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활용한 강의는 ‘북한의 인문학 자료 수집과 정리’라는 아날로그 인문학과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디지털 인문학의 결합을 지향하였다. 사전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시청을 접목한 플립 러닝을 적용하고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이론과 데이터 편찬 실습의 조화를 꾀하는 등 여러 실험적인 방법을 도모했지만, 여타 일반적인 성격의 인문학 강의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소위 논문 성격의 보고서 제출이 아니라 위키 페이지 작성을 과제로 부여한 점에 있었다. 이것은 인문학 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1990년대를 전후로 인문학 연구자 사이에서 컴퓨터 이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자, 펜으로 종이에 쓰는 기존의 글쓰기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글쓰기 사이의 차이에 관한 논의가 생겨났다.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글쓰기가 선형적 글쓰기라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글쓰기는 조합형 글

쓰기라는 측면이 주목되었다.²⁴⁾ 그로부터 다시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 그 이전의 아날로그 글쓰기와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편으로 그러한 변화 가운데 학술적 글쓰기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의 질문을 던진다면, 그 결과는 다소 의외다. 적어도 인문학 분야에서는 단행본이나 학술논문이 여전히 ‘글쓰기’ 형식의 주류라서 기존 아날로그 환경의 글쓰기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한 느낌마저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글쓰기의 전통은 존중해야 하겠지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웹 환경이 일상생활까지 침투한 오늘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전통적 방식이 사회 일반의 지식과 정보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는 측면을 내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는 참여자 혹은 독자와 만나는 주요한 통로로 북한 인문학 위키를 설정했다. 위키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을 결합한 매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키는 장절을 세우고 각주를 달고 문장으로 풀어쓴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환경의 선형적 글쓰기를 계승한다. 동시에 풍부한 하이퍼링크를 매개로, 새롭게 기록되는 내용이 기존에 기록·축적된 내용과 연결되게끔 함으로써 비선형적 독해의 가능성을 연다. 더불어 전자지도나 타임라인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원을 임베딩함으로써 참여자와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도입한 데이터 입력기는 지식 그래프와 위키 문서의 결합이라는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의 고유한 구조를 상징한다. 수강자가 직접 입력한 Triple Data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어 기존에 입력된 Triple Data와 함께 일종의 지식 그래프인 데이터 네트워크로 웹상에서 시각화된다. 위키의 하이퍼링크와 함께 지식 그래

24) 김지선·장문석·유인태,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371~419쪽.

프는, 새롭게 구축한 데이터가 기존 축적된 정보와 연결되어 지식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실감을 데이터 편찬 참여자에게 안겨 준다.

데이터 아카이브 편찬 과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러한 교육 과정을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경험으로 수용할 수 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생산한 인문 지식이 웹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통·공유될 것이라 데 대한 생각은 곧 미래 환경에서 지식 생산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 데이터 편찬: 북한 이해와 통일 인식의 매개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활용한 대학 교육은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북한 관련 자료와 연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이 학문에 접근하기 위한 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북한 인문학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라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라는 탐구 대상이 지닌 특성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방법론과 친화성을 지님으로써 연구 대상과 방법론 사이에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인문학 위키를 활용한 자료와 연구의 수집 및 정리는 북한의 학문이 고립된 채 형성, 전개되었다는 통념을 깨뜨린다. 강의에서는 보고서 제출 대신 북한 인문학 관련 위키 페이지 작성을 과제로 부과한다. 위키 페이지 작성을 위해 수강생이 수집·정리한 자료의 출처를 보면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 걸쳐 있다. 시기적으로도 식민지 시기 자료에서 21세기 이후 생산된 연구 성과까지 포괄한다.

한 수강생은 북한 핵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도상록의 위키 페이지를 작성했다.²⁵⁾ 근거로서 제시된 자료 가운데 한국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독립운동 판결문이 눈에 띈다. 18세의 도상록이 함흥에서 3.1 운동에 참여한 기록의 소재를 알려주는 URL(링크)이 각주에 부여되었다. 또한 도쿄제국대학 물리학과에서 수학한 도상록이 일본의 수핵물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확인할 수 있다. 동 학회지 1927년 호에 따르면 논문 제목은 「저온에서 수소 가스의 양자역학적 이론」이고 당시 도상록은 개성에 있는 송도 고등보통학교 교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 학회지가 오픈 액세스 상태이므로 논문 내용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데, 웹 환경이기에 가능한 결과라 하겠다.²⁶⁾

다른 수강생이 작성한 김두봉 위키 페이지에서는 북한의 어문 정책을 확립한 한글학자 김두봉이 중국에 망명하여 임시정부는 물론 좌익 계열의 조선의용대 등에서 활동한 사실도 관련 연구가 실린 웹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²⁷⁾ 김두봉과 도상록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학자가 세계 여러 나라 학계와 교류했다. 예컨대 건국 초기 북한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인 이청원 위키 페이지에는 6·25 전쟁 직전 소련에 유학할 당시 작성된 이력서, 성적표 등의 사진이 디지털 파일로 아카이빙되어 있다.²⁸⁾

북한 관련 자료와 연구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은 북한 인문학이

25) <북한 인문학 위키>의 ‘도상록’ 페이지 <<http://dh.aks.ac.kr/~nkh/wiki/index.php/도상록>>

26) 일본 수핵물리학회지 1927년호 <https://www.jstage.jst.go.jp/article/subutsukai-shi1927/15/1/15_1_15/_pdf/-char/ja>

27) <북한 인문학 위키>의 ‘김두봉’ 페이지 <<http://dh.aks.ac.kr/~nkh/wiki/index.php/김두봉>>

28) <북한 인문학 위키>의 ‘이청원’ 페이지 <<http://dh.aks.ac.kr/~nkh/wiki/index.php/이청원>>

독립운동을 포함한 식민지 제국의 경험과 유산 위에 존재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교류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의 특징을 접목한 연구와 교육이 북한 사회와 북한 인문학과 관련해 그동안 간과해 온 측면을 환기했다 평가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 인문학 위키를 활용한 연구 및 교육을 통해 북한 사회 그리고 북한 관련 자료가 지니는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사회가 지닌 폐쇄성 탓에 북한이 생산한 문헌 자료를 북한 바깥에서 안정적으로 접하기는 어렵다. 가까스로 구한 자료도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학자의 숙청이나 문헌의 날조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에서는 자료를 아카이빙할 때 관련 연구를 충분히 참고해 정확한 자료를 구하고, 나아가 숙청과 날조의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예컨대 이청원 위키 페이지에서는 이청원 숙청 후 다른 연구서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된 부분을 찾아내어 자료로 남겼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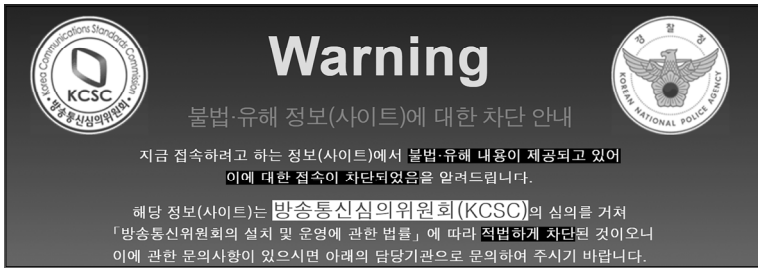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 때문에 북한 학계를 조망하는 연구도 북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핀 도상록 위키 페이지는 임정혁이 쓴 『현대 조선의 과학자들』이라는 연구를 많이 참조했다. 저자 임정혁은 재일 조선인으로 일본에서 조선총련이 깊게 관여하는 조선대학교 교원이다. 해당 문헌 역시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³⁰⁾ 식민과 냉전 와중에 벌어진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야 비로소 북한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29) <북한 인문학 위키>의 ‘이청원’ 페이지 <<http://dh.aks.ac.kr/~nkh/wiki/index.php/이청원>>

30) 일본어판은 ‘任正燾, 『現代朝鮮の科学者たち』, 彩流社, 1997.’이며, 한국어판은 ‘임정혁(김향미 역), 『현대 조선의 과학자들』, 교육과학사, 2003.’이다.

여러 언어로 생산된 인문학 자원을 디지털화하고 아카이빙하는 과정은 해당 지역의 정부와 학계가 주도한다. 북한 인문학 자료의 아카이빙은 동일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남한 사회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통일부 북한 자료 센터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에서도 냉전과 분단의 현실은 엄연하다. 북한 자료는 여전히 ‘특수 자료’로 분류되어 이용에 제한이 많다.

〈그림 9〉 한국 정부의 북한 관련 웹사이트 차단 화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웹을 통해 북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수월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지닌다. 웹을 이용할 경우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세계 각국이 구축·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넘나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 웹은 정부의 판단과 검열에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 또한 지닌다. 한국에서 웹을 이용해 북한 관련 자료를 탐색하다보면,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따라 〈그림 9〉와 같은 접속 차단 화면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관련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문학 자원을 디지털화해 웹을 통해 공개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조선총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선언론정보기지(KPM)라는 회사가 북한 학술 자료 등의 기사 목록과 내용을 웹 서비스하고 있다.³¹⁾ 하지만 이

웹 사이트는 한국 내에서는 접속이 어렵다. 앞서 언급한 임정혁이 교원으로 있는 조선대학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해당 학교의 웹 사이트를 탐색하면 마찬가지로 <그림 9>와 같은 접속 차단 화면으로 연결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인터넷 검열을 입을 모아 비판하지만, 우리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하다.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의 실천은 한국 사회의 냉전적 현실을 포함하여 북한 자료가 지니는 특수성을 실감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VI. 나오며: 향후 전망과 과제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는 구상 단계부터 이미 교육적 활용을 염두에 두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추진 배경으로서 먼저 북한 인문학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단기적, 정책적 북한론으로는 우리 사회 일각의 북한 혐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북한 사회 나름의 상식을 구성하는 인문학적 축적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생산적 비판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젊은 세대 사이에 통일·평화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대 혹은 대학생의 통일과 평화에 대해 무관심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웹 환경을 활용해 통일·교류협력 대상으로 북한을 수용할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³²⁾

31) <조선언론정보기지> 웹사이트 <<http://www.dprkmedia.com>>. <조선언론정보기지>에 대해서는 2006년 통일뉴스 기사 참조. 「북 언론통합사이트KPM 개통」, 『통일뉴스』(온라인) 2006년 2월 22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09>>

이 글은 북한 인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아카이브를 설계·구축한 논리와, 해당 아카이브를 매개로 진행한 디지털 인문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한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유관 내용은 아래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는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Semantic Data Processing) 방법론에 근거하여 설계·구축하였다. 일반적인 디지털 아카이브가 단순 문자열(n-gram) 검색을 통해 문헌 자료의 메타데이터 정도만 제공하는 것과 달리,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는 북한 학술 정보의 지식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론적 기반의 데이터 아카이브를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온톨로지를 설계하여 지식그래프를 구현하도록 하였는데, 위키를 활용한 데이터 편찬 과업과 해당 결과물을 결합하였다.

둘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교육부의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문학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시작된 교육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하는 7개 대학 컨소시엄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4개의 디지털 인문학 교과과정을 개설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빅데이터 역사정보’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맨틱 데이터 편찬’은 ‘역사정보 텍스트마이닝’, ‘역사지리정보’와 함께 ‘빅데이터 역사정보’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세 분야 중 하나다.

셋째, ‘시맨틱 데이터 편찬’ 교과 강의는 기본적으로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북한 인문학 및 한국 근대사에

3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웹사이트 ‘통일기반구축사업’ 페이지 <https://ipus.snu.ac.kr/wp-content/uploads/2023/03/17.-2022-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결과보고서_인문학연구원홍중욱.pdf>

관한 도메인 지식과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으로서 시맨틱 데이터 처리에 관한 내용을 동시에 익히는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련해서 빅 데이터 혁신공유대학의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의 일환으로 〈미디어위키를 활용한 역사 데이터 편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강의에서는 위키 문법 습득, Triple Data 생성, Timeline 작성, Network Graph 구현 등의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과 더불어 북한 인문학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역량을 기른다.

넷째, ‘시맨틱 데이터 편찬’ 교과목의 수강생은 웹 환경에서 북한 인문학과 한국 근대사에 관한 지식을 다룸으로써, 아날로그 환경에서 유관 지식을 소비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 지식을 생산·유통하는 능동적 경험을 익힐 수 있다. 아울러 북한 학계가 통시적·공시적으로 지식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 존재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냉전과 분단 상황에서 전개된 북한 인문학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수강생은 위키 페이지 작성 과제를 수행하는데, 위키는 아날로그 환경의 선형적 글쓰기와 디지털 환경의 조합형 글쓰기 양쪽의 장점을 모두 갖춘 미디어다. 무엇보다 위키에 작성·표현된 지식이 웹을 통해 개방·공유된다는 점에서, 수강생은 우리 사회의 지식 생산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웹 환경에서 국경과 시대를 넘나들며 자료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북한의 학문이 고립된 채 형성·전개되었다는 통념을 깨뜨릴 수 있다. 동시에 북한 인문학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남북한 사회 모두 냉전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현·임형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서울: HueBooks, 2016.

임정혁(김향미 역), 『현대 조선의 과학자들』, 파주: 교육과학사, 2003.

김바로, 「〈공공데이터법〉과 인문데이터 -공공기관 보유 인문데이터 공개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57호, 2022, 167~192쪽.

김지선·장문석·유인태,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제60집, 2021, 371~419쪽.

김지선·유인태, 「지식의 공유와 표현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 해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례 검토」 『인문논총』 제79권 2호, 2022, 391~427쪽.

이지수·이혜은, 「미국 대학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권 4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9, 107~128쪽.

장문석·김윤진·이지수·송가배·고자연·김지선, 「디지털 인문학과 지식의 공동생산 - 위키 플랫폼과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편찬」 『인문논총』 제78권 1호, 2021, 75~124쪽.

허수, 「교수논단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 『서울대 인문대학 소식지』 53(2021년 가을), 7쪽.

홍종욱·강수연·홍수현·김도민,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인문논총』 제78권 1호, 2021, 13~41쪽.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서울대학교 교과인증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북 언론통합사이트KPM 개통」, 『통일뉴스』(온라인) 2006년 2월 22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09>〉

일본 수하물리학회지 1927년호

〈https://www.jstage.jst.go.jp/article/subutsukaishi1927/15/1/15_1_15/_pdf/-char/ja〉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홈페이지 〈<https://bigdatahub.ac.kr/>〉

조선언론정보기지 홈페이지 〈<http://www.dprkmedia.com>〉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s://ipus.snu.ac.kr/>〉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http://dh.aks.ac.kr/~nkh/index.html>〉

지암일기 데이터 아카이브 〈<http://jamdiary.info/>〉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제작 Semantic Database Visualization

〈http://dh.aks.ac.kr/Edu/wiki/index.php/Semantic_Database_Visualization〉

CBDB 홈페이지 〈<https://projects.iq.harvard.edu/cbdb>〉

Enslaved 홈페이지 〈<https://enslaved.org/>〉

O Say Can You See 홈페이지 〈<https://earlywashingtondc.org/>〉

North Korean Humanities Data Archive and Digital Humanities Education

Ryu, Intae (Korea University)

Hur, So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 Jong-wook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experience of creating the North Korean Humanities Data Archive(NKHDA) and using it as a platform for digital humanities education. The relevant information is organized in four parts.

First, the North Korean Humanities Data Archive(NKHDA) was designed and created based on the Semantic Data Processing methodology to effectively represent the three-dimensional nature of academic information and the complex network of knowledge network between them.

Second, as pa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Innovative Convergence University project, the College of Humanit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digital humanities education courses. Among them, 'Semantic Data Compilation' was introduced and launched as a part of the 'Big Data Historical Information' curriculum.

Third, the course 'Semantic Data Compilation' is operated in conjunction with the North Korean Humanities Data Archive(NKHDA).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domain knowledge on North Korean humanities and modern Korean history, as well as semantic data processing as a digital humanities methodology.

Fourth, by accessing knowledge about North Korean humanities and Korean modern history on the web, students taking the 'Semantic Data Compilation' course are able to move from a passive position of consuming relevant knowledge in the analog environment to an active experience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humanities knowledge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 addition, students are able to see that North Korean academia exists in an international network of knowledge, both synchronously and publicly, and understand the specificity of North Korean humanities as it developed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and the division of Korea.

Keywords: North Korea humanities, North Korean Humanities Data Archive, big data innovation convergence university, digital humanities

류인태(Ryu, Intae)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다양한 유형의 한문 기록을 대상으로 한 번역 및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적 연구와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기획·참여하고 있다.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현 프로젝트 연구팀에서는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여러 실무를 맡았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일상: 『지암일기(1692-1699)』 데이터베이스 편찬 연구」(2019),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2020), 『디지털로 읽고 데이터로 쓰다』(공저, 2023) 등이 있다.

허수(Hur, Soo)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근대 사상사를 전공하고 개념사 연구 및 디지털 역사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이돈화 연구: 종교와 사회의 경계』(2010), 「근대 전환기 '개벽'의 불온성과 개념화: 동학, 천도교를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

홍종욱(Hong, Jong-wook)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식민지 조선과 북한을 포함한 20세기 한국 지식인의 사회사상, 역사 인식을 연구하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에도 관심을 가져 <북한 인문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했다. 주요 논저로는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帝國/植民地の統合と亀裂』(2011),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아시아 인식과 조선 연구」(2021), 「주체 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2022) 등이 있다.

특집 논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북한 고고학 비교*

: 『조선고고연구』 ‘멀리서 읽기’

고일홍 (서울대)

국문요약

『조선고고연구』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1986년부터 계간으로 발행해 온 북한 고고학의 대표 학술지로, 북한 고고학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차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선고고연구』에 수록된 글들을 분석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의 북한 고고학 활용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하였다. 분석 대상 텍스트가 방대한 관계로, 이번 분석을 위해 ‘디지털 인문학’의 ‘멀리서 읽기’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멀리서 읽기’ 기법은 총 3가지였다. 우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으로 구성된 말뭉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시대의 주요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고, 토픽 모델링을 통해 대표 주제 5개 및 연관 주요어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평양’의 중요도가 높아졌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김정일 시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왕릉’, ‘개성’, ‘문화유산’의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1.202306.55>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또한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중요도가 높아지고 '만월대'가 새롭게 주요어로 등장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문화유산보호법'의 채택 및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조선고고연구』 수록된 '교시적' 글의 제목과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시의 내용에 대해 주요어 분석과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교시 중 가장 중요한 주요어가 '역사'에서 '민족'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김정은 시대 교시의 시맨틱 네트워크에서 '문화유산'의 중심성이 '민족' 다음으로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정은 시대 '민족' 담론의 변화, 그리고 북한 정권이 고고학 성과를 바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주제어: 북한 고고학, 『조선고고연구』, 김정은 시대, 멀리서 읽기, 디지털 인문학

I. 들어가며

고고학과 민족주의(nationalism)는 19세기 후반부터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둘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입장이다.¹⁾ 예를 들어, 20세기 전반에는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사회진화론적 보편사에 매몰되어 있던 고고학자들이 지역사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식민지화를 경험했던 집단들에게 이러한 지역사의 발견은 - 모든 인류가 존엄하다는 생각과 결부된 경우에 한해서는 - '문명화'의 탈을 쓰고 자행되었던 식민주의적 역사 왜곡과 인종주의에 대한 저항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²⁾ 그러나 고고학이 이처럼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

1) 예를 들어, Trigger, B.G. "Alternative Archaeologie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J. Habu, C. Fawcett, J.M. Matsunaga, eds., *Evaluating Multiple Narratives* (New York, NY.: Springer, 2008).

2) Kohl, P.L., Fawcett, C. "Archaeology in the service of the state: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P.L. Kohl, Fawcett, C.,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정할지라도, 그것의 과도한 영향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90년대 이후 북한 고고학계가 진행한 단군릉의 발굴과 대동강문화론의 제기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고고학계는 이미 1960년대 이래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제4차 노동당대회(1961년)를 계기로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지식인에 대한 학문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주체사상이 고고학계에 유입되었다. 또한 제5차 노동당대회(1970)를 통해 당 규약에 주체사상이 추가되면서 1970년대부터는 김일성 어록이 고고학 논문에 직접 인용되기 시작했다.³⁾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고고학의 주된 목적은 고조선에 대한 교육강화 등 인민의 계몽이었고, 따라서 1960-70년대까지는 북한의 ‘주체사상 고고학’이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계승성을 강조하는 ‘과도한 민족주의 고고학’ 정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 그러나 1989년에 발표된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담화를 계기로 1990년대부터 고고학이 본격적인 체제 선전의 도구로 전환되면서 북한 고고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기원전 10세기로 비정되었던 고조선의 기원 연대가 단군릉의 발굴로 기원전 3000년기 초까지로 올라가면서, 그동안 유적·유물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로 축적되었던 기존 편년안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이후 진행된 고고학 자료의 연대에 대한 해석은 정치색이 짙은 새로운 선사시대 편년안을 재생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북한에서 출간된 고고학 텍스트의 학문적 의미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 대신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의 정치수사를 반영하는 자료로써 북한학 연구 분야에서의 중요성은 커졌다고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4-5.

3) 이기성, 「북한학계 선사고고학의 최근 연구 동향」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현황과 과제 진단』 한국고고학회 2016년 학술회의 (2016년 8월 23일), 17~19쪽.

4) 위의 글, 25쪽.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8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4호씩 발간된 북한 고고학의 대표 학술지 『조선고고연구』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의 북한 고고학 활용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추적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북한의 고고학사를 통시적으로 조망하거나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고고학의 연구 경향을 추적하는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⁵⁾ 그러나 본고와 같이 고고학이 아닌 정치 담론의 관점에서 북한 고고학의 성과를 분석한 시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 방법을 도입하여 『조선고고연구』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멀리서 읽기’란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분석하기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어의 통시적 변화양상을 추적하거나 주요어 간의 의미 관계를 확인하는 등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이 방법론은 문학비평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사를 추적하는 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⁶⁾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고

⁵⁾ 남한 고고학자들에 의한 북한 고고학사 연구는 1990년을 전후에 시작되었는데, 2015년까지의 연구는 이기성의 2015년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이기성, 「북한 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 학사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고학』 제14권 3호(2015), 9~10쪽, 27~28쪽).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간되거나 이기성의 2015년 논문에서 누락된 북한 고고학사 선행연구는 고일홍의 2018년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고일홍, 「北韓 考古學界 最近 現況 檢討 -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 『湖西考古學』(2018), 103쪽). 2018년 이후에 출간된 북한 고고학사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형우,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른 북한 구석기 연구 변화」 『문화재』 제53권 1호(2020); 강현숙, 「북한의 고구려 고고학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문화재』 제53권 1호(2020); 윤상덕, 「북한의 신라 고고학 연구 현황과 특징」 『문화재』 제53권 2호(2020); 이기성,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 변화와 쟁점」 『문화재』 제53권 3호(2020).

⁶⁾ Underwood, T. "Distant Reading and Recent Intellectual History," in Gold, M.K. &

고연구』에 수록된 총 1657편의 글 제목을 대상으로 주요어 및 주요 주제의 통시적 변화양상을 3개의 분기로 나누어(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추적하겠다. 또한 『조선고고연구』에 수록된 ‘교시적’ 성격의 글 35편에 포함된 교시⁷⁾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워드 클라우드나 시맨틱 네트워크 등의 형태로 그 경향성을 시각화하겠다. 이처럼 북한 고고학의 텍스트와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을 접목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생성된 연구의 결과가 폭넓은 연구자층에 의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II. 『조선고고연구』와 ‘멀리서 읽기’ 방법론의 중요성

1. 『조선고고연구』의 가치

그동안 북한에서는 고고학 분야의 연구 성과물이 다양한 학술지들을 통해 소개되었으나,⁸⁾ 이들 중 창간 이래 명칭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정기 출간되고 있는 학술지는 『조선고고연구』가 유일하다.⁹⁾ 북한 사회과

Klein, L.F. eds.,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16*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6).

7) 본고에서는 ‘교시’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내리는 지침 등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 즉, 김정일의 ‘말씀’ 등도 ‘교시’의 범주에 넣고 있다.

8) 『문화유물』, 『문화유산』, 『고고민속』, 『민족문화유산』, 『歷史諸問題』, 『역사과학』, 『조선건축』 등.

9)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정기간행물- 고고학문헌목록』 (2016), 2쪽.

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1986년부터 계간으로 발행해온 『조선고고연구』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논문, 발굴 및 조사보고, 강좌, 상식, 학계 소식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¹⁰⁾

『조선고고연구』가 이렇듯 북한 고고학계를 대변하는 중요 학술지이다 보니, 남한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조선고고연구』에 게재된 모든 글에 대한 서너 문단 분량의 요약과 한 문단 분량의 해제를 수록한 해제집 두 권을 출간하기도 하였다.¹¹⁾ 1986년부터 2019년까지, 3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록된 총 1657편의 글들은 북한 고고학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차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고고연구』는 최근 북한 고고학의 연구 경향 및 그 통시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¹²⁾

그러나 『조선고고연구』의 가치는 고고학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학술지에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뿐만 아니라, 김일성 종합대학, 중앙력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문화보존연구소, 건설건재대학, 묘향산력사박물관, 해주력사박물관, 개성력사박물관, 평안남도 력사박물관, 고려박물관, 함경북도 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 등에 소속된 연구자 330여명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연구 생태계를¹³⁾ 파

10) 고일홍, 「北韓 考古學界 最近 現況 檢討 -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 105쪽.

11)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1』(2017a);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2』(2017b).

12) 예를 들어, 고일홍, 「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 북한 학술지 목록화 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내용분석」 『인문논총』 제77권 4호 (2020); 양시은, 「최근 북한 고고학계의 고구려 연구 동향: 『조선고고연구』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제56권 (2016).

13) ‘연구 생태계’란 자연 생태계의 유지 및 발전의 원리를 사회과학적 해석에 적용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도입하면 생태계 내부에서 연구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약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고고연구』에는 그 제목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당’, ‘령도’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는 소위 ‘교시적’인 성격의 글이 총 35편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교시적 글의 연도별 수록 양상이나 필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진행된 바 있는데,¹⁴⁾ 전체 글 편수의 2% 정도에 불과한 이러한 교시적 글의 존재만 가지고 『조선고고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무비판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선고고연구』에 수록된 교시적 성격의 글은 고고학자에게는 당혹스럽게 다가오겠지만, 북한학 연구에서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35편의 글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에 모두 걸쳐 분포하고 있어서, 시대별 교시 내용의 특징과 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북한의 정치 수사, 담론 등을 다루는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조선고고연구』는 고고학뿐만 아니라 북한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멀리서 읽기’ 방법론의 가능성

『조선고고연구』가 가치가 있는 자료임은 분명하나, 굳이 이 학술지에 수록된 1657편의 글을 세밀하게 분석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까지 출간된 글들

과정, 유효기간이 지난 연구가 소멸하고 또 다른 연구로 대체되는 과정 등을 살펴보고,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 집단이나 집단과 개인 연구자 간의 관계망에 주목하게 된다. 박초희·이성숙, 「연구 생태계 관점에서 본 국내 행정학 분야의 구조적 특성 분석 - 공저자, 인용,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1호 (2020), 214쪽.

14) 고일홍, 「北韓 考古學界 最近 現況 檢討 -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 120~123쪽.

에 대해서는 이미 요약과 해제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 해제집은 북한 고고학 전반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그러한 심도 있는 분석은 일부 세부전공분야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¹⁵⁾ 『조선고고연구』에 수록된 글 전체에 대해 단독 연구자나 하나의 연구집단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조선고고연구』 자료 전체를 조망하면서 『조선고고연구 해제집』에서 제공되는 것 이상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가? 필자는 그 방법을 ‘멀리서 읽기’에서 찾았다.

‘멀리서 읽기’는 모레티가¹⁶⁾ 2000년 제창한 개념으로, 몇 개의 특정한 텍스트만을 읽지 않고,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함으로써 문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문학비평가인 모레티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학사(文學史) 연구가 과거에 출간되었던 모든 텍스트가 아닌 몇몇 정전(正典)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축된 현실을 비판하며 ‘멀리서 읽기’라는 혁신적인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안했던 것이다.¹⁷⁾ 이 새로운 방법론은 ‘디지털 인문학’으로의 전환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15) 예를 들어, 양시은, 「최근 북한 고고학계의 고구려 연구 동향: 『조선고고연구』를 중심으로」.

16) Moretti, F.,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no. 1. (2000), <<https://newleftreview.org/issues/ii1/articles/franco-moretti-conjectures-on-world-literature>>

17) 모레티는 기존과는 다른 문학사 연구를 주장하기 위해 ‘멀리서 읽기’ 방법론을 제창하였다. 예를 들어, 17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영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나이지리아에서 출간된 모든 소설의 5년 단위의 출간 빈도에 대한 그래프를 생성하여 세계 문학사를 광범위한 시각에서 조망하였다. 또한 1710년부터 1850년 사이에 출간된 모든 영국 소설의 5년 단위의 출간 빈도에 대한 그래프를 생성하여 영국 소설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였다. Moretti, F., 2005., *Graphs, Maps, Trees: Abstract Models for a Literary History* (London: Verso, 2005), pp. 5-8.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멀리서 읽기’가 더 객관적인 접근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¹⁸⁾ 필자 역시 ‘멀리서 읽기’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멀리서 읽기’는 ‘텍스트 마이닝’에 기반하고 있는데, 텍스트 마이닝의 선행 작업인 ‘정규화’와 ‘토큰화’ 작업에는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한다. 또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거친 텍스트를 대상으로 자연어 처리를 진행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주요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는 표출되는 주요어의 개수를 지정해야 한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낸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할 때도 분석 대상 범위를 지정해야 하고, 유의미한 단어 간 링크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값도 정해야 한다. 이처럼 ‘멀리서 읽기’도 연구자의 판단이 분석의 최종 결과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방법론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만약 데이터 세트와 연구자가 분석 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다른 연구자는 해당 분석을 재현할 수 있고, 또한 변수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도모할 수 있다.

‘멀리서 읽기’ 방법이 지원해주는 이와 같은 ‘재현성’은 북한 자료에 대한 남한 연구자의 분석이 그나마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일례로 필자는 앞서 ‘멀리서 읽기’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남한 연구자들이 제시했던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북한의 발해 연구사를 서술한 바 있다.¹⁹⁾ 그 이유는 남북 연구자 모두가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데이터 기반’

18) 예를 들어, Ascari, M. “The Dangers of Distant Reading: Reassessing Moretti’s Approach to Literary Genres,” *Genre*, vol. 47, no. 1 (2014).

19) 고일홍, 「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 북한 학술지 목록화 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내용분석」.

연구사를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그 유용성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는 ‘멀리서 읽기’ 방법론을 활용하여 『조선고고연구』의 특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토픽 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연구는 흔히 논문의 제목과 초록으로 구성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조선고고연구』에는 (북한의 학술지가 흔히 그러하듯이) 별도의 초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학술지에 수록된 글들의 ‘제목’만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글의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레티가 1740년부터 1850년까지 110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출판된 7000권의 소설 제목에 대하여 ‘멀리서 읽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영국 소설사를 제시했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²⁰⁾ 또한 논문 초록이나 전문이 아니라 제목 데이터만을 가지고 시맨틱 분석이나 지식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²¹⁾

물론 『조선고고연구』에 수록된 텍스트의 전문을 분석한다면 더욱 심도 있는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디지털화된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35편의 교시적인 글에서 직접 인용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텍스트에 한해서는 필자가 이를 디지털화하여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²⁰⁾ Moretti, F. “Style, Inc. Reflections on Seven Thousand Titles (British Novels, 1740–1850),” *Critical Inquiry*, vol. 36, no. 1 (2009).

²¹⁾ Galke, L., Mai, F., Schelten, A., Brunsch, D., Scherp, A. “Using Titles vs. Full-text as Source for Automated Semantic Document Annotation,” *K-CAP 2017*, December 4th–6th, 2017, Austin, Texas, United States (2017).

III. 『조선고고연구』 텍스트의 분석

1. 『조선고고연구』 제목 데이터 세트의 특징

『조선고고연구』에는 ‘논문’ 이외에도 북한 고고학계의 관심사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²²⁾. 각 종류의 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나 글의 종류별로 확인되는 통시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으나, 이는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구축한 데이터 세트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본고의 목적을 위해서는 『조선고고연구』의 글들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주제나 표현의 통시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북한 고고학의 분기설정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²³⁾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분기설정안들은 고고학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조선고고연구』가 출간되기 시작한 1986년 이후의 시기의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 정치 수사학 연구(특히, 고고학 분야와 관련이 있는 ‘민족’ 등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기설정 단위인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사용하였다.²⁴⁾

²²⁾ 논문 1062편; 발굴보고, 발굴소식, 발굴 및 답사소식, 발굴 및 조사보고, 조사 및 발굴보고, 조사발굴기, 조사발굴보고, 소개자료, 유적소개, 유물소개, 유적소개, 유적발굴기 252편; 자료, 자료 및 소개, 자료소개, 자료와 소개, 자료와 연구, 소개자료 99편; 강좌 137편; 학계소식, 소식 43편, 상식 28편; 교시적 글 35편; 강령 1편.

²³⁾ 이기성,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 변화와 쟁점」, 185-187쪽 참고.

본고에서 ‘김정일 시대’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된다. 1990년은 비록 김일성이 생존해 있었으나, 김정일이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 9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당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2인자의 지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김정일 공식승계 단계’의 시작으로 대체로 이해되고 있다.²⁵⁾ 또한 향후 북한 고고학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담화가 발표된 것이 1989년 12월이었으므로 1990년을 ‘김정일 시대’의 시작연대로 삼고, 『조선고고연구』가 출간되기 시작한 1986년부터 1989년까지를 본고에서는 ‘김일성 시대’로 규정하였다. 한편, 김정은 시대의 시작을 2012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그가 후계자로 내정되고 우상화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이었으나, 『조선고고연구』에 수록된 교시적인 글에서 김정은의 교시가 인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시기 구분에 근거하여 분류 및 분석된 『조선고고연구』 수록 글은 ‘김일성 시대(1986-1989)’ 총 152편, ‘김정일 시대(1990-2011)’ 총 993편, ‘김정은 시대(2012-2019)’ 총 510편이다.

한편, 『조선고고연구』에는 교시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총 35편 수록되어 있는데, ‘김일성 시대’에 1편, ‘김정일 시대’에 22편, ‘김정은 시대’에 12편이 해당된다. 참고로 『조선고고연구』의 모든 글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교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체로 3번째 문단부터는 고고학 관련 내용이 나오고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수사적인 표현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글 제목에서부터 아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당’, ‘령도’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항상 목차의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24) 예를 들어, 임사라·양문수,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 조치 비교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5권 1호 (2022).

25) 예를 들어,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6), 4쪽.

일부 글의 경우에는 텍스트 전반에 걸쳐 수사적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교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글들에 한해서는 글의 초반에 등장하는 교시 문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겠다. 물론 논문 전체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조선고고연구』 텍스트 전문에 대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해당 자료의 디지털화는 개별 연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작업이 아닌 만큼, 본고에서는 교시적 문구에 대해서만 텍스트 분석을 하는 ‘파일럿 스터디’ 성격의 분석에 치중하도록 하겠다.

2. 『조선고고연구』 제목의 주요어와 그 변화 양상

텍스트 분석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전처리 작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규화(normalization)’ 작업이고, 또 하나는 ‘토큰화(tokenization)’ 작업이다.²⁶⁾ 정규화 작업은 텍스트의 언어에 따라 그 과정이 다른데, 가령 영어 텍스트의 경우에는 대문자·소문자 구분을 없애고, 문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the’, ‘and’, ‘it’과 같은 단어들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사나 문장부호 등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클리닝 작업 이후, 연구 목적에 따라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방해되는 단어를 제거하는 추가적인 클리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분석의 대상 텍스트가 고고학 논문의 제목이다 보니 논문의 주제·필자·게재 시기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시간과 관련 있는 ‘시대’, ‘시기’, 공간과 관련 있는 ‘지역’, ‘구역’, 그리고 논문 제목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인 ‘검토’, ‘고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성격의 단어들

²⁶⁾ Graham, S., Milligan, I., Weingart, S. *Exploring Big Historical Data: The Historian's Macroscope* (London: Imperial College Press, 2016), pp. 60-67.

은 ‘기피어’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규화’ 작업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정으로는 ‘표제어(lemma)’ 지정과 ‘어간 추출(stemming)’이 있다. ‘어간 추출’은 다양한 형태의 단어를 단일화하는 작업으로, 과거형·현재형·미래형이 다르게 표현되는 언어들에서는 중요한 작업이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표제어’ 지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작업이다. 표제어 지정은 연구 목적에 따라 동일한 범주로 간주될 수 있는 단어들을 묶고 그 대표 단어를 설정하여 단어의 빈도를 계산할 때 수치가 분산되는 것을 막아준다. 예를 들어, 본 분석에서는 ‘기와’, ‘막새’, ‘암기와’, ‘수기와’, ‘암기와막새’, ‘수기와막새’의 표제어로 ‘기와’를 설정하고, ‘고구려’, ‘고구려적 성격’, ‘고구려 유적 유물’, ‘고구려 사람’, ‘고구려사람’의 표제어로 ‘고구려’를 설정하였다(부록11 참고).

‘토큰화 작업’은 텍스트를 토큰(token)이라 불리는 단위로 나누는 작업인데,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종종 연구 목적에 따라 복수의 형태소 단위를 토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분석에서는 ‘번개무늬그릇’ 등과 같은 북한 고고학의 개념어나, ‘락랑’과 같이 북한 표기법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하나의 고유명사 형태로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그것을 하나의 토큰으로 지정하였고(‘지정어’ 설정), ‘-동’, ‘-리’와 같은 지명의 경우에도 행정구역 단위가 포함되도록 지정어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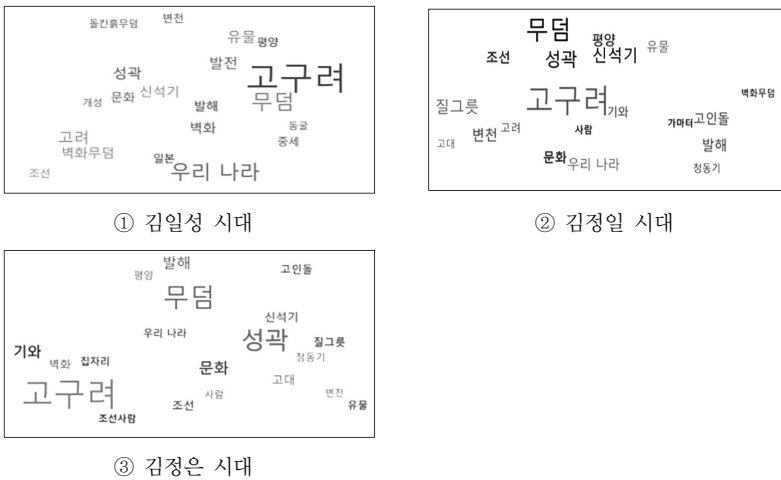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우선 주요어를 ‘워드 클라우드’의 형태로 시각화하였다.²⁷⁾ 본 분석에서는 용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단순 출현빈도’가 아닌 ‘TF-IDF 지수’²⁸⁾를 통해 측정하는 Net-

²⁷⁾ 본 분석에서는 NetMiner 4.0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명사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²⁸⁾ TF-IDF는 단어의 빈도와 역 문서 빈도를 사용하여 해당 텍스트 내에서 단어의 중요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지표이다.

Miner4.0 소프트웨어의 틀을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이때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표출될 주요어 개수의 선정은 두 가지 전략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 우선 김일성 시대, 김정은 시대, 김정일 시대의 말뭉치(corpus)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개수의 주요어가 표출되는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김일성 시대 말뭉치의 경우에는 151개의 제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유의미한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주요어를 표출하였다.²⁹⁾ 이렇게 생성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시대 말뭉치의 20개 주요어가 각각 표출된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말뭉치(corpus)의 20개 주요어가 각각 표출된 워드 클라우드



²⁹⁾ 분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워드 클라우드 생성 프로그램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50-200개 표출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표출되는 수가 너무 많으면 잘 보이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표출되는 단어의 수가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주요어를 비교해보면 김일성 시대 워드 클라우드에서 보이는 ‘동굴’, ‘돌칸흙무덤’, ‘벽화’, ‘개성’, ‘중세’, ‘일본’, ‘발전’이 김정일 시대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고대’, ‘질그릇’, ‘사람’, ‘기와’, ‘가마터’, ‘고인돌’, ‘청동기’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평양과 ‘신석기’의 중요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일 시대부터 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대동강문화론’이 제창되었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주요어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주요어는 유지되고, ‘가마터’, ‘벽화무덤’, ‘고려’가 ‘집자리’, ‘벽화’, ‘조선사람’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마터’ → ‘집자리’에 대해서는 역시 2000년대 이후로 평양의 표대 유적과 리천리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면서 고대 집자리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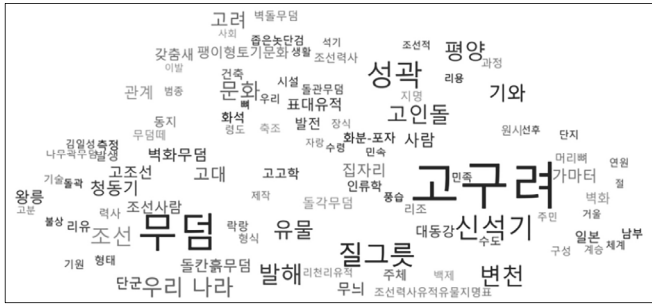
세 시대에 걸친 주요어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패턴은 ‘우리 나라’의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고, 그 대신 ‘문화’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경향성의 함의에 대해서는 고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말뭉치는 그 규모가 커서, 각각의 시기 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들과 그것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각각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보다 많은 주요어가 표출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연이어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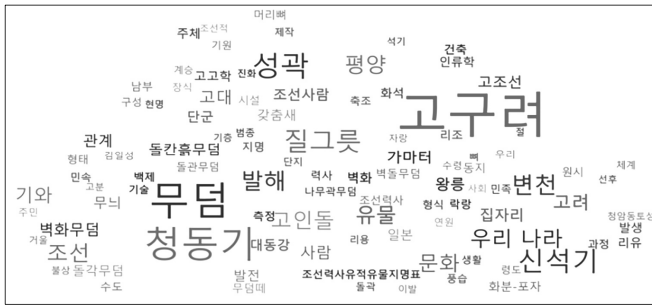
우선, 김정일 시대의 주요어 100개를 표출시킨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한 결과, ‘청동기’(시대)의 중요도나 ‘신석기’(시대)의 중요도보다 낮은 것으로 시각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발굴조사 및 연

구된 평양의 청동기시대 ‘리천리유적’이나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인 ‘팽이형토기문화’, ‘좁은숫단검(문화)’ 등이 ‘청동기’(시대)와는 별도의 주요어로 인식되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청동기시대 관련 주요어들을 ‘청동기’라는 표제어에 포함시킨 또 다른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청동기’ 표제어 보정 이전과 이후 생성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청동기’ 표제를 보정한 결과,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청동기’의 주요도가 고구려 다음으로 ‘무덤’과 유사한 정도의 중요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2〉 김정일 시대 말뭉치 ‘청동기’ 보정 이전 및 이후 생성 워드 클라우드 (주요어 100개 표출)



① ‘청동기’ 보정 이전



② ‘청동기’ 보정 이후

이와 같은 중요어를 가진 김정일 시대의 말뭉치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이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통계적 추론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연구 주제를 포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³⁰⁾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은 확률 모델 알고리즘으로, 말뭉치 단어들의 통계적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수의 잠재적 주제들을 추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³¹⁾ 본 분석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법 중에 PLSI(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indexing)을 발전시킨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알고리즘을 활용한 NetMiner4.0 소프트웨어의 토픽 모델링 툴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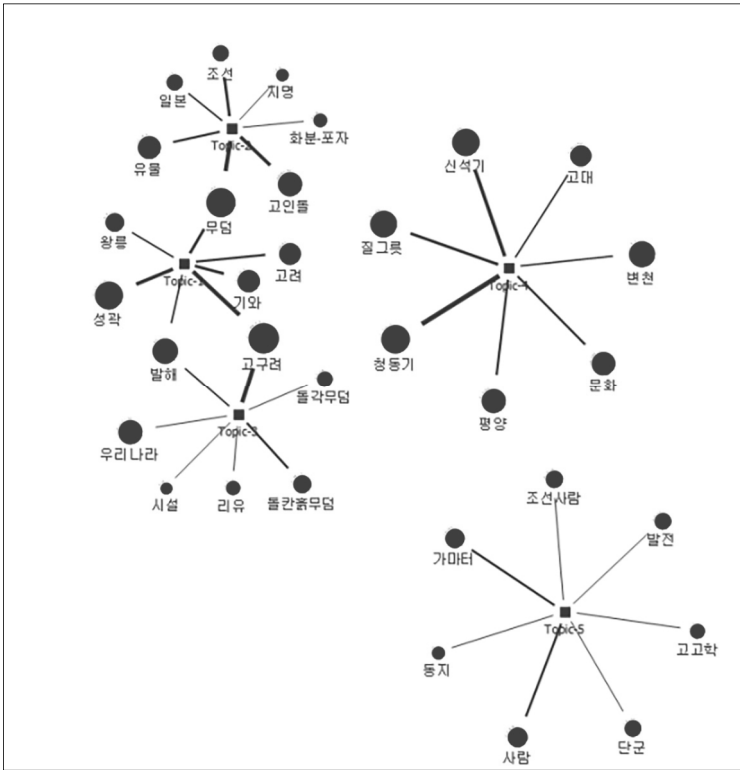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관련 주요어를 다시 ‘청동기’라는 표제어에 포함시킨 김정일 시대 말뭉치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통해 총 5개의 토픽을 유추한 결과가 <그림 3>이다. 이 중 ‘토픽-1’, ‘토픽-2’, ‘토픽-3’은 모두 북한 고고학의 핵심 관심 사항인 선사시대(‘고인돌’)에서 고구려, 발해,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조선 무덤의 실증적 연구에 관한 주제 및 관련 주요어임을 알 수 있다. 토픽-2에서 ‘일본’이 연관 주요어로 등장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기원한(북한에서는 ‘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무덤 형식의 일본으로의 전파가 이 시기 북한 무덤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토픽-4’는 김정일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대동강문화론’ 연구와 관련된 주제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북한은 평양 지역이 예로부터 세계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신석기시대 토기 제작기술의 우월성이나 단군조선의 등장 기반이

30) 박중도,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의 이슈 추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3호 (2019).

31) 정영주·김혜진,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51권 3호 (2020).

된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음이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토픽-5’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 드러난 단군을 조상으로 둔 조선 민족의 우월성 담론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 김일성 시대 ‘청동기’ 보정 말뭉치에 대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5개 주제 네트워크 생성)



김정은 시대의 말뭉치 분량은 김일성 시대 그것의 절반 정도가 되는 관계로, 시험적으로 워드 클라우드에서도 김일성 시대에 표출된 것의 절

반에 해당되는 주요어 50개를 시각화하였다. 그러나 워드 클라우드를 비교할 때에는 말뭉치의 규모를 고려하기 보다는, 비슷한 형태의 워드 클라우드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인 관계로,³²⁾ 김정은 시대의 말뭉치에 대해서도 앞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요어 100개를 표출한 ‘청동기’ 표제어 보정 이전의 워드 클라우드와 보정 이후 생성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청동기’ 표제어 보정 이전의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김정일 시대에 비해 ‘팽이형토기문화’나 ‘표대유적’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리천리유적’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리천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의 대부분이 비록 김정은 시대 이전에 진행되었으나, 그 성과를 정리한 『리천리유적에 대한 연구』³³⁾가 2014년에 출간된 이후 이 유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대동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통일거리’가 새롭게 주요어로 등장한 사실이 흥미롭다. 통일거리 건설현장에서 약 2,200여 기의 낙랑 고분이 발굴된 것은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의 기간이다. 이 당시의 조사 내용은 김정일 시대 동안에는 단행본 보고서의 형태로 출간되었고, 『조선고고연구』를 통해 두 차례만 소개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평양의 개발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낙랑 고분의 발굴조사 내용이 보고서가 아닌 논문의 형태로 발신되고 있어서, 그 결과로 ‘통일거리’가 김정은 시대의 주요어로 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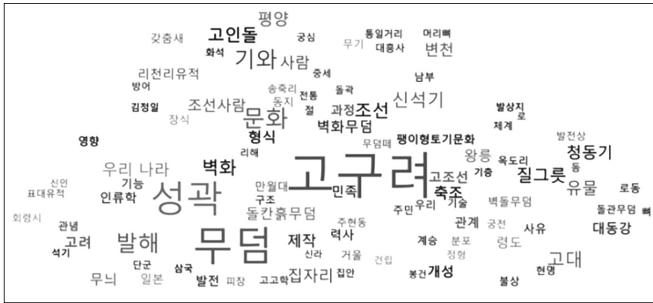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왕릉’, ‘개성’, ‘문화’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또한

32) Castellà, Q, Sutton, C., “Word Storms: Multiples of Word Clouds for Visual Comparison of Documents,” WWW’14, April 7-11, 2014, Seoul, Kore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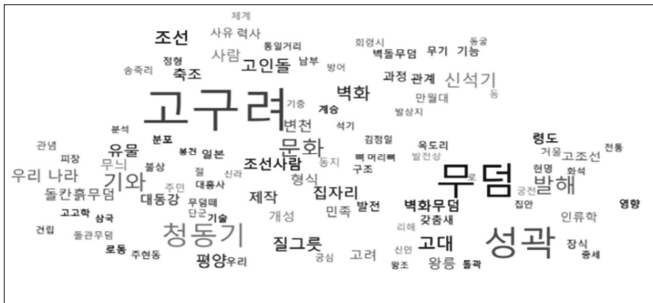
33) 차달만, 『리천리유적에 대한 연구(조선사회과학학술집 478 고고학편)』 (평양: 사회과학원, 2014).

‘만월대’가 새롭게 주요어로 등장한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남북발 굴조사단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7차에 걸쳐 개성의 만월대 유적을 공동으로 조사한 성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013년에 ‘개성 역사유적 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정은 정권에서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과 사업화에 관심을 가진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찰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림 4〉 김정은 시대 말뭉치 ‘청동기’ 보정 이전 및 이후 생성 워드 클라우드 (주요어 100개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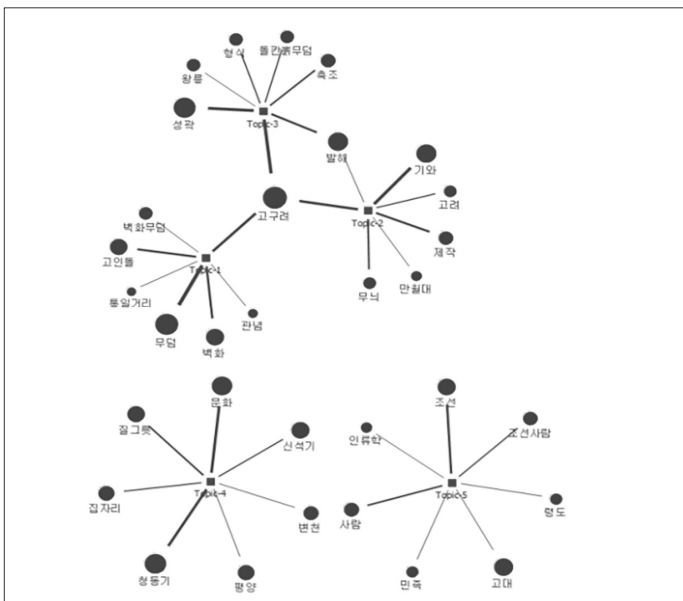
① '청동기' 보정 이전



② '청동기' 보정 이후

다음으로 ‘청동기’ 표제어를 보정한 김정은 시대 말뭉치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한 결과가 <그림 5>이다. 유추한 총 5개의 주제 중 서로 연결된 ‘토픽-1’, ‘토픽-2’, ‘토픽-3’은 평양을 중심으로 확인된 청동기시대, 낙랑, 고구려 무덤(토픽-1), 역사시대(고구려, 발해, 고려)의 문화전통(토픽-2), 그리고 고구려-발해의 고고학 자료(토픽-3)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토픽-4’와 ‘토픽-5’는 각각 김정일 시대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동강문화론’ 연구와 관련된 주제와 조선 민족의 우월성 주장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토픽-5’의 경우, 김정일 시대와 달리 ‘단군’이 연관 주요어로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령도’가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림 5> 김정은 시대 ‘청동기’ 보정 말뭉치에 대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5개 주제 네트워크 생성)



3. 『조선고고연구』 수록 교시의 주요어와 시맨틱 네트워크

『조선고고연구』에 수록된 교시적 성격의 글은 고고학자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북한 정치학의 수사나 담론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교시적 성격인 글의 ‘제목’으로 구성된 말뭉치와 그러한 글의 초반에 늘 동일한 형식으로 등장하는 교시의 ‘내용’으로 구성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두 종류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담론·수사를 비교하였다.³⁴⁾ 참고로 교시적 글의 제목이나 교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단어에서 ‘조사’를 삭제하는 것 이외의 정규화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비교의 방법으로 우선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하였으나, 토픽 모델링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말뭉치의 크기가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에는 너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교시의 내용에 대해서 시맨틱 네트워크를 다시금 생성하였다. 『조선고고연구』 수록 글의 제목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교시의 내용에 대해서 진행한 이유는 텍스트로부터 ‘개념’들을 추출하고 그 개념들 간의 ‘인접성 관계’를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시각화하는 방법이 정치 담론을 규정하는 틀(structuring framework)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데 용이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⁵⁾ 본고에서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노드를 추출해주는 NetMiner4.0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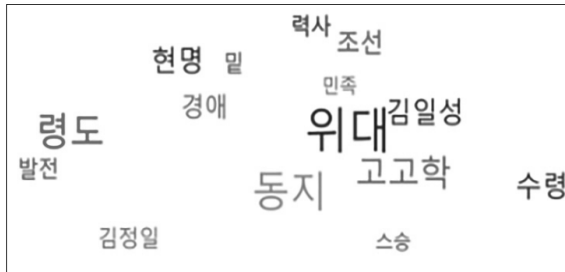
34) 김일성 시대에 해당되는 교시적인 글은 한 편에 불과하여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35) 예를 들어, Baden, C. *Communication, Contextualization, & Cognition: Patterns & Processes of Frames' Influence on Peoples Interpretations of the EU Constitution* (Delft: Eburon Academic Publisher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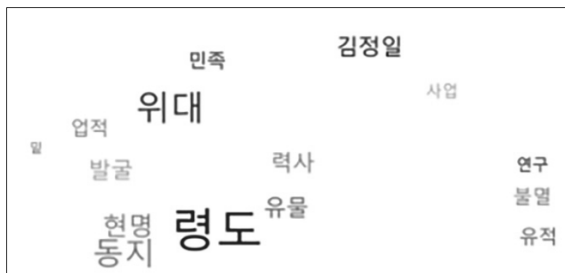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의 시맨틱 네트워크 툴을 이용해서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우선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교시적 성격의 글 제목을 비교한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그림 6>과 같다. 둘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김정일 시대에는 ‘김일성’과 더불어 ‘김정일’이 제목에 등장한 것과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일’만 등장하고, ‘김정은’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의 제목 주요어로 ‘민족’은 사라지고, 그대신 ‘발굴’, ‘유물’, ‘유적’, ‘사업’, ‘연구’와 같은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사실인데, 이는 김정은 정권이 고고학의 도구화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6>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교시적 성격의 글 제목의 모든 주요어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



① 김정일 시대



② 김정은 시대

이러한 경향성은 『조선고고연구』에 수록된 교시적인 글의 교시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다. 교시 내용 말뭉치를 대상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비교한 워드 클라우드가 <그림 7>인데, 이를 보면 의미있는 변화들이 확인된다. 우선, ‘민족’이 ‘역사’를 대신하여 가장 중요한 주요어가 되었다. 또한 ‘유산’, ‘문화유산’, ‘복구’와 같은 새로운 주요어들이 등장하였는데, 이 역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교시적 성격의 글 초반 교시 내용의 모든 주요어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



① 김정일 시대



② 김정은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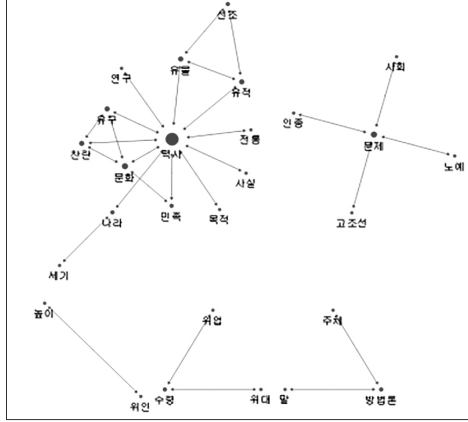
한편, 『조선고고연구』에 수록된 교시적인 글의 교시 내용을 대상으로 시맨틱 네트워크도 생성하였는데, 이때 단어 간 네트워크 생성을 위한 ‘윈도우 크기(window size)’는 ‘5’로 설정하였고,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단어 간 링크의 출현 빈도 값은 ‘3’으로 설정하였다.³⁶⁾ 즉, 본 분석에서는 연속된 5개의 단어를 분석의 단위로 삼고, 그 단위에서 두 단어가 3번 이상 공반되면 두 단어 사이에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한 시맨틱 네트워크가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의 교시 내용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에서는 ‘력사’가 가장 중요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 중심성도 가장 높은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에는 단군릉의 발굴과 결부되어 그간 왜곡되었던 소위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는 달리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민족’이 가장 중요한 용어이자 중심성도 가장 높은 단어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력사’가 ‘문화유산’보다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시각화 되었으나, 시맨틱 네트워크에서는 ‘문화유산’의 중심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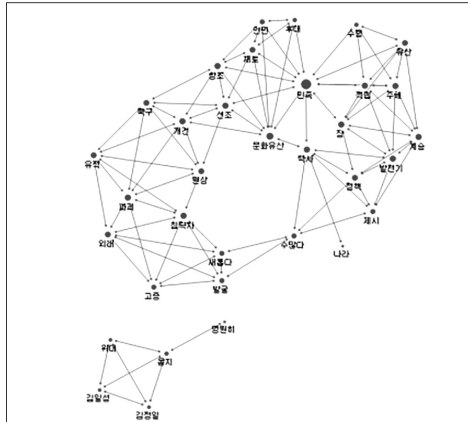
또한 김정은 시대의 교시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이 등장하지만 이것들이 다른 개념들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이 포착된다. 실제로 김정은 시대의 교시 내용을 보면 일종의 양극화가 확인된다. 우선 김정은 시대의 교시적 글에 포함된 김정은의 교시 중 김정일,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두 종류의 교시가 반복되어 등장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반복되지 않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교시도 등장한다. 반면, 김정일 시대의 경우에는 교시적 글에서 교시의 반복은 확인되지 않는다.

³⁶⁾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에서 ‘윈도우 값’이나 ‘출현 빈도 임계치’의 원리는 고일홍, 「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 북한 학술지 목록화 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내용분석」, 219~220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8〉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교시적 성격의 글 초반 교시 내용의 모든 주요어 간의 관계를 나타낸 시맨틱 네트워크



① 김정일 시대



② 김정은 시대

통계적으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교시적 글의 빈도도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듯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이 반복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으로 파악된다.

IV.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시대의 고고학에 대한 고찰

김일성 · 김정일 시대의 주요어 상위 20개를 표출한 워드 클라우드 (<그림 1> 참고)에서 포착되는 가장 큰 변화는 김일성 시대의 ‘발전’이 김정일 시대에는 사라진 점, 그리고 ‘평양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9년에 김정일이 제시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발전’은 맑스-레닌주의에 의한 유물사관과 관련이 있는 표현인데, 역사학에서의 주체사상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비록 초기 민족주의의 애국주의적 전통을 계승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수령, 당, 사상을 비롯한 체제 수호 의지가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따라서 이러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영향으로 김정일 시대의 역사적 담론에서는 ‘발전’ 개념이 약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 사회 내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기반 민족주의를 고조시킨 것은 1993년 단군릉의 발굴이었고, 그것을 보다 체계화된 형태로 완성시킨 것이 ‘대동강문화론’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동강문화론’의 핵심 장소는 ‘평양’이다. 과거에 평양이 한민족의 삶에 중심적 역할을 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자기예언적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³⁸⁾ ‘대동강문화론’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평양’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조선고고연구』 1994-1호에 게재

37) 김동후, 「북한 역사학의 민족주의적 특징과 고대사 인식체계」 『북한학연구』 제18권 2호 (2022), 132쪽.

38) 위의 글, 133쪽.

된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라는 제목의 논문이다.³⁹⁾ 『조선고고연구』 1994-1호는 북한 고고학에서 실로 중대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단군릉 발굴정형에 대하여」, 「단군릉에서 나온 사람뼈의 인류학적특징에 대하여」, 「강동군 단군릉에서 발굴된 사람뼈에 대한 절대년대 측정결과에 대하여」가 각각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논문으로 연이어 수록되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이 논문들의 뒤를 이어 네 번째 논문으로 수록된 것이 바로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인데, 논문의 서두에서는 “평양시 강동군에서 단군릉이 발굴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첫 선진문명국가였다는 것이 확증되었다”라고 밝힌 다음에,⁴¹⁾ 평양이 고대 문화의 중심지인 근거를 4가지 제시하고, 또한 이러한 평양의 고대 문화를 주변 지역들이 계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촉발된 이러한 김정일 시대 고고학의 방향성은 토픽 모델링의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그림 3〉 참고), ‘평양’이 관련 주요어로 등장하는 [토픽-4]와 ‘단군’이 관련 주요어로 등장하는 [토픽-5]에 주목할 수 있다. [토픽-4]는 평양이라는 장소의 중요성을 재생산하는 담론과 관련이 있는 주제로 이해된다. 관련 중요어로 ‘신석기’, ‘청동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김정일 시대의 상위 100개 주요어를 표출한 워드 클라우드에서 등장하는 평양의 ‘표대유적’과 ‘리천리유적’에서 중요한 신석기 시대 및 청동기시대 유구와 유물이 발굴되어, 관련 연구가 평양의 중요성을 재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토픽-5]는 단군을

39) 석광준,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 『조선고고연구』 1994-1 (1994).

40) 박진옥, 「단군릉 발굴정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1 (1994); 장우진, 「단군릉에서 나온 사람뼈의 인류학적특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1 (1994); 김교경·전영수, 「강동군 단군릉에서 발굴된 사람뼈에 대한 절대년대 측정결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1 (1994).

41) 석광준,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 17쪽.

뿌리로 둔 조선사람의 우월성을 재생산하는 주제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초기 민족주의가 소극적·방어적 측면에서 각 민족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긍정하는 성격을 가졌던 것과 달리, ‘대동강문화론’으로 인해 북한의 후기 민족주의에서는 사회주의 민족의 우수성과 정통성이 적극적으로 강조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는데,⁴²⁾ [토픽-5]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선고고연구』에 반영된 김정은 시대의 문화유산정책 및 관광정책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교시적인 글에 수록된 교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그림 7〉 참고), 포착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밭굴’, ‘유물’, ‘유적’, ‘사업’, ‘연구’와 같은 용어들의 등장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2012년에 ‘문화유산보호법’이 채택된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기존의 ‘문화유물보호법’에서는 ‘문화유물’이라고 칭했던 용어가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⁴³⁾ 김정은은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고 2년 후인 2014년에 10월 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고위간부)들과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사업이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나누었는데, 이는 이후 북한 내에서의 문화유산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⁴⁾ 이 담화에서는 민족문화유산 보호와 대외홍보를 위한 남북, 국제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고고학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는 ‘민

42) 김동후, 「북한 역사학의 민족주의적 특징과 고대사 인식체계」, 132~133쪽.

43) 김유진, 「북한의 통치이념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정책 연구」(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학과 문화재법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86~87쪽.

44)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제 77권 (2019), 379쪽.

죽문화유산 보존관리와 관련해 역사유적유물의 원상 보존관리,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과학화’, ‘역사박물관 등 ‘역사교양거점’을 활용한 교양사업’, ‘박물관·유적·명승지 참관·견학 활성화’ 등이 거론되었다.⁴⁵⁾ <그림 8>의 오른쪽에 제시된 김정은 시대의 교시 내용 시맨틱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두 번째로 높은 노드로 ‘문화유산’이 등장하고, 또한 이 노드와 연결된 왼쪽 아래의 클러스터에서 ‘복구’, ‘개선’, ‘유적’, ‘고증’과 같은 노드들이 분포해 있는 양상은 이러한 2014년 담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일성 시대에 들어와 ‘만월대’가 주요어로 정착하게 된 것은 (<그림 4> 참고)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의 도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의 도입으로 북한의 기관들은 실질적인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렇듯 ‘실리’가 중요해진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개성 역사유적 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⁴⁶⁾

현재 북한 내에서 만월대가 속해있는 세계문화유산 ‘개성 역사유적 지구’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광지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업적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와 상호협조의 공간으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즉, 관광지를 국제화의 도구로도 접근하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만큼이나 국제적인 교류와 상호협조에 적합한 장(場)도 없을 것이다.

45)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379쪽.

46) 위의 글, 381쪽.

47) 강채연,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2호 (2020), 113쪽.

3. 『조선고고연구』에 반영된 북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변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를 거치면서 확인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우리 나라’라는 표현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김일성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고구려’의 뒤를 이어 ‘무덤’과 비슷하였으며(그림 1) 참고), 김정일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토픽-3]의 연관 주요어로(그림-3) 여전히 그 존재감을 유지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약화되었고,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에서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나라’에 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에서 ‘우리 나라’가 사라지는 대신 새롭게 연관 주요어로 등장한 ‘민족’에 주목하였다(그림 5) 참고).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시대의 ‘민족’ 담론에 대한 선행연구와 상충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김정일애국주의’로의 전환 과정에 관한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즉, 2012년에 ‘김정일애국주의’가 확산되면서 북한에서는 ‘민족’보다는 ‘국가’를 앞세운 애국주의 담론이 제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⁸⁾ 다만, 2018년부터 북한에서는 ‘민족’이 다시 전면에 강조되는 양상도 관찰되고, 또한 ‘민족’ 담론이 특히 ‘문화유산’ 관련해서 부각되었다고 하니,⁴⁹⁾ 이러한 담론의 흐름이 김정은 시대의 『조선고고연구』 글 제목 말뭉치는 물론, 교시적 글에 포함된 교시 내용에서도 포착되는 ‘민족’의 주요어로서의 위상에 대한

48)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49) 전미영,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문화·정책」 『북한학보』 제43권 1호 (2018).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밖에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담론적 변화는 김정일 시대 글의 제목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둘 다 주요어였던 것과 달리, 김정은 시대의 논문에서는 오로지 ‘김정일’만이 주요어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김정은이 김정일 생전에 북한 혁명의 ‘유일한’ 혁명사상으로 규정됐던 ‘김일성의 혁명사상’(김일성주의)이 아닌 ‘김정일의 혁명사상’(김정일주의)을 정식화하고 체계화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⁵⁰⁾

V. 마치며

본고에서는 북한 고고학의 대표적인 일차자료인 『조선고고연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디지털 기법을 이용하여 ‘멀리서 읽기’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북한에서 생산된 텍스트야말로 ‘멀리서 읽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관련 텍스트의 분량이 방대한 것에 비해 그 자료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최소한 고고학 분야에서는) 많다고는 할 수 없고, 한정된 풀의 연구자가 무한하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텍스트의 내용을 읽는 과정이 즐겁거나 생산적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멀리서 읽기’ 방법은 데이터를 수합하고 클리닝하는 과정이 지난하지만, 한번 구축된 데이터 세트는 메타 데이터만 제공된다면 다른 연구자와 공유되어 새로운 연구를 촉발할 수도 있다.

⁵⁰⁾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물론 ‘멀리서 읽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본고의 경우,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가까이 읽기’가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이는 우선 ‘멀리서 읽기’를 통해 확보된 북한 고고학 관련 시사점에 대해 ‘가까이 읽기’를 통해 파고드는 작업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멀리서 읽기’를 통해 확보된 북한의 정치 수사나 담론에 관한 시사점을 ‘가까이 읽기’를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멀리서 읽기’가 북한학 연구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파일럿 스터디이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북한학 연구자들이 『조선고고연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 텍스트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부족한 지점들을 보충해줄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북한학 분야에서 『로동신문』 등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⁵¹⁾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파일럿 스터디는 『조선고고연구』 텍스트와 ‘디지털 인문학’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조선고고연구』 전체 텍스트의 디지털화를 향한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접수: 2023년 5월 11일 / 심사: 2023년 5월 30일 / 게재 확정: 2023년 6월 7일

51) 예를 들어, 박철수,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 및 연설문 트렌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6(3) (2019); 임수진,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와 담론 연구 -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1』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a.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2』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 차달만, 『리천리유적에 대한 연구(조선사회과학학술집 478 고고학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원, 2014.
-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6.
- Baden, C. *Communication, Contextualization, & Cognition: Patterns & Processes of Frames' Influence on Peoples Interpretations of the EU Constitution*, Delft: Eburon Academic Publishers, 2010.
- Graham, S., Milligan, I., Weingart, S. *Exploring Big Historical Data: The Historian's Macroscope*, London: Imperial College Press, 2016.
- Moretti, F. *Graphs, Maps, Trees: Abstract Models for a Literary History*, London: Verso, 2005.
- 강채연,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2호, 2020, 101~125쪽.
- 강현숙, 「북한의 고구려 고고학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문화재』 제53권 1호, 2020, 106~125쪽.
- 고일홍, 「北韓 考古學界 最近 現況 檢討 -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 『湖西考古學』 제41호, 2018, 102~131쪽.
- 고일홍, 「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 북한 학술지 목록화 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내용분석」 『인문논총』 제77권 4호, 2020, 193~237쪽.
- 김교경 · 전영수, 「강동군 단군릉에서 발굴된 사람뼈에 대한 절대년대 측정결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1994년 1호, 1994, 11~16쪽.
- 김동후, 「북한 역사학의 민족주의적 특징과 고대사 인식체계」 『북한학연구』 제18권 2호, 2022, 121~159쪽.
-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139-177.
-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

- 정일주의로」『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29~56쪽.
- 박중도,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의 이슈 추적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3호, 2019, 273~289쪽.
- 박진욱, 「단군릉 발굴정형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제1994년 1호, 1994, 2~6쪽.
- 박철수,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 및 연설문 트렌드 연구」『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제26권 3호, 2019, 43~59쪽.
- 박초희·이성숙, 「연구 생태계 관점에서 본 국내 행정학 분야의 구조적 특성 분석 - 공저자, 인용,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1호, 2020, 213~235쪽.
- 석광준,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조선고고연구』 제1994년 1호, 1994, 17~20쪽.
- 양시은, 「최근 북한 고고학계의 고구려 연구 동향: 『조선고고연구』를 중심으로」『고구려발해연구』 제56호, 2006, 85~105쪽.
- 윤상덕, 「북한의 신라 고고학 연구 현황과 특징」『문화재』 제53권 2호, 2020, 270~285쪽.
- 이기성, 「북한학계 선사고고학의 최근 연구 동향」『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현황과 과제 진단』, 한국고고학회 2016년 학술회의 (2016년 8월 23일), 3~29쪽.
- 이기성,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 변화와 쟁점」『문화재』 제53권 3호, 2020, 184~201쪽.
- 이형우,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른 북한 구석기 연구 변화」『문화재』 제53권 1호, 2020, 126~149쪽.
- 임사라·양문수,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 조치 비교 연구」『현대북한연구』 제25권 1호, 2022, 49~88쪽.
- 장우진, 「단군릉에서 나온 사람뼈의 인류학적특징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제1994년 1호, 1994, 7~10쪽.
- 전미영,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문화·정책」『북한학보』 제43권 1호, 2018, 218~249쪽.
- 정영주·김혜진,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연구동향 분석」『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51권 3호, 2020, 101~121쪽.
-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통일인문학』 제77호, 2019, 363~395쪽.

- Ascari, M., "The Dangers of Distant Reading: Reassessing Moretti's Approach to Literary Genres," *Genre*, vol. 47, no.1(2014), pp. 1-19.
- Castellà, Q, Sutton, C., "Word Storms: Multiples of Word Clouds for Visual Comparison of Documents," *WWW'14, April 7-11, 2014, Seoul, Korea*, 2014.
- Galke, L., Mai, F., Schelten, A., Brunsch, D., Scherp, A. "Using Titles vs. Full-text as Source for Automated Semantic Document Annotation," *K-CAP 2017, December 4th-6th, 2017, Austin, Texas, United States*, 2017.
- Kohl, P.L., Fawcett, C. "Archaeology in the service of the state: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P.L. Kohl, Fawcett, C.,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3-20.
- Moretti, F.,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1, 2000. (<<https://newleftreview.org/issues/ii1/articles/franco-moretti-conjectures-on-world-literature>>)
- Moretti, F. "Style, Inc. Reflections on Seven Thousand Titles (British Novels, 1740-1850)," *Critical Inquiry*, vol. 36, no. 1 (2009), pp. 134-158.
- Trigger, B.G., "Alternative Archaeologie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J. Habu, C. Fawcett, J.M. Matsunaga, eds., *Evaluating Multiple Narratives*, New York, NY.: Springer, 2008, pp. 187-196.
- Underwood, T. "Distant Reading and Recent Intellectual History," in Gold, M.K., Klein, L.F, eds.,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16*,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6, pp. 530-533.
- 김유진, 「북한의 통치이념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정책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학과 문화재법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 임수진,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와 담론 연구 -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부록

『조선고고연구』 수록 글 제목 말뭉치 데이터 클리닝에 사용된
‘동이어’ 목록 (괄호 안 단어가 표제어임)

(비파형단검), 비파형단검문화, 비파형
(좁은숫단검), 좁은숫단검문화, 초기좁은숫단검문화, 좁은숫단검관계
(구석기), 구석기시대
(신석기), 신석기시대
(청동기), 청동기시대, 청동
고조선, 고조선관계
(벽돌무덤), 벽돌칸무덤
(고구려), 고구려적성격, 고구려 유적 유물, 고구려 사람, 고구려사람
(행렬도), 행렬
(질그릇), 그릇
(리조), 리조왕조, 리조시기
(고려), 고려왕조, 고려시기
(성곽), 성, 산성
(대동강), 대동강류역
(침촌형), 침촌리, 침촌
(양릉),릉
(해선시 답동), 답동, 해선리
(절), 절유적
(법종), 신라종, 고려종, 리조종
(기와), 막새, 암기와, 수기와, 암기와막새, 수기와막새
(팽이형토기문화), 팽이형토기, 팽이, 팽이그릇집자리
(돌각무덤), 돌각담무덤
(령도), 령도밀
(표대유적), 표대, 표대부락
(리천리유적), 리천리
(미송리류형문화), 미송리류형
(안학궁), 안학, 안학궁터
(고인돌), 고인돌떼
(남연해주), 남연해주일대
(우리 나라), 우리나라
(단군), 단군릉, 단군조선
(방사성탄소년대측정), 방사성탄소, 탄소년대, 탄소년대측정
(락랑), 락랑유적
(화분-포자), 화분, 포자
(벽화), 벽화고분

Comparative Study of North Korean Archaeology
in the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Eras
: A ‘Distant Reading’ of *Joseon Gogo Yeongu*

Ko, Il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Abstract

Joseon Gogo Yeongu is the representative academic journal on North Korean archeology, published quarterly by the Institute of Archeology of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since 1986, and can be said to be the most important primary source for tracing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cheology. By analyzing the titles of the texts included in *Joseon Gogo Yeongu*,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ways in which the regimes of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have utilized archaeology. Due to the vast nature of the text to be analyzed, the ‘distant reading’ method of ‘digital humanities’ was adopted. A total of three different ‘distant reading’ techniques were used in this analysis. First of all, text analysis was conducted on all papers published in the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Eras, and the key words of each era were visualized using ‘word clouds.’ 5 representative themes and related key words were also identified through ‘topic modeling.’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ortance of ‘our country’ gradually decreased over the three eras, and the importance of ‘culture’ gradually increased instea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Kim Jong Un era, the importance of ‘royal tomb,’ ‘gaeseong,’ and ‘culture’ increased and ‘Manwoldae’ appeared as a new key word. This

result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superiority of the Joseon people and the Daedonggang Culture theory continued to be important research topics in North Korean archaeology even in the Kim Jong Un era.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also had great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cultural heritage through archaeology. Keyword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also conducted on the titles of the 'doctrine' articles included in *Joseon Gogo Yeongu*. It was found that the most important term of the previous era, 'minjok', disappeared in the titles during the Kim Jong Un era. However, analysis on the contents of the teachings of the 'doctrine' articles revealed that the most important keyword had changed from 'history' to 'minjok.' The centrality of 'cultural heritage' in the semantic network was found to be high, following 'minjok.' This was judged to be the result of a new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minjok' in the Kim Jong Un era, as well as changes in North Korean regime's pursuit as to what is to be achieved from the archaeological findings.

Keywords: North Korean archaeology, *Joseon Gogo Yeongu*, Kim Jong Un era, distant reading, digital humanities

고일홍 (Ko, Ilhon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선사·고대 이주와 교류에 관심이 있는 고고학자로,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교역 네트워크와 환동해 지역 교류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 네트워크들의 연결성과 아시아 세계의 재생산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북한고고학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문학과 역사학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특집 논문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과 『세계문학선집』 출판*

장문석(경희대)**

최경희(시카고대)***

국문요약

이 글은 두 차례 북한의 국가권력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간행한 『세계문학선집』을 중심으로,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과 번역의 현황을 탐색한다. 각각의 『세계문학선집』을 구성하는 작품의 목록을 1차 자료로 설정하고, 지구적 냉전의 변동과 북한 정치질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두 기획의 연속성 및 불연속성을 관찰한다. 동시에 세계문학 번역의 기획 및 출판 양상 및 해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세계문학을 매개로 '주체'와 '세계'가 상호재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한다. 71권 규모의 1960년대 『세계문학선집』과 100권 규모의 1980~1990년대 『세계문학선집』은 서구 문학의 고전을 근간에 두고 편성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진다. 1980~1990년대 『세계문학선집』은 사회주의 및 아시아아프리카문학을 점진적으로 포괄하는데, 20세기 전반기 제국 일본에서 비롯된 비서구의 세계문학 인식이 냉전기 '주체' 이념의 자장 안에서 독자적인 자기발현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1.202306.95>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제1저자 daldol2@khu.ac.kr, daldol2@uchicago.edu

*** 교신저자 kchoi@uchicago.edu

주제어: 북한, 세계문학, 출판물, 국가, 주제, 해설

북한 사회에서 비사회주의권 작품도 대중적인 차원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제가 달라도 외국의 문화를 알고 흡수해야 할 것은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쪽에서 착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오무라 마스오(1933~2023)¹⁾

I. 문제 제기 - 북한과 세계문학?

비서구 제국의 식민지이자 주변부였던 식민지 조선의 근대문학은 세계문학이라는 계기와의 접촉을 통해 상상되고 형성되었다. 1945년 이전 식민지 조선문학, 1945년 이후 분단체제 성립 이후 독자적으로 혹은 경쟁적으로 전개된 남한의 ‘한국문학’과 북한의 ‘조선문학’은 세계문학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하였다. 식민지 조선·한국·북한의 문학자들에게 ‘세계문학’의 표상이란 서가에 꽃힌 세계문학전집이라는 명확한 실체와 세계사의 거대한 사건에 대한 소식에 연동한 흐릿한 상, 양자 사이의 (비)연속적인 것이었다. 나아가 문학자들이 조선·한국·북한의 문학을 구성하는 과정에 세계문학은 참조의 대상이었던 동시에 조선·한국·북한의 문학에 대한 모색은 세계문학을 재구성하는 과정과 연동되어 있었다.²⁾

1) 오무라 마스오, 「네 종류의 선집과 북한의 문화적 수준」(『홋카이도신문』, 2003.2.25.), 오무라 마스오, 정선태 역,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5 - 한일 상호이해의 길』 (서울: 소명출판, 2017), 40쪽.

2) 김동식·송민호, 「세계문학의 상상적 좌표들 (1) - 식민지 초기 문학론에 내재된 ‘세계문학’이라는 계기와 그 잔여들」 『상허학보』 제64권 (2022), 11~15쪽.

탈냉전 이후 한국의 영문학, 독문학, 중문학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 및 번역을 검토하여 그 성과가 축적되었다.³⁾ 지금까지의 성과는 분과학문별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북한의 세계문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의 시각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였다.⁴⁾

이 글은 출판물 『세계문학선집』을 통해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문학선집』 혹은 『세계문학선집』은 20세기 동아시아에서 세계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 출판의 형식으로 제국 일본, 식민지 조선, 한국의 세계문학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⁵⁾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북한의 출판물 간행은 국가와 당이 주

- 3) 북한의 영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김영희, 「북한 영문학 서설」 『안과밖』 제11권 (2001); 최경희·홍유미, 「북한의 셰익스피어 - 셰익스피어 비평과 번역본 점검을 중심으로」 『안과밖』 제11권 (2001); 도해자, 「북한에서 '근대' 영문학을 보는 시각」 『영미연구』 제29권 (2013); 도해자, 「셰익스피어 비극에 대한 북한의 인식」 『영미연구』 제38권 (2016); 테레사 현,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북한문학에 잠입했는가? - 1950년대와 60년대 북한의 영미문학 수용과 번역」 『오늘날의 북한학 - 상처, 치유, 공동체』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2015년 10월 13~14일); 이은정, 「북한 문학번역과 수용의 프레임 연구 - *Gone With the Wind*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0권 2호 (2019); 도해자, 「미국 소설에 대한 북한의 인식」 『인문연구』 제86권 (2019). 북한의 중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신정호, 「북한의 중국문학 연구(1949-2000)」 『중국문학』 제49권 (2004); 신정호, 「북한 '외국문학사'의 체계와 중국현대문학 서술 시론」 『중국현대문학』 제62권 (2012). 북한의 독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괴테연구』 제20권 (2007). 북한의 불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박선희, 「북한의 프랑스 문학 번역본의 결텍스트 분석」 『프랑스어문교육』 제65권 (2019).
- 4) 북한의 세계문학 번역 연구의 성과와 쟁점에 관해서는 한상언, 「북한 번역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근대서지』 제23권 (2021) 참조.
- 5) 제국 일본, 식민지 조선, 냉전기 한국의 『세계문학선집』의 출판 양상과 그의 미에 전체적인 이해는 함동주, 「신조사판 엔본 『세계문학선집』의 출판과 서양문학의 대중화」 『일본학보』 제104권 (2015); 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 - 명작이라는 식민의 유령』 (서울: 푸른역사, 2012); 박숙자, 「100권의 세계문학과 그 적들 - 식민/탈식민 세계문학선집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62권 (2014) 참조.

도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가와 당이 주도한다는 것이 북한의 여러 문화적 주체의 비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문학선집』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계문학 번역 및 출판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실천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에 대한 검토는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을 규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문화적 실천의 구체적인 양상과 동학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냉전의 도래 직후 및 탈냉전 직후의 북한과 세계문학에 대한 두 가지 삽화를 검토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첫번째 삽화는 1955년 월남 여성작가 임옥인의 소설에서 재현된 세계문학선집의 향방으로, 이 삽화는 북한에 세계문학이 부재한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 임옥인은 「월남전후」를 통해 자신의 월남 이유를 사후적으로 제시한다. 임옥인의 자전적 경험에 토대를 둔 여성 인물 김영인은 해방 직후 북한 함경도 지역에서 야학을 통해 여성 계몽에 힘쓰는 교육자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다. 동시에 그는 일본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경력을 가진 인물로 유명을 달리한 옛 연인이 선물한 일본어 세계문학선집과 영어 셰익스피어전집 등을 몹시 아끼는 서구적 교양을 가진 인물이다. 김영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은유하는 세계문학선집은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서 두 번 망실의 위기를 겪는다. 첫 번째 위기는 8월 15일 직후 소련 비행기의 폭격으로 길주 읍내가 쑥대밭이 되고 가옥이 파괴되었을 때, 낫선 조선 청년의 약탈이었다. 김영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책 대부분을 돌려받으면서 이 위기는 해소된다. 두 번째 위기는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찾아왔다. 소련군은 일본 유학생이자 '반동'적인 서적을 다수 소장한 김영인의 집을 뒤져서 서적 대부분을 압수해간다. 김영인은 기필코 책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소련군을 찾아간다. 그가 요청한 책은 소련군의 조사의 대상이 된다.

나는 새끼를 끄르고 책들을 맞은 권 장교에게 밀어놓았다. 세멘 바닥에서 책이 밀리는 씨익 하는 소리를 듣자 내 피부가 벗겨지는 소름이 끼쳤다.

“이건 뭐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책들을 하나하나 들고 검문하자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중략…]

“톨스토이? 띠스터엠프스키이?”

연신 고갯짓을 하면서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 뿐만 아니라 워즈워드, 테니스 같은 유명한 영국 시인 시집이라든가 푸시킨 같은 너무도 잘 알려진 러시아 시인의 영역시집을 아무리 러시아말과 영어의 차이는 있을망정 그것을 거꾸로 들고 보는 데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이 지방 문화선전부장이라는 데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는 영문 서적은 따로 자기 책상 위에 골라놓고 나머지를 내 발부리에 씨익 소리를 내면서 밀어놓았다.⁶⁾

영서(英書)라면 덮어놓고 ‘반동서적’이라 우기는 소련군 장교의 태도로 인해 영어 서적은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영인은 책이라는 물질적 대상의 수난을 자신의 수난과 동일시하면서 무척 괴로워한다. 임옥인은 「월남전후」를 통해 해방 직후 북한을 외국어와 세계문학선집으로 대표되는 서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끊임없이 위기를 겪는 지역으로 제시한다. 책이 약탈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무질서하며, 문화선전부장의 직위를 가진 소련군인은 작가의 이름은커녕 서적의 위아래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한 인물로 제시된다. 결국 김영인은 무질서하고 문화적인 것이 억압을 받는 북한을 등지고 월남한다.

두 번째 삽화는 1990년 전후 황석영이 월북 경험 가운데 제시한 대화로, 이 삽화는 북한에는 세계문학 인식의 역사성을 보여준다. 1989년 3월

6) 임옥인, 「월남전후」(『문학예술』, 1957.6~12), 정재림 편, 『임옥인 소설선집』(서울: 현대문학, 2010), 136~137쪽. 이 글에서 인용문의 밑줄은 모두 인용자의 것이다.

20일 소설가 황석영은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초청으로 도쿄, 베이징을 거쳐 방북한다. 방북 일정 중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강연하게 된다. 황석영은 4.19혁명 등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강연하였고, 이후 북한의 대학생에게 질문을 한다. 질문 중 하나는 어문학부 학생의 독서 경향에 대한 것이었다.

황석영 : 어문학부 쪽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학생 : 뭐, 혼자 좋은 얘기 다 해놔서. 서양 고전부터 현대의 빨럭 불가담 나라들(이른바 제3세계)의 진보적 작품들이나 남조선 문학에 이르기까지 많이 읽고 있습니다.〔…중략…〕 우리는 서양의 작품을 보면서 가장 발전한 사물 현상을 기본으로 삼는 우리의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을 위주로 문학예술에 대한 일반론을 세우고, 그에 입각해서 다른 나라의 문학과 남쪽의 우리 문학을 검토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삶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문학이지만 당연히 가까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학생은 ‘서양의 고전’, ‘빨럭 불가담 나라’, 비동맹 국가의 진보적 작품, 그리고 ‘남조선 문학’을 자신이 접하는 문학의 세 경향으로 들었다. 이 세 가지 경향은 모두 북한의 문학 읽기에 관여하는 역사적 맥락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북한은 비서구 국가로서 서양의 고전 등 세계문학 읽기를 통해 문화의 토대를 닦았다. 이 경험은 한국의 경우와 공통적이다. 동시에 비동맹 국가의 작품을 읽는 것은 북한의 문학이 20세기 중반 이후 냉전 질서의 맥락과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남조선 문학’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전후 한반도의 상황과 황석영이라는 청자의 설정과 관련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대학생은 사회주의 국가의

7) 황석영,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편, 『사람이 살고 있었네』 (서울: 시와사회사, 1993), 96~97쪽.

문학을 중심으로 나름의 질서와 체계 가운데에서 이들 세 경향의 작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 임옥인은 해방 직후의 북한을 문화가 부재하는 공간으로 재현하지만, 해방 직후의 혼란이 지난 후 북한에서는 '번역부서'를 설치하여 세계문학을 번역 및 출판하고 연구를 지속하였다. 냉전기 북한의 세계문학은 한국의 세계문학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문학을 공유하면서도, 북한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른 체계와 맥락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은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을 『세계문학선집』의 출판상황을 통해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한다.

탈냉전기인 1990년 일본의 1세대 한국근대문학연구자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는 북한에서 간행한 '세계문학선집'의 출판사항의 기초적인 서지를 정리하였다. 그는 1960~1967년 문학예술출판동맹에서 간행한 『세계문학선집』(100권 추정), 1984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가 간행한 『세계문학작품선집』(권수 미확인), 1986년 이후 문예출판사 간행 『세계문학선집』(100권 기획예정) 등, 3번에 걸친 '세계문학선집' 기획을 확인하고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세계문학선집』이 간행되는 중에 발표되었기에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각 선집의 구체적인 출판상황을 확인하여서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과 주체를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이후의 연구가 감당할 몫이다. 나아가 오무라는 『세계문학선집』의 연구를 통해 북한 문화를 고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맥락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계문학선집·선집의 배경에는 반드시 외국문학연구가 있어야 한다. 북한을 봉쇄적이고 세계에 있어서의 문화적 고도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오인이다. 세계문학선집의 존재가 고도설(孤島說)을 부정한다.⁸⁾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문학선집』 출판과정에 대한 실증적 정리를 통해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의 2장에서는 지구적 냉전의 변동 및 북한 정치질서 변화에 유의하면서 세계문학선집의 출판상황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1990년대에 간행된 세계문학선집의 목록 및 해설(critical introduction)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세계’와 ‘주체’를 상호구성하는 양상, 북한 세계문학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세계문학선집이 문학선집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번역언어의 미학적 특성 및 번역 및 출판에 개입하는 다양한 주체의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계문학선집』의 출판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은 세계문학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관심 및 학술적 역량이라는 토대와 맥락에 근거하여 기획 및 출판되었다. 『세계문학선집』은 1960년대와 1980~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된다. 1960년대 『세계문학선집』은 현재 확인된 바로는 71권 규모로 기획되었으며, 이 글은 30권의 출판을 확인하였다. 「부록 북한의 『세계문학선집』 목록 및 출판 현황」의 158/159~162/163쪽에서 출판을 확인한 작품집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1960년대 『세계문학선집』을 선집A로 약칭하고자 한다. 1980~1990년대 『세계문학선집』은 100권 규모로 기획되었으며, 이 글은 39권의 출판을 확인하였다. 「부록 북한의 『세계문학선집』 목록

8) 오무라 마스오,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 현황」 (『한길문학』 제2권 (1990.6)),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서울: 소명출판, 2016), 463쪽.

및 출판 현황」의 164/165~174/175쪽에서 기획 당시의 작품 목록과 출판을 확인한 작품집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1980~1990년대 『세계문학선집』을 선집B로 약칭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1950~1990년대 지구적 냉전의 변동, 동아시아 냉전의 변화, 북한 내부의 상황을 교차하면서, 세계문학선집의 출판상황 및 그 형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문학선집』 이전의 세계문학

세계문학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산하의 문학가동맹에 외국문학 분과가 설치되어 있었듯,⁹⁾ 북한에서 번역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기획이었다. 냉전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은 진영 내부의 국제적 소통을 중시하는 한편, 종주국 소련 모스크바의 정치적 문화적 논의가 각 국가로 신속히 확산되었고 또한 소련의 논의와 동시대성을 형성하는 것을 금지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¹⁰⁾

1945년에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소련 및 중국을 경유하여 세계문학을 이해하였다. 북한은 건국 이전부터 『조소문화』의 간행을 통해 소련과의 문화 교류를 시도하였으며, 이태준, 한설야, 오장환 등의 소련기행 및 중국기행 등이 기획되었다. 기행 후 문학자들은 단행본 출판을 통해 신홍 사회주의국가 소련과 중국의 문화적 상황 및 우호와 친선의 서사를 북한에 소개하였다.¹¹⁾ 북한의 대학 제도 역시 '소련형 대학 모

9) 김재용 편, 『백석전집』 (서울: 실천문학사, 1997), 495쪽.

10) 김재용, 「북한문학에 대한 비교문화적 이해 - 국민국가라는 인식틀을 넘어」, 이상숙 외, 『북한시학의 형성과 사회주의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13), 565쪽.

11) 임유경, 「조소문화협회의 출판번역 및 소련방문 사업 연구 - 해방기 북조선의 문화정치적 국가기획에 대한 문제제기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제66권 (2009); 류기현, 「소련을 향하여 배우라 - 1945~1948년 朝蘇文化協會의 조직과

텔'을 이식한 것이었다. 북한의 외국어 교육은 초기에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하였다.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 개교 시에는 역사문학부가 설치되었고, 이후 강좌제가 도입되고 학과가 세분화되면서 1949년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는 노문학과 및 영문학과로 운영이 되었으며, 1955년 외국어대학이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로 편입되어 1956년 외국어문학부는 일반 로어, 전공 로어, 쏘베트 및 서구라파 문학, 중국어, 영문학, 불란서어 학과(강좌)로 운영되었다. 1951년 월북 이후 립학수는 김일성종합대학 영문학 강좌장을 맡았다.¹²⁾

1950년대에도 북한은 소련, 중국,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과 학술 교류를 이어갔다.¹³⁾ 북한의 월간 문학지 『조선문학』은 창간 초기 1953년부터 세계문학의 '번역'을 편성하였고,¹⁴⁾ 해방 이후 북에 남았던 백석은 1950년대 북한의 세계문학 번역의 중심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러시아 작가 푸시킨, 레르몬토프, 소련 작가 이사코프스키, 티호노프, 압하지야 작가 굴리아, 튀르키예 작가 히크메트 등의 작품집을 번역하여 출

활동』 『대동문화연구』 제98권 (2017); 조영추, 「해방기 소련 기행문학 연구 - 이태준, 한설야, 오장환을 중심으로」(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12) 정근식·김윤애·임수진,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리뷰』 제7권 1호 (2017); 정근식 편, 『북한의 대학 - 역사, 현실, 전망』 (서울: 진인진, 2017), 18~23쪽 및 48~49쪽; 럽영, 「스승에 대한 회상」 『조선문학』 2002년 10월호 (2002), 39쪽.
- 13) 1952년 12월 북한의 사회과학원이 개원할 때, '쏘베트 동맹 과학원', '중국과학원', '몽고인민공화국과학원', '체코슬로바키아 과학원', '슬로바키아 과학원', '파란과학원', '헝그리아과학원', '루미니아 인민공화국과학원', '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물리 학회'에서 축전을 보낸다. 과학원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연혁(1953-1957)』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7), 117~129쪽.
- 14)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 문화사 연구』 (서울: 역락, 2020), 133쪽.

관하였다.¹⁵⁾ 백석이 번역한 작가로 소련 작가와 아시아 작가인 튀르키예 작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1950년대 북한 세계문학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 1956년 북한에서 간행한 『외국문학 1 - 사범대학용』은 중국, 베트남, 몽골, 소련, 독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쿠바의 문학으로 편성되었다.¹⁶⁾ 아시아, 소련 및 동유럽,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주의국가의 문학에 대한 이해가 1950년대 중반 북한의 세계문학 이해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중반 북한은 새롭게 부상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문학에도 관심을 두었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이후에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를 비롯하여 아시아아프리카의 이름으로 다양한 회의가 열렸다. 북한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는 초대받지 못하지만, 다른 회의에는 거듭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그와 보조를 맞추고자 하였고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펼쳐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었다.¹⁷⁾ 북한의 세계문학 번역은 루마니아, 알바니아

15) 뿌슈긴, 백석·김상오 외 역, 『뿌슈긴 선집 1 - 시편』 (평양: 조쏘출판사, 1955); 레르몬도브, 백석·김충원·박우천 외 역, 『레르몬도브 시선집』 (평양: 조쏘출판사, 1956); 이싸콥스키, 백석 외 역, 『이싸콥스키 시초』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1954); 나킴 히크메트, 백석·전창식·김병욱 역, 『나킴 히크메트 시선집』 (평양: 국립출판사, 1956); 니콜라이 지호노브, 백석·리효운 역, 『시선집』 (평양: 조쏘출판사, 1957); 드미트리 굴리아, 백석 역, 『굴리아 시집』 (평양: 조쏘출판사, 1957); 정선태, 「백석의 번역시」, 정선태 편, 『백석 번역시 선집』 (서울: 소명출판, 2012); 박태일,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84권 (2020).

16) 윤종성 외, 『외국문학 1 - 사범대학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17) 홍종욱, 「1950년대 북한의 반둥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 잡지 『국제생활』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61권 (2018), 385~387쪽; 김도민, 「1950년대 중 후반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전개와 성격」 『아시아리뷰』 제10권 1호 (2020), 159~166쪽. 다만, 1956년 이후 북한은 중립 및 평화공존의 이념에는 거

등 동유럽을 넘어서, 튀르키예, 몽골 등 아시아로 그 범위가 점점 확장하였고, 1960년 초반에 들어서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아이티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로 범위가 확장된다. 번역의 경로는 러시아어나 중국어를 경유한 중역이었다.¹⁸⁾

1950년대 북한은 소련 및 중국의 문학을 지속적으로 번역하지만 북한과 소련 및 중국의 관계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북한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외 정책 및 경제 건설 노선 등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이는 등 정치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다.¹⁹⁾ 1953년 스탈린 타계 후 1956년 2월 소련의 당 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정책을 비판하였고, 이는 전세계 사회주의 국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소련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와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중국의 마오쩌둥과 상의하여 ‘개인숭배’ 비판의 맥락에서 북한 정치에 개입을 시도하지만 이미 김일성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했기에 그 개입은 실패한다. 북한의 소련파와 연안파 역시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비판하지만, ‘8월 전원회의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 이외의 정치 세력은 모두 숙청된다. 문학의 영역에서는 1956년 5월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작가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이어서 문학의 도식주의에 대한 논쟁과 성찰이 이루어지지만, 역시 ‘8월 전원회의 사건’을 계기로 그 논의에 제동이 걸렸고 1958년 문학계의 부르주아 작가 비판을 경과하면서 문학은 다시금 경직화된다.²⁰⁾

리를 두고, 냉전의 진영 논리를 따르게 된다. 홍종욱,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 잡지 『국제생활』을 중심으로」, 391~394쪽.

- 18) 고자연, 「1950년대 북한의 외국문학 번역 양상 연구 - 몽골문학 번역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26권 (2020);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서목록 (1945.8-1960.12)』 (평양: 출판인쇄과학연구소, 1963), 557~577쪽.
- 19) 서동만, 「1950년대 북한의 정치 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1998), 307~309쪽.
- 20)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67-68; 和田春樹, 『スターリン批判 1953~56年 — 一人の独裁者の死』

2. 1960년대 『세계문학선집』(선집A)의 출판

‘8월 전원회의 사건’ 1년 전인 1955년 김일성은 소련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가진 소련계 정치세력을 비판한 바 있었다.

이번에 박창옥 등이 범한 과오도 그들이 조선문학운동의 역사를 부인한 데 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카프’ 즉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에 참가한 우수한 작가들의 투쟁도 없고 박연암, 정다산 기타 우리 나라의 선진적 학자,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선전하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인민학교에 가보니 사진을 걸었는데 마야콥스키, 뽀슈킨 등 전부 외국 사람들뿐이고 조선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교양해서야 어떻게 민족적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²¹⁾

김일성의 비판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소련계 박창옥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급이었으며, 조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조가 주체 확립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주체 사상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글이기도 하였다. 1958년 북한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보다 높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간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²²⁾ 동시에 1950년대 중반 시작된 중소갈등

がいかに20世紀世界を揺り動かしたか』(東京: 作品社, 2016), 373~375쪽;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서울: 소명출판, 2000), 47~72쪽.

2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도쿄: 구월서방, 1975]), 31쪽 및 34쪽. 이 글에서 북한의 문헌을 인용할 때는 표기법은 북한의 것을 따르며 띄어쓰기와 기호는 수정하였다.

22)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78~79쪽;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150쪽.

과 북한 내부의 소련파와 중국파에 대한 정치적 숙청 및 주체사상의 확립이 겹치면서, 북소관계 및 북중관계는 냉전의 진영대립 안에서 외형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히 약화되고 북한은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된다.²³⁾

북한은 주체사상을 확립해 가는 과정과 걸음을 같이 하여 1957~1961년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현대조선문학선집』 전 16권을 간행한다.²⁴⁾ 그리고 『현대조선문학선집』의 간행을 마무리할 즈음인 1960년부터 북한은 이어서 『세계문학선집』(선집A)을 간행한다. 선집A 가운데 처음 간행된 것은 마오둔의 『려명을 앞두고』(국립문학예술출판사, 1960; 선집A 71),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1권,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선집A 23), 미하일 솔로호프의 『개간된 처녀지』(1~2권,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선집A 65~66)이다. 소련과 중국 등 1950년대 북한이 우호적 관계를 가졌던 사회주의 국가의 문학이 『세계문학선집』 가운데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북소 및 북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으나, 그와 별개로 1959년 김일성은 소련의 고리끼와 중국의 루쉰의 작품을 “누구나 반드시 한번 읽어야 할 훌륭한 작품”으로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과 낡은 사회를 미워하고 새 사회를 무한히 동경하며 그것을 건설하려는 전투적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²⁵⁾ 특히 『려명을 앞두고』의 권두에는 마오둔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 이 서문에서 그는 신중국의 성립과 대약진 운동의 결과로 이 소

23)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東京: 中央公論社, 2005), 118~121쪽.

24) 1957~1961년에 간행된 『현대조선문학선집』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는 남원진, 「『현대조선문학선집』의 구성 원리와 균열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2호(2018) 참조.

25) 김일성, 「당사업방법에 대하여」(생산기업소 당조직위원 및 당위원장들, 도, 시, 군 당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9년 2월 26일), 『김일성 저작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도쿄: 구월서방, 1969]), 357쪽.

설에서 묘사한 상하이의 면모는 과거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이전의 과거와 사회주의 이후의 현재를 발전의 서사로 설명한다. 또한 그는 “영용하고 재능있는 조선 인민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아울러 중조 문화교류의 부단한 발전과 중조 량국 인민의 형제적 우의”를 기원한다.²⁶⁾ 『세계문학선집』 첫 간행물 출판이 사회주의 문화교류라는 맥락에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로 출판된 작품집에 각기 23번, 65~66번 및 71번의 번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볼 때, 당시 최소 71권 이상의 세계문학 선집 목록을 편성한 후, 그에 근거하여 선집을 출판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선집A는 출판을 멈춘다.

선집A가 다시 출판된 것은 1963년이였다. 북한의 출판사 통합 및 인쇄 시설 정비에 따라서 『세계문학선집』의 출판사는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로 통합되고, 인쇄소는 평양도서인쇄공장에서 평양종합인쇄공장으로 옮긴다.²⁷⁾ 세르반테스의 『동 키호테』(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선집A 3), 몰리에르의 『몰리에르 희곡선』(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선집A 6),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2권,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3; 선집A 24), 호메로스의 『일리아드』(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선집A 1), 바이런의 『바이론 시선』(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선집A 12), 톨스토이의 『부활』(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선집A 36), 하이네의 『하이네 시선』(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선

26) 모든, 『『려명을 앞두고』 조선문관 서문』(1960.5.27), 모든, 리영규 역, 『려명을 앞두고』(평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17쪽.

27) 1961년 3월 북한의 작가동맹출판사,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조선음악사, 조선미술사 등이 통합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가 창설된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소련 및 중국이 지원한 인쇄설비를 사용하다가, 1960년 2월 평양종합인쇄공장을 준공하여 본격적인 인쇄설비를 갖추게 된다. 윤재근 외, 『북한의 문화정보 1』(서울: 고려원, 1991), 86쪽 및 97쪽.

집A 22) 등의 서유럽 작가 7명의 작품이 한 해 동안 간행되었다. 이후 1964년에서 1967년까지 모두 19권의 작품집이 추가로 간행되는 것으로 선집A의 간행은 일단락된다.

북한은 당시 최선의 문화적 역량을 선집A에 투입하였다. 이는 이 책들이 양장판으로 출판되었다는 점과 상당한 부수가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집A의 출판 부수는 1960년과 1963년에는 10,000부를 발행하다가 1964~1965년에는 발행부수가 늘어서 대개 30,000부를 발행하며, 1966~1967년에는 3,000~7,000부를 간행한다. 『현대조선문학선집』의 경우 장편소설 소설집, 희곡집, 평론집 등 10권의 작품집은 30,000부씩 발행하고 시, 수필, 아동문학집 등은 10,000~20,000부를 간행했던 것을 고려한다면,²⁸⁾ 선집A의 발행 부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50년대 중국의 세계문학 잡지 『역문(译文)』이 60,000부를 간행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²⁹⁾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은 인구와 면적 대비 상당한 부수를 출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에 간행된 선집A는 1950년대 북한의 세계문학 번역 성과의 축적 위에 간행되었다. 선집A가 미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확인가능한 선집A의 출판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960년대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이 1950년대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 이미 출판된 세계문학 작품 중 영국 및 프랑스 서구의 작품 일부는 선집

28) 『현대조선문학선집』 중 『1권 - 소설집』(1957), 『3권 - 리기영 단편집』(1958), 『4권 - 한설야 단편집』(1959), 『5권 - 소설집』(1958), 『6권 - 소설집』(1958), 『7권 - 희곡집』(1958), 『8권 - 평론집』(1959), 『13권 - 장편소설 고향』(1959), 『14권 - 소설집』(1959), 『16권 - 장편소설 황혼』(1959) 등은 30,000부를 발행한다. 『15권 - 소설집』(1960)은 20,000부를 발행하며, 『2권 - 시집』(1957), 『9권 - 수필집』(1960), 『10권 - 아동문학집』(1960), 『11권 - 시집』(1960), 『12권 - 리복명 단편집』(1961)은 10,000부를 발행한다.

29) Paola Iovene, *Tales of Futures Past: Literature and Anticipation in Contemporary China* (Redwood C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p. 57.

A의 성과로 재편되지만,³⁰⁾ 1950년대에 다수 번역된 소련,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작품은 선집A로 편성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간행된 소련 및 중국의 작품을 제외한다면, 1963~1967년에 간행된 선집A는 대부분 서구의 근대문학이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제외하면 가장 이른 것은 17세기 작품인 세르반테스의 『동 키호테』이며 대부분의 작품은 18세기 이후에서 20세기에 걸쳐 있었다. 프랑스의 몰리에르, 스탕달, 발자크, 위고, 졸라, 영국의 스콧, 바이런, 셸리, 키츠, 새커리, 디킨스, 독일의 실러, 하이네, 하인리히 만, 토마스 만, 러시아의 톨스토이, 노르웨이의 입센 등의 작품이 선집A에 편성된다. 양식으로 보자면 소설이 대다수이며, 시와 희곡 등도 편성된다.

세계문학 인식의 변화는 1960년대 초반 북한의 세계 인식 및 대외 관계의 변화와 일정 정도 연동한다. 세계문학선집의 출판이 멈춘 1960년 이후 3년간 북한의 대소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으며,³¹⁾ 주체 사상의 확립

30) 1950년대 북한에서는 로버트 번즈의 『번즈 시집』 (김중옥 역, 평양: 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바이런의 『차일드 하롤드의 편력기』 (림학수 역, 평양: 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발자크의 『우제니 그랑데』 (평양: 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고리오 령감』 (전창식 역, 평양: 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등이 간행되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서목록(1945.8-1960.12)』, 579쪽. 번즈의 작품집은 『세계문학선집』 11권 『근대 영국 시선』의 일부로, 바이런의 작품집은 12권 『바이런 시선』의 일부로, 발자크의 작품집 두 권은 16권 『우제니 그랑데, 고리오 령감』으로 편성된다.

31) 소련이 조약 체결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1961년 7월 결국 김일성은 모스크바로 건너가서 북한과 소련은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당시 소련은 대미관계 개선에 보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실제로 '신뢰관계 없는 동맹조약 협상'에 가까웠다. 김일성은 소련에 알리지 않고 1957년 중국파 숙청 이후 악화된 대중관계 개선에 서둘러, 그 직후에 중국과도 같은 조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1962년 무기원조 및 핵기술 제공 등 군사적인 문제와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으로 북소 관계는 '관계단절 직전'까지 악화된다. 결국 1963~1964년 북한은 『로동신문』 사설 등을 통해서 소련에 대한 비난을 감추지 않으면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下斗米伸夫, 『アジ

에 발맞추어 같은 시기 북한의 역사학계에서는 주체적인 역사 이해를 강조하면서 소련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였다.³²⁾ 세계문학선집에서 소련문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서구문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1960년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스탈린 비판 이후 동독과 중국 등은 소련문학에 집중했던 세계문학의 범위를 서구문학으로 확장하고 있었다.³³⁾

북한이 참여했던 1958년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AA 작가회의)가 냉전 질서를 넘어선 문화 이해 및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 역시 일정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제1회 AA 작가회의에서 채택한 「AA작가회의가 세계작가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우리 AA국가 작가들은 서방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과 문화 관계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등문화와 하등문화를 나누는 것에 반대하며, 동방문화와 서방문화를 나누는 것도 반대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냉전을 넘어선 동서문화 교류를 촉구하였다. 1961년부터 북한은 AA작가회의 집행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북한 작가들이 참여하였고, 기관지 『더 콜(The Call)』에 북한의 문학이 소개되었다.³⁴⁾ 냉전 질서의 변동과 북한 내부의 상황이 복합적으

了冷戰史』, 120~122쪽.

32) 홍종욱,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제77권 3호 (2020), 42~53쪽.

33) B. Ventkat Mani, *Recoding World Literature: Libraries, Print Culture, and Germany's Pact with Book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7), pp. 200-201; Paola Iovene, *Tales of Futures Past: Literature and Anticipation in Contemporary China*, pp. 55-57.

34) 「亞非國家作家會議告世界作家書」, 世界文學社 編, 『塔什干精神萬歲 — 中國作家論亞非作家會議』 (北京: 作家出版社, 1959), 3~4쪽; 이병한, 「콜롬보의 유산 - 신중국과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 『중국현대문학』 제65권 (2013), 143~144쪽 및 152~153쪽; 이병한, 「AA작가회의 - 콜롬보로 가는 길」, 『플랫폼』 2012년 1·2월호 (2012). 1958년 미국과 소련은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평화공존’을 시험하였으며, 특히 소련은 AA 작가회의 역시 그 구도 안에서 움직이기를 바

로 작용하여 선집A는 중소문학과 서구문학이 함께 편성되지만, 후자가 대다수인 형태로 출판되었다.

선집A 가운데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북미 등의 대학 및 공공 도서관 등을 통해 출판을 확인한 것은 30권이다. 『려명을 앞두고』가 71번 도서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초 기획의 절반 가량이 출판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67년 '조선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주체사상의 성격 역시 나름의 합리성과 실용성을 가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서 김일성 개인 지배를 합리화하는 담론으로 변질되었다. 1968년 이후 『조선문학』은 문학지보다는 당 정책 선전지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역사과학』의 간행이 중지되는 등 북한의 인문학 전반이 위축된다. 번역을 맡았던 문학자가 숙청되기도 하였다.³⁵⁾ 또한 이 시기 북한은 군비 지출을 3배로 늘리고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일으키면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긴장은 최고조에 도달한다.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과 북한의 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하였다.³⁶⁾ 냉전의 긴장 및 국가간 갈등이 고조되는 동아시아 냉전 질서의 변동 및 '유일사상체제' 확립 이후 북한 사회가 경직되고 외국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문화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선집A의 출판은 멈춘다.

1967년 '조선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의 결과로 시작된 '도서정리 사업'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북한의 인문학 위축에 큰 역할을 하

랐다. 소련은 동서 문화교류를 강조하고 서구에서 배운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정치를 배제하고 문학에만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AA 작가회의 선언 초안에 '반제국, 반식민주의'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하였다.

35)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 문화사 연구』, 142~143쪽; 홍종욱,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52~53쪽; 홍종욱, 「주체 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 『역사비평』 제140권 (2022), 349~350쪽; 한상언, 「북한 번역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331쪽 및 340~341쪽.

36)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123~124쪽.

였다. 북한의 모든 기관 및 가정을 대상으로 ‘도서정리 사업’이 진행되었고, “수령 이상화, 항일무장투쟁의 절대화, 계급혁명 즉 반수정주의, 반부르주아 문화”를 기준으로 도서 전반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시행되었다고 전해진다. ‘제한이용’ 범주에 속하는 책은 먹으로 덧칠하거나 종이를 붙이거나 페이지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개별 도서에 물리적인 개입이 있었고, 특히 서구와 관련 있는 서적 대부분은 제지공장으로 보내져서 파쇄되었다. 서구의 영화, 음악, 미술, 문학 등은 금지되었고 외국도서의 반입 역시 금지되었다.³⁷⁾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그로 인해 경직된 사회의 분위기 안에서 1970년대 북한에서는 세계문학의 번역 및 출판 역시 이어지지 못한다.

3. 1980~1990년대 『세계문학선집』(선집B)의 출판

북한에서 세계문학에 대한 이해가 일신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는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으며, 1982년 김정일이 집필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확립을 보여주는 문건이었다.³⁸⁾ 주체사상 확립의 역설적 효과로서 북한에서는 조선문학 및 세계문학의 ‘해금’이 있었다. 1984년 전후 북한의 문학 연구자들은 ‘항일혁명문학’과 카프만을 인정한 기존의 조선문학 정전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고, 북한 당국은 정치적 행적을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작가를 ‘해금’한다. 해방 이전 예전보다 확장된 북한의 문학사적 시각은 『조선문학개관 2』(198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카프 조직 바깥의 작가”, 곧 이인직, 이광수,

37)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세계를간다, 2000), 312~315쪽, 458쪽.

38) 홍종욱, 「주체 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 353쪽.

최남선, 김소월, 한용운, 이효석, 심훈, 채만식 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1987년부터 '해금'된 작가를 포함한 『현대조선문학선집』을 간행하기 시작한다.³⁹⁾ 나아가 북한의 근대문학 연구자들은 1990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AKSE에 참여하였으며, 류만은 정지용, 이상화, 한용운, 김소월의 시로 발표한다. 또한 그는 김윤식과 한국의 정지용 및 북한의 한설야에 대해 대화를 주고 받는다.⁴⁰⁾

같은 시기 세계문학의 영역에서는 『세계문학선집』(선집B)이 다시 기획된다. 1984년 3월 31일 김정일은 “외국문학 번역사업과 관련하여 지도”를 내린다. “다른 나라 문예서적들 중에서 사상경향이 비교적 좋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번역출판하여 작가들과 일반 독자들이 보도록 하며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대내용으로 번역하여 작가들이 참고로 보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이후 김정일은 1984년 9월에는 『세계문학선집』의 규모 및 편집과 배열의 원칙을 지시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세계문학선집』을 총 100권으로 하되 그 배열 순위는 창작년대 순위로 하며 작가의 세계관의 제약성으로 하여 일정하게 부족점이 있는 작품이라도 세계적으로 공인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달아 내보내도록 할 데 대한 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었다. 뿐만 아니라 선집의 구성에도 종전의 구라과 중심에서 벗어나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

39)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김재용, 「분단 비극과 남북 통합의 상징 - 정지용」 『지구적세계문학』 제18권 (2021), 272~274쪽; 민족문화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1), 334~335쪽; 최현식, 「한용운·유산과 전통·애국주의」 『한국학연구』 제66권 (2022), 236~245쪽; 장문석, 「북으로 간 심훈과 채만식 - 북한 『현대조선문학선집』의 '해금 작가' 연구 서설」 『한국학연구』 제67권 (2022), 108~110쪽.

40) 김윤식, 「바르샤바·남북한문학·쇼팽 - 제14차 AKSE 회의 참가기」, 『환각을 찾아서』 (서울: 세계사, 1992), 272~277쪽; 북한 학자의 AKSE 참가에 관해서는 김윤식, 「유럽에서의 한국학의 표정들 - AKSE 제20차 대회 참가기」, 『아득한 회색, 선연한 초록』 (서울: 문학동네, 2003), 114~127쪽.

메리카 나라들과 사회주의 나라들의 작품비율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세계 문학선집 판찬에서 종래의 결함을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 당의 혁명적 립장과 주체적인 원칙을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시었다.⁴¹⁾

1984년 11월 새로운 『세계문학선집』 100권의 작품 목록(1984년 목록)이 공개된다.⁴²⁾ 1984년 목록을 살펴보면 선집B은 선집A와 기존 북한의 번역 성과를 계승하면서 종합 및 확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승의 측면에서 보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림학수 역, 평양: 문예출판사, 1989, 선집B 1), 실러의 『실러 희곡선』(조성관 역, 평양: 문예출판사, 1986, 선집B 19), 바이런의 『바이론 시선』(림학수 외 역, 평양: 문예출판사, 1991, 선집B 21), 셸리·키츠·스콧·번즈의 『근대영국시선』(림학수 외 역, 평양: 문예출판사, 1991, 선집B 22), 새커리의 『허영의 시장』(1권, 림학수 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선집B 31) 등은 선집A에 편성되었던 단행본을 다시금 선집B로 재편성한 것이다. 발자크의 『발자크작품선』

41) 최길상, 『주체문학의 새 경지』(평양: 문예출판사, 1991), 293쪽. 1984년 전후 김정일의 외국문학번역 사업 지시에 관해서는 같은 책, 292~293쪽에서 인용하였다. 김정일 지시의 구체적인 서지는 확인 중이다. 세계문학선집 출판의 구체적인 과정 또한 보다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다. 최길상에 따르면, 김정일은 세계문학 가운데 “사상경향이 비교적 좋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은 번역출판하여 작가들과 일반독자들이 보도록 하며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대내용으로 번역하여 작가들이 참고로 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면서, 인민을 위한 공개출판과 작가를 위한 비공개출판을 구분하였다. (같은 책, 292쪽.) 1980년대 북한의 세계문학의 공개출판 및 비공개출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42) 1984년 11월에 공개된 『세계문학선집』 100권의 목록은 오무라 마스오,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 현황」, 464~468쪽을 통해 소개되었다. 또한 이 글의 「부록」 북한의 『세계문학선집』 목록 및 출판 현황」의 164/165~174/175쪽에 ‘1984년 목록’의 번호, 국가, 장르, 저자, 작품집 제목을 제시하였다. 제1저자는 2020년 1월 5일 오무라 선생님께 1984년 목록의 출처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정확한 출처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에서 입수 가능한 문헌 및 경로를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다.

(평양: 문예출판사, 1991, 선집B 27)은 선집A의 『우제니 그랑데, 고리오 령감』(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선집A 16)에 같은 작가의 「굽세크」를 합편한 것이다.

1984년 목록에 따르면 세르반테스의 『돈끼호테』, 스탕달의 『붉은 것과 검은 것』, 졸라의 『제르미날』, 하이네의 『하이네시선』, 톨스토이의 『부활』, 입센의 『입센희곡선』 등 선집A의 출판물이 다시금 선집B로 간행될 예정이었다. 괴테의 『파우스트』, 플로베르의 『보바리부인』, 모파상의 『그녀자의 일생, 뻐에르와 장』, 디킨스의 『데이비드 카퍼필드』, 체호프의 『체호브작품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보이니치의 『등에』, 레싱 및 하우프트만의 『레싱, 하우프트만희곡선』, 시엔키에비치의 『꾸어바디스』 등도 1984년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선집A를 계승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선집B 역시 전체적으로 서구근대문학의 비중이 상당했다.

선집B는 선집A에 포함되지 않는 북한의 번역 성과 또한 계승하였다. 선집B에 포함된 라관중의 『삼국연의』(박태원 역, 1권 및 4권, 평양: 문예출판사, 1989 및 1991, 세계문학선집 7 및 10(목록 6 및 9))는 1959~1964년 박태원이 번역한 『삼국연의』(1~6권, 평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및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59~1964)를 다듬어서 4권으로 재편한 것이다. 실제 간행에 이르지 못하지만, 몽골의 작품 『초원의 려명』 역시 1958년에 번역된 것을 다시금 선집B로 편성한 것이다.⁴³⁾ 선집B는 선집A를 포함하여 북한의 세계문학 번역을 계승 및 종합한 세계문학선집이라 할 수 있다.

선집A와 선집B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 선집A가 호메로스의 『일리

43) 송강호, 「박태원 『삼국지』의 판본과 번역 연구」 『구보학보』 제5권 (2009), 220~232쪽; 고자연, 「1950년대 북한의 외국문학 번역 양상 연구 - 몽골문학 번역을 중심으로」, 23~28쪽.

아드』(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선집A 1)를 제외하고는 세르반테스 등 17세기 이후의 근대문학 작품을 주로 출판하였던 데 반해, 선집B는 시기 및 양식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서구문학의 정전을 포함한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희랍 희곡 『희랍고전극선』이 기획되었으며, 단테의 서사시 『신곡』(정문향 역, 1~2권, 평양: 문예출판사, 1988, 선집B 4~5[목록 5~6]),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주종길 역, 1~2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선집B 10~11[목록 11]), 셰익스피어 희곡의 『셰익스피어희곡선』(박시환 외 역, 1권 및 2권, 평양: 문예출판사, 1991 및 1995, 선집B 15~16), 밀턴의 서사시 『실락원』(조성관 역, 평양: 문예출판사, 1992, 선집B 17) 등이 실제로 간행되었다. 서구문학 작품만이 시기가 확장된 것이 아니다. 중국문학의 경우, 시경에서 송사까지를 포함한 『중국고전시선』(평양: 문예출판사, 1992, 선집B 3[목록 4])를 출판하여 서양의 고전인 『일리아드』와 짝을 맞추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의 4대기서 가운데 라관중의 『삼국연의』, 시내암의 『수호전』(백준선 역, 1권, 평양: 문예출판사, 1992, 세계문학선집 12) 등도 편성하였다. 20세기 초반 중국 루쉰의 『로신작품선』, 라오서의 『로사작품선』, 마오둔의 『한밤중』(『러명을 앞두고』), 1950년대 신중국 양모의 『청춘의 노래』, 20세기 초반 일본 나쓰메 소세키의 『나쓰메소세키작품선』 등의 출판을 기획하였고, 이중 『로사작품선』이 출판되었다. 서구문학에 비하면 그 수가 적지만 중국문학과 일본문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학 역시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전시기의 문학을 편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작가의 작품을 편성한 것 역시 선집B의 중요한 특징이다. 브론테의 『제인 에어』(홍순달 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선집B 29)와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박시환 역, 1~3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2000, 선집B 74~76[목록번호 73~75]) 등이 출판되었다.

나아가 선집B는 미국문학,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문학, 아시아아프리

카문학, 라틴아메리카문학으로 세계문학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미국 문학의 경우,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외 드라이저의 『미국의 비극』(리금진 외 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선집B 68~69) 목록번호 66~67)을 출판하였으며, 런던의 『마틴이돈』,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기획하였다. 소련 문학의 경우 선집A로 간행된 고리끼의 『고리끼작품선』, 솔로호프의 『개간된 처녀지』를 다시 간행하고자 했으며, 세라피모비치의 『철의 흐름』,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마야코프스키의 『마야코프스끼시선』 등의 출판을 기획하였다. 동구 문학으로는 유고슬라비아 안드리치의 『도리나강의 다리』, 불가리아의 『별가리아작품선』, 루마니아의 『로므니아작품선』 등의 출판을 기획하였다. 동아시아 외 아시아 문학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 및 베트남 작품을 합편한 『초원의 려명, 등불이 꺼진다』, 비동맹의 주요국 인도의 『인도작품선』 등이 기획되었다. 아프리카 문학으로는 세네갈 작가 우스만의 『열풍』, 알제리와 이집트의 작품을 합편한 『큰집, 농민』 등이, 라틴아메리카 문학으로는 브라질 작가 아마두의 『자유를 위한 투쟁』, 아르헨티나 작가 발레라의 『어두운 강물』,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작품을 모은 『라틴아메리카작품선』이 기획되었다. 미국문학, 소련 및 동구문학, 아시아아프리카문학, 라틴아메리카문학은 대부분 20세기 초중반 작품이 편성된다.

선집B는 당시로서 30여 년 정도의 시차를 가진 비교적 근과거의 작품의 출판을 기획하였다. 이들 국가의 문학을 선집B에 편성한 것은 1980년대 냉전기 북한의 세계 인식과 관련된다. 냉전 하 '자유진영'의 주요국가인 미국, '공산진영'에 속하는 소련 및 동구의 작품을 세계문학에 편성한 것이다. 1975년 북한은 비동맹 운동(the Non-Aligned Movement)에 정식으로 가입하는데, 그 영향으로 아시아아프리카문학 및 라틴아메리카문학을 편성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선집B는 1980년대 중반 북한이 외국문학의 유입을 금지하였던 1970년대대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선집B는 서구 및 동아시아의 고전으로부터 동시대까지를 시각에 넣고, 여전히 서구 문학이 대다수이지만, 미국문학, 소련 및 동구문학, 아시아아프리카문학,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포함하여,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선집B의 기획 및 출판은 1978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 등 사회주의권의 개혁 및 개방의 상황과 걸음을 같이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식민지 시기 작가의 ‘해금’과 그 걸음을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요청에 응한 것이기도 하였다.

총 100권으로 기획된 선집B 가운데 현재 간행을 확인한 것은 「[부록 북한의 『세계문학선집』 목록 및 출판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9권으로, 최초 기획의 40% 정도에 해당된다. 이 목록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출판된 선집B의 출판물이 있을 가능성 역시 열어둘 필요가 있으나, 북한이 선집B 100권을 완간하였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1980년대 중반 선집B를 기획한 후, 1980년대 후반 냉전 질서의 붕괴 및 국제 정치 질서의 변동,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 위기 등 북한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의 기획대로 선집B를 완간하지 못했으리라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선집B 중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은 1986년 투르게네프의 『투르게네프작품선』(표병준 역, 평양: 문예출판사, 선집B 39), 고리키의 『고리키작품선』(1권, 박정원 역, 평양: 문예출판사, 선집B 58), 라오서의 『로사작품선』(평양: 문예출판사, 선집B 77), 실러의 『실러희곡선』(평양: 문예출판사, 선집B 19) 등 네 권이다. 1987년 1권, 1988년 1권, 1988년 2권, 1989년 4권, 1991년 7권, 1992년 5권, 1993년 2권, 1994년 1권, 1995년 1권의 작품집이 간행된다. 특히 1991년과 1992년에는 가장 많은 종수의 출판물을

간행하였다. 이 시기에 간행된 작품들은 선집A로 출판되었던 것을 포함하여, 서구의 고대, 중세, 근대문학이 중심이 된다. 1996년과 1997년에 간행된 선집B의 출판물은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고난의 행군' 등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후 선집B의 출판을 재개되어 1998년 1권, 1999년 2권, 2000년 4권, 2001년 2권, 2002년 1권, 2003년 2권이 출판된다. 재개 후에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1~3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2000, 선집B 36~38), 로맹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김창호 역, 1~3권,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2003, 선집B 62~64[목록번호 61~63]),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박시환 역, 1~3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2000, 선집B 74~76[목록번호 73~75]), 드라이저의 『미국의 비극』(1~2권, 리금진 외 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및 문학예술출판사, 2001, 선집B 68~69[목록번호 66~67])이 간행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프랑스문학 및 20세기 초반 미국문학만이 간행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며, 모두 2~4권 분량의 작품이다. 재개 이후 출판된 작품 권수에 비해 작품 종수는 적은데, 이는 선집B의 출판에 들어가는 자원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 가능성 있다.

2003년 선집B는 간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에 기획된 선집B는 최초에는 100권 분량으로 서구문학 및 동아시아문학의 고대, 중세, 근대를 모두 포괄하고, 냉전 체제를 염두에 두고 미국문학, 소련 및 동구 문학, 아시아아프리카문학, 라틴아메리카문학 등을 모두 포괄하는 기획이었다. 1986년부터 선집B가 간행이 되는데 1988년 단테의 『신곡』 1~2권은 1984년 목록 번호로는 5~6권이지만, 실제 4~5권으로 출판되었다. 1986년 시기부터 애초의 기획에 변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6~1995년에 선집B는 선집A의 성과를 계승하며 주로 서구문학 및 동아시아 중 중국문학을 일부 간행하였고, 1998~2003년에는 미국과 프랑스

의 20세기 초반 문학을 주로 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선집B는 40권 가량이 간행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 기획하였던 소련 및 동구문학, 아시아문학, 아프리카문학, 라틴아메리카문학의 작품집은 간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6년 이래 선집B를 간행한 문예출판사는 1992~1993년에 문학예술종합출판사로 명칭을 바꾸었다.⁴⁴⁾ 이후 2001년 즈음 문학예술출판사로 출판사의 명칭이 조정된다. 인쇄부수는 또한 주목을 요한다. 1986년에서 2003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작품, 곧 소설, 희곡, 서사시의 경우 10,000부를 출판하였다. 다만 『중국고전시선』, 『근대영국시선』, 『바이론시선』 등 시집과 2003년 가장 마지막으로 간행된 『장 크리스토프』 제3권은 5,000부를 인쇄하였다. 선집B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던 『현대조선문학선집』의 인쇄 부수가 양식을 불문하고 대부분 10,000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집B는 소설의 경우 같은 양을, 시의 경우 절반의 양을 인쇄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⁴⁵⁾ 선집A의 출판 부수가 10,000부에서 시작하여 30,000부를 거쳐 3,000~7,000부로 마무리되어 낙차가 상당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고른 부수로 간행된 선집B는 유

44) 1961년 3월 기존의 출판사를 통합하여 창설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는 이후 문예출판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문예출판사에서는 현대문학, 조선문학, 외국문학 편집부가 각각 단행본을 출판하며, 또한 『조선문학』, 『청년문학』, 『천리마』, 『아동문학』, 『조선미술』, 『조선음악』, 『조선영화』, 『조선예술』 등의 월간지, 시문학 극문학 등의 계간지, 『조선문학예술연감』 등 연간 간행물을 간행한다. 윤재근 외, 『북한의 문화정보 1』, 86쪽; 전영선, 『북한의 출판보도체제와 내용분석』,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방송언론과 예술』 (서울: 경인문화사, 2006), 61~62쪽.

45) 『현대조선문학선집』의 인쇄부수는 조금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초기의 인쇄부수는 양식을 불문하고 10,000부이나, 2003~2004년에 간행된 『31권 - 상록수』와 『33권 - 철로교차점』은 각각 2,000부 3,000부를 인쇄했다. 2006년 이후 판권면에서는 인쇄부수를 기입하지 않는다.

통 및 수요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기획 아래 출판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인쇄소는 1986~1993년 사이 9권의 책은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인쇄를 하였고, 1986~2003년 사이 30권의 책은 평양종합인쇄공장-2에서 인쇄를 한다. 당시 『현대조선문학선집』이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인쇄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⁴⁶⁾ 조선문학과 세계문학의 인쇄 및 출판 과정이 별도의 부서 및 공장에서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II. '세계'와 '주체'의 상상

이 장에서는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에 나타난 '세계'와 '주체'의 관계를 '세계'와 '주체'의 동시적 구성, 북한 세계문학의 공간, 북한 세계문학의 시간이라는 문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와 주체의 동시적 구성 및 역전

195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세계문학'과 '조선문학'이 함께 언급되었다. 한참 정치적 숙청을 통해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던 김일성은 1959년에 행한 한 연설에서, "다른 나라 작가의 작품도 읽고 우리 나라 작가들의 작품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소련문학과 중국문학을 읽을 것을 권하였다. 그는 소련의 고리끼와 중국의 루쉰을 예로 들면서, 이들의 작품을 통해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과 낯은 사회를 미워하고 새 사

⁴⁶⁾ 현진건·라도향·리익상, 『단편소설집 행랑자식』 (평양: 문예출판사, 1990), 판권면. 인쇄는 1990년 8월 30일, 발간은 1990년 9월 20일이다.

회를 무한히 동경하며 그것을 건설하려는 전투적인 정신”을 배울 것을 역설하였다.⁴⁷⁾ 이 기록은 북한에서 ‘세계’와 ‘주체’에 대한 동시적 이해 및 구성을 요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언급은 1957~1960년에 걸쳐 전 16권 분량으로 해방 이전 조선문학사를 정리한 『현대조선문학선집』의 편찬되는 와중에 발표된 것이었다. 『현대조선문학선집』을 완간한 1960년 북한이 선집A의 간행을 시작하였던 것 역시 ‘세계’와 ‘주체’에 대한 동시적 구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시기에 따라서 강조점과 맥락에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세계’와 ‘주체’에 대한 동시적 이해가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다

김일성의 1970년 연설 「민족문화유산 계승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역시 조선문화의 전통계승을 강조하는 한편 외국문화에 대한 태도 역시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의 문화예술이 혁명적인 것이 못되고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덮어놓고 부정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민족의 발전력과 연관시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때도 있었고 유교가 들어온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 불교와 유교는 하나의 사조로서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불교가 지배적 교리로 되었을 때에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이 불교적 색채를 띠지 않을 수 없었으며 유교가 지배할 때에는 유교 교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⁴⁸⁾

47) 김일성, 「당사업방법에 대하여」(생산기업소 당조직위원 및 당위원장들, 도, 시, 군 당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9년 2월 26일), 『김일성 저작선집 2』(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68;도쿄: 구월서방, 1969), 357쪽.

48) 김일성, 「민족문화유산 계승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과학교육 및 문학예술 부분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김일성 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5쪽.

김일성은 전통시대 동아시아를 하나의 '세계'로 이해하면서 유교와 불교처럼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가진 종교가 '우리 나라'에 유입되었을 때 "그것을 덮어놓고 부정"하기 보다는 "우리 민족의 발전력과 련관"하여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김일성은 세계문학 번역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지난날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과학기술도서들과 혁명적인 문예서적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한 때 출판부문을 지도하던 일부 나쁜 놈들이 우리 인민들 속에 수정주의와 부르조아 사상을 퍼뜨리려고 다른 나라들에서 반동적인 책까지 탕탕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반동적인 출판물들을 끌어들이지 말 데 대하여 지시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후 일부 일군들은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나라의 책을 덮어놓고 보지 못하게 하였으면 지어[sic] 다른 나라의 자연과학도서까지 제대로 볼 수 없게 하였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 되었습니다. / 우리는 조선혁명을 위해서 뿐 아니라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는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와 함께 다른 나라의 력사와 혁명투쟁 경험도 알아야 하며 그러자면 다른 나라의 책들을 보아야 합니다. / 더우기 우리는 아직도 일부 과학기술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발전된 나라들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책을 덮어놓고 못 보게 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도서들과 혁명적인 문예예술작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번역출판하여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책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⁴⁹⁾

김일성의 연설은 당대의 시각에서 북한의 외국문학 수용과정을 재구성한다. 그는 외국문학을 무분별하게 수용했던 시기와 외국문학을 무조

49) 김일성, 「민족문화유산 계승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과학교육 및 문예예술 부분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33~34쪽.

건 배제했던 시기 모두를 비판하고,⁵⁰⁾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및 ‘과학기술도서’의 번역을 요청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김일성이 ‘주체’인 북한의 문화적 단계의 후진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번역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체’와 ‘세계’는 동시에 구성되는 한편, ‘주체’의 후진성은 ‘세계’의 선진성과 긴장을 이룬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세계문학 이해에는 시각의 역전이 발생한다. 세계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의 역전은 선집A와 선집B의 거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집A의 『일리아드』 해설 ⁵¹⁾	선집B의 『일리아드』 해설 ⁵²⁾
<p>[A-1] 이와 같은 모든 요소는 『일리아드』로 하여금 인류가 남긴 가장 귀중한 문화적 재보의 하나로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고대 및 근세의 작가들은 이를 자기들의 문학수업의 교과서로 삼았으며 모든 문학창작의 법칙을 이에서 습득하였던 것이다.</p> <p><u>엥겔스도 호머는 인물들에게 완전하고 선명한 개성적 풍모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맑스는 『일리아드』가 인류사회의 유년기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예술적 쾌락을 주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규범 및 도달할 수 없는 모범으로서의 의의를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다.</u></p> <p>『일리아드』가 오늘 인민적 의의를 갖는 가장 큰 리유의 하나는 그의 종교관과 정치관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집A, 10쪽)</p>	<p>[B-1] 이와 같은 모든 요소는 『일리아드』로 하여금 인류가 남긴 가장 귀중한 문화적 재보의 하나로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고대 및 근세의 작가들은 이를 자기들의 문학수업의 교과서로 삼았으며 모든 문학창작의 법칙을 이에서 습득하였던 것이다.</p> <p>『일리아드』가 오늘 인민적 의의를 갖는 가장 큰 리유의 하나는 그의 종교관과 정치관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집B, 5쪽)</p>
<p>[A-2] 이와 같이 『일리아드』는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로 일관된것, 생에 대한 긍정, 인도</p>	<p>[B-2] 이와 같이 『일리아드』는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로 일관된것, 생에 대한 긍정, 인도적</p>

50) 다만, 1983년 단행본에 실린 김일성의 연설이 외국문헌의 배제를 지난 단계의 상황으로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1967년 ‘조선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비롯된 도서정리의 여파는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연설은 1970년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간의 어긋남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교차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집A의 『일리아드』 해설 ⁵¹⁾	선집B의 『일리아드』 해설 ⁵²⁾
<p>적 세계관, 소박한 원시사실주의의 화폭들로 하여 실로 비범한 서사시이다.</p> <p>그러나 현대의 독자들이 참고하여야할 몇 가지 점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전사들의 출진과 퇴각이 한결같이 폭풍, 안개, 파도 등 자연현상과 집짐승을 습격하는 맹수, 맹수를 추격하는 목부 그리고 맹수와 맹수의 싸움 등으로 비유되고 있는 점이다. (선집A, 11쪽)</p>	<p>세계관, 소박한 원시사실주의의 화폭들로 하여 희랍과 구라파 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p> <p>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p> <p>“...민족고전을 발굴하고 그것을 계승하여 민족예술을 발전시킨다고 하여 과거의것을 덮어놓고 찬미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예술의 낡은 형식을 리상화하는 복고주의경향으로 흘러서는 안됩니다.”(『사회주의 문학예술론』, 64~65쪽)</p> <p>그 제한성의 하나는 우선 전사들의 출진과 퇴각이 한결같이 폭풍, 안개, 파도 등 자연현상과 집짐승을 습격하는 맹수, 맹수를 추격하는 목부 그리고 맹수와 맹수의 싸움 등으로 비유되고 있는 점이다. (선집B, 6쪽)</p>

선집A와 선집B의 1번 출판물은 모두 『일리아드』이며 작품의 번역 및 해설(critical introduction)은 모두 립학수가 담당하고 있다. 선집A 해설의 상당 부분은 25년 후 선집B의 서술로 계승되지만, 작품을 바라보는 근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선집A는 맑스 앵겔스의 문학예술론을 통해 『일리아드』의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하지만, 선집B는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일리아드』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힌다. 서구의 맑스 앵겔스의 문예이론이 가졌던 위치를 김일성의 교시가 차지하는 셈이다.

1967년 북한 문학예술의 미학적 근거가 맑스-레닌주의 이론에서 주체 사상으로 변화하고, 1980년 북한의 '지도사상'은 맑스-레닌주의에서 주

51) 립학수, 『『일리아드』에 대하여』, 호머, 립학수 역, 『일리아드』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10쪽 및 11쪽.
 52) 립학수, 『『일리아드』에 대하여』, 호메로스, 립학수 역, 『일리아드』 (평양: 문예출판사, 1989), 5쪽 및 6쪽.

체사상으로 변화한다. 나아가 1986년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제시하면서, ‘주체’ 자체가 ‘세계’가 되고 ‘주체’와 ‘세계’의 긴장은 해소된다.⁵³⁾ 1992년 김정일은 『주체문학론』을 통해 “주체의 문예관”의 정립을 요청하였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론인 동시에, “문학예술에서 민족적 특성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이론이었다. 『주체문학론』은 “우리는 언제나 다른 나라의 문학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좋은 것은 허심하게 배울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⁵⁴⁾ 이후 북한에서 주체의 문예관은 세계문학 이해의 근거로 기능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한 연구자는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 문학의 모든 현상을 보고 분석하고 주체적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맑스-레닌주의의 문예이론에 대하여 그 기반이 되는 맑스, 엥겔스, 레닌 등의 논설이 “거의 다거 철학적, 정치경제학적, 역사적 저서들에 삽입된 한 부분”에 불과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학설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점과 “주로 구라파문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에 비해 주체적 문예이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 완성시키신” 주체사상이라는 완결된 체계에 근거할 뿐 아니라, “서방문학과 함께 동방 여러 나라들의 문학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범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사조와 작가와 작품들, 문학의 재현상태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리론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⁵⁵⁾

53)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 선집 8』(제2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44쪽;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234쪽; 홍종욱, 「反식민주의 역사학에서 反역사학으로 - 동아시아의 ‘戰後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서술」 『역사문제연구』 제31권 (2014), 91-98쪽.

54)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13쪽 및 272쪽.

박사 및 부교수 김왕섭이 집필한 『실락원』의 해설 역시 '주체'와 '세계'의 역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⁵⁶⁾ 김왕섭은 밀턴을 역시 『세계문학선집』에 편성된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문학사의 대표적인 작가로 소개하면서 두 사람이 거의 동시대인임을 강조하고 밀턴을 “봉건군주제도를 반대하고 부르주아혁명과 공화제도를 옹호하여 필봉을 높이 든 시인”으로 설명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김왕섭이 『실락원』의 “종교전설의 형식”과 “성서의 형상”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김왕섭은 앞서 살펴본 「민족문화유산 계승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유교 및 불교에 대한 김일성의 언급을 직접 인용한다. 이어서 그는 “『실락원』이 기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기독교가 하나의 사조로서 구라파에 널리 퍼졌던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한다. 중세 동아시아의 보편적 신념체계인 유교 및 불교의 전파를 김일성이 설명하는 방식을 유비하여서, 중세 유럽의 기독교의 위상을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의 관심은 불교 및 유교를 외래종교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발전력사'와 관련하여 이해해야한다는 것이었기에, 김왕섭의 인용은 엄밀하지 못하다. 특히 김일성이 세계문학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 있음에도 김왕섭은 그것이 아니라, 조선문화와 외래문화의 관계에 대한 인용을 언급하였다. 김왕섭은 다소 느슨하게 김일성의 이론에 대한 유비(analogy)에 근거하여 『실락원』의 형식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유비의 방향 역시 역전된다. 「민족문화유산 계승에 나서는 몇 가지 문

55) 리기도,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96), 211~220쪽. 2012년부터 출판된 『김정일 전집』에서는 1961년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문학의 주체적 수용을 강조한 담화를 실었다. 김정일,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 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1년 6월 28일), 『김정일 전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56) 김왕섭, 「『실락원』에 대하여」, 존 밀턴, 조성관 역, 『실락원』 (평양: 문예출판사, 1992), 1~9쪽 참조.

제에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세계’의 선진성과 ‘주체’의 후진성이라는 구도를 전제하였으나, 1992년 김왕섭은 ‘주체’를 통해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의 역전을 바탕으로 김왕섭은 『실락원』의 ‘싸탄’에게서 “남에게 예속되어 살기를 원치 않으며 자유를 열렬히 갈망”하는 형상을 읽어낸 바탕으로, 서사시 『실락원』을 “적지 않은 제한성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나 반동적인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한 지난날 영국인민들의 투쟁정신과 당시의 시대정신을 힘있게 반영하고 서사시 창작의 높은 기교를 보여준 것으로 하여 영국과 구라파의 진보적문학의 발정에 이바지”한 작품으로 이해한다.

2. 북한 세계문학의 공간

북한의 세계문학 이해는 북한의 세계 인식 및 국제 관계와 연동하여 있다. 선집A는 소련 및 중국문학을 포함하지만 대부분 서구근대문학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선집B는 서구문학 및 동아시아문학의 고대, 중세, 근대를 포괄하는 동시에 냉전 질서 하 ‘자유진영’의 미국문학, ‘공산 진영’인 소련 및 동구문학, 아시아아프리카문학 및 라틴아메리카문학으로 세계문학을 기획한다. 『세계문학선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 가운데 공간의 문제를 세계문학선집이라는 형식, 미국 작품의 편성, 사회주의 및 아시아아프리카문학의 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우선 세계문학선집이라는 형식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선집A와 선집B 모두 ‘세계문학선집’이라는 제명 하에 출판되었고 최소 70권 이상, 100권의 규모로 기획되었으며, 그에는 질서가 부여되었다. 1950년대 소련 문학 번역이 세계문학선집으로 편성되지 않듯, 단행본으로 출판된 문학 작품이 모두 세계문학선집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선집A와 선집B

의 1권에는 『일리아드』가 배치되며, 전체적으로 시대순으로 작품 번호를 부여한다. 시간적 하한선은 선집A는 솔로호프의 『개간된 처녀지』, 마오둔의 『러명을 기다리며』 등 1930년대이며, 선집B는 브라질 작가 아마두의 『자유를 향한 지하투쟁』 등 1950년대이다.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은 고대 문학으로부터 20세기 초중반 문학까지 연대기적으로 배치하고 작품번호를 부여하여 하나의 체계와 질서를 구성하고 있다.

선집A와 선집B 모두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서구의 근대문학에 해당하는 문학이 다수 편성되어 있다는 점은 북한의 세계문학 이해가 식민지 조선의 세계문학 이해, 나아가 제국 일본의 세계문학 이해와 연동되어 있으며, 그것의 냉전적 변용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1980년대 선집B를 출판하는 번역 및 과정에서도 일본어 세계문학전집을 활용했다는 증언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⁵⁷⁾ 번역 저본의 활용 못지않게 『세계문학선집』이라는 형식 자체가 북한에서 세계문학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을 구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은 일본의 세계문학전집의 형식과 내용을 그 유산으로 하고 있었다.

20세기 초반 일본에서는 대략 8회에 걸쳐 10~40권 분량의 다양한 서양 문학 컬렉션(문고, 대관, 전집, 신선)이 산발적으로 간행된 바 있었는데, 1920~1930년대 출판사 신초샤(新潮社)는 그것을 집대성하여 『세계문학전집』을 간행하였다. 『세계문학전집』은 제1기 38권, 제2기 19권으로 편성되었다. 『세계문학전집』을 통해 “인생의 이모저모를 다 담은 인간학의 대교과서”인 세계문학을 “좋은 번역”과 염가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57) 성혜량, 『등나무집』, 457~460쪽 참조. 성혜림의 어머니 김원주는 식민지 시기 개벽의 기자로 활동한 지식인이었다. 김원주는 분단 이후 일본 서적 및 한국 서적을 정기적으로 북한 당국에 신고하고 구입하여, 김정일 관저나 비밀도서관 등에 보관하였는데, 그 가운데 소장된 50권 규모의 일본어 『세계문학전집』이 선집B의 번역 과정에서 저본 및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판매 제도를 활용하여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신초샤의 세계문학전집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세계문학’은 ‘대중화’된다. 이 전집은 단테에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연대기순으로 편집되었으며, 데카메론,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 괴테, 루소, 실러, 위고, 발자크, 디킨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 주로 서구-남성-근대작가의 작품을 주로 편성한 것이기도 하였다. 제국 일본에서 고안된 세계문학전집이라는 형식은 비서구에서 세계문학의 시작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50권 이상의 규모로 압축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문화적 기획이었다.⁵⁸⁾

1960년대 북한의 세계문학선집 출판은 일본 및 한국의 세계문학전집과 동시대적인 실천이었다. 1960년대 고도성장기 일본에서는 세계문학전집이 황금시대를 맞았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세계문학전집을 출판하였다. 20세기 초반 제국 일본 출판문화의 유산이 전후 동아시아에서 계승된 것이다.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에 “일본의 문학전집에서도 낮은 작품이 수두룩하다.”라고 지적한 오무라 마스오의 언급은 제국 일본의 유산이 북한에 계승된 양상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물론 차이도 있었다. 세 국가의 전집 모두 서구 문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일본과 한국의 경우 20세기 미국 문학의 비중이 높아졌다. 미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여전

58) 함동주, 「신초샤판 엔본 『세계문학전집』의 출판과 서양문학의 대중화」, 327~338쪽; 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 - 명작이라는 식민의 유령』, 151~170쪽 참조. 세계문학전(선)집이라는 형식은 제국 일본과 그 점령을 경험하였던 1930년대 상하이, 1945년 이후 타이완, 한국과 북한에서 확인 가능하다. 냉전기 신중국에서도 유사하게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정전을 이해하고자 하는 고민은 있었으나(Paola Iovene, *Tales of Futures Past*, p. 56.), 그것을 세계문학선집이라는 형식으로 출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orldCat 사이트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검색 및 확인하였다.

히 서구문학의 고전 중심이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서는 출판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수의 세계문학전집을 간행하여 경쟁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국가가 독점하여 출판하였다. 국가가 '대규모 번역 기획'을 세우고 당대 최선의 역량을 세계문학선집에 투입하는 장점이 있으나, 번역물 한편의 출판은 기획의 완수를 의미하기에 다시 기획 때까지 번역이 갱신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⁵⁹⁾

1945년 이전 일본의 세계문학전집이라는 형식의 기원을 공유하는 일본, 한국, 북한의 세계문학전(선)집은 시대, 국가 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모해간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1960년대 선집A는 일본의 세계문학전집의 유산을 공유하면서 서구문학의 고전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후 1980~1990년대 선집B는 선집A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미국문학, 사회주의 및 아시아아프리카문학으로 세계문학의 범위를 편성하였다.

선집B의 미국문학으로는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드라이저의 『미국의 비극』 등이 실제로 출판이 되었고, 런던의 『마틴이둔』,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가 기획되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의 흥행과 함께 일본과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세계문학전집에 수 차례 편성된 바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비극』을 편성한 것은 다소 눈길을 끈다. 해설을 쓴 김왕섭은 이 작품이 “미국식 생활 양식의 해독적인 후과와 미국식 ‘민주주의’의 허위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사실주의적 소설창작의 높은 기교를 보여준 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여 나게 하는 데서와 미국에서 진보적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것을 그 문학사적 의의로 정리하였다.⁶⁰⁾ 미국에

59) 오무라 마스오, 「네 종류의 선집과 북한의 문화적 수준」, 40쪽. 1960년대 일본 및 한국의 세계문학전집 출판에 대해서는 田坂憲二, 『文学全集の黄金時代 - 河出書房の1960年代』 (東京: 和泉書院, 2007), 25~66쪽; 박숙자, 「100권의 세계 문학과 그 적들 - 식민/탈식민 세계문학전집의 조건과 가능성」, 91~101쪽 참조.

대한 비판으로서 『미국의 비극』을 읽은 것이다. 동시에 드라이저는 1958년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에서 익명의 소련 시인이 서구문학의 수용을 요청하면서, “식민주의와 문화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텔레스와 드라이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던 작가이기도 했다.⁶¹⁾ 1958년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의 한 언급은 40년 후 북한에서 현실화된 셈이다. 특히 선집B는 냉전 체제의 변동과 경제적 위기 등으로 기획한 100권 중 일부만 출판되는데, 미국 문학 작품은 대부분 거의 마지막으로 출판된다. 경제적 위기로 한정된 자원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냉전 질서 붕괴 이후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의 격변 속에 주요한 타자로 부상한 미국의 문학을 선집B의 간행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집B에는 사회주의 문학, 즉 소련 및 동구문학과 아시아아프리카문학, 라틴아메리카문학이 편성된다. 북한과 아시아아프리카문학과의 만남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북한의 AA운동 및 비동맹운동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전지구적으로 그 열기가 높았던 1950년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966년 1월 쿠바혁명 및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쿠바 아바나에서는 트리컨티넨탈 회의가 열렸고, 3개 대륙 82개국에서 온 500여 명의 대표 및 200여 명의 참관인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는 반식민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3개 대륙 국가의 ‘해방운동’을 연결하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Organization of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의 결성으로 이어졌다.⁶²⁾ 1968

60) 김왕섭, 「드라이저와 장편소설 『미국의 비극』에 대하여」, 시어터 드라이저, 리금진·한룡덕 역, 『미국의 비극 1』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9쪽.

61) Kyle Haddad-Fonda, “Afro-asian Writers’ Conferences (1958-1979),” Black Post, 2017. <https://www.blackpast.org/global-african-history/afro-asian-writers-conferences-1958-1979/> (접속: 2023.5.8)

62) “The Art of the Revolution will be Internationalist,”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년 김일성은 체 게바라의 타계 1주년을 맞아 이 기구에서 간행하는 『트리컨티넨탈(Tricontinental)』에 기고한 글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는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중립주의 국가도 있으며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나,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은 국가 사회 정치 제도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피압박민족으로서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민족적 변형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매개 나라들은 공동의 적을 때려 부시고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반미공동행동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⁶³⁾ 1960대 후반 북소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미중의 접근을 받아들인 1972년 남북공동성명 역시 북한이 소련을 배제한 채 발표되었다. 이후 1975년 북한은 소련과의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동맹 운동에 참가한다.⁶⁴⁾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와의 만남을 통해 북한은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게 된다.

1980년 북한에서는 『외국문학사 - 김일성종합대학용』이 간행된다.⁶⁵⁾ 이 책의 목차를 표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Social Research, 2019. <https://thetricontinental.org/the-art-of-the-revolution-will-be-internationalist/> (접속: 2023.5.8)

- 63) 김일성,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체 게바라 전사 한뫼에 즈음하여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 리론잡지 『뜨리컨띠넨탈』 제8호에 발표한 논문 1968년 10월 8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8~19쪽.
- 64)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123~124쪽.
- 65) 박승숙·김태섭·한유정, 『외국문학사 - 김일성종합대학용』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

	동방문학	서방문학
제1편 고대외국문학	고대동방문학	고대서방문학
	시가집 『시경』, 우화집 『핀차탄트라』	서사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고대희랍의 비극과 희극
제2편 중세외국문학	중세동방문학	중세서방문학
	리백과 두보의 시, 장회체소설 『삼국연의』, 『수호전』, 『서유기』, 이야기집 『천하루밤이야기』	서사시 『이고리공원정담』, 『롤랑의 노래』, 서사시 『신곡』
제3편 중세 말기 및 근대 외국문학	봉건사회 붕괴기의 동방문학	봉건사회 붕괴기의 서방문학
	장회체 소설 『홍루몽』, 장편서사시 『끼예우의 이야기』	문예부흥기 사실주의 문학 (희곡 『베니스의 상인』, 비극 『햄릿』, 『오셀로』, 풍자소설 『돈 께호테』, 공상소설 『유토피아』) 고전주의 문학(몰리에르의 희극, 서사시 『실락원』) 계몽기 사실주의 문학(희곡 『무리도적』, 『일헬름 텔』, 장편소설 『갈리버의 여행』, 소설 『로빈슨 크루소』, 여행기 『베제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에로의 여행』)
	부르조아민족운동 시기의 동방문학	자본주의 시기의 서방문학
	중국의 견책소설, 타고르의 시	진보적 낭만주의 문학 (장편소설 『버림받은 사람들』, 서사시 『차일드 하롤드의 편력기』)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장편소설 『고리오명감』, 『돛비와 아들』, 『허영의 시장』, 희극 『검찰관』, 장편소설 『죽은 녀』) 혁명적 민주주의 문학(베랑쥬의 시, 영국 차티스트문학, 뻬떼피, 하이네, 쉘첸코의 시)
		계국주의 시기, 프로레타리아혁명 시기의 서방문학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장편소설 『등에』, 『움트는 시절』, 『부활』, 『충복』) 프로레타리아문학(빠리 꿈문 문학,	

	동방문학	서방문학
		시 『인터나쇼날』, 로씨야 프로레타리아문학)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소설 『어머니』)
제4편 현대외국문학	현대동방문학	현대서방문학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발생발전(소설 『아규정진』, 『축복』, 『소년방랑자』, 『압록강가에서』, 『등불이 꺼진다』)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발전(장편소설 『세찬바람』, 가극대본 『백모녀』, 장편소설 『청춘의 노래』) 신흥세력 나라들의 문학	소설 『철의 흐름』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고난의 길』, 『일곱번째 십자가』, 『미국의 비극』, 『공산주의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20세기 세계송가문학	

『외국문학사 - 김일성종합대학용』의 목차는 1980년대 당시 북한의 세계문학 이해를 보여주는 한편, 선집B 편성의 이론적 근거를 보여준다. 북한은 세계문학을 ‘동방문학’과 ‘서방문학’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동방문학’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을, ‘서방문학’에는 서구 및 미국문학, 소련 및 동구문학을 배치한다. 또한 고대, 중세, 중세 말기 및 근대, 현대로 세계문학의 시기를 구분한다.

목차나 체계의 측면에서 ‘서방문학’이 훨씬 풍요롭다는 점에서 이 책의 세계문학 이해는 사조사 중심의 ‘서방문학’의 전개를 기준으로 하고, ‘동방문학’을 그에 맞추어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초반 이후 동아시아에서 세계문학의 근간이었던 ‘서방문학’을 중심으로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북한이 마주한 세계인 ‘동방문학’에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한다. 따라서 이 책이 보여주는 세계문학에 대한 이해는, 20세기 전반기 제국 일본에서 비롯된 비서구의 세계문학 인식이 냉전기 ‘주체’ 이념의 자

장 안에서 독자적인 자기발현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북한 세계문학의 시간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의 시간은 고대로부터 20세기 초중반에 이른다. 이 절에서는 특히 선집B를 중심으로 북한 세계문학의 동시대성 확보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과 젠더의 문제에 주목하여 북한 세계문학의 동시대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선집B가 간행되고 있던 시점인 1993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세기 말엽에는 페미니즘 비평이 전개되면서 중요한 비평적 의제를 제시하였고, 젠더와 함께 인종은 주제로 자리매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집B를 살펴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의 작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모리슨과 그 이전의 주요한 아프리카-아메리칸 작가인 W.E.B. 듀보이스(Du Bois),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 등은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집B의 출판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번역자와 편집자들이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 문제에 대해 나름의 관심이 작품의 선별과 번역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셀리, 키즈, 스콧, 번즈의 시를 실은 『근대영국시선』(림학수 외 4인 역, 평양: 문예출판사, 1991. 선집B 22)에 실린 로버트 번즈의 시 「흑인노예의 설움」을 살펴보면, 노예문제에 대한 관심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 영시 원어 제목은 “노예의 한탄(The Slave’s Lament)”이다. 하지만 번역자 주종길은 시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인 “세네갈”과 “버지니아땅”을 근거로 제목에 “흑인”을 제목에 삽입하여 이 시에 등장하는 노예가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임을 명백히 제시한다.⁶⁶⁾ 다만 번역자는 노예에 대한 역

압을 강조하기 위해, 시의 상당 부분에서 과도한 번역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 시는 총 3연으로 구성되는데, 각 연에서 두 행으로 반복되는 후렴구를 한 행으로 줄인다거나, “아!” 정도에 번역하는 것이 적당한 “And alas,”를 “원통하고나”로 옮겨서 원시의 의도를 초과하기도 한다.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3권, 박시환 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2000, 선집B 74~76[목록번호 73~75])의 출판 역시 노예제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동명 영화의 흥행으로 1945년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도 크게 유행한 작품이며, 세계문학선집에 빠지지 않고 편성된 작품이다. 북한의 선집B에 미첼의 대중소설을 편성한 이유는 해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사 리수립의 해설에 따르면, 이 소설은 무엇보다 “19세기 후반기 미국 역사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하고 있다. 해설은 이 소설이 “남북전쟁과 전쟁보다 더 참혹”하였다는 “전후의 이른바 ‘재건시대’의 비참한 삶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그 시대가 “노예제에 기초한 남부 주들의 봉건적생산관계와 사회생활에 얼마나 파국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서술하였다. 전체 해설 분량 14면의 절반 이상은 노예제에 기초한 남부의 “봉건체제”와 북부의 “신중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정보이다. 리수립의 해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을 노예제의 결과와 인종주의 및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소설로 독해하여,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드라이저의 『미국의 비극』에서도 볼 수 있듯, 2000년 전후 북한의 미국문학 이해는 미국사회 비판이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66) 로버트 번즈, 주종길 역, 「흑인노예의 설움」, 셸리·키즈·스코트·번즈, 림학수 외 역, 『근대영국시선』(평양: 문예출판사, 1991), 479쪽. “종살이, 고생살이를 나는 견뎌내야 한다. / 백인의 잔인한 채찍을 무서워하며 / 낫선곳, 여기 버지니아땅에서, 오!”

살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홍순달 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선집B 29)는 선집B에 편성된 여성 작가의 작품이다. 이 작품의 해설에서는 브론테가 “영국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사람이자 “녀류작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작품의 경계를 제시한다. 하지만 선집B의 해설에서 가부장제 및 젠더 역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제인 에어』에는 권력 및 계급적 격차가 상당한 여성 인물 제인과 남성 인물 로체스터가 등장한다. 플롯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소 갑작스러운 제인의 유산상속과 로체스터의 장애를 계기로 두 사람은 상대적 평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해설자는 이러한 서사적 전개를 우연으로 이해하면서 “생활의 논리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비판한다.⁶⁷⁾ 이 해설이 쓰인 1990년대 초반은 『제인 에어』에 대한 독해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단계의 페미니즘 비평이 구성되고 그 논리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던 시대였다. 창작의 영역에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여성작가들은 현모양처의 상을 탈피하고 여성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었다.⁶⁸⁾ 서사의 개연성을 강조하면서 우연성을 비판하는 북한 선집B의 해설은 동시대 특히 서구의 페미니즘 비평계와는 호흡을 같이하지 못하였다.⁶⁹⁾

67) 김왕섭, 「장편소설 『제인 에어』에 대하여」, 살럿 브론테, 홍순달 역, 『제인 에어』(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쪽 및 9쪽.

68)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257~260쪽; 김재용·이상경,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 - 북한의 여성문학』(서울: 소명출판, 2022), 99~126쪽.

69) 『제인 에어』에서 남편인 로체스터에 의해 다락방에 감금되어 광기와 분노를 분출하게된 버사 메이슨에 주목하여, 페미니즘 비평에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연 여성비평가로는 샌드라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수전 구바(Susan Gubar),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비평에 물꼬를 튼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이 있다. Sandra M. Gilbert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이 책은 한국에

IV. 번역과 문학

이 장에서는 문학선집으로서 북한 『세계문학선집』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번역자, 해설자, 번역자 등 북한에서 세계문학에 개입하는 다양한 주체와 각각의 언어 및 문화적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세계문학의 편집자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의 출판 과정에는 많은 주체가 참여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1950년대부터 번역합평회를 진행하고 번역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⁷⁰⁾ 선집A를 간행하는 과정에서도 합평회는 진행되었다.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외국문학분과위원회에서는 『레 미제라블(1)』(석인해, 한면상 역)에 대한 번역합평회를 진행하였다. 회의에는 외국문학분과위원들과 작가들 및 편집자들이 참가하였다.

주 토론자 전장식은 세계문학선집 발간의 의의, 예술 번역의 원칙, 『레 미제라블(1)』 번역에서의 역자의 노력, 번역에서 발견된 일정한 결함들을 지적하였다.

토론에서는 역자의 번역 태도, 작품 ○○에 대한 침투, 역자 선정 문제, 독자식 직역주의의 유해성, 번역 조직과 출판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토론에는 박시환, ○○○, 박우천, 박영근, 홍동수, 강○구, 한면상, 최일

2009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번역되었다.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ritical Inquiry*, vol. 12, no. 1 (1985), pp. 243-261.

70) 「번역문학의 질 제고에로」, 『문학신문』, 1957.1.17; 「번역의 질을 높이자」, 『문학신문』, 1957.4.4; 「번역문학 합평회」, 『문학신문』, 1957.6.27.

들이 참가하였다.⁷¹⁾

『레 미제라블』 1권은 1960년 10월 5일에 간행되는데,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번역자, 작가, 편집자들이 번역합평회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합평회에서는 번역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한편, 축자식 직역주의 비판 및 예술번역의 원칙 등 번역의 기율을 확인하는 한편, 번역출판의 과정을 토론하였다. 이러한 합평회는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중요한 주체가 번역자, 해설자, 편집자였음을 보여준다.

선집A와 선집B의 판권면에는 번역자 외에 편집, 편성, 교정 담당자의 인명을 명기하였다. 이는 선집A와 선집B의 출판이 공동작업임을 보여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편집자는 단행본의 체계구성, 번역 비평 및 검토, 텍스트의 교열 및 교정 등을 통해 번역 및 출판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선집B와 함께 간행된 『현대조선문학선집』의 경우 편집자 외에 편찬자 류희정이 직접 신문 및 잡지의 원문을 검토하고, 텍스트를 입력 및 교정하여 『현대조선문학선집』이 정확한 텍스트에 기반하여 출판될 수 있도록 하였다.⁷²⁾ 선집A에서 『우제니 그랑데, 고리오 령감』 및 『레 미제라블』 3권, 『프랑스단편선』, 『붉은 것과 검은 것(1830년대 년대기)』 등을 편집한 계병용은 자신이 편집한 『프랑스단편선』에 공동번역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선집A에서 『허영의 시장』, 『아이반호』, 『근대영국시선』 등의 편집자인 주종길은 『근대영국 희곡선』의 번역자이기도 하였으며, 선집B에서는 『데까메론』과 『썩스피어 희곡선』 1~2권의 번역에 참여한다. 계병용은 주로 프랑스문학 번역작

71) 『『레 미제라블』(1) 번역 합평회 진행』, 『문학신문』, 1961.4.14. 판독하지 못한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72) 정원길, 「깨끗한 량심에는 인생의 봄만 있다 - 『현대조선문학선집』을 편찬하고 있는 작가 류희정 동무에 대한 이야기」 『문학신문』, 2004.8.21.

품집의 편집자로, 주종길은 주로 영국문학 번역작품집의 편집자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편집자는 해당 외국어 및 문학에 대한 전문성 및 조예를 갖춘 인물이라 예상할 수 있다. 편집자는 합평회에 번역자와 함께 참여하는 동시에 번역을 담당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조선문학선집』의 편집에 류희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집B에서도 여성 편집자의 활발한 활동이 두드러진다. 『아이반호』, 『썬스피어희곡선』 1~2권, 『근대영국시선』, 『제인 에어』, 『허영의 시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3권, 『미국의 비극』 1~2권 등 작품집 11권에서 편집자 리혜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이 모두 영미문학 작품임을 눈여겨 볼 때, 리혜란은 영어 및 영미문학에 전문성을 갖춘 편집자로 예상할 수 있다. 리혜란은 선집B에 앞서서 1980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간행한 『외국문학사 - 김일성종합대학용』에도 편집자로 참여한 바 있으며, 선집B 작업을 마친 후에는 안드레이 쉘르바의 장편소설 『고요한 소도시』(리인주 역,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의 편집을 맡았으며, 2013년에는 학교 교육 참고서인 『국어교수 참고서 - 초급중학교 1학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을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또한 리혜란은 2009년 시 「인민대학습당이여」를 발표하는데, 이때 소속 및 직위를 '인민대학습당 번역관리소 번역원'으로 적었다.⁷³⁾ 2019년에는 문학신문의 기자로서 시인 김상오를 인터뷰한 기사를 싣기도 한다.⁷⁴⁾ 리혜란은 창작자, 번역자, 편집자, 시인의 주체성을 모두 가진 여성 주체로 볼 수 있다. 리혜란과 류희정 등의 존재는 1990년대 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과 『세계문학선집』의 기획 및 편집과정에 여성 문화기획자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추론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요청한다.

73) 리혜란, 「인민대학습당이여」 『청년문학』 2009년 4호 (2009).

74) 리혜란, 「서정시 『나의 조국』을 쓰게 되기까지」 『문학신문』, 2019.10.26.

2. 북한 세계문학의 해설자

선집A와 선집B의 대부분 작품에서는 번역자와 작품의 해설자가 별도로 존재한다. 번역자는 외국어 전문가이자 번역문학을 창작하는 문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해설자는 연구자 및 비평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설자의 경우 각 책 첫머리에 해설을 쓰고, 해설 말미에 직위와 이름을 쓴다. 많은 경우 해설자는 부교수, 교수 등의 학직과 박사, 준박사의 학위를 가진 연구자이다. 『근대영국시선』의 해설 「『근대영국시선』에 대하여」를 집필한 김왕섭은 1991년 당시에는 준박사 학위를, 1993년 『제인 에어』의 해설을 집필할 때 그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2009년에는 사회과학원의 후보원사 칭호를 받는다.⁷⁵⁾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해설을 쓴 리수립 역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해설자들이 가진 연구자 정체성은 그들의 해설 문장 안에 그 흔적을 남긴다. 예컨대 김왕섭은 『제인 에어』에 대한 해설에서 이 작품에 대하여 “반동적 평론가들”이 폄하하는 것에 거리를 두면서, “작품의 진보적 경향성”을 증명하고자 한다.⁷⁶⁾ 이 언급은 해설자가 영미의 『제인 에어』 비평을 어느 정도 참고하고 있음을 짐작하도록 한다. 번역자가 해설까지 맡은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립학수인데, 그는 문학자 정체성과 연구자 정체성 모두를 가진 인물이었다.

75) 「北, 김정일 생일행사 본격 시작」 『연합뉴스』, 2009.2.5; 북한의 “과학원 후보원사는 중요한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수한 학자들 중에서 선출된다.” 과학원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연혁』, 109쪽. 1952년 종합 학술기관으로 설립된 과학원은 1965~1964년 점진적으로 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 사회과학원으로 분리된다. 1960년대 중반 사회과학원 산하에는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력사연구소, 철학연구소, 언어학연구소, 문학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전연구소가 설치된다. 김용섭,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서울: 지식산업사, 2005), 221~234쪽.

76) 김왕섭, 「장편소설 『제인 에어』에 대하여」, 9쪽.

선집B 『근대영국시선』의 해설을 통해 비평적 판단의 논리 구조와 비평 언어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김왕섭의 비평 언어는 김일성의 저작에 등에 근거를 두고 교시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주제적 비평개념 언어들이다. 해설의 서두에서 해설자는 김일성의 “교시”⁷⁷⁾를 굵고(Bold) 각진(Gothic) 글꼴로 제시한다. 이 해설에서는 “**예술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현실생활과 그들의 투쟁을 옹계 반영해야 하며 인민들을 뒤로 돌아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호소하여야 합니다. 이런 예술이라야 진정한 인민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김일성 저작집』 제6권, 522 페이지”)라는 서지 정보와 함께 인용한다.

김일성의 교시를 해석의 근거로 제시한 후, 해설자는 작품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는데, 해설에서 인용하는 김일성의 교시는 세계문학에 대한 언급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해설자는 김일성의 ‘교시’를 북한의 생활이나 문학에 적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세계문학’이라는 타자의 문학을 바라보는 근거로 활용한다. 예컨대 시 해설에서 김왕섭은 김일성의 ‘교시’에서 활용한 ‘투쟁’이라는 개념을 작품 해석에 활용한다.

(1) 셸리의 서정시 가운데도 압박받는 인민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고 침략자와 압제자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호소한 작품이 많다.

(2) 키즈의 시들은 압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의 호소가 약하고 유타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나 억압과 부정의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수난을 반영하고 그에 동정을 표시하였으며 영국 시어를 다양한 표현 수단들로 풍부화한 것으로 하여 영국에서의 진보적 량만주의 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⁷⁸⁾

77) 김왕섭, 「『근대영국시선』에 대하여」, 셸리·키즈·스코트·번즈, 립학수 외 역, 『근대영국시선』 (평양: 문예출판사, 1991), 5쪽.

해설자 김왕섭은 (1)에서 셸리의 시의 긍정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투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2)에서 키츠의 시의 부정적 제한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투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김일성의 ‘교시’에서 사용한 ‘투쟁’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작품의 성취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사 리수립 역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해설하면서 김일성의 ‘교시’를 바탕으로 자신의 비평을 전개한다. 그는 “극단적인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사람들이 서로 반목 질시하고 공명과 출세,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제시한다.⁷⁹⁾ 리수립은 김일성의 ‘교시’를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중심인물 스칼렛의 성격을 해석해간다. 북한의 세계문학 해설에서는 김일성 및 김정일의 언급을 1건 이상 인용한다. 해설자들은 김일성 및 김정일의 언급을 해석의 불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서도, 그 언급의 전체 혹은 일부 개념을 활용하여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면모도 보인다.

78) 김왕섭, 『『근대영국시선』에 대하여』, 9쪽, 12쪽.

79) 리수립, 「장편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하여」, 마거레트 밋첼, 박시환 역,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7쪽.

3. 북한 세계문학의 번역자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산하의 문학가동맹에 외국문학분과를 두었고 번역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문학적 실천의 하나로 이해하였다. 1950년대 백석이 사례가 되듯, 작가들은 번역에 적극 참여하였다. 소설가 박태원 역시 1960년을 전후하여 『삼국연의』를 번역하였다. 시인이자 김일성종합대학 영문학과 교수인 입학수는 『일리아드』, 『근대 영국 시선』, 『바이론 시선』, 『허영의 시장』의 번역자였으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분과에 소속된 시인 김상훈은 『중국고전시선』의 번역자였다.⁸⁰⁾

문학자가 번역자로 다수 참여했다는 점은, 앞서 합평회에서 강조한 ‘예술번역’이라는 지향과 관련된다. 제자의 회고에 따르면 립학수는 “번역작품의 예술성과 역자의 창작적 기능”을 강조하였고, “원작가의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양식, 표현수법과 즐겨쓰는 말씨 등 그의 문체와 개성이 살아나고 개개의 단어와 표현이 가지는 색채와 음영이 그대로 반영되면서도 세련된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예술번역에서 요구되는 원칙”으로 언급하였다.⁸¹⁾

북한의 세계문학 번역은 독자인 북한 인민에게 낭만적 심성과 자유로운 언어 표현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영국 낭만주의 시는 “정신과 자연의 상상력 결합”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⁸²⁾ 영국 낭만주의 시의 번역은 독

80) 박진영, 「번역가 김억과 입학수의 머리말」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0권 (2015), 220~225쪽; 최현식, 「신성한 수령의 발명, ‘범속한 모성’에의 회귀 - 김상훈의 북한 시편 읽기」 『한국시학연구』 제52권 (2017), 330쪽; 허경진, 「김상훈의 학창시절과 고전번역」, 연세학풍연구소 편, 『남북분단 속의 연세학문』 (서울: 혜안, 2017), 266~271쪽.

81) 립영, 「스승에 대한 회상」 『조선문학』 2002년 9월호 (2002), 74쪽.

82) Jonathan Bate, *The Song of the Earth*, London: Picador, 2000, p. 245.

자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유기적 삶의 공동체를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언어 표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번즈의 시들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때려 부시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사상을 심어주지 못하였으며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기만 하면 그 속에도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소부르쥬아적 ‘청빈’ 사상에 머무른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농민들의 지향을 반영하고 민요형식을 받아들였으며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영국 낭만주의 시문학에 영향을 주었다.⁸³⁾

김왕섭은 『근대 영국 시선』에 편성된 “이름있는 시인들”인 셸리, 키츠, 스콧의 시가 자연과 노동,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훌륭하게 제시하는 과정이 곧 “영국 시어를 다양한 표현수단으로 풍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영국 낭만주의 시는 운율을 갖춘 구어체 조선말 문장을 통해 “농민의 지향을 반영”하며 조선말 “민요형식”으로 번역되었다. 독자들은 슬픔부터 분노까지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번역시의 언어 표현을 접함으로써 새로운 미학적 경험과 세계 이해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⁸⁴⁾

키츠의 “Ode on a Grecian Um”를 번역한 「희랍 웅기의 노래」는 조선말 번역문장에 근거한 미학적 경험의 일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영어 원시는 영원 사이의 순간적인 찰나가 예리하게 감각의 촉수를 자극하면서 미적 영감을 일으킨다. 이에 반해 조선말 번역은 부드러운 언어와 노래를 통해 정신적 영혼이 몸을 경유하여 전원적인 물질세계에 안착하는 느낌을 준다. 영어 원시는 “The Sylvan historian”이 촉발한 그리스 도자기 표면의 이국적 숲속 풍경을 제시한다. 하지만 북한의 번역자는

83) 김왕섭, 『『근대영국시선』에 대하여』, 17쪽.

84) 김왕섭, 『『근대영국시선』에 대하여』, 5쪽, 12쪽, 17쪽 참조.

“한결 흐드러진 꽃같은 옛말을 / 이렇듯 구수하게 엮어주는 옛말주머니여 라.” 라는 번역을 통해 이국적인 숲속 풍경을 시골 농가의 따뜻한 풍경으로 제시한다. 번역자는 조선의 고유어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희랍”과 “웅기” 등 무게 있는 한자어 단어를 활용하여, “미는 진실이요, 진실은 미여라” 라는 “희랍 웅기의 노래”를 격조 있게 제시한다.⁸⁵⁾ 「희랍 웅기의 노래」는 북한의 독자들에게 조선말을 통한 새로운 미적 경험과 세계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출판한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은 세계문학을 훌륭한 조선말로 번역하여, 북한의 인민이 일상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향유하고 감성을 고양하는 데 일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세계문학 번역은 조선말을 조탁하고 감성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성과는 교육 및 사회기관을 경유하여 북한 사회 내부로 확산되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V. 결론 - 북한의 '세계문학'

선집B와 『현대조선문학선집』이 기획 및 출판되었던 1980년대에서 2000년대는 지구적 냉전질서가 붕괴하고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요동한 시기였으며,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시기였다. 20세기 한국문학을 편집한 『현대조선문학선집』은 1987년에서 2011년에 걸쳐 1945년 이전 문학을 다루는 1권에서 54권을 완간하였으며, 이후

⁸⁵⁾ 존 키즈, 장창현 역, 「희랍 웅기의 노래」, 셸리·키즈·스코트·번즈, 림학수 외 역, 『근대영국시선』 (평양: 문예출판사, 1991), 201~212쪽.

1945년 이후 문학을 대상으로 전체 100권을 목표로 2023년에도 출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집B는 2003년 『장 크리스토프』 제3권을 마지막으로 출간을 멈춘다. 2003년은 북한이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세계와 동시대성을 형성하지만 선집B의 간행은 멈춘다. 이후 북한에서는 개별 작품의 번역 및 문학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⁸⁶⁾

이 글은 두 차례 북한의 국가권력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간행한 『세계문학선집』을 중심으로, 북한의 ‘세계문학’ 인식과 번역의 현황을 탐색하였다. 각각의 『세계문학선집』을 구성하는 작품의 목록을 1차 자료로 설정하고, 지구적 냉전의 변동과 북한 정치질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두 기획의 연속성 및 불연속성을 관찰하였다. 동시에 세계문학 번역의 기획 및 출판 양상 및 해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세계문학을 매개로 ‘주체’와 ‘세계’가 상호재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71권 규모의 1960년대 『세계문학선집』과 100권 규모의 1980~1990년대 『세계문학선집』은 서구문학의 고전을 근간에 두고 편성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진다. 1980~1990년대 『세계문학선집』은 사회주의 및 아시아아프리카문학을 점진적으로 포괄하는데, 이는 20세기 전반기 제국 일본에서 비롯된 비서구의 세계문학 인식이 냉전기 ‘주체’ 이념의 자장 안에서 독자적인 자기발현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접수: 2023년 5월 16일 / 심사: 2023년 5월 30일 / 게재 확장: 2023년 6월 7일

86) 김왕섭이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 전 2권을 통해 북한의 세계문학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왕섭 · 황영길,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 1 - 아시아, 아프리카 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김왕섭,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 2』(제2판)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참고문헌】

-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 문화사 연구』, 서울: 역락, 2019.
- 김용섭, 『남북 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서울: 지식산업사, 2005.
- 김윤식, 『환각을 찾아서』, 서울: 세계사, 1992.
- 김윤식, 『아득한 회색, 선연한 초록』, 서울: 문학동네, 2003.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0.
- 김재용 · 이상경,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 - 북한의 여성문학』, 서울: 소명출판, 2022.
- 김재용 편, 『백석전집』, 서울: 실천문학사, 1997.
-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1.
- 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 - 명작이라는 식민의 유행』, 서울: 푸른역사, 2012.
- 성혜량, 『등나무집』, 서울: 세계를간다, 2000.
- 오무라 마스오,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 운동주와 한국근대문학』, 서울: 소명출판, 2016.
- 오무라 마스오, 정선태 역,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5 - 한일 상호이해의 길』, 서울: 소명출판, 2017.
- 윤재근 외, 『북한의 문화정보 1』, 서울: 고려원, 1991.
- 정근식 편, 『북한의 대학 - 역사, 현실, 전망』, 서울: 진인진, 2017.
- 정재림 편, 『임옥인 소설선집』, 서울: 현대문학, 2010.
- 황석영,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편, 『사람이 살고 있었네』, 서울: 시와사회사, 1993.
- Bate, Jonathan, *The Song of the Earth*, London: Picador, 2000.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 Iovene, Paola, *Tales of Futures Past: Literature and Anticipation in Contemporary China*, Redwood C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 Mani, B. Venkat, *Recoding World Literature: Libraries, Print Culture, and Germany's Pact with Book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7.
- Westard, Odd Arne, *The Global Cold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東京: 中央公論社, 2005.
- 田坂憲二, 『文学全集の黄金時代 - 河出書房の1960年代』, 東京: 和泉書院, 2007.
- 和田春樹, 『スターリン批判 1953~56年 - 一人の独裁者の死がいかに20世紀世界を揺り動かしたか』, 東京: 作品社, 2016.
- 고자연, 「한설야의 제3세계 인식 - 1950년대 중·후반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55권, 2019.
- 고자연, 「1950년대 북한의 외국문학 번역 양상 연구 - 몽골문학 번역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26권, 2020.
-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괴테연구』 제20권, 2007.
- 김도민, 「1950년대 중후반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전개와 성격」 『아시아리뷰』 제10권 1호, 2020.
- 김동식·송민호, 「세계문학의 상상적 좌표들 (1) - 식민지 초기 문학론에 내재된 '세계문학'이라는 계기와 그 잔여들」 『상허학보』 제64권, 2022.
- 김영희, 「북한 영문학 서설」 『안과밖』 제11권, 2001.
- 김재용, 「북한문학에 대한 비교문학적 이해 - 국민국가라는 인식틀을 넘어」, 이상숙 외, 『북한시학의 형성과 사회주의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13.
- 김재용, 「분단 비극과 남북 통합의 상징 - 정지용」 『지구적세계문학』 제18권, 2021.
- 남원진, 「현대조선문학선집의 구성 원리와 균열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2호, 2018.
- 도해자, 「북한에서 '근대' 영문학을 보는 시각」 『영미연구』 제29권, 2013.
- 도해자, 「셰익스피어 비극에 대한 북한의 인식」 『영미연구』 제38권, 2016.
- 도해자, 「미국 소설에 대한 북한의 인식」 『인문연구』 제86권, 2019.
- 류기현,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 - 1945~1948년 朝鮮文化協會의 조직과 활동」 『대동문화연구』 제98권, 2017.
- 박선희, 「북한의 프랑스 문학 번역본의 컬렉트 분석」 『프랑스어문교육』 제65권, 2019.

- 박숙자, 「100권의 세계문학과 그 적들 - 식민/탈식민 세계문학전집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62권, 2014.
- 박진영, 「번역가 김억과 임학수의 머리말」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0권, 2015.
- 박태일,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84권, 2020.
- 송강호, 「박태원 『삼국지』의 판본과 번역 연구」 『구보학보』 제5권, 2009.
- 신정호, 「북한의 중국문학 연구(1949-2000)」 『중국문학』 제49권, 2004.
- 신정호, 「북한 '외국문학사'의 체계와 중국현대문학 서술 시론」 『중국현대문학』 제62권, 2012.
- 이병한, 「AA작가회의 - 콜롬보로 가는 길」 『플랫폼』 2012년 1·2월호, 2012.
- 이병한, 「콜롬보의 유산 - 신중국과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 『중국현대문학』 제65권, 2013.
- 이은정, 「북한 문학번역과 수용의 프레임 연구 - *Gone With the Wind*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0권 2호, 2019.
- 임유경, 「조소문화협회의 출판·번역 및 소련방문 사업 연구 — 해방기 북조선의 문화·정치적 국가기획에 대한 문제제기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제66권, 2009.
- 장문석, 「북으로 간 심훈과 채만식 - 북한 『현대조선문학선집』의 '해금 작가' 연구 서설」 『한국학연구』 제67권, 2022.
- 전영선, 「북한의 출판보도체제와 내용분석」,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방송언론과 예술』,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정근식·김윤애·임수진,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리뷰』 제7권 1호, 2017.
- 조영추, 「해방기 소련 기행문학 연구 - 이태준, 한설야, 오장환을 중심으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21.
- 최경희·홍유미, 「북한의 셰익스피어 - 셰익스피어 비평과 번역본 점검을 중심으로」 『안과박』 제11권, 2001.
- 최현식, 「신성한 수령의 발명, '범속한 모성'에의 회귀 - 김상훈의 북한 시편 읽기」 『한국시학연구』 제52권, 2017.
- 최현식, 「한용운 · 유산과 전통 · 애국주의」 『한국학연구』 제66권, 2022.
- 테레사 현,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북한문학에 잠입했는가? - 1950년대와 60년대 북한의 영미문학 수용과 번역」, 『오늘날의 북한학 - 상처, 치유, 공동체』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2015년 10월 13~14일.

- 한상언, 「북한 번역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근대서지』 제23권, 2021.
- 함동주, 「신조사판 연본 『세계문학전집』의 출판과 서양문학의 대중화」 『일본학보』 제104권, 2015.
- 허경진, 「김상훈의 학창시절과 고전번역」, 연세학풍연구소 편, 『남북분단 속의 연세학문』, 서울: 혜안, 2017.
- 홍종욱, 「反식민주의 역사학에서 反역사학으로 - 동아시아의 ‘戰後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서술」 『역사문제연구』 제31권, 2014.
- 홍종욱,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 잡지 『국제생활』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61권, 2018.
- 홍종욱,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제77권 3호, 2020.
- 홍종욱, 「주체 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 『역사비평』 제140권, 2022.
- Spivak, Gayatri Chakravorty, “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ritical Inquiry*, vol. 12, no. 1 (1985)
- 과학원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연혁』,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7.
- 김왕섭,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 2』(제2판),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 김왕섭 · 황영길,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 1 - 아시아, 아프리카 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도쿄: 구월서방, 1975].
- 김일성, 「당사업방법에 대하여」(생산기업소 당조직위원 및 당위원장들, 도, 시, 군 당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9년 2월 26일), 『김일성 저작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도쿄: 구월서방, 1969].
- 김일성,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 불패이다 - 체 게바라 전사 한뫼에 즈음하여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 리론잡지 『뜨리꾼띠넬탈』 제8호에 발표한 문문 1968년 10월 8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김일성, 「민족문화유산 계승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과학교육 및 문

- 학예술 부분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 선집 8』(제2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1년 6월 28일), 『김정일 전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리기도,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96.
- 박승숙·김태섭·한유정, 『외국문학사 - 김일성종합대학용』,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
-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윤종성 외, 『외국문학 1 - 사범대학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 최길상, 『주체문학의 새 경지』, 평양: 문예출판사, 1991.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서목록(1945.8-1960.12)』, 평양: 출판인쇄과학연구소, 1963.
- 世界文学社 編, 『塔什干精神万岁 —中国作家論亞非作家會議』, 北京: 作家出版社, 1959.
- 『문학신문』
- 『조선문학』
- 『청년문학』
- Haddad-Fonda, Kyle, “Afro-asian Writers’ Conferences (1958-1979),” Black Post, 2017. <https://www.blackpast.org/global-african-history/afro-asian-writers-conferences-1958-1979/> (접속: 2023.5.8)
- “The Art of the Revolution will be Internationalist,”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19. <https://thetricontinental.org/the-art-of-the-revolution-will-be-internationalist/> (접속: 2023.5.8)

부록

북한의 『세계문학선집』 목록 및 출판 현황

※ 일러두기

1.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은 1960년대와 1980~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된다. 부록 「북한의 『세계문학선집』 목록 및 출판 현황」은 1960년대 『세계문학선집』(선집A)과 1980~1990년대 『세계문학선집』(선집B) 중 한국, 일본, 미국의 대학 및 공공 도서관 등을 통해 실물을 확인한 출판물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2. 「북한의 『세계문학선집』 목록 및 출판 현황」에서는 선집A와 선집B 출판물의 선집 번호, 제목, 저자, 역자, 해설제목 및 해설자, 판권면 정보를 정리하였다. 정보가 충돌하는 경우 판권면 정보를 기준으로 삼았다. 출판물 한 권의 정보는 짝수면과 홀수면, 두 면에 걸쳐 실었다. (선집 A 1권 『일리아드』의 정보는 158쪽 및 159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960년대 『세계문학선집』(선집A)의 경우, 실제로 확인한 출판물의 정보를 158/159~162/163쪽에 실었다.

4. 1980~1990년대 『세계문학선집』(선집B)의 경우, 실제로 확인한 출판물의 정보와 1984년 11월에 공개된 『세계문학선집』 100권의 작품 목록(1984년 목록)을 함께 164/165~174/175쪽에 실었다. 1984년 목록은 오무라 마스오,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 현황」, 464~468쪽에 실린 정보를 옮겼다. 정보가 충돌하는 경우 제 확인한 출판물의 정보를 기준으로 삼았다.

선집 분류	선집번호 (간행)	선집번호 (1984년 목록)	국가 (1984년 목록)	장르 (1984년 목록)	저자	역자	제목	해설제목	해설자	편집
A	1				호머	림학수	일리아드	《일리아드》에 대하여	림학수	
A	3				셰르반테스	박시환	동 키호테	셰르반테스와 《동 키호테》에 대하여	문상민	
A	6				모리에르		모리에르 희곡선	전통계승과 혁신에 기여한 모리에르의 희곡	한면상	
A	8				실러	홍석근, 공익현	실러 희곡선	실러와 그의 희곡에 대하여	박홍석	장석환
A	9				스탕달	김병규	붉은 것과 검은 것 (1830년년대기)	스탕달의 생애와 창작	김병규	계병용
A	11				셸리, 키프, 스코트, 번즈	김조규, 김종욱, 림학수, 양운한, 장정현	근대 영국 시선	근대 영국의 저명한 시인	림학수	추종길
A	12				바이론	림학수, 김종욱	바이론 시선	바이론의 생애와 예술	림학수	
A	13				윌터 스코트	김종욱, 박정원	아이반호	스코트와 그의 창작	김종욱	추종길
A	16				오노레 더 발자크		우제니 그랑데, 고리오 령감	발자크와 그의 창작 활동	황경희	계병용
A	17				오노레 더 발자크	박우천	환멸 1	장편 소설 《환멸》에 대하여	황경희	윤경주
A	18				발자크	박우천	환멸 2			림수자

편성	교정	인쇄소	인쇄소 주소	인쇄일자	발행일자	발행소	발행소 주소	발행부수	가격	비고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30830	1963111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10000	3원 13전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30105	19630305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10000	3원 25전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30205	19630505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10000	3원 20전	
	박선엽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60510	1966053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3000	2원 40전	
	손지연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60805	1966082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6000	2원 95전	「저자가 일러 두는 말」
	김랑숙	평양종합 인쇄공장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19670130	19670205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3000	2원 25전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30830	19631113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10000	2원 80전	
	송지연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61220	1966123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5000	2원 90전	
	고순옥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40701	19640716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30000	2원 85전	
	황태연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41010	1964102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30000	2원 30전	
	박선엽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60430	19660515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6000	2원 25전	

선집 분류	선집번호 (간명)	선집번호 (1984년 목록)	국가 (1984년 목록)	장르 (1984년 목록)	저자	역자	제목	해설제목	해설자	편집
A	20				입센, 보른손, 넥소	강필주, 박시환, 최장성, 강경자	북구라파 작품집	입센, 보른손, 넥소에 대하여	한경수	백서호
A	22				하이네	조맹연, 홍석근, 박지원, 박홍석	하이네 시선	하이네의 생애와 그의 창작 활동	홍석근	
A	23				빅토르 유고	석인해, 한면상	레 미제라블 1	빅토르 유고의 생애와 창작	황경희	한면상 양영명
A	24				빅토르 유고		레 미제라블 2			
A	25				빅토르 유고	리계수	레 미제라블 3			계병용
A	30				에밀 졸라	최일룡	제르미날	졸라의 문학과 《제르미날》에 대하여	최일룡	현상률
A	31				로맹 롤랑	계영수	매혹된 년 1	로맹 롤랑과 《매혹된 년》에 대하여	문상민	윤경주
A	36				레브 톨스토이	박우전, 표병준	부활	레브 톨스토이의 장편 《부활》에 대하여	최일룡	
A	37				찰즈 디킨즈	박시환	동비와 아들 1	디킨즈의 문학과 《동비와 아들》	김해균	장정현
A	38				찰즈 디킨즈	박시환	동비와 아들 2			장정현
A	39				윌리엄 메이크피스 스 새커리	림학수	허영의 시장	새커리와 그의 창작	림학수	주종길

편성	교정	인쇄소	인쇄소 주소	인쇄일자	발행일자	발행소	발행소 주소	발행부수	가격	비고
	김동화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70210	1967023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5000	2원 56전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31020	1963123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10000	2원 68전	
한동신	손치연	평양도서 인쇄공장		19600506	19601005	국립문학예술 서적출판사		10000	2원 35전	『서문』(1982.1.1.)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30315	19630615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10000	3원 60전	
	김양숙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41101	19641115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30000	3원 70전	심사 박시환
	황태연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60401	1966042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7000	2원 50전	
	박재숙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50730	1965081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20000	2원 50전	『신판에 붙임』(1934.1.1.), 『제1판에 붙임』(1922.8.)
				19631015	1963122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10000	3원 12전	
	류복희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40910	1964092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30000	3원 36전	
	김동화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70120	19670210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5000	2원 50전	
	손치연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50105	19650115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30000	2원 50전	

선집 분류	선집번호 (간행)	선집번호 (1984년 목록)	국가 (1984년 목록)	장르 (1984년 목록)	저자	역자	제목	해설제목	해설자	편집
A	43				스탕달, 발자크, 메리메, 도데, 플로벨, 모파상, 필리브	황경희, 리계수, 양영영, 박철순, 계병용, 지일남, 황하석, 박승식, 로세린, 한경수, 정신중, 김병규, 최병남, 송고천, 심정기, 최동열	프랑스 단편선	《프랑스 단편선》에 대하여	한경수	계병용
A	44				버너드 쇼우, 존 굴즈워디	김창호, 리명균, 리상문, 주종길, 최용섭	근대영국희곡선	쇼우와 굴즈워디의 생애와 창작	김광현	장정현
A	52				하인리히 만	조맹연, 홍석근	총북	하인리히 만과 장편 소설 《총북》에 대하여	조맹연	백서호
A	53				토마스 만	홍동수	부덴부르크 일가 1	토마스 만과 《부덴부르크 일가》에 대하여	박지원	장정현
A	54				토마스 만	홍동수	부덴부르크 일가 2			강학태
A	65				미하일 솔로호브	변문식	개간된 처녀지 1	미하일 알렉산드로위치 솔로호브의 창작 활동에 대하여		김병국, 안옥선
A	66				미하일 솔로호브	변문식	개간된 처녀지 2			림수자
A	71				모 든	리영규	러명을 앞두고	모 든의 창작과 그의 대표작 《러명을 앞두고》에 대하여	박흥병	강학태

편성	교정	인쇄소	인쇄소 주소	인쇄일자	발행일자	발행소	발행소 주소	발행부수	가격	비고
	손지연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50401	19650415	조선문학 예술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5000	2원 40전	
	리정순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50510	19660530	조선문학 예술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3000	2원 30전	
	장석환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50115	19650205	조선문학 예술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30000	2원 95전	
	장청현	박재숙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50210	19650225	조선문학 예술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30000	2원 30전	
	강학태	손지연	평양종합 인쇄공장	19660610	19660620	조선문학 예술총동맹출판사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5000	2원 40전	
	한동신	손지연	평양도서 인쇄공장	19600715	19601130	국립문학 예술서적출판사		10000	2원	
	한동신	손지연	평양도서 인쇄공장	19600913	19601220	국립문학 예술서적출판사		10000	2원 25전	
	한동신	손지연	평양도서 인쇄공장	19600525	19600915	국립문학 예술서적출판사		10000	2원 25전	「《러명을 앞두고》 조선문판 서문.(1960.5.27.)

선집 분류	선집번호 (간행)	선집번호 (1984년 목록)	국가 (1984년 목록)	장르 (1984년 목록)	저자	역자	제목	해설제목	해설자	편집
B	1	1	희랍	서사시	호메로스	림학수	일리아드	《일리아드》에 대하여	림학수	리혜린
B		2	희랍	서사시	호메로스		오딧세이아			
B		3	희랍	희곡	중합		희랍고전극선			
B	3	4	중국	시	중합	김상훈	중국고전시선	《중국고전시선》에 대하여	한유정	장정현
B	4	5	이탈리아	서사시	단때	정문향	신곡 1	《신곡》에 대하여	김왕섭	정성숙
B	5	6	이탈리아	서사시	단때	정문향	신곡 2			정성숙
B	6	7	중국	소설	라관중	박태원	삼국연의 1	중국고전소설 《삼국연의》에 대하여	김왕섭 (준박 사)	정성숙
B		8		장편소설			삼국연의 2			
B		9		장편소설			삼국연의 3			
B	9	10	중국	장편소설	라관중	박태원	삼국연의 4			정성숙
B	10	11	이탈리아	단편 소설집	보카치오	주종길	데카메론 1	《데카메론》에 대하여	김왕섭	리백한
B	11	11	이탈리아	단편 소설집	보카치오	주종길	데카메론 2			리백한
B	12	12	중국	장편소설	시내암	백준선	수모전 1	장편소설 《수모전》에 대하여	한유정	현상률
B		13		장편소설			수모전 2			

선집 분류	선집번호 (간명)	선집번호 (1984년 목록)	국가 (1984년 목록)	장르 (1984년 목록)	저자	역자	제목	해설제목	해설자	편집
B		14		장편소설			수호전 3			
B	15	15	영국	희곡	셰스피어	김해균, 주종길, 박시환, 장정현, 백락민	셰스피어희곡선 1	《셰스피어희곡선》 (1)에 대하여	황영길 (준박사)	리혜란
B	16	16	영국	희곡	셰스피어	박시환, 주종길, 장정현	셰스피어희곡선 2	《셰스피어희곡선》 (2)에 대하여	황영길 (준박사)	리혜란
B	17	17	영국	서사시	존 밀튼	조성관	실락원	《실락원》에 대하여	김왕섭 (박사, 부교수)	현상률
B		18	에스파냐	장편소설	베르반테스		돈끼모테			
B	19	19	독일	희곡	요한 프리드리히 실러	공이현, 조맹연	실러희곡선	《실러희곡선》에 대하여	황영길	현상률
B	20	20	영국	장편소설	윌터 스코트	박정원	아이반호	《아이반호》에 대하여	김태섭	리혜란
B	21	21	영국	시	바이론	김학수	바이론 시선	《바이론 시선》에 대하여	김왕섭	정성숙
B	22	22	영국	시	퍼시 비쉬 셸리, 존 키프, 윌터 스코트, 로버트 번즈	김학수, 주종길, 장정현, 김조규, 양운환	근대영국시선	《근대영국시선》에 대하여	김왕섭 (준박사)	리혜란
B		23	독일	시극	괴테		파우스트			
B	24	24	로씨야	종합	아. 부수킨	박우천, 하수홍	부수킨작품선 1	《부수킨작품선》(1)에 대하여	김왕섭	현상률

편성	고정	인쇄소	인쇄소 주소	인쇄일자	발행일자	발행소	발행소 주소	발행부수	가격	비고
										미확인
	신현의	평양종합인쇄공장		19910630	19910730	문예출판사		10000		
	리영수	평양종합인쇄공장		19950610	19950630	문학예술 종합출판사		10000		
	정혜란	평양종합인쇄공장-2		19921130	19921220	문예출판사		5000		
										미확인
	정혜란	평양종합인쇄공장-2		19861210	19861230	문예출판사		10000		
	오형옥	평양종합인쇄공장-2		19910601	19910620	문예출판사		10000		
	장명희	평양종합인쇄공장-2		19910920	19911030	문예출판사		5000		
	리영수	평양종합인쇄공장-2		19910930	19911020	문예출판사		5000		
										미확인
	유경임	평양종합인쇄공장-2		19870510	19870530	문예출판사		10000	3원 60전	

선집 분류	선집번호 (간행)	선집번호 (1984년 목록)	국가 (1984년 목록)	장르 (1984년 목록)	저자	역자	제목	해설제목	해설자	편집
B		25	로씨야	종합			부슈킨작품선 2			
B		26	프랑스	장편소설	스망달		붉은 것과 검은 것			
B	27	27	프랑스	장편소설	오노레 더 발자크		발자크작품선	《발자크작품선》에 대하여	편집부	리배한
B	28	28	로씨야	장편소설	엔. 웨 고글리		고글리작품선	《고글리작품선》에 대하여	김왕섭	리배한
B	29	29	영국	장편소설	살러트 브론티	홍순달	제인 에어	장편소설 《제인 에어》에 대하여	김왕섭 (박사, 부교수)	리혜란
B	30	30	프랑스	종합	브로스베 르메리메, 알렉산드르 뒤마	황경희, 리계수, 계병용	메리메, 뒤마작품선	《메리메, 뒤마 작품선》에 대하여	김경식	리배한
B	31	31	영국	장편소설	윌리엄 메이크피스 셰커리	림학수	허영의 시장 1	장편소설 《허영의 시장》에 대하여	편집부	리혜란
B		32	영국	장편소설	윌리엄 메이크피스 셰커리		허영의 시장 2			
B		33	독일	시	하이네		하이네 시선			
B		34	프랑스	장편소설	플로벨		보바리 부인			
B		35	영국	장편소설	디켄즈		데이비드 커퍼필드			

선집 분류	선집번호 (간명)	선집번호 (1984년 목록)	국가 (1984년 목록)	장르 (1984년 목록)	저자	역자	제목	해설제목	해설자	편집
B	36	36	프랑스	장편소설	빅토르 유고		레 미제라블 1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에 대하여	윤종성	리백한
B	37	37	프랑스	장편소설	빅토르 유고		레 미제라블 2			리백한
B	38	38	프랑스	장편소설	빅토르 유고		레 미제라블 3			리백한
B	39	39	로씨야	장편소설	이 두르게네프	표병준	두르게네프작품선	《두르게네프 작품선》에 대하여	김왕섭	현상률
B		40	로씨야	장편소설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1			
B		41	로씨야	장편소설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2			
B		42	로씨야	종합			로씨야시선			
B		43	로씨야	장편소설	엘.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1			
B		44	로씨야	장편소설	엘.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2			
B		45	로씨야	장편소설	엘.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3			
B		46	로씨야	장편소설	엘.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4			
B		47	헝그리아, 볼스카	시	베테피, 미프케위치		베테피, 미프케위치시선			
B		48	프랑스	장편소설	줄라		제르미날			
B		49	프랑스	장편소설	모파쌍		그 녀자의 일생, 베에르와 장			
B		50	영국	장편소설	하디		테스			
B		51	볼스카	장편소설	셴 께비치		꾸어바디스			
B		52	영국	장편소설	위이니치		등에			
B		53	북구라파	희곡	종합		북구라파작품선			
B		54	로씨야	장편소설	엘. 톨스토이		부활			
B		55	로씨야	종합	체호브		체호브작품선			
B		56	벨기리아	종합	바조브		이완바조브작품선			
B		57	일본	소설	나프메 소세키		나프메소세키작품선			
B	58	58	쏘련	종합	엠. 고리끼	박정원	고리끼작품선 1	《고리끼작품선》(1) 에 대하여	리원주	현상률
B		59	쏘련	종합	엠. 고리끼		고리끼작품선 2			
B		60	노르웨이	희곡	입센		입센희곡선			

선집 분류	선집번호 (간명)	선집번호 (1984년 목록)	국가 (1984년 목록)	장르 (1984년 목록)	저자	역자	제목	해설제목	해설자	편집
B	62	61	프랑스	장편소설	로맹 롤랑	김창호	장 크리스토프 1	로맹 롤랑과 장편소설 《장 크리스토프》에 대하여	편집부	최은애
B	63	62	프랑스	장편소설	로맹 롤랑	김창호	장 크리스토프 2			최은애
B	64	63	프랑스	장편소설	로맹 롤랑	김창호	장 크리스토프 3			최은애
B		64	프랑스	장편소설	로맹 롤랑		장 크리스토프 4			
B		65	쓰련	장편소설	베라피모위치		철의 흐름			
B	68	66	미국	장편소설	시어도어 드라이저	리금진, 한용덕	미국의 비극 1	드라이저와장편소설 《미국의비극》에 대하여	김왕섭 (박사, 교수)	리혜란
B	69	67	미국	장편소설	시어도어 드라이저	리금진, 한용덕	미국의 비극 2			
B		68	미국	장편소설	론든		마틴이든			
B		69	쓰련	시	마야콥스끼		마야콥스끼시			
B		70	쓰련	장편소설	오스트롭스끼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B		71	쓰련	장편소설	오르브라프트		프롤레타리아트의 딸 안나			
B		72	중국	총합	로신		로신작품선			
B	74	73	미국	장편소설	마거레트 밋첼	박시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	장편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하여	리수림 (박사)	리혜란
B	75	74	미국	장편소설	마거레트 밋첼	박시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			리혜란
B	76	75	미국	장편소설	마거레트 밋첼	박시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3			리혜란
B		76	미국	장편소설	스타인백		분노의 포도			
B	77	77	중국	소설	로사	서정필, 박경민	로사작품선	《로사작품선》에 대하여	김왕섭	정수복
B		78	중국	장편소설	모든		한밤중			
B	79	79	쓰련	장편소설	엠. 솔로호브	변문식	고요한 돈 1	《고요한 돈》에 대하여	윤종성	현상률
B	80	80	쓰련	장편소설	엠. 솔로호브	변문식	고요한 돈 2			현상률
B		81	쓰련	장편소설			고요한 돈 3			
B	82	82	쓰련	장편소설	엠. 솔로호브	변문식	고요한 돈 4			현상률
B		83	미국	장편소설	헤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B		84	유고슬 라비아	장편소설	안드리츠		도리나강의 다리			
B		85	쓰련	장편소설	엘. 몰스토이		고난의 길 1			

선집 분류	선집번호 (간행)	선집번호 (1984년 목록)	국가 (1984년 목록)	장르 (1984년 목록)	저자	역자	제목	해설제목	해설자	편집
B		87	소련	장편소설	엘. 돌스토이		고난의 길 3			
B		88	아르헨티 나	장편소설	바레라		어두운 강물			
B		89	독일	희곡	레싱, 하우프트만		레싱, 하우프트만희곡선 만			
B		90	로므니아	소설	종합		로므니아소설선			
B		91	몽골, 월남	장편소설	린첸, 오랄로		초원의 려명, 등불이 꺼진다			
B		92	중국	장편소설	양모		청춘의 노래			
B		93	브라질	장편소설	아마두		자유를 위한 지하투쟁 1			
B		94	브라질	장편소설	아마두		자유를 위한 지하투쟁 2			
B		95	인도	소설, 시	종합		인도작품선			
B		96	소련	장편소설	엠. 솔로호브		개간된 저녁지 1			
B		97	소련	장편소설	엠. 솔로호브		개간된 저녁지 2			
B		98	알제리, 예금	장편소설	디브, 샤르까비		큰칭, 농민			
B		99	세네갈	장편소설	우스만		열풍			
B		100	라틴아메 리카	시	종합		라틴아메리카시선			

‘World Literature’ in North Korea:
Segye munhak sŏnjip [Selected World Literature] as Publication

Jang, Moon-seok (Kyung Hee University)

Choi, Kyeong-Hee (The University of Chicago)

Abstract

This essay examines the North Korean conception and translation of “world literature,” with focus on a multivolume series entitled *Segye munhak sŏnjip* [Selected World Literature] that first came out in the 1960s and then in the 1980s through 1990s. The paper observes the vicissitudes of the understanding of “world literature” in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comprehensive list of the two state-led *Segye munhak sŏnjip* publication projects in the context of the shifts within the global Cold War and changes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order. By reading the critical introductions to a few chosen works published in the 1990s, it sheds light on the mutual construction of “the world” and *juche* (self-reliant subject), as well as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al language. The essay argues that the “world literature” series of 1960s North Korea is typified through Western literature and its classics and this tendency more or less continues through its sequel project even while a self-conscious inclusion of socialist literature and Asian and African literature marks the later series. It leads to a tentative conclusion that the perspective prevailing in the North Korean reconstruction of “world literature” is a characteristically non-Western one, which began to appear in the imperial Japan in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Keywords: North Korea, world literature, publication, state, *juche*, critical introduction

장문석(Jang, Moon-seok)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시카고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 방문학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제국/식민지와 냉전의 너머를 상상했던 동아시아의 사상과 학술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어문생활사 및 출판문화사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읽-주체'의 역사를 아래로부터 서술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최경희(Choi, Kyeong-Hee)

시카고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 부교수로 한국문학과 식민지-제국 관계 및 젠더문제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를 중심의 출판경찰 자료와 제도에 대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재조일본인 통역관들의 조선어 수행성과 관련 지식 네트워크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집 논문

북한의 독일 문학 번역

: 쉴러의 「빌헬름 텔」을 중심으로* **

최윤영 (서울대)

국문요약

이 논문은 연구의 불모지라 할 북한의 독일 문학 수용상황을 살펴봄에 있어 번역, 특히 프리드리히 쉴러의 드라마 「빌헬름 텔 Wilhelm Tell」의 번역양상에 집중하였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네 차례, 해방 이후 남한에서 서른두 차례, 북한에서 최소 세 차례 이상 번역되어 공식적, 통시적으로 비교 분석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우선 북한의 세계문학과 외국문학, 번역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후 쉴러와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남북한에서 각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빌헬름 텔」 세 번역본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 비평을 하였는데 이때 남한과 북한의 번역본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북한의 번역본을 살펴봄에 있어 문학 및 번역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 또한 살펴본다. 실제로 북한의 문학 이론과 이를 반영하는 번역본의 서문과 후문들은 정치적, 이념적, 교조적 색채가 강하지만, 고전을 실제로 번역했을 때 번역본은 이러한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특히 완역을 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즉, '세계문학'과 '고전문학'이 지니는 일 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번역론과 실제 번역 사이에 간극 혹은 균열이 있음을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1.202306.179>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2S1A5C2A02093427)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세계문학'이라는 공통의 독서 경험을 매개로 체제를 넘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제어: 빌헬름 텔, 북한의 문학 번역, 번역비평, 세계문학

I. 서론

북한의 외국 문학과 수용이라는 큰 주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아직 연구의 불모지이다. 북한에서 인문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가운데 외국 문학의 수용, 특히 연구와 교육, 그리고 번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체계적으로나 본격적으로 혹은 소상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중의 일부분인 독일 문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달리 북한은 세계의 독어독문학자대회(IVG)나 아시아독문학자대회(AGT) 등을 통한 국제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도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경식의 연구 논문 「북한의 독문학」 연구」는 상당히 드문 연구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거나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른 연구는 나온 바가 없다.¹⁾ 그밖에 관점을 달리하여 북한에서 나온 '세계문학선집'의 발행상황을 살펴보는 오무라 마스오의 논문 「북한의 문학선집출판현황」은 이러한 세계문학선집 발행 현황 속에서 독일 문학이 같이 번역되고 수용이 됨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²⁾

1)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괴테연구』 제20호 (2007), 115~137쪽.

2) 오무라 마스오, 「북한의 문학선집출판현황」 『윤동주와 한국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1), 361~363쪽.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문학 연구와 수용에 있어서는 체제의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경식은 번역상황과 관련해 남한에서는 소위 '시장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경우 '사상'이 전체 사회를 추동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번역양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요약한다.³⁾ 구동독이나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북한에도 시대마다 통일된 문학 강령이 존재하며 외국 문학이나 세계문학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1975년에 나온 『외국문학사』의 머리말 제목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외국문학사연구의 유일한 지도적 및 방법론적 지침'이듯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문학 및 문화 이해의 전반적 이론 토대를 이루고 있다. 김태섭이 쓴 2017년의 짧은 논문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문학연구」는 북한의 외국문학 수용에 대한 전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⁴⁾ 이에 따르면 1950년에 소련에 관심이 집중되다가 60년대에는 유럽 고전에게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졌고 70년대에는 각 나라의 문학사가 출간되며 『도이첼란트문학사』도 출간이 되었다고 한다.⁵⁾ 2018년에 나온 김철민의 글은 김정일의 글 중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 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야 한다>, <구라파의 진보적 량만주의문학을 올바로 이해할 데 대하여>를 인용하고 있는데, 글의 내용이 이미 제목으로 집약되어 있으며 또한 매우 교조적인 어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 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에서는 계급적 해방이나 새 사

3)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124쪽.

4) 김태섭,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문학연구(2017. 9. 10)」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주제 111, 제68권 제 1호 (2022), 쪽수 명기 없음.

5) 이 문학사는 문학사를 바라보는 북한 문학계 내지는 북한 독문학계의 현실을 알 수 있게 해주고 특히 문학사조를 분류하는 시각을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이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회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 착취사회에서의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준 작품들을 선별해서 해석하고 있고, 이때 “당성”, “노동계 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문학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은 자국 문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자국 문학의 목적과 사명을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로 보거나,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보듯 계급투쟁과 이에 기초한 역사발전과 인민의 승리와 사회주의 문학이라는 목표점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특수한 문학관을 여실히 드러낸다.⁶⁾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의 문학관은 이러한 사회주의 문학으로서의 특수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문학으로서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보여주며 김정일 체제 이후 경직된 태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문학사』의 출간 이래 40여 년이 흐른 후 나온, 2017년에 김태섭이 쓴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문학연구」에서는 김정일 선집을 인용하여 외국 문학 수용의 본질, 의미와 목표를 전체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다루고 있다. 외국 문학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다른 나라의 문학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좋은 것은 허심하게 배울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체 철학’이라는 북한의 특수성과 동시에 외국문학을 대하는 타자성의 보편성과 일반성이 드러난다.⁷⁾ 마찬가지로 외국 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혁명적 세계관”을 들어 북한 문학관의 특수성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이어

6) 1975년에 나온 『외국문학사』의 머리말에서는 세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과학적 세계관,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문학관이 잘 드러나 있다. 세계문학도 자국 문학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에 반대하는 투쟁을 담고 있고 특히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발전해온 세계문학의 발전사는 이러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반영”을 해 온 역사로 보고 있다. 『외국문학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5), 2쪽.

7) 김태섭,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문학연구」, 총 5쪽 중 1쪽.

지는 외국 문학 연구의 목적에서는 다음처럼 외국 문학과 민족 문학 간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도 드러낸다: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또한 민족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일정하게 참고하며 사람들에게 대한 문화 정서교양에 리용하자는 것이며 대외사업에 필요한 지식도 얻기 위해서이다.”⁸⁾

외국문학번역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에서 2008년에 나온 교재인 『외국문학번역』의 제 1장인 「외국문학번역에 대한 일반적리해」에서는 번역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학번역도 어떤 민족어로 창작된 문학작품을 다른 민족어로 고쳐서 옮기는 예술창작활동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번역된 외국문학작품과 같은 미학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형상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번역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원작의 예술적 형상을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데 바로 문학번역의 본질이 있다. 문학번역은 그 번역에서 정확성과 함께 형상성을 필수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창작을 요하는 지적활동이며 그것으로 하여 다른 번역과 뚜렷이 구별된다.⁹⁾

문학 번역에 대한 기본 정의나 번역문학작품을 예술작품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 형상을 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 그리고 그 번역작품이 독자에게 미학적 정서적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번역 이론과 거의 차이가 없다. 물론 이러한 예술적 미적 측면을 ‘형상성’이라는 개념으로 지칭함은 다르다. 최근에 번역 이론의 세계적 추세가 번역자와 번역본의 위상을 원작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원작에 대한 ‘충실성’보다 원작과의 ‘차이’, 번역본들간의 ‘차이’를 보다 강조하며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말이다.¹⁰⁾

8) 위의 글, 같은 쪽.

9) 『외국문학번역(로문)』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2008), 3쪽.

이와 같은 북한의 상황에 대하여 오무라 마스오와 김경식은 흥미로운 관찰과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통상적인 선입견들”, 예를 들어 북한을 봉쇄적이고 문화적 고도처럼 말하는 “고도설(孤島說)”과 같은 선입견, 또는 사회주의 문학 일색으로 수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바로 이러한 세계문학이나 외국문학이라는 것이다.¹¹⁾ 자국과 타국 문학의 교류와 이해에 기초한 ‘세계문학’에 대한 인식은 - 최근의 다양한 시각의 많은 비판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 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¹²⁾ 대표적으로 괴테의 고전적인 ‘세계문학’ 구상은 열린 세계주의나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민족문학의 닫힌 태도를 뛰어넘어 문화의 교류 속에서 민족문학을 더 고양시키려는 노력과 결부되어 있다면, 본고에서는 더 나아가 이 같은 공통적 기반은 남북한 소통의 가능성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또한 이제까지 행해지지 않았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번역비평을 통하여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김경식의 지적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학이 가진 고유하고 본래적인 가능성, 즉 문학이 구체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속성 때문에 남북한의 공통적 이해와 소통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10) 신수송, 윤미애, 최윤영, 최성만, 「문화수용과 문화전이로서의 번역: 괴테, 카프카, 토마스 만 작품의 한국어 번역 연구」 『독일언어문학』 제 18호 (2002), 259~299쪽.

11) 오무라, 「북한의 문학선집출판현황」, 360쪽;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118쪽.

12) 세계문학 개념 자체에는 최근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문화를 둘러싼 권력의 불균형이나 신자유주의화, 자본주의의 문화자본 논의,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과의 관계, 혹은 서양에 대한 전망이나 이국주의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은정, 「세계문학과 문학적 세계 1」 『세계문학』 제 55집 (2016), 5~38쪽 참조.

그와 같은 본질적 속성 덕분에 문학은 각 사회를 지배하는 체제 논리 및 목소리에 내재하는 동일화 경향에서 벗어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데, 바로 이 점에서 남북한 주민의 진정한 상호소통과 대화의 싹들이 발견될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¹³⁾

북한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세계문학선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 세계문학의 구성은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현대에 들어올수록 사회주의 국가의 작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럽 고전문학작품의 경우 상당 부분 남한의 고전문학 목록과 중첩된다. 세계문학선집을 기획했다는 사실 자체가 폐쇄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다소 수정해주는 데 남한과 중복되는 선정목록은 더욱 그러하다.

-1960~67: 『세계문학선집』 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80년대: 『세계문학작품선집』 교육도서출판사

-1986: 『세계문학선집』 문예출판사

1960년대에 발간된 전체 목록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선집에 독일 작가로는 실러(『실러 희곡선』), 하이네(『하이네 시선』), 만 형제(하인리히 만의 『충복』 토마스 만의 『부덴부르크 일가』) 등이 포함되었다.¹⁴⁾ 1980년대에 나온 세계문학선집은 목표와 달리 100권 모두 간행이 되지는 않았고 이 시기에는 소련 문학이나 중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1986년부터 출간된 세계문학선집은 실러(『실러

13)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120쪽.

14) 『세계문학선집』 (평양: 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359쪽.

희곡선』), 괴테(『파우스트』), 하이네(『하이네 시선』), 레쎅, 하우프트만(『레쎅, 하우프트만희곡선』) 등이 포함되어 이전에 비해 수록된 독일 문학 작가와 작품이 늘었다.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 자주 언급되거나 번역된 작가인 여러 작가들(하이네, 쉴러, 하인리히 만, 요하네스 베허 등) 중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 1759-1805)와 그의 작품 번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쉴러 작품의 번역, 특히 「빌헬름 텔」의 번역을 살펴보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쉴러는 1907년 『서사건국지』(원작: 쉴러의 「빌헬름 텔」과 『애국부인전』(원작: 쉴러의 「오를레앙의 처녀(Die Jungfrau von Orleans)」)의 번안 예에서 보듯 한국 최초로 수용된 독일 문학 작가라 할 수 있다. 1907년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의 초미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고 애국계몽을 위한 새로운 문학의 주인공으로서 빌헬름 텔과 잔 다르크는 이러한 시대의 정치 상황이 요구하는 남녀 영웅적 인물이었다.

둘째, 쉴러의 「빌헬름 텔」은 세계문학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자주 번역이 되고 읽힌 드문 작품으로서 비교연구가 용이하다. 남한의 번역사는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점차 문학적 소통체계 내에서 주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이경희나 이재영의 논문에서 보듯 독일 고전주의 문학작품으로 혹은 쉴러의 미적 교육론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고 있다.¹⁵⁾ 이에 반해 북한에서의 이해는 민중봉기나 계급투쟁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순수문학이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른 이러한 수용은 앞서 이

15) 이경희, 「미적 인간과 미적 국가의 문학적 구현. 쉴러의 드라마 『빌헬름 텔』을 중심으로」 『외국문학』 제51호 (2013), 181~202쪽; 이재영, 「자유를 위한 저항과 혁명, 그리고 폭력」 『빌헬름 텔』 역자 후기 (서울: 을유문화사, 2009), 205~225쪽 참조.

야기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수용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때 실러는 북한에서 ‘계몽주의’ 작가로 소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에서 세계문학, 고전문학으로 수용이 되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는 문학번역 연구의 흥미로운 비교점이 될 것이다.

셋째, 자료의 접근 가능성이다. 실러의 연구자료 중 「빌헬름 텔」은 북한에서 번역된 세 종의 번역본을 구할 수 있어 번역 비평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1966년과 1984년, 1986년 세 종의 번역본을 비교분석해 본다. 중점은 이 세 작품의 비교분석에 놓여있지만, 이때 실러의 원작과의 비교 및 남한에서 발행된 번역작품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번역의 기본적인 지평인 등가성과 차이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독일 문학 수용상황을 살펴보고 실러의 「빌헬름 텔」 번역의 구체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4번, 해방 후 남한에서 32번, 북한에서도 적어도 3번 이상 번역이 되었는데 북한의 세 판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되 남한본과의 공통점과 차이도 같이 분석할 것이다. 즉 실러의 미학관과 문학관이 남과 북에서 각기 어떻게 이해되는지 뿐 아니라 구체적 번역비평을 통하여 남한 북한 번역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실제 북한의 문학 강령이나 번역관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교조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으나 실제 번역도 그러한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는 것은 공통의 독서목록으로서의 ‘세계문학’을 매개로 남북한이 각각의 체제를 뛰어넘어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김경식의 희망 어린 지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II. 쉴러의 「빌헬름 텔」 번역

1. 「빌헬름 텔」

프리드리히 쉴러의 「빌헬름 텔」은 작가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1804년에 완성되고 바이마르 궁정극장에서 괴테에 의해 초연되었으며 당대에 이미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의 생성연도나 핵심 내용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쉴러가 칸트 철학과 프랑스 대혁명에 큰 영향을 받아 쓴 작품이며 쉴러의 전 생애의 철학이 집약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스위스 건국사의 실제 역사에 바탕을 둔 이 사건과 더불어 사냥꾼 빌헬름 텔에 대한 전설이 서로 얽혀 사건이 여러 갈래로 진행된다. 스위스 민중들이 오스트리아의 태수 게슬러의 탐욕과 폭정, 횡포 아래 신음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사건의 배경으로 이야기되고 이에 대항하여 스위스의 세 주인 우리, 운터발덴, 슈비츠의 대표들이 뤼틀리에 모여 민중봉기를 계획한다. 이들은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건 우리를 위해서야 한다. 노예가 되느니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희생을 줄이는 것”이라는 의식으로 뭉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식”을 위해 외세의 압제에 맞서 싸우기로 한다.¹⁶⁾ 이 작품은 이후로도 후세 문학에 영향을 주었으며 수없이 많이 무대에 올려졌다. 특히 최근 로시니의 오페라로 『기욤 텔』로 각색이 된 것이 그 중 가장 눈에 띈다.¹⁷⁾

16) 프리드리히 쉴러 저, 이재영 역, 『빌헬름 텔』 (서울: 을유문화사, 2009), 56-57쪽.

17) 북한의 쉴러 수용을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 동독의 쉴러 수용과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동독에서도 1945년 독일사회주의공화국(DDR)를 설립하면서 신생국가를 위한 공동의 ‘문화적 기억’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이때 문학과 정전이 공동의 기억과 이념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알라이다 아스만을 인용하면서 포라인은 문학 수용에 있어서 (국가의) 정체성 관련, 수용 작업,

2. 해방 이전의 번역

실러의 드라마 「빌헬름 텔」은 한국의 독일문학 이입사와 관련하여 이 정표를 세운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한반도에서의 번역사 역시 흥미롭다. 190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개된 독일문학 작품이 바로 「빌헬름 텔」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정철이 이 드라마의 일본 번역본을 읽고서 소설 『서사건국지 瑞士建國誌』로 개작한 것을, 백암 박은식이 토를 달고 번역하여 같은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하였다.¹⁸⁾ 실러의 연극 제목이 「빌헬름 텔」이었다면, 중국과 조선의 소설 제목은 스위스 건국사인 『서사건국지 瑞士建國誌』인데 여기에서 보듯 작품들은 번역/번안되면서 단순히 제목이나 발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수용국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 및 번역자의 이해와 맞물려 전체적인 개작을 통해 옮겨지고 새롭게 쓰여졌음을 보여준다.¹⁹⁾ 오랫동안 ‘번안’은 ‘번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격적

정전화 작업, 초시간성 등이 작동함을 강조한다. 이때 문학 텍스트는 문화 텍스트로 읽히게 되고 실제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정전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동독 설립 이전에 창작된 작품들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때 동독은 실러와 그의 정치적 변혁 이념을 찬양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은 오랫동안 학교에서의 교과서와 권장 독서 리스트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포라인이 관찰한 것처럼 동독에서 “정전 Kanon 논쟁”이 벌어졌어도 항상 포함되었던 실러의 드라마들은 70년대 중반에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수용태도의 변화가 일어났고 점차 문화텍스트보다는 문학 텍스트로 읽힌다. 또한 이전에 많이 읽혔던 작품이 「군도」나 「빌헬름 텔」에서 「간계와 사랑」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 「간계와 사랑」의 해석도 교육부 주도의 규범적인 해석에서 점차 벗어나 계급 문제나 사회비판적 작품이 아니라 페르디난트와 루이제의 사랑이 전면에 등장함을 관찰하고 있다. Christian Vorein, Schiller für Schüler (Düsseldorf: BvB, 2015), pp. 13-33.

18) 당대의 문화적 순환의 연관에서 볼 때 일본과 중국을 통해 다단계의 이동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단순한 번안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복잡한 수용사는 분석과 평가에 더 많은 논의를 요구한다.

19) Yun-Young Choi, “Fremdheit und Gender. Übersetzung und Adaption der

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번역’으로서의 문학 번역에 대한 이론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변안은 수용자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한 보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장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 식민주의 이후로 ‘번역’ 개념 자체의 이해가 크게 변모하고 있는데 원전과 저자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보이지 않던 번역자가 제2의 창작자이자 적극적 매개자로서 전면에 등장하고 행위자(agent)로서의 수행성, 행위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변안은 번역자가 속한 특정 시대나 사회의 이해를 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의 일본이 원전에 충실한 번역, 순수문학으로서의 번역을 주장했다면 이 또한 보다 큰 정치적,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 문학을 받아들여 중국과 한국이 자국 사정에 맞추어 정치소설 『서사건국지』 『정치소설. 서사건국지』로 개작했다면,²¹⁾ 이 또한 수용자나 번역자의 특정 관심과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이는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문화번역’의 새로운 이해와 맞물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은 최초로 한국에 소개된 독일문학이다. 이러한 점에서 20세기 초 「빌헬름 텔」의 번역사는 당대 동아시아의 지식의 순환과 수용 양상의 지형도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이다.²²⁾

정철이 가한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드라마를 소설로 장르를 변환시킨 것 이외에 인물들의 역할과 서사의 변형이 있다(188-189). 『서사건국지』 소설은 독일 원작의 여러 줄기의 이야기들이 생략되고 서사(瑞士, 스위스)가 이웃나라 일이만(日耳萬, 오스트리아)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구국

deutschen Literatur in Ostasien” Literaturstrasse, vol. 22 (2021), pp. 185-200.

20) 번역과 변안을 한국의 근대소설 탄생과 시대정신과의 관련지어 연구하고 있다. 박진영, 『변안과 번역의 시대』 (서울: 소명, 2011) 참조.

21) 박은식이 정철의 소설에 주로 토를 달고 부분적으로만 변형을 했다면 같은 해인 1907년에 나온 김병현의 『정치소설. 서사건국지』는 한글로 개작을 하고 있다.

22) Yun-Young Choi, “Fremdheit und Gender,” p. 185.

지사인 유림척로(維霖惕露, 빌헬름 텔)가 나타나 예사룩(倪士勒, 게슬러)를 물리치고 독립과 자유를 얻어 공화국이 건설되는 큰 줄기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정철은 중국의 전통 정치 무협 소설과의 연속선 상에서 주인공 빌헬름 텔과 아들의 역할을 전면으로 내세워 애국자로 훨씬 적극적으로 성격을 전환하였고 오스트리아 제후에 대한 스위스 주들의 싸움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게 만들었다. 또한 독일의 원작과 달리 아들이 큰 역할을 하는데 그의 제안으로 격문을 써 병사들을 모으고 애국가를 짓고 스위스의 역사를 알려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유림척로는 민중의 지도자로 앞장을 서 예사룩을 죽이고 적군을 무찌르고 서사공화국을 건설하게 된다. 독일의 희곡이 고전주의 드라마로서 개인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중국의 변안 작품은 영웅 서사와 건국 서사가 결합된 정치소설로 변모한 것이다. 더불어 실러의 고전주의적 정신을 대변하는 자유에 대한 보편주의는 중국에서는 낯선 외세에 맞서 싸우는 계몽적인 애국심으로 변모한다. 이 점은 중국 소설을 변안한 박은식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1907년이라는 당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정복욕 앞에 위태롭게 서 있던 조선의 상황을 스위스 건국사 이야기에 반영시켜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박은식은 당시 구한말에 유행했던 소위 ‘퇴폐적’ 연애 소설과는 거리를 두고, 문학을 활용해 국민들을 계몽하고 자극하려는 새로운 정치지향 소설을 소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소설 장르사에서도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또한 이 소설이 연재된 신문이라는 미디어는 당시에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공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는데 박은식은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3. 해방 이후의 남한에서의 「빌헬름 텔」 번역

「빌헬름 텔」은 해방 이전에 총 4종이 번역되었으며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는 총 32번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독일 문학작품 중의 하나로 기록된다.²³⁾ 1990년까지의 독일 문학 관련 일제강점기와 남한의 번역상황은 이충섭의 기념비적인 자료집 『한국의 독어독문학 관계 번역문헌 정보』에 담겨 있다.²⁴⁾ 여기에서 이충섭은 1907년의 번역들을 포함하여 12종의 번역본을 서지 정리하고 있다. 권선형은 위데코(UeDeKo: Übersetzungsdatenbank Deutschsprachiger Literatur in Korea) 프로젝트에서 1988년의 안인희의 완역본을 포함하여 총 36종의 번역을 소개하며 이 작품의 번역상황을 개괄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번역본들의 전체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²⁵⁾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번역보다 번안이 훨씬 더 많았고 특히 일제 강점기에 그랬었듯 어린이용으로 개작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제목이 대부분 「윌리엄 텔」 또는 「윌리암 텔」로 번역된 점을 볼 때, 영어본에서 중역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작품이 한국에서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는 점을 볼 때에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드라마 완성도가 교육적 관점에서도 특기할 만함을 알 수 있다.²⁶⁾ 독일에서도 동서

23) 38종의 번역본 서지는 한독문학번역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번역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위데코 홈페이지에 따른다. 이 자료는 2018년까지 한국에서 번역된 독일문학의 전체 서지를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에 시작되어 아직 진행 중인 과제이다. <<http://www.uedeko.or.kr/wiki2/index.php/UeDeKo>>.

24) 이충섭, 『한국의 독어독문학 관계 번역문헌 정보』 (서울: 한국문화사, 1990), 874~875쪽.

25) 권선형, 「빌헬름 텔」 번역비평, <[http://www.uedeko.or.kr/wiki2/index.php/%EB%B9%8C%ED%97%AC%EB%A6%84_%ED%85%94_\(Wilhelm_Tell\)](http://www.uedeko.or.kr/wiki2/index.php/%EB%B9%8C%ED%97%AC%EB%A6%84_%ED%85%94_(Wilhelm_Tell))>.

26) 한국에 소개된 최초의 독일 문학작품이자 교과서에 실린 몇 안 되는 독일 문학작품 중 하나로 60년대와 80년대에 그러하였다. 자세한 것은 권선형, 「빌헬름

독을 망라하고 이 작품은 김나지움 독어(독일의 국어) 수업에서 다루어졌었는데, 이것은 민족의 독립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서독)나 민중혁명(동독)을 보여주는 희곡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는 희곡의 특징적 구조를 잘 보여주는 희곡의 형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와 남한에서 총 36번이나 번역이 되었지만 희곡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역된 번역서는 이제까지 5종에 불과하다. 안인희(1988)의 번역을 필두로 한기상(1993), 이원양(1998), 이재영(2009), 홍성광(2011)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미 안인희의 번역 해설에서도 보이지만 번역자들은 쉴러의 미학 이론과의 연관성, 혹은 폭력 양상의 비판(한기상, 이원양, 홍성광) 속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있고 운문과 산문의 번역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며 무대 위에서의 공연 가능성의 고려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²⁷⁾

4. 북한에서의 쉴러와 「빌헬름 텔」 수용사

북한에서의 쉴러의 수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자료 접근의 문제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에 제한된다. 쉴러 수용을 다루려면 문학사, 문학비평, 번역과 번역비평뿐 아니라 공연과 공연비평, 더 나아가 연구와 교육상황도 폭넓게 살펴보아야 하나, 신문 등의 언론에 보도된 자료, 김일성대학의 단행본과 자료와 실제 번역본 등 접근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쉴러는 북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 작가라고 말할 수 있

텔」 번역비평(uedeko 홈페이지) 참조.

27) 권선형, 「빌헬름 텔」 번역비평(uedeko 홈페이지).

다.²⁸⁾ 1972년에 나온 『문학예술사전』에 수록된 드문 외국 작가로서 그의 생애와 작품이 전반적으로 소개되는데 그 분량이 적지 않다. 남한의 소개와 큰 차이 없이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쉴러의 문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작품들은 강한 정치적 호소성을 띠는 반면에 현실이 다면적으로 묘사되지 못하고 흔히 작가의 사상이 직선적으로 로출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²⁹⁾ 1975년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나온 『외국문학사』를 보면 ‘봉건사회의 붕괴기와 외국문학’ 편에서 서양 문학을 고찰하는 가운데 독일계몽주의 자 쉴러라고 독립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독일 극작가 쉴러는 희곡 《강도들》(1782)과 《월헬름 텔》(1804)에서 봉건제도의 부패성과 포악성에 타격을 가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레하면 그의 작품 《강도들》에서 쉴러는 칼 모르의 형상 속에 당시 독일의 침체한 봉건제도와 봉건적죄악에 항거하는 폭동자의 면모를 구현시켰다. 그러나 주인공은 출로를 알지못한데로부터 인민대중과 리탈되어 고독하게 투쟁하는 반항아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독일계몽주의자들의 약점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³⁰⁾

즉 두 작품의 예를 통하여 쉴러가 당대 봉건제도의 패악과 민중 투쟁에 대한 주제화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대중 투쟁과 개인의 입지와외의 관계를 비판하고 있어 성취와 더불어 약점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문학관에서는 주체 철학이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는데 이를 인본주의와 결부시켜 해석하면서 쉴러를 대표적 사례로 인용

28) 북한에서 이제까지 나온, 확인할 수 있는 쉴러에 대한 글은 주로 로동신문사의 글이 많고 찬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드리히쉴러에 대하여」 『조선문학』 제6호 (1955); 『로동신문』 1955년 5월 9일 (「독일의 위대한 시인 쉴러」); 『로동신문』 1955년 5월 16일 (「쉴러서거 一백五〇주년 기념의 밤」); 『문학신문』 1963년 1월 11일 (박홍석, 「쉴러와 시대정신」) 등이 그러하다.

29) 『문학예술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591쪽.

30) 『외국문학사』, 142쪽.

하기도 한다. 2000년에 나온 「주체철학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제목의 글은 인본주의 자체를 19세기 말 쉴러에 의하여 제창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³¹⁾ 이때 인본주의의 개념은 북한 특유의 정치사상사적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세계가 인간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를 인본주의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조상으로 쉴러는 앞서의 『외국문학』에서 본 것처럼 ‘계몽주의 극문학’의 대표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에서의 문학사조와 분류가 서구와 다른데, 크게 볼 때 문예부흥기-고전주의/인문주의-계몽주의-진보적 낭만주의-비판적 사실주의-(혁명적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문학)-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구분된다.³²⁾ 서유럽이나 한국에서의 독일문학사조의 분류가 18세기 이후만 살펴보더라도 계몽주의-슈트름 운트 드랑-고전주의-낭만주의-비더마이어-청년독일파-사실주의-자연주의-세기전환기-표현주의-신즉물주의-나치즘과 망명문학-동/서독 문학-통일 이후의 문학의 순서를 밟는 것을 고려해보면 전체 문학사 수용에서의 큰 맥락적 차이가 드러난다. 또한 쉴러의 「빌헬름 텔」은 작가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그의 전 생애에 걸친 민중관, 혁명관, 미적 교육론 등이 담긴 결정적인 작품으로 해석되고 고전주의자로 낙인찍고 있다. 쉴러를 계몽주의자로 해석하느냐 혹은 고전주의자로 해석을 하는가는 문학 내적뿐 아니라 문학 외적 맥락까지 포함시킨 해석의 문제이다.

31) 저자는 “세계란 근본적인 질료이며 우리의 제조물이다. 세계는 원래 이러한 것이었다든가 우리와 떨어져있었다든가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헛된 일이다. ... 세계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인용하고 있다. 위의 글, 33쪽.

32) 『외국문학사』에서는 외국문학사를 총 5개의 시기로 나누어 노예소유자사회시기의 외국문학, 봉건사회의 형성발전기의 외국문학, 봉건사회의 붕괴기의 외국문학, 19세기~20세기초의 외국문학,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의 외국문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에도 쉴러는 계몽주의의 대표적 극작가로 소개된다.

III. 북한의 「윌헬름 텔」의 번역과 이에 대한 번역비평

북한에서 이제까지 나온, 확인할 수 있는 실러에 대한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³³⁾

- 프리드리히 실러 저, 홍석근·공익현 역, 『실러 희곡선』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총동맹, 1963)
- 프리드리히 실러 저, 강학태 역, 『윌헬름 텔』 (문예출판사, 1984)
- 프리드리히 실러 저, 공익현 역, 『장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총동맹, 1986)
- 프리드리히 실러 저, 공익현·조맹연 역, 『실러희곡선』
(문예출판사, 1986)

첫 번째 작품과 네 번째 작품선에서 「윌헬름 텔」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작품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글은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작품이 모두 포함하는 작품인 「윌헬름 텔」을 비교 분석한 번역비평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윌헬름 텔」을 세 번역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비록 1963년과 1986년의 번역본은 전자는

³³⁾ 아쉽게도 북한의 번역본들은 그 저본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의 번역본을 제외하고는 남한의 번역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원전에서 직접 번역을 했는지 다른 나라의 번역본에서 중역을 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목인 빌헬름 텔을 윌헬름 텔로 번역하고 수많은 독어 인명과 지명(웨르나, 요르그, 슈미드, 왈터, 웨르니, 아르놀트, 윈켈리드, 제와, 게르투르트, 헤드위히, 아름가드, 메히트힐드, 힐데가드, 두우리 등)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데에서 보듯 독일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홍석근과 공익현의 공역이고 후자는 공익현과 조맹연의 번역본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후자는 전자를 대폭 수정하고 있다. 이 번역상황은 상당히 특기할 만하다. 남한에서의 번역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36회나 되지만 드라마로서의 완역본은 5차례만 나왔다. 비록 독어 원본에서의 번역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서 3차례 번역본이 나왔는데 2차례가 완역을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것이다. 또한 완역본은 역자의 시각이 많이 담겨 있는 가운데에서도 작품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독서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보다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이 세계문학이 북한에서 얼마만큼 읽히고 확산이 되었는가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북한의 번역본의 경우 서문과 역자 후기가 달려있어 정치적이고 계몽적인 독해를 강조하지만 원작이 충실하게 큰 왜곡없이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다면 독자로서는 보다 자유로운 다양한 독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남북한의 작품 이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앞서 언급한 권선형이 남한 번역본 5종을 번역비평할 때 다룬 두 장면을 집중 분석한다.³⁴⁾ 이 장면들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남한의 해석과 민중혁명을 강조하는 북한의 해석 간의 차이를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바로 전체 민중봉기와의 관계 속에서 텔의 성격화와 위치를 잘 설명해주는 1막 3장의 슈타우파허와 텔의 대화, 그리고 4막 3장의 게슬러를 살해하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는 텔의 독백 장면, 두 장면이다. 전자의 경우 슈타우파허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폭정에 맞서 싸우는 동맹을 기획하며 텔이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장면이다. 이때 텔의 대답은 슈타우파허의 기대와 다르다. 오스트리아의 관리가 아내를 성폭행하려하자 살해하고 추격을 받는 동포를 구해주고 온 텔에게

34) 권선형, 「빌헬름 텔」 번역비평(uedeko 홈페이지).

슈타우퍼허가 최근의 상황 변화를 이야기해주며 동참하라고 권유하지만 텔은 가족이 기다린다고 거절한다. 최근의 남한의 많은 해석들은 이 장면을 작가이자 역사가 쉴러가 오래 고민한 민중 봉기와 폭력의 문제에 대한 숙고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으로 보고 있다.³⁵⁾ 주지하다시피 쉴러는 프랑스 대혁명을 목격하면서 혁명과 폭력과 혼란, 군중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였으며 이 말년의 드라마를 쓰기 전에 이미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서한』(1795)을 통하여 이 시대적 문제에 대하여 작가 나름의 답을 낸 적이 있다. 즉 프랑스 대혁명에 열광하였으나 이후 시기의 폭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작가는 정치적 혁명 이전에 각 시민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하여야 하며 이는 예술을 통한 교육이 관건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때문에 쉴러의 작품 「빌헬름 텔」에서 우리, 운터발텐, 슈비츠주가 뭉쳐 봉기를 일으키고자 할 때 텔은 이러한 봉기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사과 쏘기와 게슬러 살해)들을 담당하지만, 전체 봉기 자체에서는 분리되어 홀로 서 있는 개인으로 등장하고 마지막에도 민중봉기 자체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며 이는 쉴러가 의도한 것이었다. 즉 텔은 자유의 사도이지만 민중 봉기의 폭력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이재영도 이러한 작가의 고민을 쉴러의 생애와 문학관 안에서 설명하면서 “텔 자신은 극 안에서 지극히 홀로 서 있으며, 그의 일은 사적인 일이고, 극의 끝에서 공적인 일과 결합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적인 일로 남아 있다”고 요약하고 있다.³⁶⁾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철과 박은식은 당대의 상황에서 이 부분을 변형시켜 텔과 아들이 봉기에 앞장선 것으로 개작하였다. 북한 해석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나 정치적 변혁운동과 유리된 개인적 고립을 단점으로 지적한다.

35) 이재영, 「자유를 위한 저항과 혁명, 그리고 폭력」, 220~221쪽 참조.

36) 위의 글, 220쪽.

1. 홍석근 · 공익현 역, 『월헬름 텔』, 『실러 희곡선』(1963)

실러 희곡선은 1963년 평양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세계문학선집의 8권으로 출간이 되었으며 홍석근과 공익현의 공저로 되어 있고 「군도」, 「간계와 사랑」, 「오르레앙의 처녀」, 「월헬름 텔」의 네 작품이 담겨 있다.³⁷⁾ 이 선집에는 박홍석이 서문을 달았으며 북한의 문학관과 세계관을 투영하여 실러의 문학사적, 사회사적, 혁명사적 의의를 기술하고 있다. 즉 실러의 문학의 시작을 질풍과 노도 운동에서 보며 이 운동을 “시대의 해방적 과업”³⁸⁾의 수준에 올려놓은 계몽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군도」, 「간계와 사랑」을 이 문학운동의 최고 절정으로 보고 있다. 이때 문학이 갖는 시대적 가치와 사회정치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데, 엥겔스의 『독일의 상황』을 인용하여 부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독일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³⁹⁾은 문학이었다고 기술한다. 실러는 특히 봉건 전체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과 비판뿐 아니라 혁명적인 사상을 담고 있어 텔이나 잔 다르크 등의 영웅적 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월헬름 텔」에서는 “인민들의 봉기”⁴⁰⁾를 주제화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러의 말년 작품은 “오지리 전제주의를 반대하는 스위스 농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텔의 형상”⁴¹⁾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나폴레옹에 강점된 독일 상황에서 민족해방투쟁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평가한다. 박홍석은 이 작품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인민 대중의 힘을 발견”⁴²⁾한 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텔이 게슬러를 죽인 것을 “봉기의 첫 신

37) 여기에서는 접근 가능한 1966년 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8) 박홍석, 「서문」 『세계문학선집』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5쪽.

39) 위의 글, 5쪽.

40) 위의 글, 6쪽.

41) 위의 글, 13쪽.

42) 위의 글, 16쪽.

호”⁴³⁾로 해석하여 민중봉기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작품 내의 여러 장면을 근거로 내세운다(죽어가는 계슬러에 대한 텔의 대답, 텔과 아들의 대화 등). 박홍석은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실러의 한계를 지적한다. 실러는 예술의 교양적 역할에 지나친 의의를 부여하고 있어 군주도 미적 교양으로 교육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가 찾아온다고 본 것을 “심한 세계관적 오류”⁴⁴⁾로 간주한다. 이렇게 계급의식을 드러내는 지점에서 박홍석의 해석은 일제강점기 시기나 남한의 해석과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는 외세에 맞서 계급의식보다는 민족의식이 앞섰었고, 남한에서는 실러를 많은 성찰과 고민을 거쳐 인민봉기와 거리를 두는 고전주의자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봉기와 관련해서도 외세의 압박에 계급을 초월하여 민족 이념으로 단결하여 독립을 하자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 번역에서도 이러한 해설에서의 사회주의 교조적 관점이 그대로 견지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 저본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 홍석근과 공익현의 번역이 중역이라 할지라도 완역이 되어 실러 문학이 그대로 드라마로 옮겨졌다면 문학작품 자체가 주는 의미는 강령에서 해석한 방향과는 상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무엇보다도 주인공 빌헬름 텔의 성격화 분석과 전체 드라마에서 그의 위치, 그리고 작품 전체 해석과도 상관이 있다. 주인공 빌헬름 텔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남한에서의 해석은 텔을 용감하고 의로운 개인으로서 곤궁에 빠진 사람들을 돕지만 일단 정치적 행동은 자제하고 거리를 두려는 인물로 해석한다. 그러나 텔은 사과 쏘기 사건을 통해 가족과 자식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태로워졌을

43) 위의 글, 15쪽.

44) 위의 글, 16쪽.

때, 이렇게 폭력이 자신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반복이 되었을 때 분연히 일어선다. 독자들에게 이러한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 4막의 텔의 독백은 꼭 필요하다. 또한 텔은 게슬러를 죽인 후 “이제 오두막에 자유가 돌아오고 무고한 사람들은 안전을 되찾았다”⁴⁵⁾고 외쳐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직접 주위 사람들에게 해명한다. 5막에서도 집으로 돌아온 텔은 부인 헤트비히에게 “이 손이 내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구했다”⁴⁶⁾라고 말하지만 민중 봉기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황제를 살해하고 자기에게 피신을 온 파리치다를 거부한다. 이러한 폭력의 의미 구조를 생각해볼 때 1막에서 자유주의자 텔이 스타우파허의 참여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것은 이 두 인물의 입장 차를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권선형은 남한의 5종 완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주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적 측면과 문체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즉 안인희, 한기상, 이원양, 이재영, 홍성광의 번역이 간결성과 함축성을 원문처럼 유지하였는지, 동어를 반복하는지, 풀어쓰기 번역을 하는지, 그럼으로써 독자의 이해 편의성에 중점을 두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독일어 원문에서는 “마음(Herz)”, “말(Wort)”, “행동(Tat)”이 두 인물 사이에서 주거나 받거나 하며 단순, 명확하며 리듬있게 반복이 되고 있다.⁴⁷⁾ 예를 들어 이재영의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⁴⁸⁾

45) 실러, 프리드리히 저, 홍석근·공익현 역, 「윌헬름 텔」 『세계문학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161쪽

46) 위의 글, 182쪽.

47) Schiller, Friedrich, Wilhelm Tell, *Schauspiel*, (Tübingen: Gotta, 1805)

TELL	Mein Haus entbehrt des Vaters. Lebet wohl.
STAUFFACHER	Mir ist das Herz so voll, mit Euch zu reden.
TELL	Das schwere Herz wird nicht durch Worte leicht.
STAUFFACHER	Doch könnten Worte uns zu Taten führen.
TELL	Die einzige Tat ist jetzt Geduld und Schweigen.
STAUFFACHER	Soll man ertragen, was unleidlich ist?

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 이만.
슈타우파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소.
텔 말을 한다고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슈타우파허 그래도 말을 나누다 보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오.
텔 지금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이란 인내와 침묵뿐입니다.
슈타우파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한다는 거요?⁴⁹⁾

1막 3장의 이 장면은 홍석근과 공익현의 1966년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고 있다.

텔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타우확허 자네와 할 얘기가 많은데, 어디 가슴이 답답해 견디겠어
지.
텔 말을 한다고 답답한 가슴이 풀리겠나요.
스타우확허 그래도 의논을 해야 성사가 될 게 아닌가.
텔 지금은 참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할 땀니다.
스타우확허 참을 수 있는 게 따로 있지!⁵⁰⁾

이들의 번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원작에서 어휘들의 반복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리듬을 살려 번역이 되지 않고 풀어서 번역이 되고 있다. 즉 “마음(Herz)”, “말(Wort)”, “행동(Tat)”라는 핵심 어휘를 두 인물이 번갈아 사용하면서 각기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데 “가슴”과 “행동”은 반복이 되나 “말”은 “말을

48)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재영의 번역을 남한의 번역본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다섯 번역가 중 실러 전문가이면서 또한 권선형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다가 가장 최근의 번역이기 때문이다.

49) 실러 저, 이재영 역, 『빌헬름 텔』, 31쪽.

50) 실러 저, 홍석근·공익현 역, 『일헬름 텔』, 161쪽.

하다”와 “의논을 하다”로 다르게 번역되어 원문이 같은 어휘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원문이 상연을 고려한 드라마로서 간결하면서도 리듬을 살리는 운문체 언어로 이루어지고 두 인물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을 같은 어휘의 반복을 통해 긴장시키고 있는데 이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은 그 갈등을 유사한 정도로 경험할 수가 없다. 비록 같은 의미의 자장에서 움직이고는 있다 하나 어휘를 다르게 사용하고 설명투의 긴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구절씩 자세히 살펴본다면 번역들도 원문과 의미상으로도 거리가 있음이 드러난다. 원문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다.”이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진 것인데 홍석근과 공익현의 번역은 이를 “가슴이 답답하다”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의논을 해야 풀리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이 추구하는 가치인 가족과 고향은 국가나 계급보다 우선하고 있으며 그대로 번역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핵심적 장면이라 할 4막 3장을 살펴보자. 우선 이재영의 번역을 살펴보자.

쓰라린 고통을 불러오는 화살이여, 나와라. / 내 소중한 보배,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여, / 네게 표적을 하나 주마. 지금까지는 / 아무리 간청해도 허락해 주지 않던 표적이다. / 하지만 네게는 허용해 주마. / 그리고 너, 흥겨운 경기에서 / 늘 내게 충성을 바쳐 온 익숙한 시위여, / 엄중한 순간에 나를 배신하지 말거라. / 매서운 화살에 그토록 자주 날개를 달아 준 / 충직한 줄이여, 이번만은 꼭 버터 다오. / 지금 화살이 힘없이 내 손을 빠져나가면 / 다시 한번 쓸 기회는 없다.⁵¹⁾

고전주의 드라마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시대적 격차가 커서 남한의 5종의 번역본들도 어휘와 문장 사용에 있어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

51) 실러 저, 이재영 역, 『빌헬름 텔』, 150쪽.

고 있다. 특히 해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첫째 줄의 “Bringer bitterer Schmerzen”, 둘째 줄의 “Kleinnod”, 일곱째줄과 아홉째줄의 “der Freude Spielen”과 ‘im fürchterlichen Ernst’와의 대립 그리고 여덟째 줄의 “widerstehn”의 해석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⁵²⁾ 첫 번째 어휘는 원작에서는 화살을 의인화하고 있으나 이재영의 경우 의미를 살려 “화살”로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화살을 가리키므로 “보배”로, “흥겨운 경기”와 “엄중한 순간”으로 대비시키고, 마지막은 “허용하다”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⁵³⁾ 다음으로 홍석근과 공익현의 번역을 살펴보자.

“너, 죽음을 주는 화살아, 나의 가장 고귀한 보배야, 전통(箭筒)에서 나오라. 너에게 목표를 주마. 지금까지 아무런 애원도, 청원도 뚫지 못 한 목표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뚫고야 말리. 그리고 나의 믿음직한 화살아. 너는 궁술시합에서 언제나 나에게 충실하였지, 이 결정적 시각에 나를 버리지 말

52) Schiller, Friedrich, Wilhelm Tell, Schauspiel, (Tübingen: Gotta 1805)

Komm du hervor, du Bringer bitterer Schmerzen,
 Mein teures Kleinod jetzt, mein höchster Schatz -
 Ein Ziel will ich dir geben, das bis jetzt
 Der frommen Bitte undurchdringlich war -
 Doch dir soll es nicht widerstehn - Und du,
 Vertraute Bogensehne, die so oft
 Mir treu gedient hat in der Freude Spielen,
 Verlaß mich nicht im fürchterlichen Ernst.
 Nur jetzt noch halte fest, du treuer Strang,
 Der mir so oft den herben Pfeil beflügelt —
 Entränn er jetzo kraftlos meinen Händen,
 Ich habe keinen zweiten zu versenden.

53) 권선형은 다섯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화살”, “보배” 등을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 보고 있지만 나머지비교에서는 “저항하다”, “기쁨의 유희”(안인희)와 “즐거움의 유희”(이원양)를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의 경우 “Spieln”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의 문제이다. 권선형, 「빌헬름 텔」 번역비평(uedeko 홈페이지).

아다오, 지금까지 몇 번이고 강한 화살을 날려준 나의 충실한 화살이여, 이제 한 번 더 부탁한다.”⁵⁴⁾

이들의 번역은 원작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독일어 원문에 없는 “전통에서 나오라”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고 마지막의 부탁은 화살이 아니라 줄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도 보듯 원작에서 옮겼다기보다는 중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영의 번역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운문보다는 독자의 이해를 위한 산문식 번역을 택하고 있다. 때문에 공익현의 원문의 행이나 어휘의 순서를 살리려는 노력이 덜하며 드라마 언어의 리듬감은 떨어지고 있다. 독자를 위해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의역을 하고 있으며 화살을 ‘너(du)’라고 칭하면서 문체를 ‘-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실러 당대의 문체뿐 아니라 공익현이 번역한 1970년대의 문체가 반영된 것이라 추정된다. 첫 번째 어휘는 원작에서는 화살을 의인화한 것인데 공익현은 “화살”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고 이는 남한의 여러 번역본들도 마찬가지이다. “Kleinnod” 같은 경우 가장 고귀한 보배라 강조해 번역하고 있으며 “궁술 시합”과 “결정적 시각”이라 표현한 것은 두 대비되는 관계는 잘 나타나 있으나 원작의 어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widerstehen”하지 말 것을 역시 의역하여 “부탁한다”로 번역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 공익현의 번역은 원작에 충실한 번역이라 할 수 없으나 이는 중역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문이 번역되었으며 또한 독자들을 고려한 읽기에 큰 무리가 없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휘나 구문을 보편적인 인간 정서에 맞게 번역하고 서문이나 후기와 같이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나 문장으로 옮겨지거나 왜곡되지 않은 번역임을 알 수 있다.

54) 실러 저, 홍석근·공익현 역, 『일헬름 텔』, 403쪽.

2. 강학태 역, 『월헬름 텔』 (1984)

우선 이 작품의 특별한 점은 번역이 “어린 독자”들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것이다.⁵⁵⁾ 남한에서도 일제 강점기나 해방 이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한 번역본이 나왔고 심지어 드라마 완역본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공통점은 흥미롭다. 권선형은 그 이유를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활로 쏘아 맞힌 명사수 이야기, 자유를 위한 민중들의 항거, 외세의 압제에 맞선 애국심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내용은 아동문학용으로 적합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⁵⁶⁾ 강학태의 단행본은 전체적으로 기획이 어린 독자층에 맞추어져 있어 표지나 본문에 삽화들이 여럿 삽입되었다. 표지의 삽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며 아버지는 활과 화살을 메고 있으며 아들은 존경하는 눈길로 아버지를 우러러본다. 표지 다음의 삽화는 스위스를 상징하는 너럭바위 위에서 빌헬름 텔이 활을 잡고 겨냥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 그 외에 본문 내에 10여 장의 삽화가 다소 만화풍의 스케치로 그려져 있으며 당시 남한에서도 유행했던 화풍이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설러의 원작이 막이나 장에 소제목이 없는 5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였는데 강학태는 이를 총 15장으로 나누어 총 244쪽 분량의 소설로 장르를 바꾸고 있다. 각 단원들의 제목은 ‘산속사람들의 노래’, ‘사냥군 월헬름 텔’, ‘스타우확허와 그의 안해’, ‘괴상한 포고문’, ‘한마음’, ‘젊은 남작’, ‘숲속의 모임’, ‘벼랑길에서 있던 일’, ‘고귀한 사랑’, ‘사과를 명중시킨 월헬름 텔’, ‘폭풍우속에서’, ‘남자의 유언’, ‘폭군의 말로’, ‘중소리’, ‘자유

55) 강학태는 단행본의 맨 앞부분에 서문을 달았을 뿐 아니라 말미에도 ‘프리드리히 설러와 월헬름 텔에 대하여’를 쓰고 있다. 설러, 프리드리히 저, 강학태 역, 『월헬름 텔』 (평양: 문예출판사, 1984), 5쪽.

56) 권선형, 「빌헬름 텔」 번역비평(uedeko 홈페이지).

수호자 만세'이다. 작품의 시작은 작품 이해에 필수적인 스위스의 자연 묘사인데 푸른 하늘과, 땅, 산과 들과 물이 있는 자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으로 상징화하고 있어 주제와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이는 작품 속에서 후에 텔과 아들과의 대화 혹은 루덴츠와 베르타와의 대화에서도 반복된다. 다른 작품들은 실러 모음집 안에 번역되어 번역자가 아닌 편집자의 서문이 달려 있는데 반하여, 단행본으로 나온 이 책은 역자의 서문뿐 아니라 후기까지 붙어 있는데 그럼으로써 독자들의 독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번역의 의도를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북한의 정치 사상적 체제에 맞는 작품으로서 아동들의 애국심과 혁명 정신을 북돋아 주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강학태는 역자 서문에서 작품의 내용을 요약한 후 그 의의를 다음처럼 밝힌다.

... 이 작품은 압제의 사실에 얽매어 비굴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외세와 맞서 싸우면 능히 자유와 독립을 찾을 수 있다는 사상을 영웅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이고있습니다.⁵⁷⁾

강학태는 이 작품의 이해와 수용에 있어 다음을 강조한다. 첫째, 실러가 주인공의 성격을 이상화하지 않고 “성장발전하는 인물로 그렸다는 점”이다. 이는 전반부에서 동맹에 가담하라는 제의를 물리치고 가족에게 돌아갔으나 게슬러의 잔혹한 활쏘기를 겪고 체포되었다가 탈출하고 결국 태수의 심장을 관통하여 처단하게 됨을 지시하는 것이다. 텔은 게슬러를 죽인 후 “이제 오두막에 자유가 돌아오고 무고한 사람들은 안전을 되찾았다”⁵⁸⁾고 외친다. 둘째, 주인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족적 영웅”으로 찬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게슬러를 “외래침략자들의 야수성과

57) 실러 저, 강학태 역, 『월헬름 텔』, 4쪽.

58) 실러 저, 이재영 역, 『빌헬름 텔』, 161쪽.

잔인성”을 보여주는 인물로 요약하며 ”그런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는가“(5)를 보여준다고 쓰고 있다. 또한 강학태는 이 작품의 우수함을 “사상적 높이”, “극적 짜임새”, 그리고 “성격형상의 재치”⁵⁹⁾에 있다고 요약하며 작품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약점으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 약점은 앞서의 박홍석의 지적과는 차이가 난다. 첫째는 “원수를 무찌른 텔이 손에서 무기를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꼽고 있으며 둘째로는 “란데베르그 총독놈을 용서해주는 이야기”⁶⁰⁾이며 이 약점의 원인은 작가 실러가 “원수들의 침략적 본성을 보지못한데서 온 부족점”이라고 설명한다. 남한과 북한의 수용 및 해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차이들이 드러나나 특히 이 지점에서 실러 이해의 분기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⁶¹⁾ 강학태는 텔이 게슬러를 화살로 쏘아 죽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스위스 민중봉기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약점으로 지적하는데, 이를 강조하고자 소설로 각색할 때 원작에 다른 위치에 있는 구절을 한 줄로 요약하여 넣는다.⁶²⁾ 즉 원작 드라마에는 이 위치에 없는 구절 “텔은 죽어가는 게슬러를 한동안 굽어보다가 언덕길을 올라갔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⁶³⁾를 삽입하였다. 또한 번역자는 변안 과정에서 새로운 구절을 첨가할 뿐 아니라 기존의 여러 장면들을 생략한다. 강학태가 또 다른 약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복수를 맹세하는

59) 실러 저, 강학태 역, 『윌헬름 텔』, 5쪽.

60) 위의 글, 6쪽.

61) 이미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철이나 박은식의 『서사건국지』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애국계몽기의 중국이나 구한말의 조선에서도 실러의 작품에서 이 부분은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즉 빌헬름 텔 부자는 이 스위스의 민중봉기의 선봉에서 있다. 이 점에서 강학태는 원작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같은 노선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2) 강학태는 소설로 직접 각색을 했는지, 아니면 외국의 아동본을 참고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63) 실러 저, 강학태 역, 『윌헬름 텔』, 211쪽.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두 눈까지 뽑은 잔악한 영주 란덴베르거를 잡아왔지만 결국은 살려주는 장면으로서 다음처럼 번역이 된다. “마침내 그놈을 붙잡아가지고 아버님이 계신곳까지 끌고갔습니다. 하마터면 그놈의 머리통에다 도끼를 휘둘러박을뻔했지만 용서해주라는 눈먼 로인님의 자비심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주고말았습니다.”⁶⁴⁾ 강학태는 소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드라마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부여된 텔의 독백, 즉 계슬러를 쏘기 전에 바위 뒤에 숨어서 기다리는 장면의 독백을 생략하고 만다. 이 독백은 텔이 자신이 의도하는 살해 행위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자는 소설에서는 읽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번안은 한편으로는 원작을 충실히 옮기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다른 한편 수용자의 이해와 의도를 보다 적나라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⁶⁵⁾

소설이 끝나고 나서 역자는 다시 한 번 후기를 통해 독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편으로는 텔의 용감성의 원천으로 “자유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갈망”⁶⁶⁾을 든다든지 윌헬름 텔의 “희생정신”⁶⁷⁾을 성찰한다든지 혹은 침착하고 용감하며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 이야기를 강조할 때 남한 독자의 이해 지평과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서 이 이야기를 현대 한국에 투사하여 “공화국 남반부”⁶⁸⁾의 현실에 빗대 설명할 때에는 이 이야기를 정치화시켜 종결짓는 북한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64) 위의 글, 218쪽.

65) 번역문의 마지막에 역자는 한반도의 현실과 관련 시켜 이 작품의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쉴러의 갈등 상황을 남북한 현실에 적용시켜 미국과 당대 남한 정부를 계슬러와 비교하면서 “남반부 인민들을 하루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를 당부하기 때문이다.

66) 위의 글, 242쪽.

67) 위의 글, 243쪽.

68) 위의 글, 244쪽.

3. 공익현 · 조맹연 역, 『월헬름 텔』, 『실러희곡선』 (1986)

김경식은 북한에서 60년대 말 이후 외국문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다가 1984년의 김정일의 지시와 더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오고 세계화쪽으로 방향이 전환됐고 기술한다.⁶⁹⁾ 김정일은 “주체적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세계문학선집을 총 100권으로 하되 그 배열순위는 창작년대순으로 하며 작가의 세계관의 제약성으로 하여 일정하게 부족점이 있는 작품이라도 세계적으로 공인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달아 내보내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1986년부터 세계문학선집이 발간되기 시작하여 2001년까지 43권이 나왔음을 보고한다.⁷⁰⁾ 공익현이 다시 번역하여 1986년에 나온 「월헬름 텔」은 보다 원작에 가까워진 완역본이고 63년 초판본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한 번역본이다. 이 작품은 『실러희곡선』 안에 실려있으며 총 네 작품이 번역이 되어 있다. 「도적들」, 「간계와 사랑」, 「오를레앙의 처녀」와 「월헬름 텔」로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곳에서도 저본은 밝히지 않고 있다.

황영길은 맨 앞의 서문에서 이 실러 희곡선에 대한 전체 해설을 하고 있다. 실러는 “18세기 계몽주의”의 대표자로 소개되고 있으며 독일 계몽주의의 이념을 “독일인민의 해방투쟁을 반영하는 것을 문학의 주되는 과업”⁷¹⁾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실러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질풍과 노도에 영향을 받다가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해졌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을 겪으며 인간의 미적 교양론을 내세운 점을 지적하고 있고 말년의 작품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러의 전체 일대기를 서술한다, 이러한 작가 소개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에

69)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124~125쪽.

70) 위의 글, 126쪽.

71) 황영길, 「서문」 『세계문학선집』 (평양: 문예출판사, 1986), 3쪽

서 나온 독일 문학사나 남한의 독일문학사와 큰 차이 없이 일생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작가의 일대기 서술이 끝난 후 황영길은 단락을 바꾸어 김일성의 교시인 “피압박인민들은 오로지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해 확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⁷²⁾라고 표현하며 이 교시에 따라 실러의 초기작 『도적들』을 해설하고 이어 『간계와 사랑』을 해설하고 있으며 궁정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 간의 충돌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말한다. 황영길은 「월헬름 텔」의 약점으로 “선량한 왕과 귀족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 있고 주인공의 형상에서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측면들과 장면설정에서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측면들이 있다”⁷³⁾라고 지적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계급의식과 성격화 문제뿐만 아니라 장면설정의 약점을 다루고 있다. 즉 드라마 구성이라는 문학적 시각에서 조명하여 앞의 박홍석이나 강학태가 지적한 차이와는 다름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듯 이념적인 해석을 담은 서문과 달리 문학작품 자체는 드라마로 완역하였기 때문에 원작이 지닌 인륜과 보편성을 훨씬 더 많이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문은 정치 이념적 논리가 문학 작품에 우선하였다면 실제 번역작품은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리와 차이와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작품 해석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으로 1막 3장의 장면을 들 수 있다.

텔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타우확허 가슴이 하 답답해 그러니 우리 얘기 좀 하자구.

텔 말씨름이나 한다고 답답한 가슴이 풀리겠나요.

스타우확허 그래도 의논을 해야 행동을 할 수가 있소.

72) 위의 글, 4쪽.

73) 위의 글, 12쪽.

텔 지금은 참고 입뚜껑을 다무는게 상책입니다.

스타우확허 허지만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야 한단말요.⁷⁴⁾

앞서 홍석현과 공익현의 1963년도 번역과 비교해보면 1986년의 번역은 전반적인 수정이 가해졌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텔과 스타우확허의 관계도 과거의 번역본은 텔이 스타우확허에게 존대말을 사용하는 관계였다면 그래서 동맹을 논의하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는 텔을 스타우확허가 질책을 하는 어조였다면, 새 번역본은 존대법과 관련하여 두 인물을 동등한 관계에서 번역하고 서로 경어체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전보다 보다 간결하게 번역이 되어 드라마 언어로서의 특징을 살리고 있으나, 가슴-말-행동의 반복되는 어휘와 긴장 관계는 여전히 전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이전에는 “가슴”과 “행동”이 되풀이 되었다면 이제는 앞부분만 살리고 있다. 텔이 다시 한번 “행동”이라는 어휘를 받아 반복하는 것을 생략한 것은 매우 아쉽다. 전체 해석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가슴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슴의 경우 한 번은 문장 맨 앞의 위치로 이동하여 강조되고 있고 다음 대화로 다시 받고 있다. 말의 경우 말씨름과 의논하다라는 어휘로 번역되어 아직 간접적인 반복이 될 뿐이다.

텔이 게슬러를 죽이려 매복하고 있는 4막 3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번역에 수정을 가한 흔적이 보이며 원문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너, 죽음을 안기는 화살아, 나의 값진 보배야, 나의 가장 큰 보물아... 내 너에게 하나의 과녁을 주마. 지금까지 그 어떤 애원도, 청원도 뚫을 수 없었

⁷⁴⁾ 실러, 프리드리히 저, 공익현·조맹연 역, 『월헬름 텔』 『세계문학선집』 (평양: 문예출판사, 1986), 424쪽.

던 과녁을... 너는 그것을 뚫으리라. 그리고 너, 나의 믿음직한 활줄아. 넌 언제나 궁술시합에서 나에게 충신했지, 이 결정적 시각에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 이제 한 번만 더 지켜다오 너 충실한 활줄아. 지금까지 나를 위해 그 몇 번이고 화살에 나래를 달아주어온 네가 아니냐.”⁷⁵⁾

남한에서의 번역이 시작 부분을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는”이라고 원작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공익현은 60년대의 번역이나 80년대의 번역 모두에서 “죽음을 안기는”으로 보다 강조하고 보다 직역체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다소 과장된 번역이기는 하지만 독자로서는 이해하기 훨씬 수월하다. 또한 60년대 원문에 없는데 번역자가 임의로 추가한 “전통(箭筒)에서 나오라.”가 빠지고 “보배”와 “보물”로 반복되면서 이전보다 독어 원전에 가까워지고 있다. 활과 화살이 주제화되는 상황에서 “목표”를 이에 조응하도록 “과녁”으로 바꾸고 있으며 배반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대상도 원작에 맞추어 화살에서 “활줄”로 수정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의 번역들이 “Spielen”과 “Ernst”의 대립을 추상화시켜 흥미와 엄숙함으로 대비시키는 반면에, 공익현은 계속적으로 “궁술 시합”과 “결정적 시각”으로 나타내고 있다. “widerstehen”은 이전에는 문장 속에 통째로 삽입되어 “부탁한다”로 의역이 되고 있다면 이제는 “버리지 말”다로 역시 독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고 있어 텔의 간절한 마음을 더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공익현의 1986년 번역본은 - 여전히 수많은 크고 작은, 원전과는 차이가 있는 번역을 하고 있으나 - 완역으로서 보다 독어 원문에 충실하게 다가가고 있으며 독자들을 고려하는 다소 산문 투의 풀어쓰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문에서 강조하는 정치적 이념을 작품 번역에서 반영하기 보다는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번역으로서 번역자의 의도적인 변형을 많이 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북한식의 생경한

75) 위의 책, 491쪽.

어휘사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작품을 두고 하는 토론에는 지장이 없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독일의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는 북한에서 다른 외국 작가들에 비하여 높은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통일된 사회주의 문학관의 맥락에서 활발하게 수용되고 있다. 특히 「월헬름 텔」의 수용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07년 박은식의 독일문학 변안 소설인 『서사건국지』에서 보다시피 당대 한국의 위급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애국계몽의 맥락에서 문학 텍스트들은 이를 둘러싼 콘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한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중들의 봉기라는 정치적 관점이 수용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강학태의 청소년 소설 「월헬름 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의 수용은 이와 달리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다채로운 양식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점차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고전주의 시대의 드라마 작품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작가가 평생 자유를 추구한 고전주의자라는 점이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큰 차이 이외에 이 글은 실제 번역비평을 통하여 세계문학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북한에서 나온 세 종의 번역본의 서문에서는 북한의 문학 강령과 이념이 강조되고 있지만 원작에 충실하게 번역을 할 때 독자는 작품을 독자적으로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생겨남을 확인하였다. 실제 완역을 한 북한의 두 번역본과 어린이용으로 개작한 소설의 경우, 민중봉기보다는 가정과 나라를 강조

하며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쉴러의 사상이 큰 변형이나 차이 없이 옮겨지고 있다. 공통의 세계문학 번역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은 세계문학 작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고전문학과 세계문학의 보편성이 지니는 중요한 미래적, 소통적 의미가 담겨 있다.

■ 접수: 2023년 5월 8일 / 심사: 2023년 5월 30일 / 게재 확장: 2023년 6월 7일

【참고문헌】

- 박진영, 『번안과 번역의 시대』, 서울: 소명, 2011.
- 실러, 프리드리히 저, 공익현 역, 『(프리드리히 실러) 군도』,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총동맹, 1963.
- 실러, 프리드리히 저, 강학태 역, 『윌헬름 텔』, 평양: 문예출판사, 1984.
- 실러, 프리드리히 저, 이재영 역, 『빌헬름 텔』, 서울: 을유문화사, 2009.
- 이충섭, 『한국의 독어독문학 관계 번역문헌 정보』, 서울: 한국문화사, 1990.
-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괴테연구』 제20호, 2007, 115~137쪽.
- 김태섭,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문학연구(2017. 9. 10)」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주제 111, 제68권 제1호, 2022.
- 신수송, 윤미애, 최윤영, 최성만, 「문화수용과 문화전이로서의 번역: 괴테, 카프카, 토마스 만 작품의 한국어 번역 연구」 『독일언어문학』, 제18호, 2002, 259~299쪽.
- 실러, 프리드리히 저, 홍석근·공익현 역, 「윌헬름 텔」 『실러희곡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 실러, 프리드리히 저, 공익현·조맹연 역, 「윌헬름 텔」 『세계문학선집』, 평양: 문예출판사, 1986.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운동주와 한국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1, 361~363쪽.
- 이경희, 「미적 인간과 미적 국가의 문학적 구현. 실러의 드라마 『빌헬름 텔』을 중심으로」 『외국문학』 제51호, 2013, 181~202쪽.
- 이은정, 「세계문학과 문학적 세계 1」 『세계문학』 제55집, 2016, 5-38쪽.
- 이재영, 「자유를 위한 저항과 혁명, 그리고 폭력」 『빌헬름 텔』 역자 후기, 서울: 을유문화사, 2009, 205~225쪽.

Translation of German literature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Translation of Schiller's *Wilhelm Tell*

Choi, Yun-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ception of German literature in North Korea through the translation of world literature, specifically Friedrich Schiller's *Wilhelm Tell*. This work has been translated four tim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32 times in South Korea since liberation, and at least three times in North Korea, making it suitable for comparative analysis both synchronically and diachronically.

Concretely, I first examined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world literature, foreign literature, and translation, and then examined how Schiller and Schillerian literature are evaluated in North and South Korea. Next, I reviewed the three North Korean translations of the work in detail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Korean, North Korean translations and the German original. I also analyzed the gaps between literary and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North Korean translations. In fact, while North Korea's literary theories and the prefaces and postfaces of the translations reflecting these theories show a strong political, ideological, and dogmatic color, the actual translations of the works are relatively weak in these colors, especially when they are fully translated.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general and universal values of 'world literature' and 'classical literature', we can see that there is a gap or crack between translation theory and actual transla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a possibility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communicate and dialog beyond their respective systems through a common reading experience of 'world literature'.

Keywords: *Wilhelm Tell*, translation in North Korea, translation critic, world literature

최윤영 (Choi, Yun-Young)

서울대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독일의 사실주의 문학, 이민 문학, 소수자 문학, 문화이론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카프카, 유대인 몸』(2012),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2016), 『엑스포니, 다와다 요코의 글쓰기』(2020) 등이 있다.

일반 논문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

: 조선예술영화 '보증'에 삽입된 김일성 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중심으로

김규리 (이화여자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선예술영화 '보증'에 삽입된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통해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9명의 북한이탈주민들 중, 1명(장마당세대)을 제외한 8명은 이 시를 80%이상 암기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9명에게 당시 이 시를 읊으면서 '어머니 당'에 진심으로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1990년대 장마당 세대인 G씨와 H씨를 제외한 연구대상자 7명은 "당시에는 이 시를 읊으면서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였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장마당세대인 G씨와 H씨는 연구자의 같은 질문에 "어머니 당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 북한은 1980~90년대 당시 북한사회에서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조선예술영화 '보증'이나 이 영화에 삽입된 시 〈어머니〉나 〈용서하시라〉를 통해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도 재활용하면서 체제결속을 유도하지만 현재는 그 효용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주제어: 보증, 김철,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 어머니 당, 세뇌, 효과,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I. 서론

본 논문은 조선예술영화 ‘보중’에 삽입된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영화 ‘보중’에 삽입된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바탕으로 한 이유는 연구자가 9명의 북한이탈주민 연구대상자에게 “북한의 ‘어머니 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나 시, 드라마 등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1명(장마당세대 G씨)을 제외한 8명이 영화 ‘보중’과 김철의 시 〈어머니〉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을 ‘출신성분’¹⁾이라는 성분분류에 따라 주민 계층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놓고 이 출신성분에 따라 포용과 배제, 감시와 통제, 평가와 보상을 해왔다. 주민성분 조사사업 및 주민통제 조치로 1958년부터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으로 불순분자 색출 처단 및 산간벽지에 강제이주를 시켰고,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 사이에는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으로 전 주민을 핵심계층(핵심군중), 중요계층(기본군중) 적대계층(복잡군중)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하였다.²⁾

출신성분을 바탕으로 엄격한 정치적 위계구조와 성분 및 계급계층 구분과 차별적 대우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연쇄적으로 재생산되고

1) 출신성분은 혁명가, 노동자, 고농, 빈농, 중농, 사무원, 종교인, 월남자, 지주 등의 신분이 사용되며 이 중 어느 한 성분이 부모의 성분으로서 본인의 출신성분을 규정한다. 김진철,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화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23쪽.

2)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9), 332쪽.

심화되었다. 성분에 따라 의식주나 생필품 등 국가 배급이 차등 지급되었고, 거주지 및 이동이 제한되었다. 대학 진학, 군입대, 직장 배치, 입당 시 특혜 또는 불이익이 적용되어 수직적인 계층 이동 가능성도 제약하였다.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에 의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정책은 강력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한편, 국가 건설 및 유지에서 특정 계층을 배제하기에 이른다.³⁾

그런데 이러한 북한 사회에서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대대적인 변혁을 일으킨 가운데 '조선예술영화'에서 적대계층이 영화의 '소재'와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1987년에 방영된 조선예술영화 '보증'이다. 이는 북한 문화예술 부분에서 커다란 사변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에서는 극심했던 성분차별의 실화를 그리고 있다. 남한에 가족을 둔 월남자 가족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자산계급 출신인 연구기사가 노동 현장에서 겪는 불평등한 차별의 현실을 반영했다.

영화 보증이 방영되고 난 후, 북한에서는 TV, 라디오, 신문잡지 할 것 없이 모든 선전매체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1988년 『조선중앙년감』에서는 '보증'에 대해 "영화는 사회정치생활경위와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관하게 본인의 현재 사상과 행동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보증하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안기여사는 한없이 은혜롭고 위대한 어머니 품이라는 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였다."라고 극찬했다.⁴⁾ 조선노동당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록 및 선전하는 『조선로동당력사2』에는 "예술영화 '보증'을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대작으로 창작하여 당간부양성기관

3) 안지영·김화순, 「배제와 포용-북한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본 '복잡군중'정책」 『한민족문화연구』 제72권 72호 (2020), 95쪽.

4)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209쪽.

들에게 교재로 리용하도록 하였다.”라고 수록하고 있다.⁵⁾

이처럼 북한 예술영화 부분에서 당의 사상을 온전히 전파하고 당을 찬양하는 교양적 가치로서의 커다란 영향력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영화 ‘보중’은 그 명성에 걸맞게 이 영화에 대한 연구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삽입되어 영화의 중요한 요소 마다에서 극적 극대화를 일으켜주는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용서하시라〉와 영화 2부의 엔딩장면에 삽입되어 감동의 하이라이트를 선사하는 시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가 영화 ‘보중’에 삽입되었다는 소개 조차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에 대한 선행연구는 ‘현역 북한 최고의 시인(김일성賞계관시인) 김철·오영재’라는 제목으로 〈열정과 카리스마의 시인 김철〉의 개인사(김철의 출생부터 출당·철직, 그리고 복당 등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전영선의 연구가 유일하다.⁶⁾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당국이 인정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억하는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가 영화 ‘보중’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북한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면서 북한주민들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 당’으로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세웠다는 판단에 따라 이 시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그 한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억하는 시 〈어머니〉와 〈용

5) 『조선로동당력사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116쪽.

6) 전영선, 「현역 북한 최고의 시인(김일성상계관시인)-김철,오영재」 『북한』, 2002년 3월호(통권제363호), 136~145쪽.

서하시라)를 통해 이 시가 북한사회에 어떻게, 얼마나 전파되었는지, 북한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선전매체로써 북한 주민들을 '어머니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세우는 체제결속의 역할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보증'과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에 대해 당시 북한의 분위기나 시가 갖고 있는 인지도, 상징성, 영향력, 세뇌 효과 등을 보다 폭넓게 기억하고 증언할 수 있는 1980년 이전 출생자 우선의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시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출생의 장마당세대도 인터뷰하여 현재 김정은 시기에 이 시를 주민 교양적 사료로써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에도 계속해서 북한주민들이 이 시를 통해 '어머니 당'을 진심으로 흠모하고 따르는지, 시가 나와서 북한사회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킨 1980~90년대보다 어떤 의미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것이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북한 원전을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당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생동감을 주기 위해 북한식의 한글 맞춤법(두음법칙, 띄어쓰기 및 철자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II. 영화 '보증'과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

우선 조선예술영화 '보증'은 1986년 남흥화학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재직했던 박봉주 전 총리의 실화를 다룬 영화이다.⁷⁾ 영화는 월남자 가족 출신의 공장 노동자 허진성과 부르주아 출신의 화학기사 원석

해의 출신성분을 이유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일부 당간부들의 편협성을 공장 당비서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어머니 당’의 이름으로 노동자 허진성의 입당 보증인이 되어주는 감화·감동을 목적으로 조선로동당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과도 같다는 내용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⁸⁾

북한당국은 영화에 대해 “영화는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준 특출한 성과작으로, 우리 당 군중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인한 혁명적 작품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상을 수여받았다.”라고 극찬했다.⁹⁾ 결국 영화는 복잡한 각계각층 군중의 배경이나 과오도 감싸안고 차별하지 않은 조선로동당을 따뜻한 어머니 품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어머니 당’에 감사하며 충성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영화에 삽입된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 시라〉는 어머니는 자식의 허물을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사랑으로 용서하듯이 당도 어머니와 같이 주민들을 출신성분에 따라 구분하고 배척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보듬어준다는 강력한 메시지에 영화의 요소마다에 삽입되어 극적 극대화를 일으켜주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시 〈어머니〉는 “내 이제는/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어느덧 귀밀머

7) 조선예술영화 ‘보증’은 1983년부터 10년간 남흥화학 당책임비서로 재직했던 박봉주 내각총리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총리가 남흥화학연합기업소 당비서로 재직하던 당시 적대계층에 속하는 출신성분이 안 좋은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을 보살핀 실제 사실을 다뤘으며, 북한에서는 당간부의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선전하고 있다. 「北에선 남흥화학 공장출신들이 출세한다.」 『연합뉴스』 (온라인), 2013년 6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620201100014>>.

8) 「조선예술영화 ‘보증’ 제1, 2부」 『유튜브』 (온라인), 2020년 8월 27일 <<https://www.youtube.com/watch?v=E1NY1xNNL7>>.

9)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209쪽.

리 희여졌건만/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를 시작으로 한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 가지 소원을 다 아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애로운 어머니 품과도 같은 조선로동당이며 당은 낳아준 어머니의 품 이상으로 육체적 생명뿐만이 아닌 사회정치적 생명까지도 책임져주는 사려 깊고 현명한 어머니의 품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며/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로 마무리하고 있다.¹⁰⁾

북한당국이 이 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당국의 시에 대한 문학작품 분석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서정시 〈어머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되었다. 총적으로 이 시의 종자는 〈어머니당이 없이는 나는 못산다〉는 것을 종자로 하고 있다. 이 서정시는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주는 어머니이며 우리 인민은 이 어머니당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영원히 받들고 따라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다.¹¹⁾

또 시 〈용서하시라〉는 “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고/투정질하며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이 아들을 어머니시여 용서하시라/화학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고/대수공식도 외우지 않아/선생님을 애먹이던 이 제자를 선생님이시여 용서하시라/그러나 용서치 마시라 조국이여/진격의 길에서

10) 김철시집, 『어머니』 (평양: 문예출판사, 1989), 32~36쪽.

11) 『문학작품분석』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2012), 100쪽.

내 주저하며/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하여 나의 가슴을 겨누는 적의 탄알이/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면/절대로 용서치 마시라”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²⁾

시 〈용서하시라〉는 시인 김철이 조국해방전쟁시기 화선에서 쓴 작품으로 이때 시의 제목은 〈돌격을 앞두고〉였다. 하지만 이 시의 제목인 〈용서하시라〉는 김정일이 직접 수정한 것이다. 김철은 자신의 수기에서 “그리고 잊지 말고 강조해야 할 것은 〈용서하시라〉 시의 제목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달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서정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아주 잘 썼다고, 세계에는 당도 많고 시인도 많지만 그 어느 나라에도 김철동무처럼 당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다 맡아주는 어머니로 절절히 노래한 시인은 없다고, 시 〈용서하시라〉도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거듭거듭 치하의 말씀을 안겨주시었다.”라고 회고했다.¹³⁾

김일성과 김정일이 영화 ‘보증’이나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¹⁴⁾의

12) 『김철작품집(상)』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6쪽.

13) 『민주조선』, 2009년.

14) 시인 김철은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 여성과 문학적 결합의 결혼을 하였으나, 이후 러시아 혼혈인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중앙작가동맹에서 “본처와 이혼하면 노동당에서 제명한다.”라는 조건을 내놓자 그는 서슴없이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내놓았다. (「사망한 北 최고시인 김철의 ‘끝내 이뤄진 사랑’」 『DAILYNK』 (온라인), 2008년 4월 4일, <<https://www.dailynk.com/%EC%82%A0%EB%A7%9D%ED%95%9C-%E5%8C%97-%EC%B5%9C%EA%B3%A0%EC%8B%9C%EC%9D%B8-%EA%B9%80%EC%B2%A0%EC%9D%98-%EB%81%9D%EB%82%B4-%EC%9D%B4/>>.) ‘조선로동당원증’을 반납하고 지방으로 추방(혁명화)되어 내려갔다. 함경남도 허천광산에서 노동자로 혁명화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김철은 계속해서 당을 흠모하고 평양을 그리워하는 문필활동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찬양시를 써냈으며, 마침내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다시 평양으로 소환되었다. 김정일은 김철에 대해 “김철동무와 같은 훌륭한 시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 동무는 오래동안 당밖에서 생활하였으나 변함없이 당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로동을 통하여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얼마나 극찬했는지는 시인 김철이 2005년 1월에 서정시 〈어머니〉의 창작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쓴 자서전적 수기 〈시와 인생〉의 한 부분에 잘 나와 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빛내어주시고 끝까지 보호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

자신을 단련하면서도 높은 창작적열정으로 끊임없이 문필활동을 벌려 좋은 시 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비록 지난날에는 엄중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무처럼 오직 수령님과 당만 믿고 따르겠다는 신념을 안고 충실하게 일한다면 우리 당은 그를 다시 대오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동무를 정당원으로 복당시키고 지난 기간의 당생활년한도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민주조선』 2009년 10월 8일.) 이러한 김정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드디어 1981년 2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국가 명절을 계기로 서정시 〈어머니〉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세상에 발표되었다. 폭풍 같은 반향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 시인에게 수십, 수백 통의 편지가 날아들고 집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찾아왔다. 2014년 6월 9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서정시 〈어머니〉는 작가적 생명의 보호자, 보증인이 되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이 땅엔 버림받은 운명이란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한 시인이 눈물속에 인생체함과 전인민적 감정을 담아 삶과 운명의 품에 대한 시를 쓴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1993년 환갑을 맞은 시인은 4개의 시집 〈갈매기〉, 〈철의도시〉, 〈어머니〉, 〈끝나지 않은 담화〉를 세상에 내 놓았고 김일성의 탄생 80돌을 맞아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윤성옥,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문화어학습』 제3호, (1993), 3쪽.)

이후 김철은 2000년 11월에는 2차 이산가족상봉으로 평양을 방문한 남한의 형 김환을 만나 6·25전쟁 때 헤어진 가족과의 상봉도 이루었다. 2004년 12월 16일에는 김정일이 직접 보낸 생일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2006년 10월에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한 단일작가 모임인 ‘6·15 민족문화인협회’ 결성식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북한당국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김정일은 2007년 김철이 불치의 병으로 앓아누웠을 때는 “병을 빨리 고치여 보람찬 우리 시대를 더욱 빛내여 갑시다.”라는 친필 서한을 보내주었고, 외국에 보내면서까지 치료를 해주었으며, 2008년 4월 2일 김철이 사망하였을 때는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시인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일의 각별한 사랑을 받다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했다. 내놓았다. (「사망한 北 최고시인 김철의 ‘끝내 이뤄진 사랑」 『DAILYNK』 (온라인), 2008년 4월 4일.)

서는 어버이수령님(김일성)을 몸가까이 모신 영광의 자리에 나도 불러주시고 송시를 랑송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까지 베푸시었다.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가까이 와서 읊으라 하시며 나를 자신 곁에 불러주시고 시랑송을 다 들어주시고는 고맙다고, 감명이 깊다고 하시며 그 시를 타 자쳐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우신 음성이 울리고 있다.”라고 회고했다.¹⁵⁾

또한 북한 원전 사료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예술영화 ‘보증’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거듭 치하하시면서 영화에서 나오는 시 〈용서하시라〉가 아주 좋다고, 그 시는 매우 훌륭한 시라고 말씀하시었다.¹⁶⁾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신문에 조용히 실렸다가 예술영화 ‘보증’의 한 장면에 리용된 시 〈용서하시라〉를 보시고 아주 좋은 시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온 나라에 더 세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여주시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⁷⁾

계속해서 시는 북한에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후대 세대들에게 명작으로 추앙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영화 ‘보증’을 비롯한 여러 영화들의 창작경험을 놓고보아도 시를 리용한 영화적 형상이 가지는 감화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화들이 창작되어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어도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작품이 제시한 사상주체적 내용의 심오성과 현실반영의 대담성과 예리성, 인상적이며 개성적인 인물성격 형상과 함께 사람들 속에서 즐겨 불리워지고 있는 명시들을 잘 결부하여 형상의 철학성을 높여준 것과 적지 않게 관련

15) 본사기자, 「영원한 어머니」 『천리마』 제6호 (2008), 4쪽.

16) 어은심, 「조국수호정신이 충만된 시 〈용서하시라〉의 언어형상에 대하여」 『문화어학습』 제1호 (2007), 1쪽.

17) 방철림, 「〈애국의 열정을 북돋아주는 투쟁의 기치〉 서정시 〈용서하시라〉를 두고」 『조선예술』 제3호 (2007), 2쪽.

되어있다. 시는 영화의 적절한 계기들에서 울려나옴으로써 인물들의 성격을 돋우고 작품의 주제사상적 의의를 높여주는데 이바지하였다. 영화에서는 어제든 오늘도 인민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선군조국의 한 성원으로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영원히 불리워질 명시 〈용서하시라〉, 〈어머니〉를 잘 리용하였다.”¹⁸⁾, “서정시 〈어머니〉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과 당에 끝없이 충직할 맹세를 노래한 시대의 명작이다.”라는 것이다.¹⁹⁾

결과적으로 조선예술영화 ‘보중’은 북한 예술작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대중을 당에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하는데 사상교양의 나팔수 역할로서의 1등 공신한 명작으로 추앙받은 작품이다.

영화에 삽입된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는 영화와 함께 북한의 학교, 공장·기업소, 인민반 할 것 없이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급되어 북한주민들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 당’으로 철석같이 신뢰하고 세뇌되는데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Ⅲ.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북한의 ‘어머니 당’을 이해하려면 우선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대한 개념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이와 연

18) 최철진, 「〈평론〉 영화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데서 시의 역할」 『조선예술』 제1호 (2007), 1~3쪽.

19) 『국어문학학습참고자료집』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7), 1쪽.

관된 ‘어머니 당’에 대해서 알아본다.

첫째,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에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국가의 이미지가 가정의 이미지로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가’라는 2차 집단을 ‘가정’이라는 1차 집단에 접목함으로써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국가의 가정화’를 통해 수령의 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수령에 대한 대중의 충성과 효성을 강조한다.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한 대가정론은 등장 이후 ‘붉은 대가정’, ‘혁명적 대가정’, ‘공산주의적 대가정’ 등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여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영향력 있는 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²⁰⁾

북한은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 구성원인 북한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정치학습과 생활총화 등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 각인시키고 있으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 활동

20)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1), 432~433쪽.

등으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가치관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 경제난 이후 기존의 출신성분과 계급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동하던 사회구조가 돈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권력이 시장과 결탁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이 일상화되는 추세 속에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온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느슨해지고 있다.²¹⁾

혁명화된 대가정은 사회 전체가 김일성주의화 된 가정이다. 이러한 대가정론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대가정에서 아버지는 수령이고 어머니는 당이고 인민대중은 자식이다. 이 삼자 관계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둘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란 사회정치적 존재인 개개인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하면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 앞에서 행한 "주체사상교양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생명의 중심이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 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이다. '인민대중'(노동자, 농민, 인텔리)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담당자이다. 따라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나누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전제에서 출발

21) 『2020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0), 19~20쪽.

한다. 집단주의 생명관에 기초하여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덕의무와 관련해서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끝까지 따르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요구이며 마땅한 도리이고 더없는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²²⁾

셋째,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서 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한 것이다.

김정일은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끊임없이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왔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어머니당이 되어야지 이뻐어머니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³⁾

이에 천재적 시인 김철은 북한당국의 의도를 빠르게 캐치하여 ‘조선로동당’을 낳아준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선 정치적 생명을 보장해주고 보살피는 ‘어머니 당’으로 노래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출신성분 정책이나 계급 간의 갈등을 철저히 완화시켜 모든 국민들이 오직 당만 따르고 충성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선동가로서의 역할을 해낸 것이다.

김철이 남긴 수기를 보면 시인 김철이 당시 당의 의도를 얼마나 잘 받

22)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1), 406~407쪽.

23)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로동신문』 2014년 6월 9일.

영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김철은 수기에서 서정시 〈어머니〉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입니다. 당은 어머니! 어머니당은 김정일동지! 나는 우리 인민의 말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어머니당의 품에 맡긴 운명에는 값높은 삶과 생명의 환희만 있다는 것이 나의 인생 총화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⁴⁾

결국 시인 김철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선전하고 북한주민들이 당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도록 세뇌시키는 데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즉 한 편의 시, 한 편의 영화가 주민들의 사상체계를 어떻게 세뇌시키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아래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V.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기억하는 조선예술영화 '보충'에 삽입된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통해 북한당국이 이 시를 북한 전역에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머니 당'에 대한 충성심을 극대화시킨 세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연구대상자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참고로 인터뷰 내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암송'이라고 언급하는 단어의 맥락은 '암기'를 뜻하는 것임을 밝힌다.

²⁴⁾ 본사기자, 「영원한 어머니」 『천리마』 제6호 (2008).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구분	성명	성별	생년	고향	북한탈출년도	직업 및 학업
1	림일	남	1968년	평양	2000년	작가&칼럼리스트
2	연구대상자 A	남	1968년	평양	2020년	전기 엔지니어
3	연구대상자 B	여	1966년	양강도	2014년	전 통일교육강사
4	연구대상자 C	여	1971년	양강도	2010년	상담 코치
5	연구대상자 D	여	1975년	양강도	2003년	대학원생
6	연구대상자 E	여	1979년	함경북도	2006년	국립통일교육위원
7	연구대상자 F	여	1981년	함경남도	2008년	논문준비생
8	연구대상자 G	남	1991년	함경북도	2014년	대학생(3학년)
9	연구대상자 H	여	1992년	양강도	2013년	대학생(4학년)

평양에서 태어나 탈북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을 평양에서만 살았다는 림일 작가&칼럼리스트는 김철과 그의 시 〈어머니〉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 시는 내가 14살인가 15살인가 중학교 금방 들어가고 나서,, 1984년엔가 1985년엔가 나왔어요. 이 시가 금방 나왔을 때는 나라 전체에서 대단했죠. 뭐 북한의 티비, 라디오, 신문, 잡지, 방송할 것 없이 모든 선전매체에는 전부 다 실렸고 대대적으로 방송했으니까.. 내 기억으로는 심지어 우리 〈소년신문〉인가 거기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에서 이거 외우라고 해서 얼마나 외웠는지 난 지금도 80%이상 암송하고 있어요. 그때 김정일이 이 시를 쓴 김철이한테 김일성상인가 얹튼 북한의 최고 영예, 최고 명예 다 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고급 차, 고급 집 뭐 더 말할 것도 없고...북한에서 〈어머니〉 시 모르면 이거야 말로 진짜 간첩인거죠.

연구대상자 A씨(이하 A씨)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의 엔지니어이다.

〈어머니〉 시는 김철이가 지방에 혁명화 내려가서 쓴 거잖아요? 이 〈어머니〉 시를 너무 잘 써가지고 김정일의 방침 받고 김철이가 다시 평양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머니〉 시는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 암송하게 했으니까 그거 암송 못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영화 ‘보중’에도 들어가고, 〈용서하시라〉 시도 영화 ‘보중’에서 나온 이후로 나라에서 전 국민이 암송하게 해서 우리 대학생 때 엄청 외우고 다녔죠. [...] 이 시 모르는 사람은 북한사람이 아니죠.

연구대상자 B(이하 B씨)의 경우에는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에 대해서 90%이상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뷰 도중에 〈용서하시라〉 시를 읊었는데 한 단어(화학숙제-)수학숙제)를 제외한 전 문장을 완벽하게 읊었다.

북한에서 〈어머니〉 시, 〈용서하시라〉 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요즘 젊은 아이들은 몰라도 우리 때 사람들은 뭐 학교나 직장에서 달달 외우게 했으니까 80% 이상은 다 기억할걸요? 이거 모르면 간첩 아닌가요?

연구대상자 C(이하 C씨)는 누구보다도 〈어머니〉 시나 〈용서하시라〉 시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리얼한 기억을 할 수 있는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때 나라에서 (영화) ‘보중’이랑 〈어머니〉, 〈용서하시라〉 시는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으니까,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양에서는 이 시들 원문 통달해서 당비서에게 검열(검사) 받고 했기 때문에 내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한다”라고 증언하였다.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는 80년대 말인가 영화 ‘보중’에서 나와서 봄이 일어서, 뭐 〈어머니〉 시는 그 전부터 봄이 일었고... 전 국민이 직장, 여맹, 청년동맹, 당조직, 인민반 할 것 없이 모두 외우고 암송했고,, 이걸 가지고 강연회, 발표회 엄청나게 했죠. 수요일이면 수요일 학습회, 목요일이면 목요일 강연회, 발표회 이런 하면서. 원문 통달하고, 각 조직 책임자한테 검사받아서 통과돼야 했고, 이거는 뭐 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기억하는 거니까. 아무튼 평양에서는 대단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근데,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 아사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하니까 그때 김정일이 북한에서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이 〈어머니〉 사랑 〈용서하시라〉 시 같은 유명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당에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킨다고 하면서 〈용서하시라〉 시를 가지고 다시 노래로 다시 만들었어요. 조국이 없이는 안 된다, 당이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조국과 당이 곧 어머니이고 우리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고 자식들이다,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수 없듯이 자식들이 나라를 지키고 수령-당-대중의 일심동체, 일심단결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걸로요. 이때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 노래는 ‘인민군협주단’에서 그 군복 입은 중저음에 성악목소리 내는 남자가 독창으로 불렀어요. 아마 이 노래 제목도 〈용서하시라〉일 거예요.

C씨의 증언대로 3절로 구성된 노래 〈용서하시라〉는 현재 유튜브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작사는 김철, 작곡은 설명순이다.²⁵⁾

연구대상자 D(이하 D씨)의 경우에는 영화 ‘보중’과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 어머니와 당을 비교하는 것이 참 내 어머니가 아깝다.”라고 증언하였다.

[...] 뭐 〈어머니〉 시나 〈용서하시라〉 시는 그 당시에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수첩’다 갖고 다녔잖아요? 맨 첫 장에는 대부분이 이 〈어머니〉 사랑 〈용서하시라〉 시를 적었죠. 〈용서하시라〉 시는 학교 졸업하는 학

25) 「조선가요, 용서하시라」 『유튜브』 (온라인), 2022년 3월 17일, <<https://www.youtube.com/watch?v=nmQ9yYbWUvo>>.

생들 대상으로 특히 군대 나가는 학생들한테 엄청 더 열거였죠. 실제로 여학생들은 보통 군대를 안 나가는데 제 사촌 여동생은 84년생인데 그때 그 용서하시라 시를 읊으면서 군대 나가겠다고 난리를 쳐서 자원입대했어요. 고사 포부대에 가서 7년 군 복무했는데, 훈련 도중에 사고로 머리가 깨져서 집에 와서 한동안 치료받고 다시 군부대로 복귀했어요. 어머니 당을 위해서 산다면서 [...] 바보 같은 거죠.

연구대상자 E(이하 E씨)의 경우에도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매 구절구절,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용서하시라〉 사랑 〈어머니〉 시는 우리 맨날 작은 수첩에 적어가지고 막 외우면서 다녔어요. 영화 '보종'이나 이런 것은 북한 영화예술 정책 때문에 그런거고, 나는 영화보다도 〈어머니〉 사랑 〈용서하시라〉 시가 더 기억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 계속 외우라고 해서 다 달달 외우고 다녔잖아요? 그 〈용서하시라〉 시는 〈어머니〉 시보다 좀 짧으니까 고등중학교 때 인가 시험에도 나왔어요. 시 전문 다 쓰는 거. 우리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남자애들 군대 갈 때 여학생들은 코바늘로 수첩케이스 다 떠가지고 수첩 넣어 주잖아요. 당중이랑 비슷하게 생긴 빨간 수첩. 그 수첩 첫 페이지에다가 〈용서하시라〉 시 적어주고,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는 〈용서하시라〉가 하나의 지침서 같은 거였으니까. 애들이 떠나기 전에 이 〈용서하시라〉 시 읊으면서 부모님, 선생님들한테 반성도 하고, 반친구들도 다 울고, 울음바다 되고 했죠.

실제로 1997년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서는 〈글쓰기와 다듬기〉라는 제목의 읽기 교재로 김철의 시 〈용서하시라〉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26) 〈글쓰기와 다듬기〉 “글쓰기란... 글의 알맹이인 종자와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야기를 곧바로 떠나가는 것이다. 글의 내용다듬기에서는 이야기하려는 문제가 명백하고 보여주려는 사상이 뚜렷한가, 제목과 내용이 맞는가, 꾸미거나 과장한것은 없는가, 불필요한것은 없는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국어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21쪽.)

연구대상자 F(이하 F씨)는 고등중학교 시절 음악소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용서하시라〉 사랑 〈어머니〉 시는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외웠었죠. 누가 토씨하나 안 빼먹고 다 외우는 거가 중요했죠. 근데 우리 음악소조에서는 누가 더 감동적으로 잘 읊느냐가 중요해서 정말 그거를 잘 읊는 친구들을 보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죠. 충성의 노래모임 때 〈용서하시라〉 시를 정말 잘 읊어서 선생님들, 학생들 다 울리고 한 친구도 있었어요.

한편, 연구자는 김철의 시가 나왔던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4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북한에서 그때처럼 이 시를 주입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슬로건인 ‘인민대중제일주의’²⁷⁾에 걸맞게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서 당을 찬양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세뇌시켰던 것에 비해 현재는 ‘인민대중’이나 ‘인민사랑’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노래’나 ‘시’어들로 주민들을 교양하고 당에 충성하도록 세뇌시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이 시에 대한 북한당국의 집착을 1990년대 장마당세대인 연구대상자 G씨와 H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 G(이하 G씨)는 북한에서 수재들만 선발하는 제1고등학교 출신으로 이 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²⁷⁾ 김정은은 2013년 2월 열린 조선노동당 제4차 전당당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후 김정은의 인민사랑과 인민을 위한 정치를 찬양하였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 금의 재부도 지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근본 핵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해 왔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했다.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1), 135~425쪽.)

〈어머니〉시, 〈용서하시라〉시는 우리 1고등 3학년 때 문학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문학 선생님이 너무 깐깐하게 막 무조건 외우라고 강요해서 엄청 외워서 전문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중요한 행사 같은 거 할 때마다 노래 준비하면서 〈어머니〉시랑 〈용서하시라〉시도 같이 준비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2011년 북한의 평안북도 구성시 새날중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의 군입대를 축하하여 예술소품무대에 시 〈용서하시라〉를 준비하였음을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²⁸⁾

한편, 연구대상자 H(이하 H씨)씨도 마찬가지로 이 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G씨와 달리 '소학교' 때부터 배웠다고 증언하였다.

〈어머니〉시랑 〈용서하시라〉시는 하도 학교에서 달달 외워가지고 저 거의 다 기억나요. 아마도 소학교 3학년 때 인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잘 외워오지 않는 애들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아예 외우는 시간을 따로 줘요. 그러면 몇 시간씩 외우고 선생님이 한 명씩 일으켜 세워서 외운 거 검사하고, 못 외우면 망신당하니까 정말 억지로라도 달달 외웠었죠. 근데 나중에는 북한에서는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시나 〈용서하시라〉시를 개사해서 '어머니 당', '조국' 같은 단어는 짝 다 빼고 어머니 생일이나 선생님 생일 때는 이 개사한 노래랑 시를 불렀어요. 오락회 때도 그렇게 불렀고 남자애들 군대 갈 때도 감사한 표현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북한당국이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복잡군중도 '어머니 당'의

²⁸⁾ 교직원들과 전체 졸업생들이 출연하는 예술소품무대에서 노래 〈동무들이 군대로 가자〉, 시 〈어머니의 당부〉, 〈용서하시라〉를 비롯한 예술소품들은 조국보위열의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는 이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신문』 2011년 5월 17일.)

품으로 모두 끌어안아 차별 없이 보살피주면서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김일성·김정일로 상징되는 ‘조선노동당’임을 세뇌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 충성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주민들은 이 시를 읊으면서 ‘어머니 당’이라는 존재에 대해 나를 낳아준 어머니보다 더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도록 철저히 세뇌당하였음을 증언하였다.

연구대상자 9명에게 당시 이 시를 읊으면서 ‘어머니 당’에 진심으로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1990년대 장마당 세대인 G씨와 H씨를 제외한 연구대상자 7명은 “당시에는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읊으면서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였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인 A씨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어머니 당’, ‘어머니 조국’하면서 충성한 사람들이 많았다. 배고파 굶어 죽으면서도 그것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중간단위간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보와 인터넷의 차단, 어릴 때부터의 세뇌교육이 북한사람들을 무지와 몽매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증언하였다. B씨는 “당시에는 김일성과 북한체제에 대해서 수령으로서 인민을 위한 최고의 령도자라고 믿었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였다. C씨는 “북한이 〈어머니〉시 〈용서하시라〉시와 같은 혁명적인 시나 노래들을 엄청나게 보급하고 주입 시키니까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진짜 ‘혁명적’으로 무장됐었다.”라고 증언하였다. D씨는 “그 당시에는 진짜로 당을 내 친어머니보다 더 존중했다. 예를 들면 2월 16일 김정일 탄생 명절에 학교나 동상에 꽃다발 드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한 달 전부터 산에 가서 진달래 꺾어다가 온돌 아랫목 제일 따뜻한 곳에 이불 씌워서 두고 어머니도 못 누우시게 하고 그 꽃을 정성 들여

물주고 한 달 넘게 키워서 피워가지고 동상에 증정하고, 추운 겨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서 손발 뽀뽀 하면서 동상 닦고, 실제 내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했다. 아무튼 어머니 당이 바라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F씨는 “학교 때는 학교에서 유리 내라고 하니까 식장유리 빼다 바쳤고, 군대 가서는 당원이 되기 위해 허약(영양실조)걸리고, 결핵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가도 죽기를 각오하면서 군대에 남아서 버티고, 그러다가 많은 친구들이 죽어나가고 했던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진짜 바보 같지만, 그때는 그것이 진심이었다.”라고 증언했다.

결과적으로 시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나를 낳아준 어머니한테도 하지 못했던 충성을 '어머니 당'에 무조건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 즉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김일성·김정일과 '어머니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도록 하는 데 성공적인 나팔수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효과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은 '어머니 당'에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뢰를 가지면서 철저히 세뇌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V.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의 한계

이 장에서는 1990년대 장마당세대와 그 이전 세대가 '어머니 당'을 생각하는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즉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의 한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진심으로 '어머니 당'에 충성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소감은 어

떠어나는 연구자의 질문에 B씨는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들으면서도 천지 분간을 할 수 없는 뇌 없는 인간에 불과했던 거였다.”라고 증언하였다. D씨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원이 되는 것에 목숨을 내 댈어야 되고,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격스럽게 생각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참 황당하게 생각된다. 어떻게 내 어머니를 당과 비교할 수 있는지, 북한에서 당은 우리에게 상처만 줬는데, 내 어머니는 사랑을 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어머니가 아깝다.”라고 증언했다. E씨는 “탈북해서 중국에서 북송만 세 번 당하고 함흥교화소에서 3년 동안 춥고, 배고프고 매 맞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당하던 치욕적인 그때를 생각하면 분통이 치밀어 올라서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화를 식힌다. 그 낭비된 몇 년의 시간을 한국에 일찍 와서 자기 계발에 매진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엄청 더 성장했을 것 같다. 거기서 낭비된 내 청춘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강변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도 동요하는 민심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영화 ‘보증’이나 과거에 거대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주입·보급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난 1990년대의 장마당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에게는 더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그랬던 것처럼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준 당의 고마움에 충성하도록 이런 영화들과 시들을 계속해서 재활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 효과는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효용성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G씨의 경우에는 〈어머니〉 시나 〈용서하시라〉 시를 배우고 외우면서 그 당시에 당을 진심으로 ‘어머니 당’이라고 생각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어머니 당이 주민들에게 배급이나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문제가 벌어지면 거짓말로 막으려는 것 같아서 어머니 당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H씨도 같은 질문에 “한 절반 정도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경제생활이 어려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산과 길주를 오가는 장거리 장사를 하였는데, 차표 살 돈이 없어 열차 승강기 발판에 몰래 몸을 숨겨서 타고, 정전된 열차가 몇 날 며칠 움직이지 않아 온몸에 동상을 입으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서로 우는 흉내를 내느라고 힘들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전문학교 다닐 때는 반 친구들과 함께 김정일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스스로없이 하였다. 북한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다 체제가 잘못된 것이고 이제 북한도 능력의 한계가 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를 성인뿐만 아니라 5살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주입시키고 있다. 김철의 시 〈어머니〉와 비슷한 시기인 1980년대 초반에 제작된 북한 동요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²⁹⁾가 연구자가 유치원 시절부터 매일매일 불렀던 북한 어린이들의 인기 노래였는데, 4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김정은의 사랑을 받으며 북한 사회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의해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이 '어머니 당'이라는 매커니즘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집착과 불안한 심정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이에 탈북민 출신의 작가&칼럼리스트 림일은 “인민의 아버지인 수령은 곧 당, 그것도 어머니 당이고 인민이 사는 집은 당의 품이라는 진짜 어리둥절한 소리”³⁰⁾ 라고 일침하고 있다.

29)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다섯 살 난 내 동생 옥이가 / 문득 영똥하게 물어 보겠조 / 언니야 당이란 무슨 말이나 / [...]당이란 아버지 원수님(김일성) / 당이란 지도자 선생님(김정일)이죠) 『유튜브』 (온라인, 2019년 10월 12일, <<https://www.youtube.com/watch?v=XwfUQyUADmw>>).

30) 림일, 「사상 첫 탈북정당 '남북통일당」 『통일신문』 (온라인, 2020년 3월 19일, <<https://www.unityinfo.co.kr/31303>>).

결론적으로 김철의 시 〈어머니〉나 〈용서하시라〉는 처음 발표되었던 198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때처럼 열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을 어머니 그 이상으로 인식시키는데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세뇌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몇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고³¹⁾, 계속해서 탈북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공개처형, 교화소, 노동단련대와 같은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북한당국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중된 것이다. 아무리 강요를 수반한 세뇌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침투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가져왔다.

결국 북한이 몇십 년 동안 공들여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도록 세뇌시켜 놓았던 북한주민들도 궁극에는 굶주림이란 생존 앞에, 독재체제의 거짓과 공포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 앞에 그 지옥을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을 탈출한 이탈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거짓된 진상을 알리는 통일 전도사로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거스르는 굶주림, 천부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억압에 대한 분노 앞에는 몇십 년의 공든 세뇌교육도 무용지물이 되어 효과는 갈수록 약화되고 그 효용성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

31) 황장엽에 따르면, '95년에는 당원 5만 명을 포함하여 50만 명이 이미 굶어죽었고, '96년에는 11월 중순 현재 이미 100만 명이 굶어죽었다. 그리고 '97년과 '98년에도 각각 적어도 100만 명쯤은 굶어죽은 것으로 생각된다. (황장엽 회고록, 「대량아사와 전쟁준비」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9), 305쪽.)

V. 결론

지금까지 조선예술영화 '보증'에 삽입된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이 시가 삽입된 북한 영화 '보증'과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의 내용과 줄거리 그리고 영화와 시에 대한 북한의 평가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영화 '보증'에 대해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준 특출한 성과작으로, 우리 당 군중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인한 혁명적 작품으로 평가”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상을 수여할 정도로 북한의 문화예술 부분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의 상을 주면서 아낌없는 극찬을 하였음을 알아보았다. 또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에 대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직접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극찬한 부분도 함께 다루어보았다.

Ⅲ장에서는 북한이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어머니 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Ⅳ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기억하는 조선예술영화 '보증'에 삽입된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통해 북한당국이 이 시를 북한 전역에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머니 당'에 대한 충성심을 극대화시킨 세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9명의 인터뷰이 중에 1990년대 장마당 세대인 G씨를 제외한 8명의 탈북민들은 시의 80%이상을 암기하고 있었으며 이 시를 읊으면서 '어머니 당'에 진심으로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연구

자의 질문에 G씨와 H씨를 제외한 7명의 탈북민들은 “당시에는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읊으면서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였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이 시는 당시의 북한 주민들을 당에 충성하도록, 당을 진정한 ‘어머니 당’으로 인식시키는데 혁명적 나팔수 및 조력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당에 대한 충성심 고양 강화 정책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장마당세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장마당 세대인 G씨와 H씨는 연구자의 같은 질문에 “어머니 당이 주민들에게 배급이나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문제가 벌어지면 거짓말로 막으려는 것 같아서 어머니 당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 절반 정도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머니 당’에 대한 믿음과 충정으로 헌신하였던 북한주민들도 굶주림과 억압 앞에 믿음과 헌신을 반납하였으며 현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인권 투사들로 변신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계속해서 영화 ‘보증’이나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효용성은 잃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주는 메시지는 체제 유지 및 독점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핵무기개발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이반되는 민심 상실에 대한 두려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어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 『국어문학학습참고자료집』,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7.
- 김철시집, 『어머니』, 평양: 문예출판사, 1989.
- 『김철작품집(상)』,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 『문학작품분석』,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2012.
-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1.
-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0.
- 『조선로동당력사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 『조선문학예술년감』,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김진철,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화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안지영·김화순, 「배제와 포용-북한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본 '복잡군중'정책」 『북한』 제72권 72호, 2020, 87~131쪽.
- 전영선, 「현역 북한 최고의 시인(김일성상계관시인)-김철,오영재」 『북한』, 2002년 3월호(통권제363호), 136~145쪽.
- 황장엽 회고록, 「대량아사와 전쟁준비」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9, 305쪽.
- 『노동신문』 2011년 5월 17일.
- 『노동신문』 2014년 6월 9일.
- 『민주조선』 2009년 10월 8일.
- 본사기자, 「영원한 어머니」 『천리마』 제6호, 2008, 4쪽.
- 방철림, 「〈애국의 열정을 북돋아주는 투쟁의 기치〉 서정시 〈용서하시라〉를 두고」 『조선예술』 제3호, 2007, 2쪽.
- 윤성옥,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문화어학습』 제3호, 1993, 3쪽.

어은심, 「조국수호정신이 충만된 시 〈용서하시라〉의 언어형상에 대하여」 『문화어 학습』 제1호, 2007, 1쪽.

최철진, 「〈평론〉 영화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데서 시의 역할」 『조선예술』 제1호, 2007, 1~3쪽.

「北에선 남흥화학 공장출신들이 출세한다,」 『연합뉴스』 (온라인), 2013년 6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620201100014>>.

「조선예술영화 ‘보증’ 제1, 2부,」 『유튜브』 (온라인), 2020년 8월 27일 <<https://www.youtube.com/watch?v=E1NY1xNNL7>>.

「사망한 北 최고시인 김철의 ‘끝내 이뤄진 사랑’」 『DAILYNK』 (온라인), 2008년 4월 4일, <<https://www.dailynk.com/%EC%82%AC%EB%A7%9D%ED%95%9C-%E5%8C%97-%EC%B5%9C%EA%B3%A0%EC%8B%9C%EC%9D%B8-%EA%B9%80%EC%B2%A0%EC%9D%98-%EB%81%9D%EB%82%B4-%EC%9D%B4/>>.

「조선가요, 용서하시라」 『유튜브』 (온라인), 2022년 3월 17일, <<https://www.youtube.com/watch?v=nmQ9yYbWUvo>>.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유튜브』 (온라인), 2019년 10월 12일, <<https://www.youtube.com/watch?v=XwfUQyUADmw>>.

림일, 「사상 첫 탈북정당 ‘남북통일당」 『통일신문』 (온라인), 2020년 3월 19일, <<https://www.unityinfo.co.kr/31303>>.

Brainwashing effects and limitations
on North Korea's 'Mother Party'
: Focusing on Kim Il sung's poems <Mother> and <Forgive>
by Kim Chul, a poet in the Joseon art film 'Guarantee'

Kim, GyuLee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the brainwashing effects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s "Mother Party" were investigated through testimony from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Kim Chul's poems "Mother" and "Forgive" inserted in the Joseon art film "Guarantee." Of the nine North Korean defe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eight, excluding one from the Jangmadang generation, memorized more than 80% of the poem. When asked by the researcher whether he or she thought of being truly loyal to the Mother Party while reciting the poem, seven participants, excluding G and H who were the Jangmadang generation in the 1990s, testified, "At that time, I was truly loyal to the party and supposed it was natural to think so." However, G and H, the Jangmadang generation, responded to the same question that, "I didn't think the Mother Party was 100% right."

Through the Joseon art film "Guarantee", which caused a great sensation in North Korean society during the 1980s and 1990s, and the poems "Mother" and "Forgive" inserted in the film, North Korea strives to induce system solidification, even reusing them through the Kim Jong-un period, but is now facing limitations that it is losing its effectiveness.

Keywords: Jang-gu, Kim Cheol, Poetry 〈Mother〉, 〈Forgive〉, Mother Party, brainwashing effect, North Korean, North Korean defectors

김규리 (Kim, GyuLee)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북한이탈주민으로 2008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연구원과정, 제주도청에서 북한이탈주민·이북5도민 담당 주무관을 거쳐 현재는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의 겸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한반도의 인권·평화, 남북통합문화, 통일교육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 논문

북관대첩비반환과 남북관계* **

오은경 (서강대학교)

국문요약

북관대첩비는 2005년 한국을 통해 원소재지인 북한으로 반환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북관대첩비가 2005년에 고국에 반환될 때까지 4차례의 반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앞선 3차례 반환 논의는 반환이라는 결과값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중에서도 남북관계의 갈등국면은 해당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또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서 민간단체 및 종교 단체 등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북관대첩비 반환을 이끌어내었지만 그것만으로 왜 2005년에 최종적으로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되었는지를 설명하기엔 다소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된 2005년, 우호적인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재 반환에 있어 국가 간 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제어: 북관대첩비, 남북관계, 문화재 반환, 국가 간 관계, 협력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1.202306.251>

* 본 논문은 2019년 8월에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개최된 '제12회 일한차세대 연구자포럼'과 2019년 10월에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15회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공동학술제에서 '북관대첩비 반환과 남북일관계'란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본 주제를 하나의 논문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근 4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 주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관련 자료들과 학술회의 등을 추천해주셨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故류석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들어가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역사이슈로 인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에 다소 어렵다. 한반도와 일본 간 관계, 특히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제기되는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한반도와 일본 간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동시에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특정 이슈나 사건들이 특정 시기에 각광을 받거나 재조명되곤 했을 뿐, 역사이슈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국가 간 관계를 우호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제는 앞으로도 한반도와 일본 간 관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문화재 반환 협상은 남북한이 협력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값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상호 협력하여 문화재 반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낸 과정과 경험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은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남북한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북관대첩비를 상호 협력하여 다시 되찾아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일본 역시 남북한의 반환 요구에 화답함으로써 상호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는가? 북관대첩비 반환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민간교류의 중요성이나 시민단체의 영향력 등에 중심축을 두고 있다.¹⁾ 이 과정에서 국가 간 관계나

국제정세 등과 같은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요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화재 반환은 해당 문화재가 반출되었던 시기와 시·공간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가 반환되는 시점에서의 관련 국가 간 관계나 조율을 배제하기 어렵다.²⁾ 또한, 남한과 북한과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문화재 반환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북관대첩비의 경우, 북관대첩비의 원소재지는 북한, 북관대첩비를 발견하고 반환을 요청한 주체는 남한이었다. 즉, 북한과 남한이 모두 북관대첩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관대첩비 반환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은 ‘어디로 반환 할 것인가’에 대한 남과 북의 조율과 합의였다. 북관대첩비의 경우, 반출되었을 당시에는 조선의 문화재였다. 그러나 초기 반환 논의에서는 남과 북이 모두 북관대첩비 반환국으로서 정당성과 명분을 주장하였다. 즉, 북관대첩비 반환은 반출될 때와는 달리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반환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이 반환의 주체에 관하여 남과 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북관대첩비 반환은 민

1)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1호 (2016 봄); 구진봉·최은봉, 「북관대첩비 반환 과정 속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의 역할: 문화재 소유권의 쟁점화와 협상의 국면전환」 『문화와 정치』 제9권 2호 (2022).

2) 여기서 시공간적인 거리감은 해당문화재가 반출된 시기와 반환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거리감을 의미한다. 특히, 북관대첩비 반환의 경우, 북관대첩비가 반출된 당시에는 조선이 단일국가였지만, 반환이 논의되는 시기에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가 분단된 국가 중 어느 국가로 반환되는가를 조율해야만 했다. 이는 반출된 문화재가 반환될 때에는 원소유지로부터의 공간적인 거리감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재 반환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은 이러한 거리감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조율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간교류와 더불어 남북관계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했다.

북관대첩비 반환과정을 보면, 남북관계가 상호 우호적일 때, 반환에 대한 논의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의 최종 반환 결정 역시 우호적인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적대적 남북관계는 일본으로 하여금 반환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북 간 합의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1970년대와 1990년 반환 논의를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북관대첩비 반환논의는 남북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문화재반환 역시도 국가 간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관대첩비가 반환된 2005년에는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반환 요청과 반환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준비가 진행되었다. 2005년 당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광복 60주년 추진기획단, 문화재청이 1-2차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주무부처의 국장급 회의 등을 포함해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실무진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이 공고화는 남과 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이 이벤트적인 단발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에 대한 논의를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관계와 더불어 남북일 3개국 관계변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문화재 반환과 국가 간 관계

문화재 반환은 해당 국가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모색케 한다. 문화재는 단순히 과거에 제작된 물건이기보다 특정 국가의 정신적·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민족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포함하기도 한다. 전쟁 또는 식민지시기에 문화재 반출을 경험한 국가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빼앗겼다는 의미와 정치적인 사안을 넘어 정신적·민족사적 가치의 훼손으로 인식하게 된다. 문화재 약탈은 식민 지배 또는 전쟁에 대한 충격을 좀 더 강하게 인식하게 하며, 시간이 경과함에도 여전히 그 때의 암울했던 기억과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적 약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다소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 후손들은 해당 시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지만, 문화재 반출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문제를 접하면서 해당 문화재의 부재 또는 박탈감을 경험할 수는 있다. 이는 해당 문화재를 반출해 간 국가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진다. 문화재 반출은 이렇듯 그 자체로 부정적인 여론을 강하게 자극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 간 관계도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 반환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정신적·문화적인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문화의 부활이자, 불법과 부정함에 대한 정의의 회복을 의미한다.³⁾ 또한, 문화재 약탈, 도난 또는 반출로 인해 생긴 과거의 고통에 대한 치유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문제는 관련 국가들의 진일보한 관계 개선을 위해 극복해야

3) Boa Rhee, 「The Repatriatio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Bukgwan Dae-chopbi) Remov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2집 1호 (2008), 248~250쪽.

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반출과 반환은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반출은 침탈국과 피탈국이라는 상황에서 발생되지만 반환은 국가 간 상호 관계와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반출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진행된다.⁴⁾ 따라서 문화재의 반환은 문화재가 지니는 정신적·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재 반환은 피탈국과 침탈국의 국가 간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의 성패가 달려있다.

또한, 문화재 반환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본국귀환(repatriation)’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해당 논의를 다룬 연구의 경우, 외규장각 반환을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을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와 문화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 2가지 대립되는 입장으로 나누어 프랑스 측의 입장을 분석하였다.⁵⁾ 이를 통해 본다면 문화재 반환 논의는 크게 위의 두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문화민족주의는 ‘본국귀환(repatriation)’의 입장을 대변하며 민족동질성의 측면에서 유형의 대상물을 통해 무형의 정신적 유산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문화재가 원소재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국제주의는 해당 문화재를 국가 중심적이 아니라 작품 중심으로 간주하여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문화재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측 주장을 옹호하는 양상을 보인다.⁶⁾ 이에 따라 약탈된 문화재의 본국 귀환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문화재를 약탈당한 국가로 문화민족주의에 강조점을 두

4)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06쪽.

5) 박선희, 「문화재 원소유국(country of origin) 반환과 프랑스의 입장」 『국제정치논총』 제51집 4호 (2011), 219쪽.

6) 위의 글, 219쪽.

고 있으며, 문화재를 약탈한 국가는 국제주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인 측면을 분석하고자 함이 아니라 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들 역시 중국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또한 반출된 문화재의 본국귀환 여부는 원소재지 국가와의 협의나 조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간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문화재 반환은 어떠한가? 남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된 1597년의 이듬해인 1598년에 발발한 정유재란 등을 겪었으며,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도 경험했다. 즉, 일본과의 관계에서 전쟁과 식민지를 모두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문화재를 반출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 중 70%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반출은 일본이 자신의 식민지로부터 문화재를 반출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반출 과정을 통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우며, 당시 해당 문화재 소유국인 조선의 동의를 얻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문화재가 반출된 이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반출된 문화재 반환은 남북한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반출된 문화재 반환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북관대첩비 반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2004-5년을 중심으로 국가 간 관계를 보면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었고 이를 위한 실무진 협의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남

7) Boa Rhee, 「The Repatriatio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Bukgwan Dae-chopbi) Remov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245쪽.

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⁸⁾ 고이즈미 수상은 2002년, 2004년 방북하였고 평양 선언을 발표하며 북일관계는 정상화를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납치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양국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2003년 6월 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 10월 8일 아세안+3와 10월 20일 APEC에서도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간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역사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2004년 7월 21일과 12월 17일 제주와 일본 가고시마현, 2005년 6월 20일에는 서울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⁹⁾ 2002년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한일 양국은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로 인해 이러한 관계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되던 시기의 국가 간 관계를 본다면 비록 관계 정상화와 역사문제 극복이라는 차원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서로 간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 간 협력관계가 급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남북경협은 일본으로 하여금 이러한 협력관계를 함께 모색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국가 간 관계는 서로 간 협력을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8)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2005), 172쪽.

9)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노무현-고이즈미 한일정상회담」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cid=003095&pageFlag=&sitePage=1-2-1>).

Ⅲ. 북관대첩비 반환 과정에서의 남북 관계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들이 함경도 길주, 단천, 백담 등지에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군대를 격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숙종 34년(1708년) 북평사 최창대(崔昌大)가 비문을 쓰고 마을 주민의 뜻을 모아 건립되었다. 북관대첩비가 일본으로 유출된 때는 러일전쟁이었다. 러일전쟁 당시 함경북도에 진주한 일본군 제2사단 제17여단장 이끼다마사스끼 소장이 비를 발견하고 자국의 패전 기록을 수치스럽게 여겨 주민을 협박하여 강탈하였다. 북관대첩비는 1905년 10월 미요시 사단장 귀국 시 선적되어 10월 28일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하였고, 1906년 5월 27일 동경만에 하역되어 그 후 일본 황실에서 보관되다 야스쿠니 신사 유취관 등으로 옮겨졌다.¹⁰⁾ 북관대첩비는 반출된 지 100년만인 2005년 10월 20일 남한으로 돌아와 2006년 3월 1일 개성에서 북측에 인도되었다.

1. 1909년~1936년: 첫 번째 북관대첩비 반환요구

1909년,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조소양(趙素昂)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북관대첩비를 발견하고는 『대한홍학보』에 비를 가져온 일본을 꾸짖는 「咸鏡道 壬辰義兵 大捷碑文」(1909년)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북관대첩비의 소재가 밝혀지게 되었다. 조소양은 이 글을 통해 "누가 이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것이며 (북관대첩비를 빼앗긴) 큰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하였다.¹¹⁾ 조소양의 글을 통해, 당시 일본이 북관대첩비를 일본

10) 문화재청, 『북관대첩비환수추진 자료집』(대전: 문화재청, 2005), 9쪽.

으로 반출한 상황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조선의 동의를 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조소앙이 사용한 “분개”, “큰 죄” 등의 단어는 일본의 문화재 반출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과 박탈감을 나타낸다. 1909년 당시, 조선은 일본에게 국권을 거의 빼앗겼다. 조선인들은 일본의 문화재 반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북관대첩비 반출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어려웠다.

일본으로 반출된 북관대첩비에 대한 소식은 1926년, 한 투고자에 의해 알려졌다. 이생(李生)이라고만 알려진 무명의 투고자가 북관대첩비의 소식을 간략하게 전하면서, 비석 옆에 "대첩이라 하였지마는 그 때의 사실과는 전연 서로 다르니 세인은 이 비문을 믿지 말라"고 쓴 나무패가 서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¹²⁾ 1910년에 조선은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고,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북관대첩비의 반환을 요구하기에 1920년대 조선의 상황은 1909년보다 암울했다. 북관대첩비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을 당시, 반환요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기 되었거나 일본에 머무는 투고자를 통해 북관대첩비 소식을 업데이트 하는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북관대첩비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당시, 조선과 일본 간 관계를 통해 본다면, 조선이 일본에 북관대첩비 반환을 요청하기엔 정치적 제약이 존재했고, 조선이 일본에 반환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의 요구를 받아줄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1) 嘯海生騰, 「咸鏡道 壬辰義兵 大捷碑文」 『대한홍학보 제5호』(온라인), 1909년 07월 20일, <https://db.history.go.kr/item/bookViewer.do?levelId=ma_011_0050>; 문화재청, 「관(官)과 민(民), 남북 협력으로 환수 북관대첩비」(온라인), 2016년 7월 29일,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232&bbsId=BBSMSTR_1008&mn=NS_01_09_01>; 「북관대첩비 100년만에 귀환」 『한겨레』(온라인), 2005년 10월 10일, <<https://www.hani.co.kr/kisa/section-001006000/2005/10/001006000200510102257059.html>>.

12) 「北關大捷碑」 『동아일보』(온라인), 1926년 6월 19일,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npda_1926_06_19_v0003_0540>.

2. 1970년대: 북관대첩비 반환요구, 최초로 대중에게 알려지다

일본으로 반출된 북관대첩비는 1978년에 재일사학자 최서면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에서 존재가 확인되었다. 최서면은 1978년 당시 동경한국문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韓』의 기고문에서 북관대첩비 발견에 대해 논하였다. 같은 해, 정문부 문중인 해주정씨문중이 한일친선협회를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북관대첩비 반환을 요청했다. 다음 해인 1979년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북관대첩비 반환을 공식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환요청에 조총련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반환 협상이 결렬되었다.¹³⁾ 1978년에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처음으로 북관대첩비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북관대첩비 반환 논의는 최초로 대중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북관대첩비 반환요청은 정문부 문중과 한국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합의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총련의 반발은 한국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파악 가능케 한다. 남한과 북한은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남한에서는 해주정씨문중이 정문부의 후손임을 강조하며 북관대첩비의 반환을 요청했고, 북한은 북관대첩비의 원소재지를 강조하며 북관대첩비의 반환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는 한국이 처음으로 북관대첩비 존재를 확인하고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시기였던 만큼, 남한과 북한이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해 하나 된 입장이나 의견을 표하기엔 어려웠다. 또한, 이 당시 남북관계 역시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합의나 조율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도발이 급증하였고, 남북 간 군사적

13)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29쪽.

긴장상태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을 둘러싼 남과 북의 갈등적 입장이 대치되면서 북관대첩비를 반환하는 문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외무부의 공식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였다.¹⁴⁾ 한일친선협회는 반환요청과 관련해서 문화재반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회신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입장차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협회가 북관대첩비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반환의 주체가 되는 것인지, 또한 반환의 주체가 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역사적 연고를 가지는 원래의 장소로 북관대첩비가 재건 및 복원된다는 보증이 있는 것인지, 만일 역사적 연고지에 재건 복원되지 않는다면 역사적 연고지의 관계자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지 또는 그럴 경우 어떠한 입장인지 등을¹⁵⁾ 해주정씨문중에 요청했다는 점에서 일본이 반환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있었음을 파악해볼 수 있다.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초기 논의를 남북일 3개국 관계를 통해 본다면, 이 당시 남북관계는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군사적 긴장상태와 더불어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북 간 협의나 조율도 어려웠다는 점에서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의 이러한 적대적 관계는 일본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해 남과 북, 양쪽이 자국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관대첩비를 남과 북 중에 어느 한 국가에 반환한다는 선택은 일본에게 있어서 정치적 선택을 고려하게 하였다. 남

14)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2쪽.

15)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86쪽.

과 북이 적대적인 긴장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북관대첩비의 반환은 일본에게 있어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해야 난제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해주정씨문중의 남한과 북관대첩비 원소재지의 북한 모두를 반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와 조율이 부재했다는 점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1990년대: 북관대첩비 반환 재논의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다시 시작되었다. 1994년 3-5월, 남한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공식요청 하였고, 1994년 11월, 일본 참의원 이다가끼 의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 북관대첩비의 반환에 대한 신사 측 입장을 확인하여 외무부를 거쳐 문화재관리국에 통보하였다. 이 당시 신사측은 북관대첩비의 반환은 당초 비가 있었던 함경북도 길주군이 적절하다고 보나, 국교가 없는 북한과 문제가 되므로 한국과 북한이 조정이 된 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의뢰하면 조속히 반환할 방침을 밝혔다.¹⁶⁾ 1990년대에 들어서 북관대첩비 반환 재논의가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 때와 동일하게 반환 주체와 반환 장소에 대한 남북한 조정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1990년대 남북관계를 보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남북 간 합의 또는 조율이 이루어지기엔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은 남북 간 관계를 군사안보적, 정치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역사 문제나 문화재 반환의 논의들은 남한과 북한, 양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¹⁶⁾ 위의 글, 29쪽.

북관대첩비 반환 논의는 1997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한일문화재교류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다시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한일문화재교류 위원회는 황실 간 만남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호(李承虎)한일문화재교류위원회 집행위원장)’는 1999년 1월 8일, 조선의 마지막 황제손 이구(李玖)가 아키히토(明仁) 일본 천황으로부터 북관대첩비 반환 동의를 얻어냈고 1월 24일, 이를 문건으로 약정했다고 밝혔다.¹⁷⁾ 이 시기, 반환 논의 때 일본 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당시 세계무역센터협회(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WTCA) 가이 토졸리(Guy F. Tozzoli) 총재였다. 가이 토졸리 총재의 적극적인 협조로 1999년 4월 15일에는 가이 토졸리 총재와 북관대첩비 반환에 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에 활용하기로 하고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4월 27일에는 제30차 세계무역협회 총회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운동을 세계무역센터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북관대첩비 반환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장으로 가이토졸리 총재가 선임되었다.¹⁸⁾

또한, 위원회는 1999년 6월 27일, “2년간의 노력 끝에 올해 초 일본 황실로부터 북관대첩비의 반환 동의를 얻어냈다. 7월 20일 부산항에 도착 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북관대첩비를 8월 20일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이를 정부 측과 협의 중이며, 북측 인도를 위해 가이 토졸리 세계무역센터협회총재의 중개로 북한의 이형철(李亨哲) 유엔전권대사로부터 북한이 인수하겠다는 서한을 6월 초 받기도 했다.¹⁹⁾ 이와 더불어 당시 위원장은, “토졸리 총재는 올해

17) 「북관대첩비 반환」 『동아일보』 (온라인), 1999년 6월 28일,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990628>>).

18)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7쪽.

19) 「북관대첩비 반환」 『동아일보』, 1999년 6월 28일.

초 북한을 방문해 북관대첩비를 받아들이겠다는 북한 측의 동의를 받았으며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북관대첩비가 판문점을 통과할 때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 병사들이 호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²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그 당시 통일부 관계자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북관대첩비의 국내반환을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이형철 북한대사의 문건에 북한 반입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7월말 경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²¹⁾

북관대첩비가 조선시기의 문화재라는 점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인 이구와 당시 일본 천황인 아키히토의 만남은 북관대첩비 반환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다. 이구로 대표되는 대한제국은 한반도의 대표성을 상징적으로 지니기 때문에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과 북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왕실 간 협이나 만남이 북관대첩비 반환의 직접적인 변수라고 보기엔 다소 어렵다. 특히, 일본의 정치를 고려한다면, 천황이 야스쿠니 신사 소유의 문화재 반환에 관여하는 것은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다소 납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이 일본 황실과 반환에 대한 합의와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은 남한과 북한의 공식적인 합의와 논의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이 시기, 황실 간 만남과 협의는 문화재가 반출될 당시 조선황실의 후손과 일본 황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 정도를 내포했다.

이 시기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남북한의 조율

20) 위의 자료.

21) 위의 자료.

과 합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남북관계 변화를 기대케 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3월 18일에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대북지원 참여확대, 민간 대북지원 모금 활동 규제 완화, 협력사업 방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 허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4월 30일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민간주도의 경협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경제, 종교, 학술, 언론, 문화예술, 이산가족 등 각 분야에서 인적교류 및 방북이 활성화 되었다.²²⁾

경색된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서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대내외적인 정치여건도 긍정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과 교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팽팽히 다시 긴장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을 하던 남측 관광객이 관광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억류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관대첩비 반환 장소에 대한 의견 역시 합치되지 못하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을 하는 경우에 남한을 단순 경유지로 삼을 것인지, 원소재지인 북한에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²³⁾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변화를 통한 남북 간 반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결국 다시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남과 북이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의견을 합치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이 시기 북관대첩비 반환 논의 역시 이전 시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이 토졸리 총재는 자신이 직접 북관대첩비를 가

22) 강보배 · 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5~216쪽.

23) 위의 논문, 216~217쪽.

지고 북한으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길 원했고 남측 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방북단을 꾸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이토졸리 총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당시 북관대첩비반환추진위원회에 소속된 가키누마 스님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 정부 역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이 토졸리 총재의 적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1차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⁴⁾ 이 시기, 북관대첩비 반환 재논의 역시 북한과 위원회 측 간 조율이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다소 어려웠다.

4. 2003 ~ 2006년: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고국으로

2003년 5월 한일불교복지협회가 비 반환이 2003년 8월 성사 단계임을 통보 하였고, 문화재청과 외교부 등에 정부차원의 이운행사 지원을 요청 하였다.²⁵⁾ 그러나 2003년 9월 1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사 측은 17일 “어느 한국 단체에도 반환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남북 통일뒤 통일정부가 정식요청을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에서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반환할 수 없으며 가져올 때와 같이 남북이 하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북에도 반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²⁶⁾ 2003년 12월 18일, 외교통상부는 비의 원소재지가 북한이므로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하며, 법적 관계로 정부가 점유주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일

24) 위의 논문, 217쪽.

25)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5쪽.

26) 「日帝가 강탈한 조선 '북관대첩비' 야스쿠니 숲에 방치」 『중앙일보』 (온라인), 2003년 9월 1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882#home>>;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5쪽.

본정부의 입장과 남북 간 합의가 도출된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요청이 있어야 반환 할 수 있다는 야스쿠니 신사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 후에 문화재청에 이를 통보하였다.²⁷⁾ 즉, 야스쿠니 신사측은 북관대첩비를 사실상 반환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2004년 7월, 일한불교복지협회의 가키누마 스님이 방한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주장하였다.²⁸⁾ 일본 불교계의 이러한 행보는 남한과 북한, 더 나아가 일본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같은 달 30일, 외교통상부는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통일부에 남북 장관급회담시 북관대첩비 반환 문제를 북측에 협의 요청했다.²⁹⁾ 남한은 정부 차원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남북회담에서 해당 의제를 조율하고자 노력하였다. 2004년 11월,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민간단체, 특히 불교도연맹들 간의 교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연)에서 한일불교복지협회 앞으로 초청장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이 12월 7일-10일까지 베이징을 경유하여 금강산을 방문하겠다고 방북을 신청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문화재청과 방북관련 대책회의를 하였다. 대책회의의 결과는 북측의 의견 타진을 위해 민간 단체의 방북을 허용하고 남북합의는 정부기관(문화재청: 문화보존지도국)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방북 결과, 남북 불교단체 간 북관대첩비를 한국을 거쳐 북으로 인도키로 합의 했다는 주장 외에는 별다른 성과

27)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5쪽.

28) 위의 책, 30쪽.

29) 위의 책, 31쪽.

는 없었다.³⁰⁾

2005년 1월, 북관대첩비반환범민족운동본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당시 상임고문으로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추대되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 즉 당해년에 비 반환을 매듭짓자고 언급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원웅 의원은 국회 내 반환 추진 그룹을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2005년 2월 1일, 총리실 산하 민간기구로 2005광복60주년추진기획단이 발족되었고, 북관대첩비 반환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북관대첩비 반환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을 북측 아태재단에 제안하였다. 2005년 2월 21일, 북측 민화협은 남북공동위 구성보다 남측 비반환추진위가 북측 조불연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회신하였다.³¹⁾ 2005년 3월 1일, 범민족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일한불교복지협회 가키누마 스님이 야스쿠니 신사 측과 면담하였고, 국회 내 반환추진 그룹을 구성하겠다고 했던 김원웅 의원이 일본 부외무대신과 면담하였다. 2005년 3월 1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 측은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하면 반환할 것으로 약속하였다.³²⁾

2005년 3월 2일, 문화재청은 남북공동 반환추진 방안을 남북회담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요청하였고, 일본 문화청에 야스쿠니 신사측 당국자 면담과 북관대첩비의 실태조사를 위한 협의를 의뢰하였다.³³⁾ 8일에는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광복60주년 추진기획단, 문화재청(북관대첩비 반환 관계기관)이 제1차 대책회의를 하였다. 이

30) 위의 책, 31쪽.

31) 위의 책, 31~32쪽.

32) 정운경,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귀향」 『통일한국』 제268권(2006년 4월), 92쪽;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8~219쪽;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2쪽.

33)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2쪽.

회의의 결과로 외교통상부는 일본 외무성과 접촉하고 문화재청은 야스쿠니 신사와 접촉해서 진의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측이 정부차원의 개입을 기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³⁴⁾ 1차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공식화 되었다. 또한, 3월 28일에는 남측 한일불교복지협회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간 북관대첩비 반환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으로는 1. 북관대첩비의 원소재지 복원을 위해 남측과 북측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2. 기념 행사는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이었다.³⁵⁾

북관대첩비 반환 관계 기관들의 제2차 대책회의는 4월 1일에 개최되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이 민간단체의 남북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차원의 합의서를 요구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남북한의 합의 주체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었다. 남측은 문화재청장을, 북측은 문화보존지도국장을 합의 주체로 하고, 합의 형식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조율되었다. 또한, 대일 관계는 외교통상부가, 대북관계는 통일부가, 국내 관련 단체 합의는 문화재청이, 북관대첩비 반환 행사는 광복60주년추진단이 전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언론대책은 외교통상부로 일원화 하도록 각 관계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사안들을 어느 부처가 관할할지가 결정되었다.³⁶⁾

2005년 4월 20일, 문화재청의 관계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여 책임자를 면담하였다. 여기서 야스쿠니 신사 측은 민간 베이징 합의서에 대한 남측 문화재청장과 북측 문화보존지도국장의 서면 추인으로 반환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3일 후인 4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AA회의에서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북관대첩비 반

34) 위의 책, 32쪽.

35) 위의 책, 32쪽.

36) 위의 책, 32쪽.

환 등 협의를 위한 회담을 5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2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대책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의 결과 정부 내 주관부처는 문화재청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반환추진 기구의 만관합동 구성 및 남북당국자 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총리에게 보고 후 문화재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³⁷⁾ 2005년 5월 12일 문화재청은 북한문화성에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남북문화재 당국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는 북한 당국과 합의한 것과 같으므로 남북한 별도 합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³⁸⁾ 5월 27일, 문화재청은 6·15선언 남북실무자 접촉을 통해 북측 문화상에게 문서 교환 방식에 의한 남북 합의를 제안하는 서신을 북측에 전달하였다.³⁹⁾ 이에 따라 2005년 10월 12일 북관대첩비 반환합의서 서명식이 체결되었다. 2005년 10월 20일, 북관대첩비는 100년 만에 한국하였다.

남한으로 반환된 북관대첩비는 10월 28 ~11월 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다. 2006년 2월 13일 개성에서 북측 인도 실무협약이 타결되었고 이에 따라 3월 1일, 3·1절을 맞아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이 개최되었다. 이에 대해 북측 김정일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은 전통과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일본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할 중요한 계기”라며 “북과 남이 공동 노력으로 비를 되찾는 것을 계기로 일제가 빼앗은 문화재를 모두 되찾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남한의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도 환송사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은 이 시대의 문화 의병운동”이라며 “남북한 문화재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

37) 위의 책, 32~33쪽.

38) 정윤경,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귀향」, 92쪽;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8~219쪽;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2쪽.

39)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3쪽.

해 문화재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북측에 제안한다”고 하였다.⁴⁰⁾

2005년의 이러한 합의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남북 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노력을 위한 공동선언이 성사되면서 남북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2002년 제2차 북핵문제와 2004년 김일성 사망 10주기 기념 조문단 관련 사안, 2005년 2월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과 핵무기 보유 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05년이 ‘6.15공동선언 5주년’, ‘2005년 광복 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북관대첩비 도일 100주년’과 같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겹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 부처 간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남북 합의의 기회 역시 모색되었다.⁴¹⁾

또한, 당시 북·일 관계 역시 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2002년, 2004년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과 평양선언의 발표는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하게 하였다.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은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남북관계는 임동원 특사의 방북 이후,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 연결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급진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 배경과도 무관치 않았다.⁴²⁾ 남북관계의 진전은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고이즈미의

40) 정윤경,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귀향」, 92쪽.

41)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와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9~220쪽.

42)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172쪽.

방북은 북일관계의 진전을 의미했다. 북한 역시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폭적인 양보를 통해 북·일 평양공동선언이 가능했다.⁴³⁾ 평양선언은 과거사 문제, 청구권 문제, 납치자 문제, 핵·미사일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일본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음을 보여주었다.⁴⁴⁾ 그러나 납북자 문제를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북일관계는 국교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북한 간 합의는 북관대첩비 반환을 뒷받침 없이 마무리하고자 했던 일본에게는 중요했다.⁴⁵⁾ 1970년대 남한의 반환 요구에 대해 조총련이 반발하여 무산되었던 바 일본 측은 '남북 정부 차원의 공식 합의'를 요구했으며, 이는 외교부에서 일본 외무성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의 입장을 확인한 내용이었다.⁴⁶⁾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국교정상화로 귀결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 정부 차원의 공식 합의는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격화된 대내적인 여론과 북일관계·한일관계를 고려하여 요구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IV. 왜 2003년 - 2006년이었는가?

다른 시기와 달리, 이 시기에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공고화다. 또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개성공단을 통한

43) 위의 논문.

44) 위의 논문.

45)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00쪽.

46) 위의 논문.

남북교류협력이 공고화 되지 않았다면 북관대첩비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개성공단이 없다고 해서 북관대첩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를 논하기엔 다소 어렵다. 본 논문은 북관대첩비 반환 과정에서 국가 간 관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기에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도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문화재 반환은 문화재가 반출된 시기, 즉 분단 이전의 한반도로의 반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 역시 문화재 반환에 대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2003-2006년 노무현 정부 시기와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를 비교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를 교류협력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국면은 이러한 논의들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논의 역시 2002년 2차북핵위기 등으로 경색된 군사적 긴장국면이 북관대첩비 반환 논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군사안보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며 남북 간 교류협력 공고화를 이끌어내며 남북한 간 서로의 행동에 대한 값비싼 신호 ‘costly signal’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재 반환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시민단체와 문중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북관대첩비 반환 논의를 국가차원으로 이끌어내면서 뒷받침이 문화재를 반환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반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장은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1.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공고화

북관대첩비 반환에서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지점은 개성이었다. 1990년대에는 판문점을 중심으로 반환 경로를 논의했다면, 북관대첩비 반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시기에는 개성을 중심으로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 반환 논의와 1990년대 반환 논의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움직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1990년대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은 이전 시기의 경험과 각 관계기관과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반하고 있지만, 시민 단체나 종교단체의 움직임만을 결정적인 변수로 보기엔 다소 공백이 생긴다.

2005년에 역사적인 기념일이 겹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2005년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100년이 되는 해였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100년이라는 역사적인 기점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범국민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을 분석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실례로,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인 해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남북공동행사를 추진 중에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리선권 남북고위급 회담 단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시기적으로 공동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렵다” 전했다.⁴⁷⁾ 이와 관련해서 남한에서는 당시 북한이 2019년 하노이북미정상회담 준비에 모든 여력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분석하였다.⁴⁸⁾ 이와 더불어 남북한은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견해

47) 「3.1절 100주년 공동기념 행사 무산…北”시기적 어렵다” 통보」 『KBS NEWS』 (온라인), 2019년 2월 21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43638>>.

48) 「“3·1절 100주년 남북공동행사무산 …北”시기적 어렵다” 통보(종합)」 『연합뉴

차를 보였고, 남북한 간 협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⁴⁹⁾ 이러한 분위기에서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는 무산되었다. 즉, 역사적인 기념일이나 민족사적인 기점이 범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요인만으로 접근하기엔 역시 다소 공백이 생긴다. 사실상 북한에게 남한과의 3·1절 100주년 공동행사보다 더 중요했던 사안은 하노이북미 정상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념일이나 민족사적인 기점은 우선순위에 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이 단순하게 단발성의 이벤트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권에 따라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을 오가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이다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군사안보적 이슈나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유지에 대한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로 작용했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경제협력의 지속성과 가시성을 모두 확보한 ‘믿을만한’ 약속으로 남북 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믿을만한 남북 간의 약속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간 합의서 채택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330만㎡)개발 착공을 시작으로 2004년 6월엔 시범단지 입주기업이 계약체결(15개 기업)을 했고, 2005년 9월에는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분양(24개 기업)이 있었다.⁵⁰⁾ 개성공단 사업은 북관대첩비 최종 반

스』(온라인), 2019년 2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48251504>>.

49) 위의 자료.

50)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추진 경과」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kaesong-IndustrialComplex/status/promotion/>>.

환 결정이 이루어진 2004-2006년 사이에 합의서를 넘어 실질적인 가동을 위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북한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최종 합의 전인 2005년 5월 12일에 북한 문화성에 제의한 당국회담에 대해 북한이 종교 간 합의는 북한 당국과 합의한 것과 같아 남북 별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⁵¹⁾ 화답을 보냈다. 실제로는 북한이 화답을 보낸 한 달 뒤인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진행되었다. 남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간 공식대화창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북관대첩비 반환에 합의하였다. 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은 8.15 남북 공동행사관련 사안, 한반도 비핵화, 남북이산가족상봉,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서해 공동어로, 농업협력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에 합의하였다.⁵²⁾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 보도문 내용을 보면, 남북한은 제일 먼저 8.15 남북공동행사에 대한 실무접촉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한은 해당 실무접촉을 7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⁵³⁾ 또한, 남북한은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으로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51) 정윤경,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귀향」, 92쪽;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8~219쪽;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2쪽.

52)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관대첩비 반환에 관한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당면하여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15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온라인), 2005년 6월 24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75073024#pressRelease>).

53) 위의 글.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여기서 남북한은 1차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⁵⁴⁾ 장관급 회담의 합의 내용들을 보면 남북한의 협력 분야는 점차 확장되고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개성’이라는 지역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 간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환국한 북관대첩비를 원소재지인 함경북도 길주군으로 인도인수하기 위한 실무협약이 2006년 2월 13일 개성에서 타결되었고, 다음 달인 3월 1일, 3.1절을 맞아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이 개최되었다는 점 역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이 공고화라는 맥락에서 파악가능하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이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1990년대 반환 논의의 장애물이 되었던 한국 패싱의 위험성도, 판문점을 통과할 때 유엔평화유지군 소속 병사들이 호위해야 하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불식시켰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간 협력공고화는 남북경협이 상징인 동시에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년 만에 북관대첩비가 고국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 간 값비싼 신호이자 믿을만한 약속으로 작용했다. 북관대첩비 반환 최종 합의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이 공고화 과정의 맥락에서 파악가능하다.

2.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

북관대첩비의 반환이 결정된 2005년을 중심으로 보면 이 당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 및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문화재청,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광복60주년 추진기획단,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 산하 관

⁵⁴⁾ 위의 글.

계 기관들,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조직들이 협력하였다. 우선, 문화재청은 북관대첩비 반환의 주무부처로서 민간단체와 정부, 더 나아가 야스쿠니 신사 측과의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했고, 통일부는 북관대첩비 반환 문제를 남북회담의 의제로 공식화하도록 요청했으면, 북한과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기구로 발족된 광복60주년추진기획단은 북관대첩비 반환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사안들을 전담하였다. 또한, 국회 역시 북관대첩비 반환을 추진 그룹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적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표 1>과 같이, 노무현 정부의 관계 기관들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관계 기관 대책회의(2차),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기급 국장급 대책회의(2차),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남북 차관급회담 개최, 총리주재 당정회의회 등을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1>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정부차원의 움직임(노무현 정부)

일시	내용
2005. 3. 8	북관대첩비 반환 관계기관(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광복60주년추진기획단, 문화재청)대책회의 개최(제1차)
2005. 4. 1	북관대첩비 반환 관계기관(대통령비서실, 외통부, 통일부, 60주년추진 기획단, 문화재청)대책회의 개최(제2차)
2005. 4. 13	국무총리실 주재로 7개 관계기관(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문화재청, 대통령비서실, 광복60주년추진단)국장급 대책회의 개최
2005. 4. 27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기관(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통일부, 문화재청, 대통령비서실, 광복60주년추진단)국장급 대책회의 개최
2005. 5. 9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회의(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통일부, 외통부,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외 2개 부처)
2005. 5. 16-17	남북 차관급회담 개최(비공식 접촉을 통해 비 반환 합의서 체결 요구)

일시	내용
2005. 5. 17	광복60주년추진기획단 방문 기념행사 등 추진방안 협의(국장급회의)
2005. 5. 23	총리주재 당정협의회에 북관대첩비 문제를 의제로 보고
2005. 5. 27	6·15선언 남북실무자 접촉을 통해 문화재청장이 북측 문화상에게 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남북 합의를 제안하는 서신 북측에 전달

출처: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0~33쪽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가 정리.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북관대첩비를 위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정부 차원의 의제로 선정해서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한과 공식적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V. 맺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역사이슈와 맞물려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일본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낸 사안을 통해 3개국이 어떻게 왜 협력이 가능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남북관계와 더불어 남북일 관계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 특정 이슈 또는 사안이 왜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만큼이나 왜 협력이 가능했는지를 파악하는 접근은 교착화 된 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로 반출되었던 북관대첩비 반환은 남북 간 교류협력의 결과이자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와 더불어 남북일 3개국 관계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된 2000년대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이라는 중심축을 통해 다른 시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 간 협력과 신

위를 강화하였다. 즉, 남한과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이벤트성의 이슈에 의한 협력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넌제로섬(non-zerosum)' 게임에 입각한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1990년대와는 다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역시, 남북 관계는 상호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군사안보적 영역에서의 갈등은 북관대첩비 반환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점에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의 공고화는 남과 북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데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남북 협력은 일본으로부터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문화재 반환을 위한 실무진들의 노력과 의지는 북한의 협력을 보다 가시적으로 이끌어내었다. 문화재청을 포함하여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무총리 산하 관계 부처들은 북관대첩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해당 사안을 남북 간 공식의제로 포함시켜 계속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또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남북 간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남북 교류협력의 공고화를 통해 일본이 반환을 결정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남북이 협력하여 문화재를 반환한 경험은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공동연락폭과 사건 이후로 다소 위축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일본을 포함하여 각 국에서 되찾아야 할 문화재는 여전히 존재하며, 주변국의 역사왜곡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응 및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은 공동 대응함으로써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가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접근이 민간단체의 노력과 관심,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단체의 노력,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도연맹은 북관대첩비가 반환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만

본 논문은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호적인 남북 관계가 기반이 되었을 때 가능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움직임과 노력과 더불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이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남과 북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나 북관대첩비의 경우, 원소재지는 북한, 일본과의 수교 주체는 남한이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문화재 반환의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분단된 한반도가 일본을 포함하여 타국에 무단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되돌려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문화재 반환과 국가 간 관계는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북관대첩비 반환은 남북관계의 전환과 더불어 남북일 3개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북한도 2019년 12월 1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역사유적 북관대첩비>에서 북관대첩비의 민족사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역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이다. 역사유적유물을 잘 보존관리하여야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찬란한 문화전통을 창조한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역사유적유물들가운데는 국보유적인 북관대첩비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관대첩비와 같은 비가 우리 나라에 있다는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커다란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중략) 그러시면서 지금 북관대첩비를 참관하러

오는 사람들속에서 비문이 한자로 되어있기때문에 옆에 비문을 번역한 해설문을 따로 만들어세워 그 내용을 읽어볼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것이라고 그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북관대첩비는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선조들의 투쟁력사를 연구하는데서와 인민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는 나라의 귀중한 국보이다.

북관대첩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북한이 인정하는 민족사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북관대첩비를 중심으로 남북은 다시 한 번 교류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관대첩비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2006년 삼일절을 기념하여 개성에서 북측으로 인도된 북관대첩비가 원소재지에 잘 복원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남북관계를 새로이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중심으로 일본에 의해 무단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고국으로 되찾아오는 작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을 공동으로 시작함으로써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남북한이 협력하여 역사적 이슈에 합의하고 문화재를 되찾아온 경험은 남북이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가 된다. 남북한의 이러한 경험은 더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앞으로 남북일이 역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은 북한과 무단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고국으로 되찾아 오기 위해 남북 공동학술연구나 북관대첩비 관련 기념사업, 향후 문화재 반환을 위한 관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남북한, 더 나아가 남북일 상생의 관계를 모색할 때이다.

【참고문헌】

-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2005.
- 강보배 · 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1호, 2016 봄, 205~229쪽.
- 구진봉 · 최은봉, 「북관대첩비 반환 과정 속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의 역할: 문화재 소유권의 쟁점화와 협상의 국면전환」 『문화와 정치』 제9권 2호, 2022, 213~246쪽.
- 박선희, 「문화재 원소유국(country of origin) 반환과 프랑스의 입장」 『국제정치논총』 51집 4호, 2011, 213~235쪽.
-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 2005, 157~184쪽.
- 정윤경,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 북관대첩비 100년만에 귀향」 『통일한국』 제268권, 2006, 92쪽.
- Rhee, Boa, 「The Repatriatio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Bukgwan Dae-chopbi) Remov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2집 1호, 2008, 241~281쪽.
- 『노동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KBS NEWS』
『한겨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15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5년 6월 24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75073024#pressRelease>>.
문화재청, 「관(官)과 민(民), 남북 협력으로 환수 북관대첩비」 <<http://www.cha>

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232&bbsId=BBSMSTR_1008&mn=NS_01_09_01).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추진 경과」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kaesong IndustrialComplex/status/promotion/](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kaesong%20IndustrialComplex/status/promotio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노무현-고이츠미 한일정상회담」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095&pageFlag=&sitePage=1-2-1>>.

嘯海生膽, 「咸鏡道 壬辰義兵 大捷碑文」 『대한홍학보 제5호』(온라인), 1909년 07월 20일, <https://db.history.go.kr/item/bookViewer.do?levelId=ma_011_0050>.

Return of Bukgwan Victory Monuments and Inter-Korean Relations

Oh, Eunkyung (Sogang University)

Abstract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was returned to the original location of North Korea through South Korea in 2005. Four times of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retur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which was taken out of the country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and was finally returned to its homeland in 2005.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previous three discussions did not lead to the result of return. Especially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served as an obstacle to further progress in the discussion. While it is true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steadily paid attention to the return of the monument, that alone has limitations in explaining why the return of the monument was finally decided in 2005.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retur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focusing on the amicable inter-Korean relations in 2005, when the retur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was decided. This approach will allow us to grasp in various ways the role of relations between countries in the decision to return cultural assets.

Keywords: Bukgwan Victory Monument, inter-Korean relations, cooperation, interstate relations, return of cultural assets

오은경 (Oh, Eunkyung)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공은 국제정치다. 석사학위를 북한학으로 받았다. 현재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이며, 주요 연구주제는 국가 간 관계, 남북관계, 군사안보, 핵 전략 등이다.

일반 논문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

: 국내 언론 보도의 사실 정합성 검토를 중심으로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사실 정합성 여부를 학술기관의 장기조사데이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07-2022)』, 동아시아연구소와 켄론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2013-2021)』)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세대의 반중 정서는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와 시기적, 경향적으로 일치하며, 정도에 있어서도 기성세대와 극적인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중국 비호감도가 20대에서 두드러지고 일관되게 나타났다면, 30대에서는 개인적 감정과 중요도를 분리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세대 간 차이는 언론 보도보다 작고, 세대 내 차이는 그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대와 30대 모두 일본 호감도가 한국인 평균보다 높았다. 20대에서 그 정도가 크고 일관되게 드러났다면, 30대는 20대와 평균 사이에 위치했다. 하지만 높은 호감도에도 역사·정치문제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가 빈번해 '투트랙 전략'을 일상 속에 선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술기관의 장기조사데이터를 통한 검증결과는 미디어가 파악한 현실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며, 이 괴리를 유발하는 세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년세대, 2030세대, 중국 인식, 일본 인식, 통일의식조사,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I. 서론: 한국 청년세대, 반중 친일의 전위부대?

최근 한국 사회는 청년세대 또는 MZ세대의 소비 패턴, 정치 성향, 문화 지향의 특성과 파급력에 주목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한국 청년세대의 주변국 인식, 특히, 중국과 일본 인식의 특수성에 대한 기사가 언론을 통해 다수 발표되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청년세대는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한다”고 할 정도로 기성세대보다 중국을 훨씬 더 싫어하며,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 내 반중(反中) 정서의 급속한 확산이 목도되는바 이를 견인한 주요 세력이 청년세대라면, 일본의 경우 바로 같은 집단이 반일 감정의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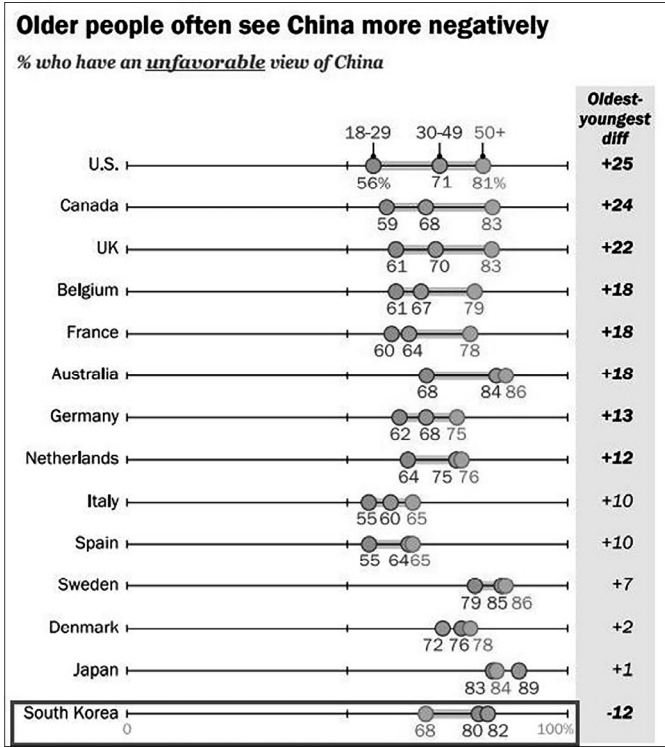
1) 대표적인 언론 보도는 다음과 같다. 이오성,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시사IN』 (온라인), 2021년 6월 17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김서윤, 「586은 반미, 우리는 반중! MZ세대의 중국 혐오를 키운 것은?」 『주간조선』 (온라인), 2021년 5월 24일,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76>>; 유지혜, 정진우, 박현주, 「2030 열명 중 여섯 “中 싫다”...미래세대 반중감정 치솟았다」 『중앙일보』 (온라인), 2021년 1월 1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759>>; 조영빈, 「한중수교 30주년: 한국·중국은 왜 서로를 더 싫어하나...양국 MZ에 물었다」 『한국일보』 (온라인), 2022년 8월 23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523100002978?did=DA>>; 권민지, 「가장 싫은 나라 중국, 북한은 남...MZ세대 모든 것」 『국민일보』 (온라인), 2021년 6월 25일, <<http://news.kn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7855&code=11131100&cp=du>>; 조영빈,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2030세대 “中이 더 싫다”」 『한국일보』 (온라인), 2021년 6월 1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11510002670?did=DA>>; 박현주, 「한국인 “일본 싫다” 8%p 줄고 “중국 싫다” 14%p 증가」 『중앙일보』 (온라인), 2021년 9월 2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516>>; 최은미, 「MZ세대와 韓·日관계」 『세계일보』 (온라인), 2022년 1월 6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06515175?OutUrl=dau%20m>>.

예를 들어 <시사IN>의 2021년 6월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주변 4개국(미·중·일·북) 중 최하위로 일본이나 북한보다도 낮았다. 진보와 보수, 남과 여, 소득수준의 차이를 막론하고 “한국이 반중으로 푹푹 뭉친 상황”이다. 이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세대별 특성으로, 20대의 중국 호감도(15.9)는 50대(30.8)와 60대(3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평균(26.4)보다도 10%p 이상 낮았다. 30대의 경우(21.8)도 5, 60대보다는 10%p, 평균보다는 5%p 정도 낮았다. 같은 해 6월 국민일보의 보도에서도 MZ세대(18-39세)의 51.7%, Z세대(18-24세)의 60.3%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²⁾

실제로 미국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역시 비슷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퓨리서치센터는 2007년부터 전세계 14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변화를 추적해왔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14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나라 국민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국에 더 부정적인 ‘유일한’ 나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조사결과와 국가별 세대 분포를 나타낸 도표가 이를 선명하게 가시화한다(〈그림 1〉). 한국의 20대와 3,40대의 중국 비호감도는 50대 이상의 경우보다 10%p 이상 높았다.

2) 이오성, 위의 기사; 권민지, 위의 기사.

〈그림 1〉 중국 비호감도 국가별 세대 분포 (2020)



출처: Pew Research Center,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October 2020), p. 10.

한편, 대일(對日) 인식과 관련해 한국일보의 2021년 6월 보도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일본 호감도가 중국 호감도보다 여전히 낮다면, 20대와 30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 기성세대가 아직도 중국보다 일본을 더 싫어한다면, 청년세대는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이다. 특히 20대의 일본 호감도(30.8)는 중국 호감도(17.1)의 거의 두 배에 달하며, 2030 모두에 있어 주변국 중 중국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다.³⁾

국내 언론의 이와 같은 보도는 어느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가. 실제로 격렬한 반중 정서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30, 또는 MZ세대에 모두 적용되며, 그들은 정말로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또,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청년세대의 일본 호감도가 사실이라면, 역사나 정치 문제는 어떨까. 높은 호감도가 역사와 정치 영역에도 비례 적용될까, 아니면 높은 호감도는 역사나 정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무관심의 결과인 걸까.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즉, 주로 단기 설문조사에 기반한 국내 언론 보도의 사실 정확성 여부를 학술기관의 장기 설문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IPUS)이 2007년부터 15년간 실시해온 『통일인식조사(2007-2022)』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일본의 켄론 NPO와 2013년부터 시행해온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2013-2021)』를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⁴⁾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청년세대의 분류는 M세대와 Z세대가 아닌 20대와 30대로 하였다. M과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의 비교 세대적 특성을 공유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비디오게임, 음악재생기, 비디오카메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일상적으로 접하며 디지털 언어를 원어민처럼 체득한 사람’을 뜻하며, 2001년 미국의 교육학자인 프렌스키(M. Prensky)가 새로운 학생 세대를 특화해 처음 고안한 개념이다.⁵⁾

3) 조영빈,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2030세대 “中이 더 싫다”」.

4) 관련 선행연구로는 차정미(2017), 오승희(2020; 2022), 석주희(2020), 윤석정(2020), 조은일(2020), 조의형(2022), 하남석(2022), 김정은(2022)이 존재하나, 1) 중국이나 일본 인식 중 하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거나 (모두 해당), 2) 특정 주제에 한정되거나 (김정은), 3) MZ세대가 아닌 한국인 전체의 인식을 대상으로 삼거나 (차정미), 4) 한국이 아닌 중국과 일본 MZ세대 연구 (하남석; 오승희 2022)라는 점에서 이 연구와 구별된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참조.

5) M.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vol. 9, no. 5 (2001), pp. 1-3.

두 세대가 'MZ세대'로 통칭될 수 있는 주된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양자 간에는 표준화될 수 없는 차이 역시 존재한다. 보다 엄밀한 기준을 적용할 때, M세대는 '인터넷 세대'이자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으로, Z세대는 '아이폰 세대'이자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으로 구분되며, M세대는 인터넷 환경이, Z세대는 모바일 환경이 대중화 되던 시기 성장기를 보낸 세대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MZ세대'로 통칭될 경우 대상연령이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도 이와 유관하다. 이처럼 특성에 있어서나 대상에 있어 M과 Z세대가 분리 고찰될 필요가 존재함에도, 현재까지 양 세대를 분류하는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가나 기관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M세대와 Z세대를 한국 통계청은 각각 '1980-1994 출생자'와 '1995-2005 출생자'로,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는 '1981-1996 출생자'와 '1997-2012 출생자'로, 유럽은 '1985-2001 출생자'와 '2001-2020 출생자'로 각각 다르게 분류한다. 나라마다 디지털 환경의 시차가 존재함을 감안하여 대상을 한국 내로 한정하더라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⁶⁾ 이에 더해, 본고의 분석대상이 될 2종의 데이터를 M과 Z세대로 분류할 경우, Z세대의 표본크기가 너무 작아 M세대와의 유의미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청년세대를 M과 Z세대가 아닌 20대와 30대로 분

6) 박시내, 박혜균, 「MZ세대의 생활 환경: 생활비 원천, 주거실태」, 『KOSTAT 통계플러스』 Vol. 17 (2022 봄호), 33쪽; 양승훈, 「MZ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철학과현실』 제132호 (2022), 78-87쪽; 박치완,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문화콘텐츠연구』 제16호 (2019), 11-32쪽; 오기성, 「MZ세대 통일의식 제고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2022), 80-86쪽; 김성희,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기रो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의식조사 학술회의 (2022년 9월 27일), 108쪽; 김효정, 『MZ세대가 쓴 MZ세대 사용설명서』 (서울: 넥서스BIZ, 2022), 6-38쪽 참조.

류한 것은 이상에 근거한다.

다음으로 동일 집단의 시기적 변화를 추적 조사한 패널 데이터(panel data)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특성이 시간 가변적 ‘연령효과(age effect)’인지, 시간 불변적 ‘코호트효과(cohort effect)’인지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는 점도 미리 밝힌다. ‘연령효과’란 사회적, 생물학적 성숙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예를 들어 급진적 성향의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이 대표적이다. ‘코호트효과’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화 경험을 통해 형성된 특정 코호트가 공유하는 특성으로, 청년기에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그룹이 진보적 성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⁷⁾

하지만 두 효과의 식별 불가능성은 보다 근본적으로 세대 개념(generation) 자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세대 개념의 학적 용례는 1) ‘부모세대’나 ‘자식세대’ 같은 ‘친족계보(kinship descent)’, 2) 동일시기 출생집단을 의미하는 ‘출생코호트(birth-cohort)’, 3) ‘2030세대’, ‘실버세대’ 같은 ‘생애주기(life stage)’, 4) ‘전후(戰後)세대’, ‘민주화세대’ 같은 ‘특정 역사시기(historical period)’의 생존그룹 개념 등 다양한 정의를 포괄한다.⁸⁾ 즉, 패널 데이터의 존재 여부에 앞서 세대 개념 자체의 이러한 다의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 간 구별의 어려움이 야기되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이 존재함 역시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7)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2004), 37쪽.

8) D. Kertzer,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1983), pp. 126-127.

II.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인식: 20대와 30대의 통약 불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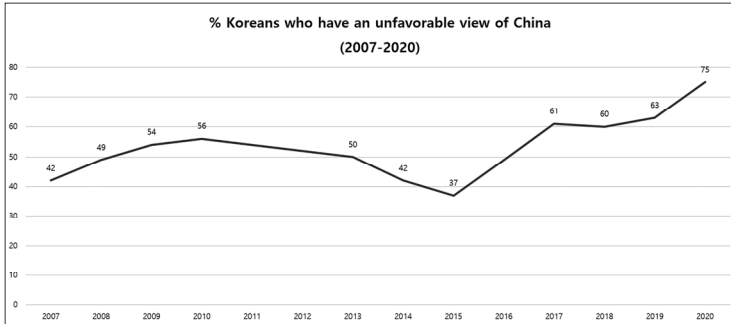
특정국 국민의 주변국 인식은 정치, 경제, 역사, 사회문화를 두루 포괄하는 양국 간 외교 관계와 직접적 함수관계에 놓인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1992년 역사적인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2004년 중국 정부가 진행한 대규모 역사프로젝트인 동북공정,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응한 중국의 경제 보복, 2020년의 중국발 코로나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의 중국 우호도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면, 후자의 세 사건, 즉 역사-문화 충돌로서 동북공정, 경제-안보 갈등으로서 사드 사태, 보건-건강 위기로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북공정은 이후 김치나 한복 등 전통문화의 기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으로 양국 사회 내 확대 심화되었고,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위생 문제가 일상화된 갈등의 근원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더해 중국 고유의 정치체제(일당독재)나 대만, 홍콩, 티벳, 신장-위구르 문제와 연계된 민주주의 및 인권 이슈 역시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에 해당한다.⁹⁾

열거한 역사적 사건이나 이슈들은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일종의 기간 효과(period effect)로, 즉 세대 불문,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효과로 작용하였다.¹⁰⁾ ‘한국인의 중국 비호감도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⁹⁾ 한중수교 후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차정미,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변화와 그 요인」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11~14쪽, 31~41쪽; 조의행, 「MZ세대의 반중감정: 그 현황과 전망」 『역사와융합』 제10집 (2022), 176~180쪽 참조.

아래 그래프가 이를 잘 보여준다.¹¹⁾

〈그림 2〉 한국인의 중국 비호감도 변화 (2007-2020)



출처: Pew Research Center,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p. 9.

2004년 동북공정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한국인의 중국 비호감도는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한중관계의 영향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사드 보복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61%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75%까지 치솟는다. 후자의 수치는 비호감도가 가장 낮았던 2015년 수치(37%)의 두 배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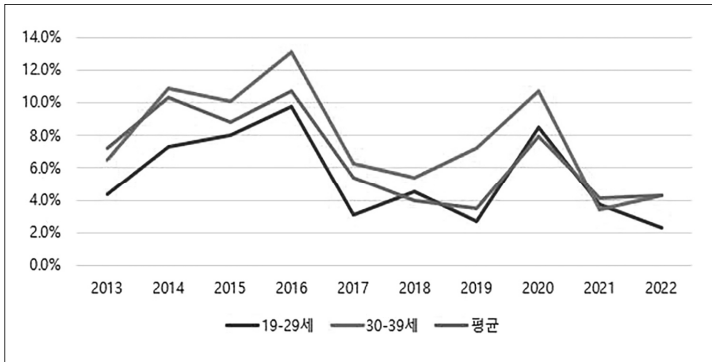
그렇다면 세대별 특성은 어떨까. 서론에서 밝혔듯이, 퓨리서치센터 및 한국 언론의 주장의 핵심은 청년세대의 특성이 위와 같은 기간효과의 보편성을 과다 초과하는 강도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즉, 한국 2030세대의

10) ‘기간효과’는 특정 관찰 시점에 일어난 상황이나 사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차이로, 모든 연령, 모든 코호트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중 정서의 급증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제24권 2호 (2001), 55쪽.

11) 〈그림 2〉는 Pew Research Center 보고서에 제시된 표를 필자가 그래프화한 것이다.

중국 비호감도는 기성세대를 큰 폭에서 넘어서며, 특히 20대의 호감도는 기성세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시된 단기조사에 기반한 주장들이다.¹²⁾ 이를 학술기관의 장기조사결과와 비교해보자. 다음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중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로 “중국”을 선택한 (10년간의) 연도별 비율을 연령별로 나타낸 그래프다.

〈그림 3〉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중국”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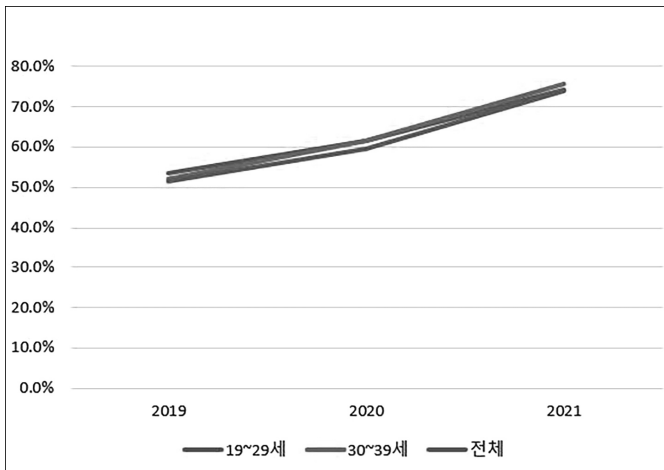


그래프에 따르면 20대는 10년에 걸쳐 중국 친근감이 한국인 평균보다 낮거나, 가장 양호한 경우가 평균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다. 즉, 언론보도 처럼 기성세대보다 중국에 부정적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그렇다. 하지만 30대는 다르다. 20대처럼 30대도 코로나 이후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급감했지만, 그 이전엔 한국인 평균보다 높은 친근감을 보였고, 코로나 후 급감 상황도 현재 평균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¹²⁾ 퓨 리서치 센터의 중국 비호감도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세대별 비율은 2020년 한 해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조사는 주변 5개국(미·중·일·러·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가 중국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압도적 다수의 한국인(50-70%)이 가장 가까운 나라로 미국을 선택하기에, 이를 제외한 잔여%를 나머지 4개국이 나누는 상황이어서 변량 자체도 매우 작다. 즉, 변수의 독립성, 변량의 크기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동아시아연구원 조사 중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중국에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가?”)을 활용해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비율을 코로나 전후(2019-2021)로 비교해보았다. 다음이 이를 나타낸 그래프다.

〈그림 4〉 〈중국 비호감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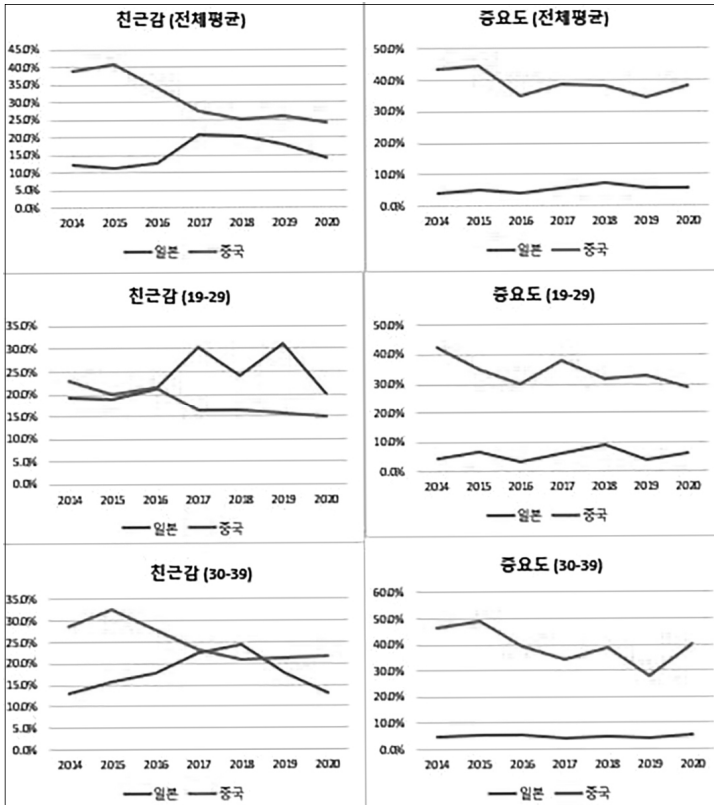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중국 비호감도(‘좋지 않은 인상’)가 20%p 이상 급증했지만, 이는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전체 세대에 공통된 보편적 현상이다. 그래프가 직관적으로 드러내듯이, 20대와 30대, 전체평균을 나타내는 세 개의 표시선은 구별이 힘들 정도로 겹쳐있다. 수치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직전후인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20대는 53.5→74.2%,

30대는 52.1%→75.6%로 비호감이 급증했지만, 한국인 평균 역시 51.5→73.8%로 급증해 경향과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즉, 코로나 사태 후 중국 비호감도의 급증은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로, 2030이 기성세대보다 유난히 더 중국을 싫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동아시아연구원의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서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와 마찬가지로, 30대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인 평균보다 중국에 더 우호적이었다. 즉,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20대의 중국 우호점수(각 52.1/51.2)는 (코로나 이후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평균(53.2/51.9)보다 낮지만, 30대의 우호점수는 54.1/52.1로 한국인 평균보다 오히려 높다. 이 경우도 20대와 30대 각각과 전체평균 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

다음으로 언론보도처럼 한국의 2030은 주변국 중 중국을 ‘가장’ 싫어하고,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양국을 대상으로, 친근감이나 호감 같은 ‘개인적 감정’과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국익 등과 관련된 ‘중요도 인식’을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이는 본고의 분석대상인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비교 인식과도 관련된다. 동아시아연구원은 2014-2020년에 걸쳐 “일본과 중국 중 어느 나라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가?”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일본과 중국 중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전자는 개인적 감정, 후자는 중요도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도별 응답 비율을 세대별로 나타낸 그래프다.

먼저 친근감의 경우, 평균적 한국인은 2016년 사드 보복 전후로 중국 친근감이 급격히 감소하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 반면 20대는 2016년 이후 일본의 중국 역전현상, 즉, 중국보다 일본을 더 친근하게 여기는 현상이 확인된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한일 무역분쟁의 여파로 친밀도가 급감하지만, 일본의 역전현상은 유지된다. 하지만 30대는 다르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도 2016

〈그림 5〉 중국/일본의 친근감/중요도 세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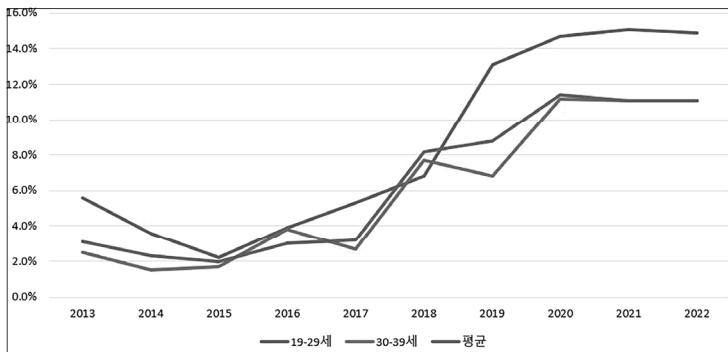


년 이후 동일한 역전현상이 발생하지만, 2019년 중국이 다시 일본을 역전해 코로나 이후로도 유지된다. 결론적으로 (2016년 이후) 20대는 중국보다 일본을 친근하게 여기지만, 30대는 그렇지 않다. 30대의 경우 일본 친근감의 중국 역전은 일시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현상이며, 30대는 20대와 전체평균 사이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이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한편 중요도의 경우 20대와 30대, 전체평균 모두에 있어 중국이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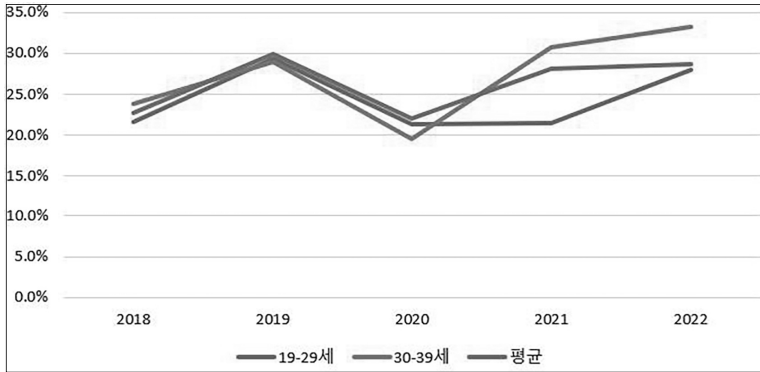
을 압도한다. 중국보다 일본을 더 친근하게 여기는 20대도 중요도 면에서는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친근감과 중요도를 구분해 인식하는 경향은 20대보다 30대에서 더 두드러지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20대가 중국 ‘친근감’에 있어 ‘부정적으로’ 일관적이라면, 30대는 중국 ‘중요도’에 있어 ‘긍정적으로’ 일관적이다. 이는 다음의 사례들에서 확인된다. 아래 그래프는 『통일의식조사』 중 “중국은 한국에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부정적인 “적대 대상”을 선택한 비율을 세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중국=적대 대상” 선택 비율



그래프에 드러나듯이, 20대는 10년에 걸쳐 비교적 일관되게 한국인 평균보다 중국에 더 부정적이고,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그 경향은 더욱 크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30대는 팬데믹 이전에는 대체로 평균보다 우호적이었고, 이후에도 평균보다 적대적이지는 않다. 다음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란 질문에 “도움이 된다”를 선택한 비율을 세대별로 나타낸 그래프다.

〈그림 7〉 “중국 부상=한반도 평화에 도움” 선택 비율



앞선 설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중요도 인식과 관련된 이 조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30과 전체평균 간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0대가 20대보다도 중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오히려 팬데믹 이후 30대의 중국 중요도 인식은 빠르게 증가해 현재 한국인 평균을 상회한다. 이러한 경향은 20대에도 적용되어, 2022년 현재 20대의 인식은 한국인 평균에 근접한 상태다. 지면 관계상 다 밝힐 수 없지만, 유사한 패턴이 다른 설문들에서도 반복되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20대와 30대 ‘모두’ 주변국 중 중국을 ‘가장’ 싫어하고, ‘중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한다’는 언론보도도, 2030세대가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한다는 주장도 통계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0대는 중국을 가장 싫어하고, 중국보다 일본을 선호하지만, 30대는 그렇지 않다. 20대의 경우 반중 정서가 기성세대보다 크고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30대는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기성세대보다 중국에 더 우호적인 경우도 빈번했다. 또, 언론이 기점으로 삼은 팬데믹 이후 반중 정서의 급증은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로, 경향이나 정도에 있어 203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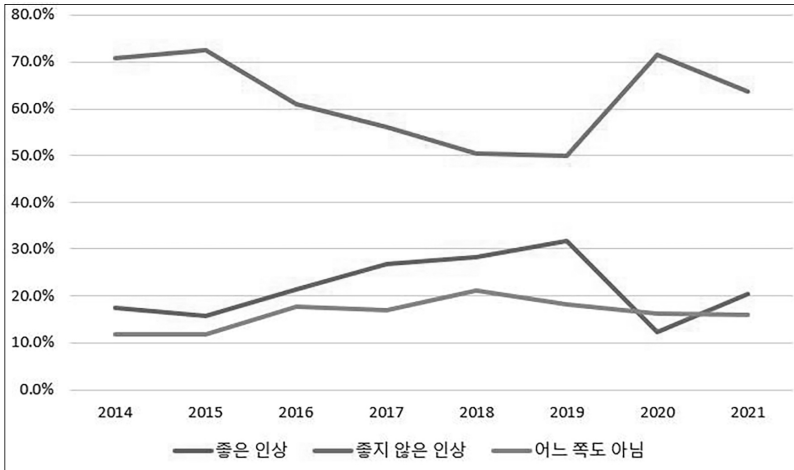
대와 한국인 평균 사이의 차이도 언론이 강조한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특히 30대의 경우, 인상이나 정서 같은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중요도를 분리해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처럼 중국 인식과 관련해 20대와 30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바, 이를 2030이나 MZ세대의 공통된 특성으로 일반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III. 한국 청년세대의 일본 인식 : 인식의 디커플링과 일상 속 투트랙 전략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식민지배 역사와 관련된 양국 간 특수관계로 인해 반일(反日) 감정은 한국인에게 일종의 상수로 존재해왔다. 수교 이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고, 특히 2012년 평화헌법 개정과 보통국가화를 표방한 아베 내각의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험로를 걸어왔다. 물론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단계적으로 이뤄진 한국 내 일본문화 개방, 일본 내 한류 유행 등 활발한 문화교류, 해외여행과 관광을 통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체험 등이 축적된 결과, 한국인의 일본 친밀도가 예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역사-정치문제의 여전한 파급력은 양국 관계에 엄연한 현실로 존재한다.

근래의 사건으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로 인한 양국 간 무역분쟁과 한국 내 광범위한 No Japan 운동 등이 한국인의 일본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기간효과로 작용했다. 특히 강제동원 판결 및 (그 맞대응으로서) 수출규제조치는 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

〈그림 8〉 한국인의 일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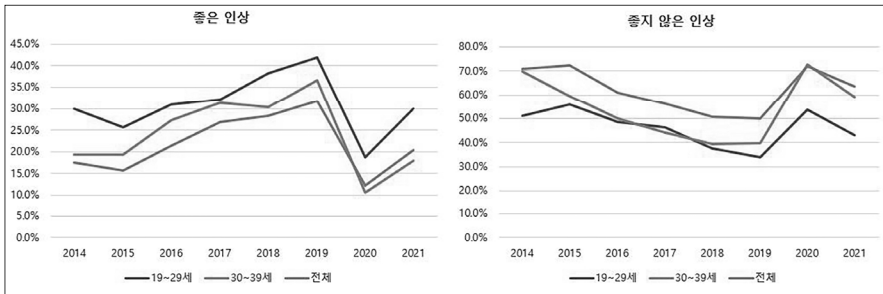
정(GSOMIA)에도 영향을 미쳐 역사-경제-안보가 밀접히 연계된 복합갈등으로 증폭되었다. 한일 양국이 2019년 이후 ‘수교 이래 최악의 관계’에 놓인 것은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반영한다.¹³⁾ 한국인의 일본 인식의 변화 과정을 장기추적해온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림 8〉은 “일본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한국인(전체 평균)의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8년 전(全) 기간에 걸쳐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한국인이 ‘좋은 인상’을 가진 한국인보다 훨씬 많다. 2015년 최고치에 달했던 일본 비호감도는 이후 조금씩 완화되다가 2019년 사건 이후 다시 정점을 찍고

13) 한국인의 일본 인식에 영향을 미친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오승희, 「한국 젊은층의 일본관 변화와 문화적 요인 분석: ‘상호 혐오의 악순환’을 넘어」 『日本文化學報』 제87집 (2020), 139~140쪽, 143~148쪽; 석주희, 「한류와 혐오: 청년세대(MZ세대)의 역설」 『EAI 워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8~10쪽; 조은일, 「청년세대(MZ세대)가 바라보는 한일 안보관계」 『EAI 워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1~2쪽 참조.

현재 서서히 회복되는 중이다. 그렇다면 청년세대의 경우는 어떨까. 위의 결과를 세대별로 구분해 나타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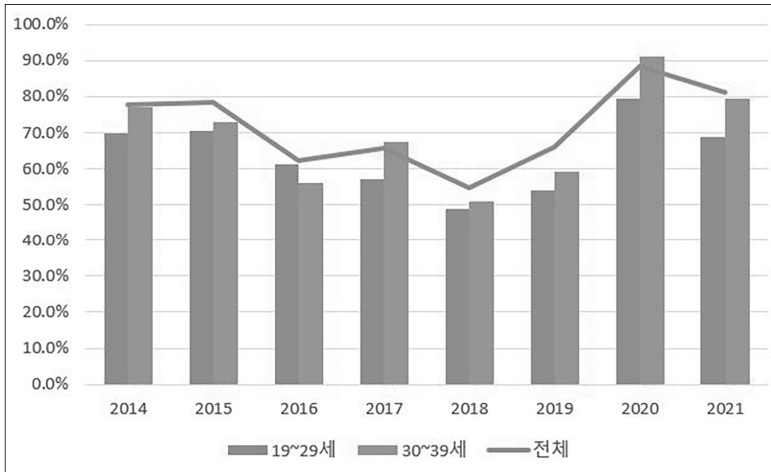
〈그림 9〉 한국인의 일본 인상: 세대별 비교



호감도 변화의 '경향'에 있어서는 2030세대 역시 한국인 평균과 일치한다. 비호감 비율이 호감 비율보다 큰 것도 일치한다.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프에서 20대는 '좋은 인상'의 경우 평균보다 위에, '좋지 않은 인상'의 경우 평균보다 아래 위치한다. 전체평균과의 차이도 10-20%p 사이를 오간다. 즉, 20대는 한국인 평균보다 일본에 훨씬 더 긍정적이며, 그 결과 심지어 2018년과 2019년에는 '좋은 인상'을 가진 20대(각 38.2%-41.9%)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20대(37.7%-33.9%)보다도 더 많았다. 이는 전 기간 모든 세대를 걸쳐 유일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한편, 30대는 경향적으로는 20대와 일치하나, 정도에 있어서는 20대와 전체평균 사이에 위치한다.

20대의 높은 일본 호감도는 한일관계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음은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 중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을 세대별로 비교한 그래프다.

〈그림 10〉 “현재 한일관계=나쁘다” 응답 비율



한국인 평균의 경우, 모든 조사시기에 걸쳐 한일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고, 수출규제조치 직후인 2020년의 경우엔 90%에 육박한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그 비율은 평균보다 일관되게 낮다. 즉, 한국인 평균보다 (조사 당시) 한일관계에 대해 항상 더 긍정적이다. 30대의 경우도 경향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정도나 일관성에 있어 20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사한 결과가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더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경우, 전체평균이 27.6%였는데 반해 20대는 17.7%로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었다. 반면, 30대는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은 29.8%로 일관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20대와 30대, 특히 20대가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인다는 언론의 보도는 통계적 사실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일본을 좋아하는 것일까. 2021년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가진 이유”를 묻은 조사에서 한국인 평균은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을 1위로,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어이어서”를 2위로 꼽았다. 반면 20대의 경우 1위는 “특별한 이유 없다”, 즉, ‘이유 없이 좋다’였고, 2030대 공히 “일본문화”가 3위에 올랐다.¹⁴⁾ 2030세대의 일본 호감도가 문화 체험이나 직접 경험을 통한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로 주로 구성됨을 추론할 수 있다.

이제 2030세대의 높은 일본 호감도와 역사·정치문제 간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2019년 대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률을 세대별로 정리한 것이다.¹⁵⁾

〈표 1〉 대일 정책 우선순위 (2019)

	대법원 강제동원판결에 따른 해법마련	수출규제 조치 등 양 국간 무역분쟁 해소	위안부 등 역사문제 해결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 회복
19-29세	6.3	18.4	48.1	10.8
30-39세	7.0	24.0	43.9	11.7
40-49세	9.3	33.8	32.8	12.3
50-59세	12.4	32.2	24.8	22.8
60-69세	10.5	32.0	19.7	23.2
70세 이상	24.3	43.2	8.1	10.8

출처: 윤석정, 「청년세대(MZ세대)와 일본국·위안부·문제」, 『EAI 워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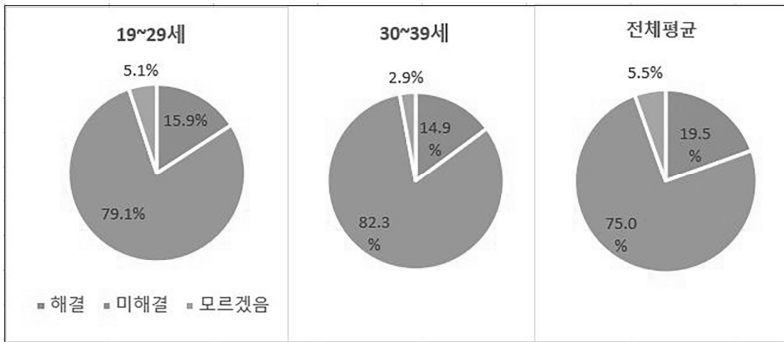
한국 정부가 대일 정책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40대 이상의 모든 세대가 무역분쟁 해소 등의 ‘경제문제’를 꼽은 데 반해, 2030은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비율은 30대보다 20대에서 더 높았다. 기성세대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는 2030 역시 양국 간 민감한 역사·정치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도 인식이 있어서는 오히려 기성세대를 넘어섬이 확인된 것이다.

14)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EAI & 켄론 NPO, 2021).

15) 표의 1항은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이고, 강제동원 문제는 3항인 ‘위안부 등 역사문제 해결’ 항목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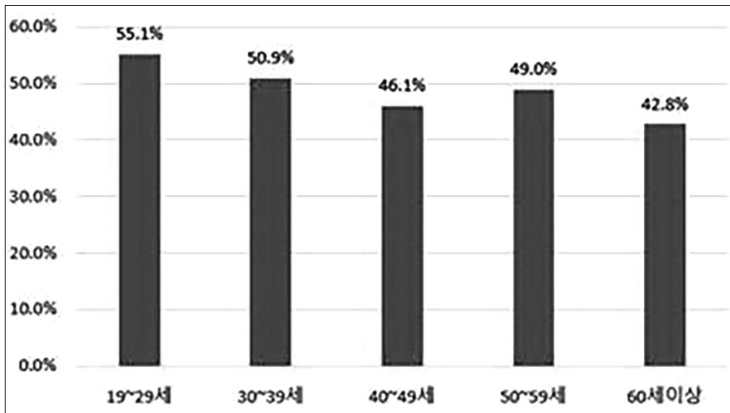
구체적 사례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살펴보자. 2017년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합의에 대한 2030의 인식 ‘경향은 한국인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해당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의 ‘정도’는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높았다 (<그림 11>). 또,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2015년 합의의 폐기와) 재협상이라는 가장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이 전(全) 세대를 통틀어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12>).

<그림 11>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비율



위와 유사한 경향과 특성이 다른 이슈들, 즉, 2019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과 무역분쟁 관련 사안이나 영토분쟁 문제(독도)에서도 반복 확인되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2030세대의 높은 일본 호감도가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도, 역사문제에 비례 적용되는 특성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세대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이슈 등 역사문제에 대해 기성세대와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거나, 때로는 더 민감하고 원칙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청년세대에 고유한 젠더의식 및 인권 감수성과 무관치 않다. 앞서 한국 청년세대가 중국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중요도를

〈그림 12〉 20대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선택 비율



분리 인식했다면,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정치와 사회·문화를 분리 평가하는 ‘인식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세대는 대일 정책의 핵심으로 거론되어온 ‘정치와 경제, 역사와 문화 간 투트랙 전략’을 일상에서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V. 결론: 세대론의 함정을 넘어서

본문을 통해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사실 정합성 여부를 학술기관의 장기조사데이터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해보았다. 먼저, 중국 인식 관련 ‘세대 간 비교’의 경우, 2030세대의 반중 정서는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와 시기적, 경향적으로 일치하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기성세대 또는 한국인 평균과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극적인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청년) 세대 내 비교’의 경우, 중

국 비호감도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일관되게 나타났다면, 30대에서는 뚜렷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다. 특히 30대는 감정이나 인상 같은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중요도를 분리해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후자에 있어서는 한국인 평균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러한 차이는 30대의 경우 인구학적 재생산(결혼/출산)과 사회적 재생산(구직/취업) 시기에 본격 진입한 연령대로 20대보다 현실적이고 복합적 판단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대는 한국 대학 내 중국 유학생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게 된 상황이 부정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록금 동결, 국가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로 중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고, 그 결과 2019년 기준 중국 유학생 수가 7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학점체계, 조별과제 수행의 어려움 등이 야기한 학점 공정성이나 역차별 논란, 홍콩 민주화 시위 같은 현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문화 차이 등 다양한 갈등을 직접 체험하게 된 상황이 주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¹⁶⁾

결론적으로 중국 인식과 관련해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1) 세대 ‘간’ 차이는 기간효과의 보편성을 압도할 정도로 ‘크지 않은’ 반면, 2) 세대 ‘내’ 차이는 ‘2030’이나 ‘MZ세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일반화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20대와 30대 사이에 통약 불가능한 차이가 존재하는바, 이를 간과한 채 두 세대를 뭉뚱그려 ‘2030이 국내 반중을 주도한다’거나, ‘2030은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청년세대의 일본 인식도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와 시기적, 경향적으로 일치하며 기간효과의 영향력 아래 존재했다. 하지만 중국과 달

16) 조의행, 「MZ세대의 반중감정」, 191~192쪽 참조.

리, 20대와 30대 공히 일본 호감도가 한국인 평균보다 높았으며, 20대에서 그 정도가 크고 일관되게 드러났다면 30대는 20대와 전체평균 사이에 위치했다. 따라서 2030세대가 한국인 평균의 대일 호감도 상승을 견인한다는 언론 보도는 통계적 사실에 부합한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높은 호감도가 역사나 정치 영역에 비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그들이 기성세대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역사나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인 평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욱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도 빈번했다. 연령효과가 기간효과를 압도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통계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이슈 등 역사문제에 대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세대 고유의 높은 젠더-인권 감수성, 즉, 또 다른 차원의 연령효과가 기간효과와 상승 작용하며 그들의 대일 인식과 태도를 형성함을 추론케한다.

한국 청년세대가 중국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중요도를 분리해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정치와 사회·문화를 분리해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인식의 디커플링’ 현상, 즉, 일본 정부·지도자와 일본 사회·일본인을 구분해 평가하는 것은 최근 한국 사회 전반에 보편적인 현상이긴 하다. 예를 들어, 한일 위기가 고조된 2019년 아베 신조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3%(비호감도 79.3%)에 불과했지만, 일본 사회 전체에 대한 호감도는 31.7%로 열 배에 달했다. “정부와 민간의 디커플링”¹⁷⁾이라 명명된 이 현상이 청년세대에게는 역사·정치와 사회·문화 인식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최대화된 것이다. 따라서 청년세대는 대일 정책의 핵심으로 거론되어온 ‘정치와 경제, 역

17) 손열 외, 「위기의 한일관계,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제7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및 <제7회 한일미래대화> 논의 분석」 『EAI 이슈브리핑』 (2019년 6월 28일), 6-7쪽.

사와 문화 간 투트랙 전략을 이미 일상에서 자생적으로 선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학술기관의 장기조사데이터를 통한 검증결과는 미디어가 주장하는 현실과 여러 차원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괴리의 연원은 세대론 자체가 노정하는 한계와 무관치 않다. 세대는 사회변동 포착에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지만, 세대론의 함정도 만만치 않다. 세대 특성을 강조하는 세대론은 같은 세대 내의 차이는 지우고, 다른 세대와의 차이는 키우는 ‘세대주의(generationalism)’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는 한 세대의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질화 편향, 세대 간 차이를 절대화하는 배타주의적 경향, 모든 것을 세대문제로 귀착시키는 환원주의적 편향 등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 차이의 과잉표상’은 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유발하거나 때로 조장한다. 세대론 생산의 3대 주체가 ‘언론, 기업, 정치권’인 점도 이와 관련이 깊다. 언론은 이슈 메이킹, 기업은 소비자 타겟팅, 정치권은 유권자 헌팅을 위해 세대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 유포한다. 삼자의 목표에는 차이를 부각하고 편을 가르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이들이 세대론에 적극적인 이유이자, 이를 경계해야 할 이유기도 하다.¹⁸⁾

특히 한국의 경우 이는 더욱 문제적이다. 한국은 위 세 요소 중 언론과 정치의 긴밀한 연동이 두드러지며, 이 연쇄가 주변국 인식까지 수렴해 세대주의의 골을 더욱 확대, 심화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중동-정치적 보수 친미/반중’, ‘경향 및 한겨레-정치적 진보-반미/친중’의 연쇄가 그

18) 세대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박재홍,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통권 제81호 (2009년 봄호), 11~31쪽;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31~49쪽; 김선기,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사회』 제17권 (2014), 207~240쪽; 박치완,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8~38쪽 참조.

것이다. 이 3중 연쇄는 주변국 인식에 나타나는 세대 내 차이를 함부로 기각하거나, 세대 간 불필요한 차이를 발명한다. 그 결과 특정 세대의 특성이 과대 표상된다. 외부와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내부의 차이를 덮는 세대주의의 가장 큰 위험성은 그것이 자주 현실의 (의도된) 오인이나 왜곡으로 귀착된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앞서 확인한바, 중국 관련 한국의 20대와 30대 사이에도 청년 세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기각될 수 없는 다양한 차이와 균열이 존재한다. 이 차이의 의미는 신중하게 숙고되고, 발전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언론의 반복되는 보도를 통해 마치 한국의 젊은 세대 전체가 ‘반중 전선의 전위부대’인 것처럼 각인되는 상황은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한국 청년세대의 일본 친근감, 이에 기반해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실현된 투트랙 전략을 최대 위기에 놓인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의 특성을 세대 간, 또는 세대 내 차이와 유사성 속에 신중하게 포착해 해당국 대상 외교 정책에 유익한 참조점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접수: 2023년 1월 21일 / 심사: 2023년 3월 1일 / 게재 확장: 2023년 3월 6일

【참고문헌】

- 김효정, 『MZ세대가 쓴 MZ세대 사용설명서』, 서울: 넥서스BIZ, 2022.
- 김선기,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사회』 제17권, 2014, 207~248쪽.
- 김성희,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기रो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의식조사 학술회의, 2022년 9월 27일.
- 김정은, 「'짱깨'와 '빵즈'의 간극: 'BTS 논란'을 통해 나타난 한·중 문화교류의 '사상누각」 『韓中言語文化研究』 第59輯, 2022, 235~260쪽.
- 박시내, 박혜균, 「MZ세대의 생활 환경: 생활비 원천, 주거실태」, 『KOSTAT 통계플러스』, vol. 17, 2022 봄호, 32~47쪽.
- 박재홍,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통권 제81호, 2009년 봄호, 10~34쪽.
-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제24권 2호, 2001, 47~78쪽.
- 박치완,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문화콘텐츠연구』 제16호, 2019, 7~43쪽.
- 석주희, 「한류와 혐오: 청년세대(MZ세대)의 역설」 『EAI 워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 손열 외, 「위기의 한일관계,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제7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및 <제7회 한일미래대화> 논의 분석」 『EAI 이슈브리핑』, 2019년 6월 28일.
- 양승훈, 「MZ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철학과현실』 제132호, 2022, 77~94쪽.
- 오기성, 「MZ세대 통일의식 제고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2022, 79~101쪽.
- 오승희, 「일본의 MZ세대가 바라보는 세계와 한국: 나다움, 가치소비, 공감연결」 『지식의비평』 제32호, 2022, 1~20쪽.
- 오승희, 「한국 젊은 층의 일본관 변화와 문화적 요인 분석: '상호 혐오의 악순환'을 넘어」 『日本文化學報』 제87집, 2020, 139~158쪽.

- 윤석정, 「청년세대(MZ세대)와 일본국'위안부'문제」 『EAI 워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 사회학』 제38집 5호, 2004, 31~52쪽.
- 조은일, 「청년세대(MZ세대)가 바라보는 한일 안보관계」 『EAI 워킹페이퍼』, 2020년 8월 11일.
- 조의행, 「MZ세대의 반중감정: 그 현황과 전망」 『역사와융합』 제10집, 2022, 175~208쪽.
- 차정미,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변화와 그 요인」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10~45쪽.
- 하남석, 「중국의 청년 세대: 애국과 소비의 주체를 넘어서」 『지식의비평』 제32호, 2022, 1~15쪽.
- Kertzer, D.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1983), pp. 125-149.
- Prensky, M.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vol. 9, no. 5 (2001), pp. 2-6.
- 권민지, 「가장 싫은 나라 중국, 북한은 남...MZ세대 모든 것」 『국민일보』 (온라인), 2021년 6월 25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7855>>
- 김서윤, 「586은 반미, 우리는 반중! MZ세대의 중국 혐오를 키운 것은?」 『주간조선』 (온라인), 2021년 5월 24일,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76>>.
- 박현주, 「한국인 "일본 싫다" 8%p 줄고 "중국 싫다" 14%p 증가」 『중앙일보』 (온라인), 2021년 9월 2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516>>.
- 이오성,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시사IN』 (온라인), 2021년 6월 17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 유지혜, 정진우, 박현주, 「2030 열명 중 여섯 "中 싫다"...미래세대 반중감정 치솟았다」 『중앙일보』 (온라인), 2021년 1월 1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759>>.
- 조영빈,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2030세대 "中이 더 싫다"」 『한국일

보』(온라인), 2021년 6월 1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11510002670>>.

조영빈, 「한중수교 30주년: 한국·중국은 왜 서로를 더 싫어하나...양국 MZ에 물었다」 『한국일보』(온라인), 2022년 8월 23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523100002978>>.

최은미, 「MZ세대와 韓·日관계」 『세계일보』(온라인), 2022년 1월 6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06515175?OutUrl=daum>>.

Pew Research Center,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October 2020),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

* 통계 데이터

동아시아연구원 & 켄론 NPO,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2013-202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07-2022).

Korean Younger Generation's Perception of China and Japan : Focusing on the Fact-checking of Korean Media Reports

Lee, Moon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work aims to statistically confirm whether the media report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China and Japan in the 2030 generation of Korea are in accordance with the facts through the analysis of long-term survey data of academic institutions, IPUS's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2007-2022)* & EAI and Genron NPO's *Survey on Mutual Perceptions of South Korea and Japan(2013-2021)*. The anti-Chinese sentiment of the 2030 generation coincided with the overall trend of Korean society in terms of timing and tendency, and did not show a dramatic difference from the older generation in terms of degree. While unfavorability toward China was prominent and consistent amongst the 20s,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recognize personal emotions and importance separately in the 30s. It turned out that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was smaller and the difference within generations was larger than those claimed in media reports. Meanwhile, Koreans in the 20s and 30s showed a higher level of favorability for Japan than the average Korean. While the extent and tendency were large and consistent among the 20s, those in their 30s were located between

the 20s and the average. However, despite the high favorability, it can be said that the 2030 generation is taking a “two-track strategy” in their daily lives, for the younger generation often maintained a tougher position than the older generation in historical and political issues. The results show a considerable difference from the reality claimed by the media, and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generationalism that cause this gap.

Keywords: younger generation, 2030 generation, perception of China, perception of Japan,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Survey on Mutual Perceptions of South Korea and Japan

이문영 (Lee, Moonyoung)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노어노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M. 바흐친의 대화주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 인문학과 평화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장 보고

분단선 현장 속의 전쟁·평화와 생태

김재한 (한림대)

오늘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담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외국 사례 중 하나는 아마도 독일일 것이다. 독일은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고 전쟁 위기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공한 통일·평화 현장으로 설명되며, 반면 한국은 실패의 현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선입관보다는, 통일 및 평화의 원리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전쟁 vs 평화, 통일 vs 분단, 개발 vs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독일과 한반도 현장을 살펴본다.

I. 전쟁과 독일의 통일·분단

분단과 통일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처럼, 선행과 후행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통일이 선행되지 않았으면 분단이라고 잘 불리지 않는다. 고대 로마와 중세 신성로마제국이 존재했다는 인지와 믿음이 있었기에 19세기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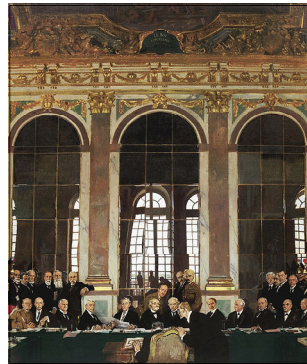
리아 통일과 독일 통일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통일은 대체로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부에서 통일 독일의 첫 사례로 언급되는 신성로마제국 자체가 여러 전쟁을 통해 성립된 정치체였다. 근대적 의미의 통일 사례로 여겨지는 1871년 독일 통일에서는 전쟁 승리가 통일의 주된 동인이었다. 1862년 덴마크와의 전쟁,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1870년 프랑스와의 전쟁은 흔히 제1차 독일통일전쟁, 제2차 독일통일전쟁, 제3차 독일통일전쟁으로 각각 불릴 정도로 독일 통일의 직접적 과정이었다. 그래서 전쟁을 통일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반대로 전쟁이 분단의 원인이 되기도 함은 독일 사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은 전후 독일 분단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스탈린 소련 의장의 3국 정상은 독일을 분할 점령하기로 합의하였다.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7월 1일 연합군



1871년 1월 28일 프랑스가 자랑하던 베르사유궁전 거울홀에서 치르진 통일 독일제국 선포식. 당시 독일 통일이 독일에 영광, 인접국 프랑스에는 치욕이었다. 출처: 베르너(Anton von Werner) 그림, 위키미디어.



1919년 6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제1차 세계대전 강화조약 체결 모습. 독일에 가혹했던 조약 체결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독일 패전, 독일 분단 등으로 이어졌다. 출처: 오르펜(William Orpen) 그림, 위키미디어.

은 독일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구역안을 발표하였다. 본래 프랑스는 소련의 반대로 독일 점령국 지위를 얻지 못하다가 미국과 영국의 점령구역 일부를 이양받는 방식으로 독일 점령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1949년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리하던 점령구역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영토로, 소련이 관리하던 점령구역은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영토로 귀속됨으로써, 패전국 점령 관리 목적의 분할선이 패전국 분단선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20세기 중반 독일의 분단은 전쟁, 구체적으로 패전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독일 분단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불리던 냉전에 의해 지속되었다. 오늘날까지 보전되고 있는 대표적인 동서독 분단선 현장은 서독 바이에른(Bayern)주와 동독 작센(Sachsen)주 사이의 뫼들라로이트(Mödlareuth)이다. 분단선 상의 마을 대다수는 동독 정부에 의해 건물이 철거되고 동독 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주되었는데, 50여 명의 작은 마을 뫼들라로이트는 국제여론이 주시하던 곳이라 주민의 강제 이주가 실천되지 못했다. 1952년 뫼들라로이트 마을에 목재 담이 세워졌고, 1966년 콘크리트 장벽으로 바뀌었다. 이 분단선으로 인해 80m 거리에 있는 장벽 건너편 같은 마을로 가려면 80km의 긴 우회로를 이용해야 했었다.



리틀 베를린으로 불리는 뫼들라로이트 마을. 통일 이후 마을(오른쪽 사진)에는 분단 시절 마을 모습의 큰 사진(왼쪽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서울: 아마존의 나비, 2015), 86쪽.

II. 독일 통일과 생태평화

동서독 분단선은 독일 내에서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경계선이었다. 확장해서 보자면,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과 서유럽의 자유 진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다. 이른바 철의 장막(Iron Curtain)이었다. 철의 장막 위치는 약간 다르게 주장되기도 한다. 유고슬라비아를 공산 진영에 포함한 철의 장막 위치도 있고, 비교적 독립적인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를 공산 진영에서 제외한 철의 장막 위치도 있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지원으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하였고, 1990년 7월 1일 독일은 동서독을 나누는 철의 장막을 공식적으로 철폐하였다.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동서독 분단선 지역 다수가 국립공원 또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종(種) 보전을 중시하는 독일 환경자연단체 분트(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BUND)는 동서독 분단선을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 즉 그린벨트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



하르츠(Harz) 산악지대 조르게(Sorge) 그뤼네스반트에 설치된 안내판.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224쪽.



그뤼네스반트 도로가에 설치된 유럽그린벨트(철의 장막) 안내판.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225쪽.



동독 국경수비대의 감시 초소로 활용되던 한슈타인성(Burg Hanstein)에서 본 동서독 경계선. 한슈타인성에 가까운 누런 들판들 사이로 동서독 경계선이 지나갔다. 인근 동서독 주민 모두 높은 성곽의 한슈타인성을 바라볼 수는 있었으나 성곽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출처: 김규환·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147쪽.

진하였다. 독일뿐 아니라 멀리는 핀란드까지 약 15,000km 길이의 철의 장막을 생태환경보전의 유럽그린벨트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서 유럽 간 냉전의 최전선이 오늘날에는 유럽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생태환경 벨트로 기능하고 있다.

동서독 분단선 대부분이 주(州) 경계선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독 경계선은 구릉지대가 적지 않고 인구도 조밀하지 않아,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보전되었다. 분단 시절, 동서독 분단선 주변은 도로가 폐쇄되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쉽지 않았다. 동서독으로 분단되기 전에는 약 40개의 철로, 약 30개의 고속도로 및 국도, 약 140개의 지방도로 등이 동서로 연결되고 있었다. 작은 도로까지 포함하면 매우 많은 연결로가 있었다. 그러다가 분단 이후 동독 정부가 여러 연결로를 차단함



조르게 그뤼네스반트에서 북쪽으로 촬영한 사진. 왼쪽 철책선이 동서독 경계선이었고, 가운데는 동독의 완충지대와 감시탑 시설이었다.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97쪽.



조르게 그뤼네스반트에서 남쪽으로 촬영한 사진. 오른쪽 산림은 서독지역이었고, 왼쪽 산림과 가운데 완충지대는 동독지역이었다.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224쪽.

에 따라 10개의 도로(고속도로 4개 포함), 8개의 철로, 2개의 운하, 3개의 항공로만이 동서독 경계선을 통과했다. 동서 베를린 간에는 8개의 연결로가 허용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연결 차단은 생태계의 보전 또는 복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동독 정부는 동서독 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좁게는 20m, 넓게는 2km 정도 떨어져 담을 다시 세웠다. 동독 내벽의 바깥쪽도 동독의 관할 구역이라 보수정비가 가능하였고, 동독 경비대가 동독 내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에게 발포하더라도 총알이 서독 땅까지 잘 가지 않게 되었다. 또 동독 정부는 동서독 경계선 바로 동쪽 지역에 수목을 제거하여 50~200m 폭의 완충지대(순찰로 포함)를 조성하고 감시탑을 세워 동독인의 탈출을 감시하였다. 동독 국경수비대 대원을 포함해서 아무도 동독을 탈출할 수 없도록 동서독 경계선과 동독 내벽의 사이 공간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에 달리 동서독 경계선의 서쪽에는 요새, 순찰로, 지뢰 등이 거의 없었다. “위험! 국경지역!(Achtung! Zonengrenze!)” 또는 “정지! 여기는 국경지역임(Halt! Hier Zonengrenze)”과 같은 경고판만 설치되었다. 독어 및

영어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알리는 표지판은 있었으나 경계선까지 접근하는 데에 물리적 장애물은 거의 없었다.

분단 시절의 동서독 분단선에는 한반도 비무장지대와 같은 무장된 군대가 서로 대치하지는 않았다. 헤센(Hessen)주와 튀링겐(Thüringen)주 사이의 포인트알파(Point Alpha)처럼 나토 동맹군과 바르샤바 동맹군이 서로 대치하던 경계선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통일 이후에는 교류 및 왕복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생태적으로도 연결이 보전되고 있다. 오늘날 동서독 경계선 현장은 그뤼네스반트 또는 생태 벨트로 치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분단 시절 동서독 간의 그뤼네스반트 생태협력 때문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국내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Ⅲ. 한반도 분단선의 전쟁과 생태

동서독 분단처럼, 한반도 역시 전쟁으로 인해 분단되었다. 반면 패전국 독일과 달리, 한반도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라는 이유로 북위 38도선 기준으로 분할 점령되었다. 38선이라는 분단선은 1950년 전쟁 발발로 사라졌고, 오늘날 기념비로만 존재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북한 분단선은 38선에서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로 대체되었다. 군사분계선을 지도가 아닌 현장에서 관찰하기는 어렵다. 임진강 강변의 제1호 표식물부터 시작하여 동해안의 제1,292호 표식물까지 약 200m 간격의 표식물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 대신, 현장에서 관찰되는 분단선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책인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남북한계선



연천, 인제, 양양의 38선 기념비.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69쪽.

이다.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은 여러 겹의 철책으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여 현장에서 관찰되기 어렵다. 남방한계선 철책 역시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정확히 2km 떨어져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전협정에서 규정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 보기 어려움도 물론이다.

분단은 전쟁으로 고착되기도 한다. 3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 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무력 충돌은 바로 종식되지 못했고 오랜 정전 상태로 분단이 일상화되었다. 분단선 현장에도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비무장 의무에 위반되는 무장된 군사적 대치가 이어졌다.

군사적 대치는 분단선 지역의 인간 출입을 제한했고 이에 따라 생태계가 복원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이 남북한 분단선 지



최동단의 제1,292호 군사분계선 표시관 말뚝.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80쪽.



북한강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표시관.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82쪽.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부근의 생태환경.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100, 89, 60쪽.

역의 생태 보전 또는 복원을 방해할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군사적 대치가 생태환경을 무조건 보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현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모습뿐 아니라, 비무장지대 안의 생태환경이 비무장지대 바깥의 생태환경보다 덜 풍성함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남북 양측이 시계(視界)와 사계(射界)를 확보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안의 수목을 거의 정기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판 철의 장막은 죽의 장막(Bamboo Curtain)이다. 중국에 인접한 자유 진영 국가와 중국 간의 장벽을 중국의 상징인 대나무에 비유해 부른 명칭이다. 동서독 경계선이 철의 장막에 포함되었듯이,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죽의 장막에 포함되었다.

철의 장막과 유사한 명칭의 장소가 남북한 분단선에 있는데, 바로 철의 삼각지(iron Triangle)이다. 전쟁 당시 평강, 철원, 김화로 이어지는 북측 삼각 축선이 공략하기 어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늘날 철의 삼각지는 세계적인 생태환경 현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의 월동지이기 때문이다. 인간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생태환경 가치가 무조건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두루미 개체들



철의 삼각지에서 탐조되는 쇠기러기,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군집.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230~231쪽.

이 철원에 월동하게 된 계기는 철원평야의 농사방식이 기계식으로 바뀌어 추수 후 낱알이 논밭에 많이 남게 되면서였다. 두루미뿐 아니라 독수리 역시 현지 마을의 인위적인 먹이 공급에 따라 월동 개체 수가 늘어났다. 인간의 거주와 생산활동이 생태환경에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 것이다.

철새의 생태적 가치는 특정 지역뿐 아니라 서식지 등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냉전 시대 철의 장막이 오늘날 유럽 생태 벨트로 바뀌듯이, 철의 삼각지 역시 생태네트워크로 확장될 수도 있다. 철새 네트워크와 같은 남북 네트워크뿐 아니라 만리장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 동해 북방한계선, 독도, 일본 열도 등으로 연결되는 동서 네트워크도 구축될 수 있다.

※※※

전쟁·평화와 통일·분단 간의 관계는 다양하다. 독일 통일의 현장만 봐도, 전쟁과 통일이 함께하기도 했고, 반대로 평화와 통일이 함께하기도 했다. 20세기 중반 한반도 분단은 전쟁 종식으로 시작되었다가 새로운

전쟁으로 고착화되었다. 전쟁과 평화의 축 그리고 분단과 통일의 축은 연관되면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과 평화를 함께 얻을 수도 있고, 그중 하나만 얻을 수도 있으며, 둘 다를 잃을 수도 있다. 어떤 통일, 어떤 평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전쟁·평화와 개발·보전 간의 관계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기도 하고, 순행의 관계와 역행의 관계가 뒤섞여 있어, 생태평화의 개념으로 그 인과관계를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¹⁾ 통일·분단과 생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전쟁·평화, 분단·통일, 개발·보전의 논의에 필요한 것은 선입관 및 진영논리의 감상적 탁상공론보다, 현장적 사실 및 논리적 인과론에 기반한 성찰이다.

1) Chae-Han Kim and Bruce Bueno de Mesquita, "Ecological Security and the Promotion of Peace: A DMZ Eco-Peace Park"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4 (Winter 2015), pp. 539-557.

【참고문헌】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서울: 아마존의 나비, 2015.

Chae-Han Kim and Bruce Bueno de Mesquita, "Ecological Security and the Promotion of Peace: A DMZ Eco-Peace Park"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4 (Winter 2015), pp. 539-557.

베르너(Anton von Werner) 그림,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nton_von_Werner_-_Kaiserproklamation_in_Versailles_1871.jpg>.

오르펜(William Orpen) 그림,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illiam_Orpen_-_The_Signing_of_Peace_in_the_Hall_of_Mirrors.jpg>.

김재한 (Chae-Han Kim)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국내외 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논문과 국내외 출판사에서 100종 이상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그중 12종의 도서가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에 게재한 논문은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 논문 가운데 최다인용으로 일송논문상을 수상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National Fellow, 교육부 국가석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장 보고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도와 DMZ 평화지도

김대일 (리소건축사사무소)

지난 2023년 1월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과 한반도 평화국립대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비무장지대의 평화 미래 만들기, 새로운 시도와 과제>라는 제목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즉 DMZ(Demilitarized zone)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다. DMZ는 역사적, 군사적으로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는 한편, 사람의 왕래가 끊어지면서 생태계가 보존되어 자연이 숨 쉬게 된 역설적 공간이다. 또한 전쟁의 상흔을 딛고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역설적이고 복합적 공간인 만큼 여러 기관과 학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DMZ를 연구해 오고 있는데, 이번 학술회의는 DMZ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맥락과 관점들을 한데 모은 자리였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 <DMZ 평화지대화 논의와 법체계>, 제2부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1>, 제3부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새로

운 시도와 과제-2)라는 주제 아래 역사, 정책, 법률, 지리, 문화, 자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DMZ 평화지도' 제작에 함께한 경험을 계기로 제2부의 세 번째 발제 〈DMZ 평화지도〉 제작의 성과와 과제〉 관련 토론자로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 DMZ에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가 공통의 관심사로 한자리에 모인 학술회의에서는 단순히 여러 이야기를 한 테이블 위에 나열해 놓은 것 이상의 의미가 느껴졌다. 본 글에서는 세션별 발제 내용의 흐름과 학술회의의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필자가 참여했던 'DMZ 평화지도'에 관해 소개하려 한다.

I. 학술회의의 분위기, 세션별 주제와 소감

1. DMZ 평화지대화 논의와 법체계

제1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은 〈DMZ 평화 지대화 관련 그간의 논의(1970년대~2010년대)〉를 주제로 국토의 분단과 DMZ의 설정 과정, DMZ의 공간적 특성과 현안을 설명하고, DMZ 평화지대화에 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DMZ 평화지대화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6·25 전쟁으로 남북한이 분단되며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함으로써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은 여러 차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자연 생태계 보존 방안을 강조하며 남북한 교통망 연결 사업, DMZ평화생태공원, DMZ세계평화공원 등을 구상 및 제안해 왔으나 북한은 DMZ의 평화

적 이용보다는 군사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응답으로 거절을 표시하였다. 현재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인 제재와 남북 관계 단절로 DMZ의 평화지대화 진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발제를 통해 DMZ를 둘러싼 역사적 전개 및 시대별 특성과 한계를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DMZ 평화지대화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부터 대화를 시작하되 남북한 기존 공동관심 분야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관심을 유도한다. 둘째, 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며 국제기구의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및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DMZ 평화지대화 실행은 상호군사적 부담이 적은 분야에서 시작하여 국제기구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번영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책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DMZ 평화지대화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4년에 열릴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계기로 DMZ를 통해 남북한이 만나 평화지대화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부의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 교수는 〈DMZ 평화지대화 법률 체계와 과제〉를 주제로 현재 DMZ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를 소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정책 실현이 가능한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어떠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발표하였다.

현재 DMZ 관련 법률 체계는 군사정전협정, DMZ 관련 남북합의서, 남한의 법률, 북한의 법률, 총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법률 체계에서는 DMZ를 따로 규율하는 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남한의 법률 가운데서도 DMZ를 전제로 한 법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관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역시 DMZ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즉 남한법이든 북한법이든 현재 DMZ에 관한 전속적인, 혹은 특별법으로서의 규범 체계는 사실상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효원 교수는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국내 법적으로는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목적과 추진방향, 범위가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전 금강산 관광과 이를 위해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합의를 체결해 DMZ 관할권에 관한 예외를 도출했던 사례를 들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관할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제1부에서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DMZ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정치적·법적 논의를 살피고, 평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담론과 법률을 검토하였다. 거시적·제도적으로 DMZ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결론적으로는 DMZ 평화지대화를 이야기하려면 구조적 측면에서는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며 남북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관심과 참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한 개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무력감이 들기도 하였다. DMZ를 둘러싼 70여 년의 역사는 길고, 그동안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개인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졌다.

2.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1

앞서 제1부에서 DMZ 관련 정치적·법적 논의를 살펴봤다면 제2부에서는 DMZ를 둘러싼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만나 볼 수 있었다. 제2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NC URI DMZ의 박세영 소장은 <新 통일촌 만들기: 통

일촌 남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제로 도시 관점에서 DMZ의 위치적 특징과 접근성을 살피고, DMZ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 실험공간으로서의 통일촌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1973년도 경기도 파주시 북서부에 군사적 목적과 안전의 문제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통일촌이 세워졌다. 오십 년이 흐른 지금은 사실상 통일촌이 독특한 지역적 특색과 경관에도 불구하고 통일촌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DMZ를 새로운 통일촌과 같이 만들어 남북이 서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박세영 소장은 동북아의 전략적 중심에 있는 한반도, 이런 한반도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문을 여는 DMZ는 동서양이 만나는 새로운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지리적 이유로 DMZ에서 남북한이 만난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또한 DMZ에서 모이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세계 평화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도로와 교통을 고려하여 통일촌과 운천을 통일 시험 마을로 삼고, 남북 마실 마을을 만들어 남북한 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제2부의 두 번째 발제자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소속 지성진 학예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DMZ 조사연구 추진 경과와 과제〉를 주제로 DMZ 세계유산 등재 프로세스에서의 현 위치와 DMZ에 대한 국내외 및 북측 분위기, 한반도 DMZ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DMZ는 백두대간, 도서 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의 하나로서 한반도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DMZ 일원의 70%가 산림지역이며, 서부에는 습지가 중부에는 평원이, 동부에는 산악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지성진 학예관은 이러한 DMZ의 자연환경 연구를 소개하며 세계유산 등재 기준과 이에 부합하는 DMZ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정의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덧붙여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서는 유산이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를 통해 현재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 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과 동시에 등재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제2부의 세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학교 한모니카 교수는 <DMZ 평화지도> 제작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필자도 참여했던 ‘DMZ 평화지도’의 제작 취지와 연구 방법 및 과정을 소개하고 학술회의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사용해 보았다. 발제와 토론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후술 하겠다.

이렇게 제2부에서는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험적인 아이디어와 진행 중인 논의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DMZ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新 통일촌 아이디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세계의 문화유산이 될 DMZ의 미래, 쉽게 갈 수 없는 DMZ를 디지털 공간의 웹 지도를 통해 나만의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DMZ 평화지도’ 모두 이전에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는 논의들이라 생각했다. 제1부에서는 정책과 법적인 담론에 관한 발표를 들으며 개인 한 명 한 명보다는 개인이 모인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제2부에서는 DMZ 평화지대화에 대한 실천적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들었다.

3.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2

제3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의 김상준 박사는 <비무장지대 식생과 남장한계선 불모지 식물 연구>를 주제로 DMZ 자연환경의 특징을 소개하고 훼손지의 상태와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다.

DMZ는 앞서 세계유산등재 관련 발표에서 언급했듯, 백두대간 도서 연안과 함께 세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상준 박사는 식물상 조사를 통해 DMZ 관속식물 분포도를 발견하였고, 현재 DMZ의 불모지 복원을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군부대(육군본부 및 지상작전사령부)와 협력하여 소재식물 중 선정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약 54종의 식물을 발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DMZ 일원의 생태 복원 소재 식물을 대량 증식하기 위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DMZ 야생화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한반도 동-서 생태축 복원을 위한 DMZ 야생화 벨트를 통해 군 작전 여건 보장, 생태 축 복원, 통일 후 생태 관광 활용, 경제 가치 창출 등의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소개하였다.

제3부의 두 번째 발제자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재성 박사는 〈비무장지대 전사자 유품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국전쟁 전사자 유품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 유품 보존처리 사업 현황, 유품의 재질별 보존처리 및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품의 활용 방안 제시를 발표하였다.

2019년 화살머리 고지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 9만 5천여 점의 유품이 발굴되면서 DMZ에서 발굴된 유품의 보존 처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유해 발굴 감식단, 전쟁 기념관과 협업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약 1300여점을 보존 처리한 상태이다. 이재성 박사의 발표를 통해 유품 연구를 통해 유품에 담긴 전사자 신원 확인의 단서를 찾아야 하며, 전사자의 생애와 전쟁의 상을 조명할 수 있도록 보존처리 결과물을 생산하고 학술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재성 박사는 또한 유품 보존과 활용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고 후손으로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제3부에서는 DMZ의 식생과 유품에 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전쟁의 상흔이 남긴 문제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총기나 탄환 등의 전쟁 관련 유품이 남아 있는 곳에서 꽃이 자라고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 DMZ의 역설과 복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DMZ를 중심으로 한 담론에서 통일 또는 대북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큰 주제에서 시작하여 실천적인 방안과 세밀한 주제에까지 종합적, 다층적, 복합적으로 보는 시도가 새롭게 느껴졌다.

II. DMZ 평화지도 제작의 성과와 과제

1. 'DMZ 평화지도' 소개

'DMZ 평화지도'는 DMZ 평화지대화의 최종적 모습인 평화지대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나 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DMZ에 대해 알고 싶고 직접 방문하고 싶지만 이에 반해 DMZ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DMZ라는 공간을 물리적, 직접적으로 가볼 수 없다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했으므로 상상을 가능하게 할 장치로서 디지털 공간에 웹 지도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다.

이전까지 우리가 흔히 사용한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대부분 DMZ와 남북 접경 지역이 불규칙하게 지워진 상태의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국가의 공식 지도가 지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도 무언가 지

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도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것은 기억을 되살리고 나아가 새로운 상상력을 촉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믿고 ‘DMZ 평화지도’ 제작을 진행했다.

‘DMZ 평화지도’는 2020년도부터 통일부의 발주 이후 서울대학교 한모니까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해 왔다. 앞선 발제들에서 언급되었듯 DMZ는 탁월함과 독창성을 가진 공간이다. 이것을 웹 지도에 표현하기 다양한 학문 분과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연구 기관들에서 DMZ에 관련해 축적해 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서 활용하였다.

‘DMZ 평화지도’는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시간들을 망라하고 있다. 주제 면으로는 지리 지역, 역사 문화, 통일 평화, 생태 환경, 인구 취약, 경제 산업 총 6개의 대분류 아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어져 있다. 지도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은 점, 선, 면, 애니메이션과 같은 시각적 기호부터 요약, 설명, 사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았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DMZ의 의미가 무엇인지, 남북 경계의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는 어떠할지를 상상해보기 쉽도록 연구자들이 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DMZ 평화지도’의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도 사용자들은 DMZ의 변화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과거에도 계속 변화해 왔고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듯 DMZ의 관할권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 지도를 통해서 관할권의 차원을 넘어서 이 공간이 모두의 DMZ, 한국인의 공간을 넘어 인류와 자연 생태의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정전협정 지도, 분단 이전의 1910년대 지형도, 한강 하구, 서해 5도, 남측의 접경 시군, 북측의 접경 시군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DMZ를 남북의 단절적인 공간으로서 인식하였다면, 이렇게 접경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와 역사 문화 정보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단절과 연결의

공간, 비평화와 평화의 공간 등 다층적인 레이어를 한 화면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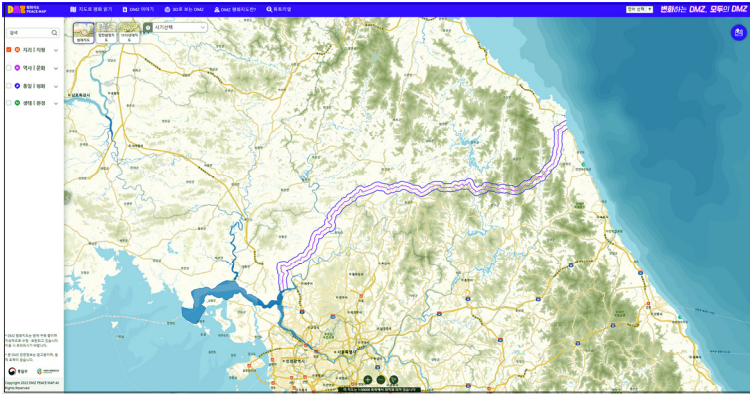
이러한 DMZ 평화지도'는 궁극적으로 '내가 만드는 지도'를 지향한다. DMZ와 DMZ를 둘러싼 공간에서 지도 사용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자신만의 평화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DMZ 평화지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 이용자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볼 수 있으므로, 지도 이용자들마다 만들어가는 지도의 모습은 무척이나 다양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지금까지는 지워져 있던 지도의 공백 부분을 나의 관심사에 따라 채워 나가는 경험을 통해 남북 경계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며, DMZ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공간에 개개인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종합지도는 앞으로의 활용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DMZ 평화지도'가 공개된 이후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DMZ 평화지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육 외에도 연구, 정책, 문화적인 활용 가능성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지도 사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웹 지도의 디자인, 사용성을 위한 기능 보강 또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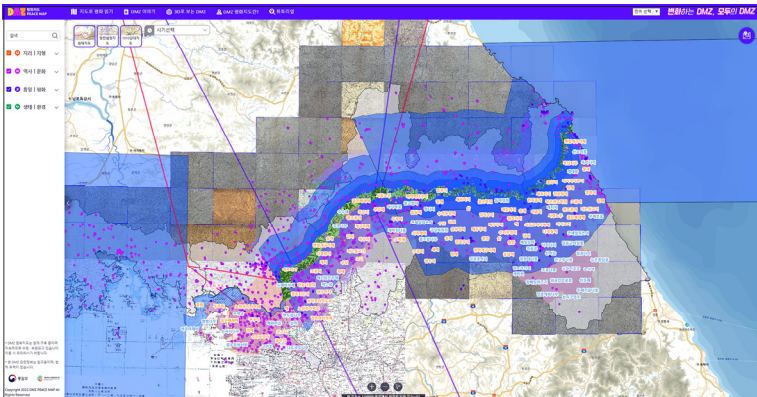
2. 'DMZ 평화지도'의 의미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필자는 잘 알고 있다. 제작에 있어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은 과제에 주목하기보다는 성과를 응원하고 싶다. 'DMZ 평화지도'가 웹 지도 형식으로 탄생한 만큼, 이것이 영원한 베타버전, 미완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

〈그림 1〉 'DMZ 평화지도'의 첫 화면



〈그림 2〉 'DMZ 평화지도'의 정보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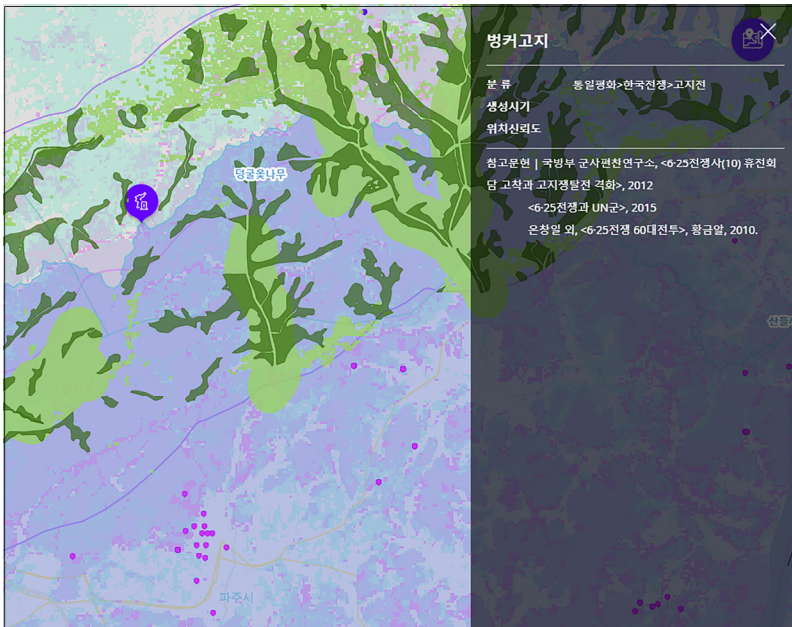


와 학자, 제작자, 개발자, 관리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지도가 되었으면 한다.

‘DMZ 평화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성과 확장성이다. DMZ는 지역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 보통은 전쟁, 생태 등 다른 분야 혹은 관점이 앞서고 그것에 속한 한 항목으로서 DMZ가 다루어지면 DMZ에 대한 평가가 앞선 분야나 관점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지도는 DMZ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모든 분야의 콘텐츠를 담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DMZ의 의미와 가치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콘텐츠를 포괄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콘텐츠를 재생산하면서 DMZ의 개념과 위상도 더욱 풍부해지고 높아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고지전이 있었던 이리고지 옆에 대마리 선사유적과 금강제비꽃이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전에는 같이 그려보지 못한 이미지가 한 장면에 담겨, 이전에는 함께 배치되지 않았던 말들이 배치되며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는 듯한 감동을 받아 마치 시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 또한 사용자 단위에서의 가치 생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3〉 덩굴꽃나무와 병커고지를 함께 볼 수 있는 'DMZ 평화지도'



또한 이 지도의 태도와 성격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 지도는 전문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지도가 되고자 한다. 책에 비유하자면 논문보다는 문고판 같은, 건축에 비유하자면 개가식 도서관 같은 것이다. 전문성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 분야의 학자, 연구자, 전문가가 참여해서 콘텐츠를 아카이빙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생산하였으며, 웹 지도라는 형식에 담기면서 현장에서 지도를 사용하며 보여준 것처럼 사용자 반응형으로 쉽고 직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필자는 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도의 주요 사용자와 타겟층이 누구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이 지도의 사용자는 특정 집단이 아닌 DMZ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DMZ 평화지도'는 남녀노소, 전문가와 비전문가, 내국인과 외국인, 다른 이념과 문화 종교를 모두 종합할 수 있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발제 내용에 나온 것처럼 교육계 등 지도를 알리는 타겟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필자는 DMZ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 또한 'DMZ 평화지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지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진뿐만 아니라 통일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예산과 연구를 배정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덧붙여 'DMZ 평화지도'가 외국어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어 서비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 탄생한 이 지도가 세계로까지 뻗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을 넘어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도가 되기를 바란다.

Ⅲ. DMZ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앞으로의 DMZ

이번 학술회의 〈비무장지대의 평화 미래 만들기, 새로운 시도와 과제〉는 각 연구자의 전문성 있는 발제, 그리고 발제 내용을 심도 있게 만들어 준 토론을 통해 DMZ에 관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그리고 쟁점과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짚어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물론 DMZ 평화지대화까지 가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DMZ의 지뢰 제거 작업, DMZ의 기초조사 등 선행해야 할 절차가 많으며 국내외의 정치적, 군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지도 모른다.

남한은 자연환경보전과 평화여건 조성에 비중을 두고 있고, 국제사회도 생태계 보전을 강조하며 생물권보전지역 설치 및 평화공원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반면, 북한은 군사력 감축과 군사시설 철수, 남북한 불가침에 대한 선언 등을 강조하여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DMZ를 둘러싼 맥락을 훑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시도들을 보면서 DMZ의 평화적 미래가 마냥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다.

앞서 말했지만, DMZ는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펼쳐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한국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DMZ는 조사의 대상, 즉 객체가 되어 사건의 원인을 다루는 특정 분야의 관점 혹은 장소로만 관찰, 조사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공통의 관심사로 모여 여러 이야기를 단순히 한 테이블에 제각기 나열해 놓은 것 이상의 의미

를 만들어 냈다. 종속변수가 아닌 매개변수로서의 DMZ는 멜팅 팟(Melting Pot)이 되어 행위자로서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융합하며 주도적으로 미래 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었다. 이번 학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가 한데 모여 연결되고 새로운 상상과 논의를 촉발한 만큼, 이 동력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간다면, DMZ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고, 'DMZ 평화지도'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비무장지대의 평화 미래 만들기, 새로운 시도와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 제92차 국내학술회의, (2023년 1월 13일)

DMZ 평화지도, <https://universe.go.kr/peacemap/mainPage.do> (검색일: 2023.04.30.)

한모니까, 「DMZ 디지털 콘텐츠와 公衆의 專有-DMZ 평화지도 기획과 구현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45호, 2002, 369~414쪽.

김대일 (KIM, Daeil)

리소건축사사무소 소장, 대한민국 건축사,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강사이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아플리에17을 다녔다. 2015년 피그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였고 2019년에 독립하여 리소건축사사무소를 개소했다.

서평

속고와 통찰, 북한 여성서사의 읽기와 다시 쓰기

『혁명 속 여성, 여성 속 혁명-북한의
여성문학』(김재용·이상경, 소명출판, 2022)
『살아남은 여성이 세상을 만든다-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김성경, 창비, 2023)

유임하 (한국체육대학교)

1. 북한 연구에서 난제 중 난제는 자료이다. 생산된 자료의 공식성 문제에서부터 자료 접근성에 이르는 많은 장벽들은 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절망하게 만든다. 북한의 일상사연구를 시도한 박순성은 총론격의 글에서 북한 자료의 특징을 “권력과 이념이 지배하는 (북한-인용자) 사회에서 당-국가체제의 인위적 생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료를 만드는 자의 의도는 그릇”인데, “그릇은 담겨 있는 물건을 숨길 뿐 아니라, 담겨 있지 않은 물건을 우리의 관심 바깥으로 밀어내버린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자료만을 해독하려는 작업, 곧 “체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드러내려는 (...) 작업은 오히려 북한의 현실을 감추는 작업”이 될

뿐 해독의 한계와 자료를 만드는 자의 의도를 넘어서려 하나, 이미 그들이 만든 세계 속에 갇히고 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¹⁾

연구기관에 속한 전문 연구자나 현장조사 연구자가 아니라면 북한의 공식자료에 접근하는 일조차 만만찮다. “아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북한 연구가 가장 힘든 곳”²⁾이라는 외국인 독립연구자의 탄식(歎息)은 자료의 입수만이 아니라 확보한 자료의 진위 여부와 맥락 파악, 내용 검증의 과정조차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도메인은 물론이고 북한 관련 인터넷 도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현실에서, 2022년 10월, 북한자료를 소장한 기관과 산하 도서관에서는 자료 대부분을 특수 자료로 봉인하여 외부인의 자료 접근을 차단했다.

북한자료에 관한 일련의 조치들은, 인적 교류와 일반인의 상호방문,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 일상문화를 공유하거나 방문연구가 가능했던 독일의 상황과는 여러 모로 대조적이다.³⁾ 냉전 시대의 접근법이었던 북한 자료의 ‘크레믈리노로지(Kremlinology)’⁴⁾는 정보의 파편성과 간접적 추론방식을 지속하면서 확인 불가능한 오보를 반복해서 양산하며 북한에 대한 사회정치적 편견을 구조화해 왔다. 반공 냉전체제의 완강한 제도적 실정력이 북한 관련 학자들의 자율적인 생성과 축적, 효율적 지식생산을 가로막고 한정된 이들에게만 자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북한 학지(學知)의 구성이나 향방조차 크게 왜곡되었다. 북한학의 주류가 체

1) 이상은, 박순성·홍민 편, 『외침과 속삭임-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4쪽.

2) 마틴 와이저, 「난 국가보안법 피해자」 『오마이뉴스』 (온라인), 2021년 11월 1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1942 (2023년 5월 2일 검색)

3) 이희영, 「북한 일상생활 연구자료의 생성과 해석-구술자료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박순성·홍민 편, 『외침과 속삭임-북한의 일상생활세계』, 200쪽.

4) 이봉범, 「냉전과 북한연구,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안팎」 『한국학연구』 제56집 (2020), 40쪽.

제 경쟁의 한 방편으로 설정되면서 국가이념인 주체사상, 사회주의체제론, 국가기구, 제도와 정책에 편중된 것도 이러한 냉전시대의 유산인 검열체제의 작동과 무관하지 않다.

김성보는 60년대 이후 시작된 북한 학지의 냉전적 구성방식과 87년 민주화 이후 전개된 북한 학지의 반냉전적 구성방식에 이르는 개괄을 통해 북한학의 연구 관행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을 “오직 하나의 단일한 성격을 가진 사회로 이해하며, 그 속에 담긴 다원성, 다양성은 무시하거나 간과한”⁵⁾ 점을 비판하며, 전일화되고 일상불란한 전체주의 국가로 바라보는 데 익숙한 북한관을 벗어나려면 남한중심주의를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학의 관점에서 다원성을 담아내는 유연한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문화연구는 학술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프로젝트”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정치체제와 이념 중심의 연구 주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오창은은 “방문기나 탐사보도를 통한 북한 이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상 연구, 대중연구, 욕망과 이데올로기 연구”를 제창하며, “북한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 연구를 넘어, 북한 민중의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재구성하고 북한문화가 어떻게 주체를 구성하는가를 규명하는 것”⁶⁾이야말로 북한 문화연구의 지향이라고 본다.

조선희의 장편 『세 여자』⁷⁾는 1920년대 사회주의 여성혁명가들의 생애를 다룬 역사소설이다. 작품은 ‘20세기의 봄’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1920년대 사회주의 세례를 받은 식민지 조선의 걸출한 여성운동가인 주세죽

5) 김성보, 「비판적 한반도학의 시각으로 본 북조선 연구」 『동방학지』 제190집 (2020), 6쪽.

6) 오창은, 「북한 연구에서 북한 문화연구로」 『문화과학』 제96호 (2018겨울), 42쪽.

7) 조선희, 『세 여자』 (서울: 한겨레출판, 2017; 2020특별판).

(1901-1953?), 허정숙(1902-1991), 고명자(1904-1950?) 등, 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여성서사’이다. 이 여성서사는 익히 알려진 남성 혁명가에게 가려지고 발화되지 못한 여성혁명가의 일상과 내면을 부조함으로써 관음증과 호사 취미⁸⁾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했다. 3.1운동 직후부터 1990년대 초반 남북한의 시간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일본과 미국 등지를 무대로 삼은 이야기는 ‘모단(毛斷)걸’을 ‘못된 걸’로, ‘못된 걸’을 ‘모던걸’로 호명해온 가부장적 시선과 통념을 넘어서며, 남성 중심의 역사 기술을 채우는 조직, 이념 중심의 거대서사 대신, 이들 여성혁명가들이 품었던 높은 이상과 망국으로 마주한 최저낙원의 미시서사들을 재현해냈다.

『세 여자』를 지탱하는 이야기와 플롯은 허정숙이라는 ‘여성의 관점’이다. 그녀는 ‘조선의 콜론타이’로 불릴 만큼 스캔들로 풍미한 1920년대의 여성사회운동가였다. 그러나 그녀는 검거와 투옥으로 점철된 사회활동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주장했고 화북조선독립연맹에 들어가 항일 무장빨치산 활동에 가담했으며 북한의 여성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한 실천적인 여성정치인이기도 했다. 휴전체제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몰락을 예감한 박헌영이 젊은 아내와 두 아이를 그녀에게 부탁하는 장면(818-819쪽)과, 8월 종파투쟁의 격랑 속에 그 자신도 구금될 처지에 선 장면(825-826쪽)은 북한정치의 격랑 속에 “혁명의 젠더와 ‘젠더의 혁명’을 동시에 질문해야 했던 여성혁명가”⁹⁾의 면모를 작가가 공들여 재현한 대목이다.

8) 『삼천리』(1931.6)에서 다룬 「현대여류사상가들-붉은 연애의 주인공들」은 여성운동가들의 삶 자체를 대표적인 호사 취미를 보여주는 사례다. ‘공산주의자 여성’은 그들의 사상과는 무관하게 ‘문란한 성욕의 화신’으로 추문화되었다. 박성은, 「조선희 소설 『세 여자』에 재현된 항일공산주의자 여성의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48호 (2019), 365쪽.

9) 오혜진, 「서평-여성혁명가 서사와 ‘사회주의’라는 오래된 미래」 『여성문학연구』 제43호 (2018), 383쪽.

조선희의 『세 여자』가 보여준 여성혁명가서사의 방대한 규모와 성취는 작가 개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운동사와 지성사, 여성학, 북한학, 분단사회학이 거둔 학지(學知)의 바탕과 총량없이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여성의 관점’ ‘여성이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재현의 주체가 되는’ 이 문제적 측면은, 남성 중심의 거대서사를 개인과 일상의 수많은 개인들의 미시서사로,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들의 개별적인 서사를 활성화한다는 데 있다. ‘여성’을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재현 주체로 내세우는 작업은 ‘소수자로서의 성별과 계급과 지역, 학벌, 성적 지향 등에서 차별과 타자성을 낮설게 경험하게 만들며 인식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다.’¹⁰⁾ 문학과 문화의 담론장에서 ‘여성’이라는 관점의 차용(借用)은 인종주의, 성차별, 국가주의, 군사문화 등과 관련하여 억압 받는 소수자들의 예외적인 입지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문화정치의 실천과 동등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¹¹⁾

최근에 간행된 두 권의 책, 『혁명 속 여성, 여성 속 혁명-북한의 여성 문학』(이하, 『북한의 여성문학』으로 표기함)과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하 『살아남은 여자들』로 표기함)은 ‘북한의 여성서사’를 의제로 삼은 북한여성의 문학과 문화연구에서는 최전선에 놓인 흥미로운 작업이다. 두 저작은 그러나 ‘북한 여성서사’를 다루는 방식에서 크게 다르다. 전자가 문헌중심주의에 기초한 꼼꼼한 읽기의 엄밀성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연구자의 여성적 관점이 문화기술지 방식을 빌려 여성생애사를 다시 쓰는 문화실천적 글쓰기의 외양을 보여준다. 관점과 태도가 크게 다르지만 ‘북한의 여성서사’를 천착한 이 두 권의 노작에 담긴 함의와 가치는 함께 짚어볼 만하다.

10)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2005), 21~22쪽.

11) 정희진, 위의 책, 241~270쪽.

2. 『북한의 여성문학』은 8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여성학의 성과와 맞물려 있는 노작이다.¹²⁾ 이 저작은 여성문학을 제창했던 의제화의 동력을 북한문학이라는 영역으로 옮겨놓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 저작은 ‘고난의 행군’ 이후 전개된 북한사회의 변화 추세와 맞물려 여성작가의 출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북한문학장의 변화를 포착해온 오랜 학문적 내공의 결과물이다.

‘북한문학장의 권력화된 남성성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재정위할 수 있다’는 저자들의 논지¹³⁾는 ‘고난의 행군 이후’ 격렬한 사회 변동을 겪은 북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서 연유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의 약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지위 변화, 김정은체제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강국을 지향하는 추세 속에 등장한 여성과학자들의 서사 등은 저자들이 북한 여성작가를 중심으로 놓고 북한 여성서사를 분석하며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주요한

12) 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복원과 함께 시작된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역사는 여성의 관점으로 여성작가와 여성작품의 발굴과 평가하여 남성 위주의 문학사를 극복한다는 지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문학론과 관련된 총론적 저서는 다음과 같다. 유계분, 『페미니즘의 경계와 여성문학 다시 읽기』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서울: 민음사, 2002); 이덕화, 『한국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서울: 예림기획, 2005); 심진경,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한국여성문학학회 편,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서울: 소명출판, 2008); 김양선, 『경계에 선 여성문학』 (서울: 역락, 2009);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서울: 소명출판, 2012); 구명숙 외, 『한국여성작가자료집』 전6권 (서울: 역락, 2013);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1920-3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더정치』 (서울: 소명출판, 2017); 조연정, 『여성 시학, 1980-1990』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1) 등.

13) 김재용은 90년대 북한 여성소설에 담긴 여성서사가 현모양처에서 벗어나 여성의 정체성 찾기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와 민족으로 귀환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김재용, 『북한문학에서의 여성과 민족 그리고 국가』 『분단구조와 북한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0), 250~259쪽.

근거이자 세목들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여성작가들은 『조선문학』이라는 문학 장으로 대거 진입했다. ‘여성문학’의 흐름이 북한의 문학장에서 공식화된 것이 2000년대 이후임을 떠올려 보면,¹⁴⁾ 이 책은 북한 여성작가들의 소설 텍스트를 꼼꼼히 읽으면서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문제, 여성서사의 윤곽을 조망해낸 값진 성과임에 틀림없다.¹⁵⁾

저자들은 소설 텍스트가 가진 다성성에 주목하여 ‘꼼꼼한 읽기’¹⁶⁾를 통해 ‘여성작가가 재현해낸 여성서사’에서 여성이라는 주체의 특징과 여성 문제를 주목하며 여성문학의 존재 가능성을 타진했다.¹⁷⁾ 저자들은 지금까지 북한문학을 독해해온 당 정책과 현실정치의 변화에 주목하는 방

14) 리창유,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탐구정신-지난해 하반기도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두고」 『조선문학』 2008.3.

15) 북한의 여성문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조된다. 김현숙, 「북한 문학에 나타난 여성 인물 형상화의 의미」 『여성학논집』 제11권 (1995); 이주미, 「북한 문학을 통해 본 여성 해방의 이상과 실제」 『한민족문화연구』 제8권 (2001); 최영석, 「여성 해방과 국가적 기획-북한 문학에서의 여성 재현」 『현대문학의연구』 제23권 (2004);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17권 (2007); 임옥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여성·모성·조국애 양상」 『여성문학연구』 제18권 (2007); 오창은, 「북한에도 페미니즘 소설이 있을까」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 생활』 (과주: 서해문집, 2020).

16)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의 연원은 러시아 형식주의와 미국 신비평에서 구할 수 있다. ‘문학비평가(연구자)의 임무는 ‘문학성’을 규정하는 작업이므로 일상 언어와 다른 문학언어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문학론은 미국 신비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술적 장치이자 자족적 존재로서의 텍스트에 주목하여 실제 저자와 극적 발언자의 구별(리처즈 I. A. Richards), 텍스트의 비준거적 언어(non-referential language)로서의 특징에 주목하는 한편, 텍스트의 역사성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신비평이론의 기본적 관점이었다. 이상섭,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클리어드 브룩스, 이경수 역, 『잘 빛어진 향아리』 (서울: 홍성사, 1983); 한국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하)』 (서울: 국학자료원, 2006), 715-716쪽.

17) 이상경, 「국가사회주의와 여성해방의 긴장, 손지연 편, 『전후 동아시아 여성서사는 어떻게 만날까』(서울: 소명출판, 2022), 48쪽.

식에서 벗어나 여성정책의 변화와 맞물린 여성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문학의 시기를 ‘해방 이후의 여성문학’(1부),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문학’(2부)로 대별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로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변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저자들은 ‘여성 작가’ ‘소설’로 한정시켜 북한 여성정책이 가진 ‘억압과 해방’이라는 이중성이 여성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작동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논의의 중심에는 해방 이전부터 여성문학을 제창한 임순득이 있다. 임순득은 1940년대 초반 일본어로 쓴 소설에서조차 친일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사상적 긴장과 민족적 성찰을 감행했으며 근대문학의 역사에서 여성문학론을 처음 주창한 작가였다. 이런 공과를 근거로 저자들은 그녀를 북한 여성문학의 기원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 작가로 전제한다.¹⁸⁾ 임순득은, 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북한문학과 문화장에서 처음으로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의 긴장’이라는 인식틀을 제시한 작가이다.

저자들은 임순득의 소설 「작업반원들」 「어느 한 유가족의 이야기」를 전후복구 시기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의 원형으로 꼽는다.¹⁹⁾ 저자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등장한 김자경 소설의 여성서사에서 발견되는 특징인, 국가와 민족으로 회귀하지 않는 여성의 개인적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의 기원으로 임순득의 소설로 전제했다.²⁰⁾ 60년대 천리마시기를 거쳐 70년대 김일성 유일체제 시기, 80년대 후반 국가사회주의 몰락 시기까지 여성문학의 형세는 임순득이 지향했던 ‘혁명 속 여성’의 문제의식과 지향을 약화시켰거나 국가주의적 모성으로 호명하는 굴절과 변용의 시기를

18) 김재용 · 이상경, 『혁명 속 여성, 여성 속 혁명-북한의 여성문학』 (서울: 소명출판, 2022), 23~29쪽.

19) 위의 책, 44쪽.

20) 위의 책, 50~51쪽.

거쳤다는 게 저자들이 기술한 논지의 큰 흐름이다. ‘여성해방’의 급진적 제안이었던 콜론타이의 여성론이 1950년대 후반 문학장에서 퇴조한 것도 임순득의 퇴장과 무관하지 않으며, 8월 종파투쟁 이후 집단지도 체제의 몰락과 함께 북한의 여성서사는 전사회적 동원체제와 공업화에 따른 현실 앞에 ‘혁명의 여성’이라는 여성문학의 테제 대신 국가주의에 포획된 여성으로 이행해 갔다고 보며 이정숙의 소설 속 여성서사에서 그러한 징후를 찾아낸다. 이정숙의 소설에서 여성서사의 양상은 여성 주체의 독립성 문제,²¹⁾ 원칙에 충실한 여성상, 양성 평등과 진정한 사랑²²⁾ 등과 같은 문제로 크게 위축되면서 ‘여성 문제’의 충위가 달라진다. 70년대 주체문학 시기의 강복례의 소설에서 여성서사 역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수퍼우먼 유형의 여성상을 제시하는 면모,²³⁾ 80년대 후반 등장한 최상순의 소설에서는 도시-농촌의 격차 문제를 바라보는 여성적 관점이 남성의 출세지향 세태를 비판하는 태도²⁴⁾에 주목한다.

북한의 여성문학이 임순득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 이후’이다. 저자들은 2부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문학’에서 이 점을 명시해 나간다. 저자들은 국가사회주의의 쇠퇴 속에 여성서사가 국가를 후경화하고 여성의식을 전면화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 점이야말로 여성문학의 가능성이라고 본다. 김일성 주석 급서(1994) 이후 최근까지 30년의 기간 동안 『조선문학』이라는 북한의 문학장에는 여성작가들이 대거 진입하여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친다. 김혜영, 박혜란, 리라순, 최련, 변월녀, 강귀미, 김자경, 이정옥, 김은희, 김성희와 같은 여성작가들이 그 주인공이다. 북한의 문학장에 여성작가들이 대거 진입한 배경에는 배급

21) 위의 책, 52~57쪽.

22) 위의 책, 57~63쪽.

23) 위의 책, 64~72쪽.

24) 위의 책, 73~96쪽.

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그 시스템을 관장 해온 가부장적 남성권력이 약화, 퇴조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저자들은 국가사회주의의 시스템 약화와 남성 가부장적 권력의 퇴조에 다성적 발화가 가능한 소설 장르에서 특히 공식적 언술 이면에 놓여 있던 비공식적 삶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특징에 주목한다.²⁵⁾ 저자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남성이가부장적 권력이 퇴조하면서 실화문학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영웅들의 면모가 여성작가들의 여성서사에 반영되면서 여성문제와 여성의식의 폭넓은 변화를 낳은 것으로 본다.²⁶⁾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소설에서 여성과학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양상은 “육체적 노동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산업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과학기술의 정신적 노동이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며 생겨난 현상으로 서술되며,²⁷⁾ 이를 여성서사의 관점에서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여성문학의 등장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로 본다. 이는 또한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강국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층위에서 여성의 내밀한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소설의 다성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저자들의 논지이다. 과학기술 시대에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대간의 인식 편차를 다룬 한정아의 『녀학자의 고백』,²⁸⁾ ‘고난의 행군’을 성찰하며 미국의 경제 봉쇄와 무역제재를 소재로 삼으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담은 김혜영의 소설,²⁹⁾ 여성과학자의 연구활동과 양립하기 어려운 가사 및 육아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여성의 주도적 역할을 서사화한 리라순의 작품

25) 위의 책, 102~103쪽.

26) 위의 책, 104~115쪽.

27) 위의 책, 117쪽.

28) 위의 책, 126~176쪽.

29) 위의 책, 177~199쪽.

과³⁰⁾ 김자경의 소설³¹⁾ 등등이 구체적인 사례다. 이들의 여성서사에 등장하는 여성기술자와 과학자, 연구원들은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남성가부장적 권위와 관료제를 비판하고 국가와 민족으로 회귀하지 않는 정체성 변화야말로 여성문학의 가능성에 해당한다.

『북한의 여성문학』은 문학연구에서도 문헌주의에 입각한 ‘꼼꼼히 읽기’라는 모범적인 독해방식을 감행한다.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자들의 노력은 북한소설의 공식성이 가진 서사의 경직성을 벗어나 작가와 서술주체와 재현 대상에 이르는 ‘여성’의 관점과 여성서사의 범위 설정, 여성정책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문학장의 변화 등에 이르는 독해의 가능성을 개방해 놓았다. 이는 시론적 가치를 넘어서 체제와 이념에서 벗어나 ‘북한의 여성문학’이라는 새로운 거점 하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공과를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임순득의 여성문학론을 기원으로 삼고 2000년대에 이르는 다양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한 성과와 함께 ‘여성혁명과 혁명 속 여성’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직장에서의 사회적 독립성, 연애와 사랑, 결혼과 육아, 국가 정책과의 관련, 사회 변화 속 여성상)이 가진 공식성과 통시적 변화를 함께 포착하려 했다는 점에서 북한문학의 시야와 논의를 확장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문학이라는 자료의 공식성’이 가진 특징과 해석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소설텍스트의 꼼꼼한 읽기를 실천한 독해방식은 바흐친이 내세운 ‘이야기의 다성성’을 전제로 삼고, 여성 특유의 섬세한 일상적 감각과 문화적 위치를 파악하며 텍스트의 이면을 포착하는 데 특히 유용해 보인다. 또한 여성의 관점에서 기술된 여성서사가 페미니즘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관료화되고 국가주의에 입각한 표현의 공식성을 우회하며 이

30) 위의 책, 200~240쪽.

31) 위의 책, 241~286쪽.

이야기에 담긴 ‘일상의 무게’와 ‘속삭임’을 읽어내는 데 유용한 도구이자 인식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저자들이 ‘북한의 여성문학’이나 여성작가의 소설 속 여성서사만을 다루는 방식은 시론적 시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논의의 폭은 좀더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있다. 남성작가가 재현한 여성적 타자성을 수렴하는 문제도 그러하지만,³²⁾ 문헌중심주의에 입각한 여성작가의 여성서사에 한정된 지도그리기(mapping)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소설’에 한정된 ‘여성서사’ 속 ‘여성문제’라는 범주는 텍스트를 엄밀하게 읽기에는 적절하나 통시적 개괄이라는 구도를 제약하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공시적 현상에 대한 서술의 결핍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제시된 작품들이나 작가의 사례가 제한적이다 보니 표본의 대표성을 검증하지 못한 점이나 해석의 과잉이나 일반화의 오류를 넘어설 매개항이 다채롭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3. 『북한의 여성문학』에서 드러나는 저자들의 문헌중심주의에 입각한 꼼꼼한 읽기나 북한 여성문학의 가능성 탐색과 달리, 『살아남은 여자들』에서는 여성의 일상적 관점에서 성찰적 문화기술지를 표방하며 북한여성이라는 텍스트를 다시 쓰는 태도가 인상적이다. 저자는 북한의 TV드라마와 영화, 문학작품과 수기, 중국의 북한 접경지대와 한국, 일본 등에서 만난 탈북민과 조선적 자이니치 등을 면담 조사하며 축적한 구술 증언자료 등도 폭넓게 활용하여 북한여성의 서사를 ‘다시 쓴다(re-write)’.

저자는 앞서 간행한 책에서 이미 정동이론을 근거로 우리 시대의 분단

32) 오테호는 생물학적 여성의 작품만 다루는 방식을 비판하며 남성작가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여성적 타자성을 수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테호, 「타자의 타자성 발견, 젠더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 여성문학의 다층성 추적」 『문학인』 제9호 (2023봄), 463~464쪽.

현실을 다룬 바 있다.³³⁾ 저자는 “분단 문제를 사람들의 경험, 인식, 감정 등의 층위”³⁴⁾를 분석하는 자신의 작업을 “문화정치적 참여와 실천”³⁵⁾이라 천명하며, 분단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의 공시적 의미를 질문하며 관행과 통념을 전복하는 실천적 문화연구의 실체를 드러냈다. 『살아남은 여자들』은 『갈라진 마음들』에서 기술한 문화실천을 ‘성찰적 문화기술지’로 다시 쓴 작업이다. 이 작업은 북한여성의 생애사 다시쓰기(1부 ‘북조선의 살아남은 여자들’) 외에도, 연변에서 만난 탈북여성과 일본에서 조우한 ‘조선적’의 자이니치, 재일 탈북여성의 삶과도 대면하며 ‘분단’이라는 의제가 시공간적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점을 절감하고(2부 ‘경계에서 만난 여자들’), 경계에서 만난 여성들을 연구하는 자신과도 대면하며(3부 ‘분단, 북조선 여자들, 그리고 나’) 자기문화기술지를 써 나간다.

1부에서 시도된 북한여성의 ‘생애사 다시 쓰기’에서는 인상적인 대목 하나가 있다.

“정금아, 공장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된단다. 노임은커녕 배급도 잘 나오지 않는 직장에서 버티지 못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좀더 자유롭게 살렴. 난 가끔씩 내가 ‘영웅’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단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일은 없었겠지만 그런 삶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 의무만 가득한 삶보다는 조금이라도 내 꿈과 권리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너도 이제는 자신을 속이는 일은 그만했으면 한다. 어찌 당과 국가, 수령님이 나보다,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니!”³⁶⁾

33)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분단의 사회심리학』(파주: 창비, 2020)

34) 위의 책, 7쪽.

35) 위의 책, 8쪽.

36) 김성경, 『살아남은 여성이 세상을 만든다-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파주: 창비, 2023), 51-52쪽

북한여성 서사의 ‘공식대본’ 아래 감추어진 ‘은닉대본’³⁷⁾을 이토록 직설적으로 드러낸 경우는 흔치 않다.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³⁸⁾를 기반으로 천리마시기를 소재로 한 영화와 소설 내용을 참조해 가며 ‘다시 쓴 북한여성의 서사’는 ‘길건실-확실’의 성장기와 가족사이다. ‘다시 쓴 여성 서사’는 어머니와 딸, 두 세대에 걸쳐 있다. 길건실-확실의 여성서사는 ‘로동영웅’ 칭호를 받은 여성의 공식성과는 별개로 비공식성을 바탕으로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서간문 양식이 가진 내면성을 한껏 부각시켜 놓는다. 편지에서 건실은 딸에게 애뜻한 소회를 드러내며 같은 여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조언한다. ‘당과 국가, 수령이 나와 내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속삭임’이야말로 북한의 공식텍스트에서는 발화되기 힘든 깊은 속마음에 해당한다.

저자의 ‘여성서사 다시 쓰기’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직면한 배급제의 와해 같은 국가사회 시스템 붕괴 속에서 발화될 직한 개연성을 한껏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 저자가 초점화시킨 북한여성의 서사는 ‘국가와 민족으로 회귀하지 않는’ ‘개인과 가족’이라는 정체성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 정체성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 공식적으로는 표출된 적 없었던, 감추어진 일상과 감각이다. 또한, 이 정체성이야말로 체제나 이념과 상관없이 나날의 삶을 살아가는 ‘남도 북도 아닌’ ‘페미니즘적 문화적 위치’에서 번역해낸 ‘여성’의 ‘일상적 감각’이자 ‘내면’에 해당한다. 이 여

37) 지배권력의 억압성이 크면 ‘공식대본’은 의례화된 기술상 특징을 보인다(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역,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은닉대본』 (서울: 후마니타스, 2020), 29쪽). 그러나 공식대본 안에서는 검열과 억압을 회피하기 위한 가면신사의 포장술도 가동된다. 공식대본의 의례화된 표현 주변에는 일화와 경험들을 분할해서 서술하거나 불온성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자기검열의 글쓰기도 가동된다. 유입하, 「개작의 미적 행로와 자기검열의 글쓰기」, 『작가의 신화-한국소설과 이야기의 사회문화사』 (서울: 역락, 2022), 15~20쪽.

38) 길확실,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1).

성의 내면은 속삭임으로 표명될 뿐 침묵을 가장할 수밖에 없는 비공식성의 불온한 재현에 가깝다. 이 젠더상은 체제와 이념 아래 억압된 개인의 욕망과 정념의 개인을 한껏 드러내며 새삼스러우나 ‘우리와 같은 인간 존재’라는 자각으로 이끈다. 어머니가 딸에게 바라는 자유로움의 권고는 저자가 확보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추출해낸 값진 통찰의 한 대목을 이룬다. 이는 체제와 이념을 불문하고 건강하고 유익하게 삶을 성취해 나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속내인 셈이다.

인용에서 언급한, 1부 1장에서 저자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토로한 「길건실-확실」의 생애사나³⁹⁾ 1부 2장 「만자, 혜원」 또한 공식대본을 바탕으로 속삭임의 은닉대본을 전면화하는 방식으로 다시 쓴 여성서사이다. 특히 만자의 딸 혜원의 사업과 몰락은 설송아의 단편 「진옥이」와 「제대군인」을 참조하면서 북한여성의 인터뷰에서 얻은 탈북이주여성의 삶을 허구적으로 서술한 생애사이다.⁴⁰⁾ 만자의 딸 혜원은 창광옷공장 부기원으로 일하면서 ‘어머니의 손재주와 아버지의 인맥’을 활용하여 가내의복공장을 세워 큰돈을 쥐고 마침내 물류와 교통요지인 평성에서 전

39) 1장 1부의 주인공인 길건실-확실은 화전민 딸로 태어나 혹독한 가난을 겪다가 해방을 맞았고, 토지개혁과 민주개혁 조치로 토지를 분배받고 인민학교를 다녔다. 그녀의 가족은 전쟁의 기간을 힘겹게 보내며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으나 영예군인 가족으로 핵심계층에 편입되었다. 길건실은 공장노동자가 되었고 1956년 말, 마침내 천리마작업반장이 된다. 그녀는 작업반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으나 압박감도 가지고 있었다(『살아남은 여자들』, 21~45쪽). 『천리마 작업반장의 수기』에서 길건실-확실은 ‘천리마 로동영웅’으로서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작업반장으로서 높은 책임의식을 발휘한 영웅적 존재의 완결된 서사구조 안에서 실천적 공과를 부각시켰지만 저자는 ‘전후복구시기를 지나 돌연히 노동자가 된 북한여성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쓰기’를 시도했다(『살아남은 여자들』, 55쪽).

40) 김성경, 『살아남은 여자들』, 85~88쪽.

국 단위 장사에 뛰어든다.⁴¹⁾ 혜원은 평성에서 남편의 인맥을 활용하여 유류 암시장사업에 뛰어들고 많은 자금을 모았지만 2009년 화폐개혁으로 된서리를 맞고 중국으로 떠난다.⁴²⁾ 1부 3장 ‘수련’ 또한 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2006)를 근간으로 다시 쓴 여성 서사이다. 다시 쓴 수련의 여성서사는 평범한 과학자 가정의 일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세대간 갈등을 넘어 과학을 중시하는 당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과학자의 길을 택하는 영화 속 주인공 수련의 행로⁴³⁾와는 달리, 다시 쓴 여성서사에서 수련은 해외 파견 노동자의 길을 택하여 중국에서 외화벌이로 일상의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새로운 여성상이다(3장).⁴⁴⁾ 해외 이주노동자의 삶을 선택한 북한여성의 기술물을 다시 쓰는 작업에서 저자는 한반도 일대에 넘쳐나는 ‘프리캐리아트’의 면모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는 수필과 편지, 일기와 같은 ‘에고 다크먼트(ego-document)’가 지닌 비공식성을 활용하여 북한 여성의 공식성과 비공식성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성찰적 사고를 감행하고 있다. 공식성을 축소하고 비공식성을 전경화하는 방식에서 차용한 ‘여성의 관점’은 재현 대상이었을 때는 발화될 수 없는 하위주체인 북한여성을 ‘지금 여기’에서 재현의 주체로 재배치하는 데 유용하다. 저자는 2부 ‘경계에서 만난 여자들’에서 조중국경지대에서 살아가는 조선족의 삶과 탈북여성들의 면모와 일본에서 만난 조선적 자이니치와 제일 탈북여성들이 지닌 경계인의 공간성에 주목한다. 접경지대에서 관찰되는 조선족 사회의 향방을 숙고하는 대목에서는 북한 인민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하며 조선족 공동체가 부모의 경제 이주를 경험하며 무력감과 소외의식에 빠진 점⁴⁵⁾을 놓고, “남북을 이어주는

41) 위의 책, 66쪽.

42) 위의 책, 56~79쪽.

43) 위의 책, 109~111쪽.

44) 위의 책, 89~108쪽.

가장 중요한 가교에 균열”과 북한 인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효과⁴⁶⁾를 우려한다. ‘저자로서의 기술자’의 우려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만 그치지 않고 페미니즘적 관점을 가동하며 ‘공감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여성연구자라는 주체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민족과 중국 국민이라는 긴장 속에 살아온 조선족의 경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거쳐 북한의 상황과 분단이라는 맥락 안에서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한다. 그 발견은 조선족 커뮤니티의 쇠퇴가 탈냉전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화가 촉발한 것이라는 점,⁴⁷⁾ 이같은 추세로는 북한 여성이주자들이 노후화된 조선족 사회에서 조력자의 처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탄식을 낳는다.⁴⁸⁾

일별해본 문화기술지의 내용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조중 접경지대와 국내외에서 만난 북한 이주여성의 실상이다. 이들이 보여준 가족 부양의 모성의지와 강인한 생존력(5장 ‘어머니라는 이름의 안팎’),⁴⁹⁾ 일본에서 조선적을 가진 자이니치가 남북관계에 따라 배제와 포용을 오가는 유동적인 경계인적 위치나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정체성(6장)⁵⁰⁾ 등을 서술하는 저자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은 문화기술지가 현장조사에서 단련된 이해와 공감을 사회적 무관심과 무지를 환기하는 ‘문화실천적 글쓰기’의 면모이다. 저자는 ‘정동의 문화정치적 차원’ 대신 분단의 현실에서 범람하는 월경과 이주의 상황에 놓인 탈북여성들의 삶을 재현해내는 ‘여성생애사 다시 쓰기’와 병행하여 연구자로서 ‘자기문화기술지’를 서술하는 ‘여성연구자라는 주체’의 면모를 드러내 보인다.⁵¹⁾

45) 위의 책, 130쪽.

46) 위의 책, 131쪽.

47) 위의 책, 131쪽.

48) 위의 책, 132~139쪽.

49) 위의 책, 140~180쪽.

50) 위의 책, 189~190쪽.

문헌 연구가 아닌 공식대본의 재해석을 통한 ‘다시 쓰기’의 문제적 측면은 ‘분단체제’가 가진 초국성에 주목하는 한편, 제3세계 여성사회학자라는 자기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 주체라는 페미니즘의 문화적 위치에서 나온다. 그 위치는 제1세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자신의 제3세계적 문화정체성을 체감하는 데서 출발하여 제1세계에 속한 그들만의 정체성과 문화적 위치를 기반으로 설정했던 인종주의와 차별의식, 식민주의적 사고나 이로부터 수립한 의제 설정과는 전혀 다른 인식 지평을 열어놓는다. 또한, 이 성찰과 인식은 여성을 재현의 대상이자 서술주체로 만든다.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견하고 이해하고 공감한 ‘여성의 삶’이라는 텍스트는 남과 북이라는 문화적 위치가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일상의 감각으로 인간 존재의 가치를 다시 쓰는 문화실천의 행위를 낳는다. 여성의 생애를 다시 쓰기 위해 저자는 “나의 타자되기”⁵²⁾를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 및 탈북여성의 생애 다시 쓰기를 통해 ‘타자의 주체화’를 감행한다. 여성생애사의 다시 쓰기는 ‘완결되지 않은/완결 될 수

51) 3부에서 저자는 만주에서 태어난 내력에 대한 시어머니의 오랜 침묵과 대면한다. 저자는 시어머니에게서 가족 안에서조차 식민지 조선인의 경험과 마주하며 분단의 오랜 연원이 된 만주라는 식민 공간의 현장과 접촉한다. 시어머니의 만주에서의 기억에서는 위계화된 일본인, 조선인, 중국들의 구별과 서열을 감지하기도 한다. 또한, 해방이 되자 시어머니는 시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너 남쪽 농촌으로 귀국했던 기억과 대면하면서 저자는 시어머니의 기억으로부터 조중 접경지대에서 탈북여성들과의 연계된 지점을 발견한다. 시어머니와 탈북여성의 연계된 기억은 연구자로서 기억을 성찰하는 자기 정체성과 문화적 위치를 성찰하게 해준다. 이처럼 저자는 자신이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담화 끝에 마주한 파편적 기억으로 재구되는 생애로부터 분단의 역사성을 발견하며 ‘분단된 나라’의 현재적 지점과 만난다(김성경, 『살아남은 여자들』, 207~271쪽). 시어머니와의 기억여행은 연구자의 성찰이 잊혀진 개인의 역사적 궤적으로 통해 무수한 개인들의 기억들로 이루어진 ‘역사의 두터운 끈’을 형성하는 셈이다.

52) 위의 책, 240쪽.

없는' 과정을 담는다는 점에서 늘 완결된 구조를 벗어난다. 다시 쓰는 여성생애사는 '쓴다는 행위'의 남성적 특권을 내려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⁵³⁾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비극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연대와 제후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유연성을 내장하고 있는 셈이다.

저자가 보여준 '자기성찰적 문화기술지'의 면모는 『갈라진 마음』에서 확인했듯이, 유학 시절 제1세계 학술장에서 겪은 경계인으로서 경험을 한층 예각화한 것으로, 오랜 면담조사에서 단련된 반성적 사유와 성찰이 낳은 '저자로서의 여성연구자'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같은 경험들을 성찰하고 이를 스스로 재구성하는 자기문화기술지의 면모(8장 '경계인, 연구자')는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의 견고함 아래서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벗어나 속삭임마저 어려운 속마음을 전면화하거나, 조종 접경지대에서 만난 이주여성들과의 면담, 탈북민의 심층면담에서 이해와 공감 속에 발화되지 못한 은닉대본 속, 날것 그대로의 일상 감각과 '신체성the bodiness'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4. '북한 여성서사'에 관한 두 저작은 '여성의 관점'을 규정하는 방식에서나 특성, 서술방식과 서술 방향이 크게 다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두 권의 노작이 '북한학'이라는 연구 방향과 학문 정체성을 초과하며 성찰하게 만드는 것은 커다란 미덕이다. 이들 저작에서 '여성'의 관점은 남성 중심의 주류담론이 가진 관행적 사고와 편견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두 권의 저작에서 여성서사를 독해하거나 다시 쓰기를 시도하는 작업은 견고한 권력의 실체와 위계들, 문화적 경계와 균열을 징후적으로

⁵³⁾ 본래 전기나 자서전은 공적 영역을 장악해온 남성작가의 문화적 소산이었다. 자서전의 어원이 자기(auto)의 삶(bio)을 기록하여 의미를 남기려는 남성의 권력화된 욕망을 반영한다. 김경일, 『근대 여성 12인, 나를 말하다-자서전과 전기로 본 여성의 삶과 근대』 (서울: 책과함께, 2020), 34쪽.

포착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일이며, 이데올로기와 공식성이라는 누빔집 아래 놓인 속삭임과 욕망과 미세한 정체성 변화, 국가 민족이라는 거대 서사로 회귀하지 않는 주체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일이다. 두 저작에서 공유하는 ‘여성의 관점’은 문학에서든 사회학에서든 간에 견고한 제도와 규범 아래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에 주목하고 이해와 공감을 감행하는 전복적 시도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권력화되고 폭력화된 중심을 해체, 전복하며 온갖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해방적 주체를 꿈꾸는 불온성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이렇듯, ‘여성이라는 서술 주체’는 분단과 전쟁, 장기지속되는 분단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하위주체들의 문화적 입지 하나를 차지한다. 북한 여성들이 겪은 일상 속 제반 경험을 서사로 재현한 점에 주목한 저자들은 흥미롭게도 여성서사가 가진 다성성의 특징을 북한문학의 이해를 높이는 전복적 독해로 원용하며 ‘북한의 여성문학은 가능한가’라는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전작으로 답아냈다. 북한 내부의 공식자료의 하나인 『조선문학』과 『조선녀성』이라는 미디어장에서 선별한 소설텍스트 속 여성 서사를 통해 북한문학의 이해를 확장시키려는 저자들의 시도는 권력화된 문학장에서 가능성으로만 포착되었던 여성문학의 실체와 윤곽을 처음 포착한 값진 성과이다. 문학연구에서 소설텍스트가 가진 다성성을 매개로 삼아 북한문학 속 여성서사의 시대적 추이와 여성문제를 취급하는 경로와 텍스트 읽기의 엄밀성은 『북한의 여성문학』이 가진 미덕의 하나다. 북한 여성정책의 추이와 관련된 북한문학 내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텍스트의 꼼꼼한 읽기로 돌파하며 ‘여성문학’이라는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여 북한문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도와 골격을 보여준 값진 성과는 향후 과제로 오체르크(또는 실화문학)나 시, 가사, 비평 등의 장르에서 산출된 여성서사를 수렴하는 과제를 남겨 놓았다.

‘텍스트의 꼼꼼히 읽기’라는 문헌중심주의의 축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상태에서, 『살아남은 여자들』은 ‘자기문화기술지’라는 글쓰기를 통해 북한 여성서사를 넘어 ‘여성생애사 다시 쓰기’라는 문화실천적 글쓰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글쓰기는 앞서 언급한 『세 여자』처럼 규범과 제도와 위계화된 삶의 문화적 위치와 전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한반도를 넘어 인간해방을 꿈꾸는 상상적 글쓰기의 전복성마저 수용하고 있어서 더욱 인상적이다. 특히 이 저작에서 감행된 ‘여성생애사 다시쓰기’는 권력의 미디어정치로 잘 포장된 이데올로기의 누빔점 아래 살아가는 하위주체들의 일상과 꿈을 드러내며 분단의 모순을 가로질러 수많은 경계 위에 선 여성의 예외상태를 재현해내고자 한다. 이 글쓰기는 소설 텍스트를 포함한 각종 문헌들을 수렴하고, 현장조사와 면담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억여행’을 표방하는 사회학자 조은의 『침묵으로 지은 집』(2003)과 『일상은 얼마나 가볍고 또 무거운가』(2022)을 연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이 가진 여성서사의 전통을 잇고 있어서 흥미롭다.

두 저작은 북한여성에 관한 문학연구와 문화연구의 다른 지향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모범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북한학이 보여준 국가 및 국제정치, 정책과 이데올로기 등에 편중된 연구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저작은 여성서사를 통해 북한여성의 일상과 내면을 살피려는 최근의 연구성과이나 이미 ‘문화연구로서의 북한문학’의 가능성과 ‘지역학으로서의 한반도학’의 지향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경일, 『근대 여성 12인, 나를 말하다-자서전과 전기로 본 여성의 삶과 근대』, 서울: 책과함께, 2020.
-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분단의 사회심리학』, 파주: 창비, 2020.
- 김성경, 『살아남은 여성이 세상을 만든다-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파주: 창비, 2023.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0.
- 김재용 · 이상경, 『혁명 속 여성, 여성 속 혁명-북한의 여성문학』, 서울: 소명출판, 2022.
- 박순성 · 홍민 편, 『외침과 속삭임-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 손지연 편, 『전후 동아시아 여성서사는 어떻게 만날까』, 서울: 소명출판, 2002.
- 오창은,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 생활』, 파주: 서해문집, 2020.
- 유입하, 『작가의 신화-한국소설과 이야기의 사회문화사』, 서울: 역락, 2022.
- 이상섭,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2005.
- 조선희, 『세 여자』, 서울: 한겨레출판, 2017; 2020특별판.
- 조은, 『일상은 얼마나 가볍고 또 무거운가』, 서울: 파이돈, 2022.
- 조은, 『침묵으로 지은 집』, 파주: 문학동네, 2003.
- 한국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하)』, 서울: 국학자료원, 2006.
- James C. Scott, 전상인 역,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은닉대본』, 서울: 후마니타스, 2020.
- 김성보, 「비판적 한반도학의 시각으로 본 북조선 연구」 『동방학지』 제190집, 2020, 1~24쪽.
- 김재용, 「북한의 여성문학」 『한국문학연구』 제19권, 1997, 151~168쪽.
- 리창유,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탐구정신」 『조선문학』 루계725호, 2008, 22~25쪽.
- 박성은, 「조선희 소설 『세 여자』에 재현된 항일공산주의자 여성의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48호, 2019, 361~392쪽.

- 오창은, 「북한 연구에서 북한 문화연구로」 『문화과학』 제96권, 2018, 38~56쪽.
- 오탈호, 「타자의 타자성 발견, 젠더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 여성문학의 다층성 추적」 『문학인』 제9호, 2023봄, 463~464쪽.
- 오탈진, 「서평-여성혁명이 서사와 '사회주의'라는 오래된 미래」 『여성문학연구』 제43호, 2018, 379~385쪽.
- 이봉범, 「냉전과 북한연구,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안팎」 『한국학연구』 제56호, 2020, 29~83쪽.
-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17권, 2007, 349~385쪽.
- 이상경, 「임순득 소설의 '전쟁미망인'과 북한의 '사회주의협동화」 『근대서지』 제24권, 2021, 360~396쪽.
- 마틴 와이저, 「난 국가보안법 피해자」 『오마이뉴스』 (온라인), 2021년 11월 1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1942(2023년 5월 2일 검색))

유임하 (Yoo, Im-ha)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한국문학 연구에서 분단과 전쟁, 반공주의, 검열 및 자기검열 등의 의제와 함께 북한소설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작가의 신화-한국소설과 이야기의 사회문화사』, 『한국문학과 반공주의』, 『개작과 검열의 사회문화사』(공저), 『북한의 문화정전, 총서 '불멸의 력사'를 읽는다』(공저) 『북한문학의 지형도』(공저), 『한국소설과 분단이야기』, 『한국문학과 불교문화』 등이 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령

제정 2009년 5월 6일

개정 2020년 1월 7일

개정 2020년 4월 14일

◇ 제1장 논문투고 및 게재

1. 『통일과 평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한다.
2. 『통일과 평화』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투고 지침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를 『통일과 평화』 편집위원회(tongil-journal@snu.ac.kr)를 통해 제출한다.
5. 투고논문의 첫 페이지에 투고자 이름은 물론 본문 가운데 ‘필자’, ‘졸고’ 등으로 하여, 투고자의 신상을 짐작하게 하는 그 어떤 단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6. 제출된 원고는 익명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통보된다. 원고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7. 교정쇄는 필자에게 2회 또는 3회에 걸쳐 전달되며,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8. 투고논문에는 연구윤리서약, KCI문헌유사도검사결과서를 첨부한다. 유사율이 높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로 한다. 논문의 형식을 갖춘 서평과 현장보고는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

로 하되, 단순 서평과 현장보고는 50매 내외로 한다.

10. 논문 제출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통일과 평화』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게재와 함께 논문의 저작권을 통일평화연구원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저자(들)가 자신의 다른 연구물에 『통일과 평화』 게재 논문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를 본 논문으로 인용한다.

◇ 제2장 원고 작성 요령

[제목, 목차, 저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통일과 평화』 최근 간행호에 따른다.
2.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저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요약문, keywords,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3.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5.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본문]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논문 요약문]

1. 논문 요약문은 단순 요약이 아닌 해당 논문의 독창적인 견해 및 연구사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작성한다.
2. 국문요약문은 원고지 3매, 영문요약문은 2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3. 영문요약문은 외국인 학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평화연구원 원어 민의 교정 단계를 거친다.

[인용문]

1.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 ’ >로 한다.
 2.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연도를 명기한다.
-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 8. 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98~299쪽.

[표, 그림]

1.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3-3, 그림 2-5)를 부여한다.
2.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각주]

1.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2.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 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운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20~28쪽.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20쪽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세균 외 공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최종태 · 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36쪽.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 25 - 34.

- F. Parkinson 저, 정규섭·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 (서울: 일신사, 1994), 15쪽.

(2) 논문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명』 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6~51쪽.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 - 583.

〈단행본 수록〉

- 김세균,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 247.

- 북한자료의 경우

예)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한 담화(1970년 5월 22일)」, 사회과학출판사 편,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12~136쪽.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체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권영진, 「한국전쟁당시 북한의 남한점령지역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의과 석사학위논문, 1990), 20~35쪽.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0~15쪽.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 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脫北청소년들」 『조선일보』 (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3.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 (1) 바로 앞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항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은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22쪽.
 - Suh, Kim Il Sung, p. 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270쪽.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 577.
4. 구술 자료의 전거는 면담자, 구술자, 면담일자, 면담장소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다. 특별한 경우 구술자명을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일반적으로 국문단행본, 영문단행본, 국문논문, 영문논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4.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 작성 양식과 동일하되, 출판지와 출판사명의 괄호가 제거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107~128쪽.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통일과 평화』 연구윤리 규약

제정 2009년 5월 6일
개정 2019년 11월 20일

제1장 저자(투고자)의 연구윤리와 책임

제1조(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 평화』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제2조(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3조(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변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 ①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거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6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행위
- ②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 문헌에 포함하는 행위
- ③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④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르지 않고 재사용하는 행위

- ⑤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7조(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8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심사 의뢰)

-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1조(심사결과와 통보)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심사서 작성)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제16조(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연구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를 불허한다.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한다.
-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2.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